

2025년 한말연구학회·제주대인문과학연구소·백록어문교육학회 겨울 공동 학술대회

주제: 섬, 바다, 그리고 언어

일시: 2025년 1월 16일(목) ~ 17일(금)

장소: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2호관 에듀홀, 2315 강의실

주최: 한말연구학회 ||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 백록어문교육학회

주관: 제주대학교 || 제주연구원 || 한말연구학회

2025년 1월 16일(목) 학술대회 첫째 날			
일정	발표 및 내용		비고
개회식 2025. 1. 16. (13:00~13:50)	13:00 ~ 13:30	등록 및 접수	회원 전원
	13:30 ~ 13:50	인사말 개회사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제주연구원) 한말연구학회장 김양진(경희대)	정수현(호서대)
1부 2025. 1. 16. (13:50 ~ 14:30)	13:50 ~ 14:30	<특강> •발표주제: 그 섬에 가고 싶다 •발표자: 한성우(인하대)	사회자: 박동근(대진대)
		휴식: 14:30 ~ 14:40	
2부 2025. 1. 16. (14:40 ~ 16:40)	14:40 ~ 15:20	<주제발표 1> •발표주제: 제주바다가 키운 제주어와 문화 - '물질, 물때, 채취 행위'를 대상으로 •발표자: 김순자((사)제주어연구소) •토론자: 김보향(제주대)	사회자: 정대현(협성대)
	15:20 ~ 16:00	<주제발표 2> •발표주제: 해양 지명어 분석 연구 - 바위에 대한 후부 지명소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지숙(경성대) •토론자: 문성호(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6:00 ~ 16:40	<주제발표 3> •발표주제: 해양언어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어촌의 언어 경관에 관한 연구 •발표자: 양민호(부경대) •토론자: 신성철(순천대)	
휴식 16:40~16:50			
3부 2025. 1. 16. (16:50 ~ 17:50)	16:50 ~ 17:20	<제1 분과 방언학> •발표주제: 자음 연쇄에서의 음운 현상 고찰 - 제주방언의 'ㄹ' 복사를 중심으로 •발표자: 권미소(제주학연구소) •토론자: 양세정(제주대)	제1 분과 사회자: 신우봉(제주대) 제2 분과 사회자: 박혜란(인천대)
	17:20 ~ 17:50	<제2 분과 한국어교육> •발표주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 기사 분석 - 토픽 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자: 고경민(건국대), 남재우(건국대) •토론자: 이소영(성균관대)	
휴식 및 포스터 발표: 11:00~11:30			
2025년 1월 17일(금) 학술대회 둘째 날			
일정	발표 및 내용		비고
4부-1 2025. 1. 17. (10:30 ~ 11:00)	10:30 ~ 11:00	<제3 분과 문법론> •발표주제: 품사 통용 교육의 전개 양상 연구 - <학교문법통일안> 이후의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발표자: 허원영(제주대), 최대희(제주대) •토론자: 정수현(호서대)	제3 분과 사회자: 윤혜영(한라대) 제4 분과 사회자: 오재혁(건국대)
		<제4 분과 음운/문법론> •발표주제: 제주방언 '검다' 계열 색채어 형용사 연구 •발표자: 김신자(제주대) •토론자: 현혜림(제주학연구소)	
4부-2 2025. 1. 17. (11:30 ~ 12:00)	11:30 ~ 12:00	김나라(이화여대) 장미(경희대) 이몽여(제주대) 이은정(제주대) 강선지(제주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 읽기 전략 연구 -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중 언어 교류의 한 고찰 - 역병(疫病)류 어휘를 중심으로 제약을 기반으로 한 문법형태소 - 선어말어미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절 표지 오류 분석 『순천김씨묘출토연간』에 나타난 어휘 연구 - 특이성을 보이는 용언을 중심으로
		•발표주제: 비판적 언어학의 목표와 한국적 적용 •발표자: 김병건(건국대) •토론자: 윤재연(호서대)	•발표주제: 한국어의 어중 경음화 현상의 변이 양상 - 메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발표자: 한명숙(안양대) •토론자: 김연희(대진대)
폐회식 2025. 1. 17. (12:00 ~ 12:30)	12:00 ~ 12:20	연구윤리교육	사회자: 조태린(연세대)
	12:20 ~ 12:30	폐회사	

차 례

【특 강】(제1 발표장, 에듀홀)

한성우(인하대)	그 섬에 가고 싶다	3
----------	------------------	---

【주제발표】(제1 발표장, 에듀홀)

김순자((사)제주어연구소)	제주바다가 키운 제주어와 문화 - ‘물길, 물때, 채취 행위’를 대상으로	29
김보향(제주대)	토론	45
김지숙(경성대)	해양 지명어 분석 연구 - 바위에 대한 후부 지명소를 중심으로	47
문성호(제주대)	토론	65
양민호(부경대)	해양언어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어촌의 언어 경관에 관한 연구	67
신성철(순천대)	토론	75

【제1 분과 방언학】(제1 발표장, 에듀홀)

권미소(제주학연구센터)	자음 연쇄에서의 음운 현상 고찰 - 제주방언의 'ㄹ' 복사를 중심으로	79
양세정(제주대)	토론	93
장정민·배영환(제주대)	20세기 초 제주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 『朝鮮語方言の研究(1944)』를 중심으로	95
최영미(경동대)	토론	107

【제2 분과 한국어교육】(제2 발표장, 2315 강의실)

고경민·남재우(건국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 기사 분석 - 토픽 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111
이소영(성균관대)	토론	125
김관태(제주대)	호칭어를 활용한 사회언어학적 문화 교육 방안 연구	127
정대현(협성대)	토론	145

【제3 분과 문법론】(제1 발표장, 에듀홀)

허원영·최대회(제주대)	품사 통용 교육의 전개 양상 연구 - <학교문법통일안> 이후의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149
정수현(호서대)	토론	165
김병건(건국대)	비관적 언어학의 목표와 한국적 적용	167
윤재연(호서대)	토론	177

【제4 분과 음운/문법론】(제2 발표장, 2315 강의실)

김신자(제주대)	제주방언 '겁다' 계열 색채어 형용사 연구	181
현혜림(제주학연구센터)	토론	199
한명숙(안양대)	한국어의 어중 경음화 현상의 변이 양상 - 메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201

김연희(대진대)	토론	223
----------	----------	-----

【포스터 발표】

김나라(이화여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 읽기 전략 연구 -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227
장 미(경희대)	한·중 언어 교류의 한 고찰 - 역병(疫病)류 어휘를 중심으로	228
이몽여(제주대)	제약을 기반으로 한 문법형태소 - 선어말어미를 중심으로	229
이은정(제주대)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절 표지 오류 분석	230
강선지(제주대)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 나타난 어휘 연구 - 특이성을 보이는 용언을 중심으로	231



특 강



차례

01 들어가는 말

02 바다와 언어의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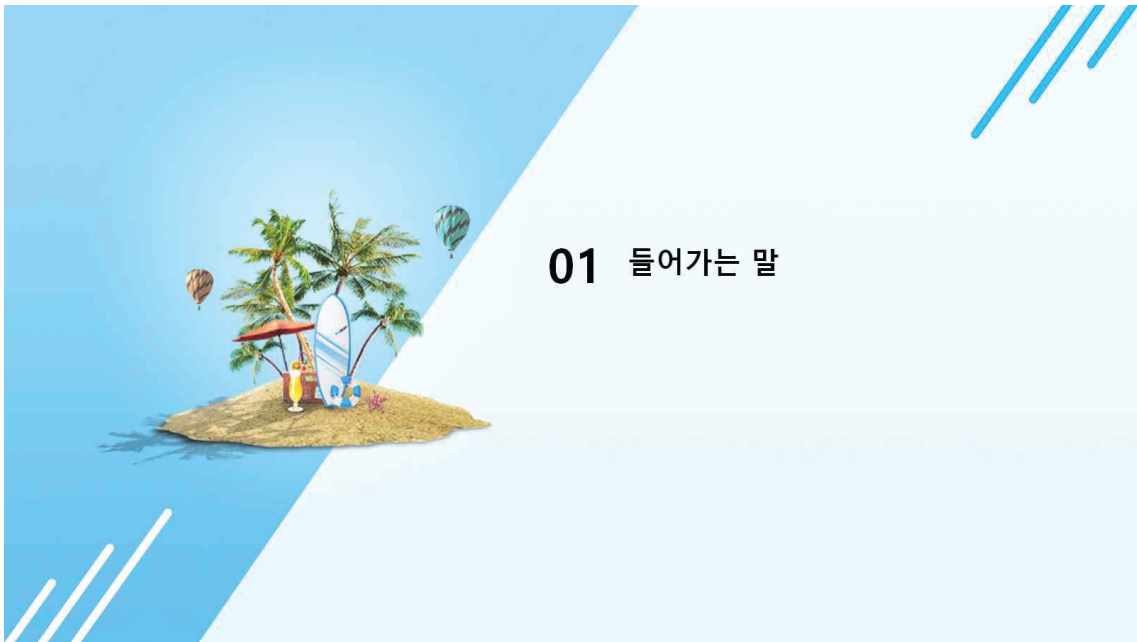
03 뱃길과 언어의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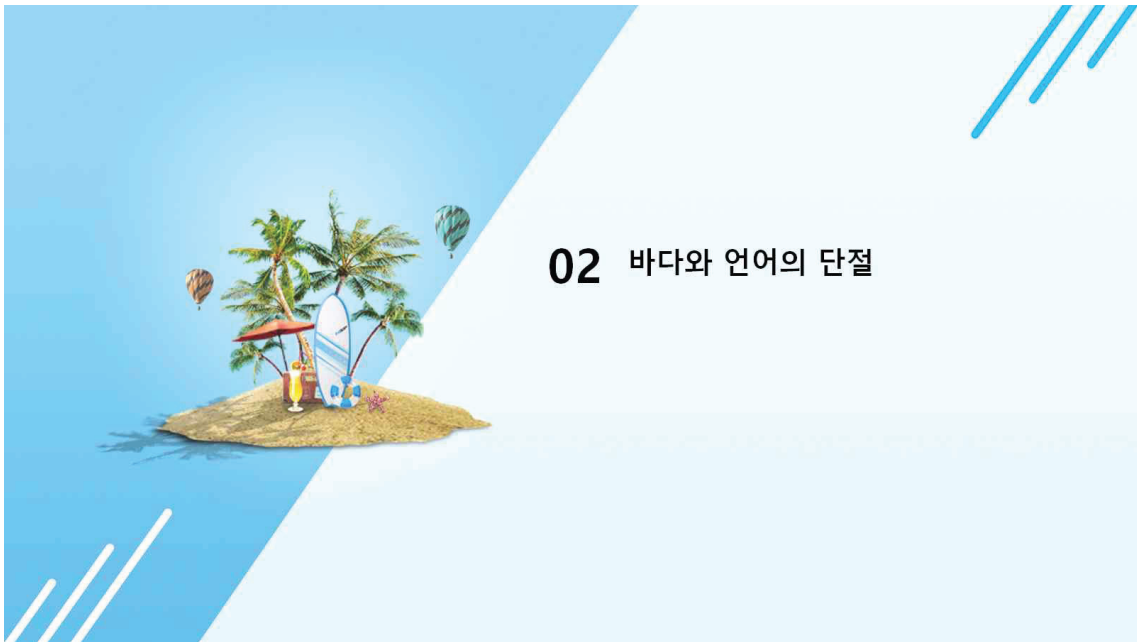
04 항구와 언어의 융합

05 섬과 '따로 또 같이'

06 제주와 또 하나의 우주







02 바다와 언어의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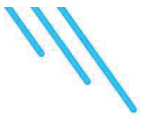


남이섬

석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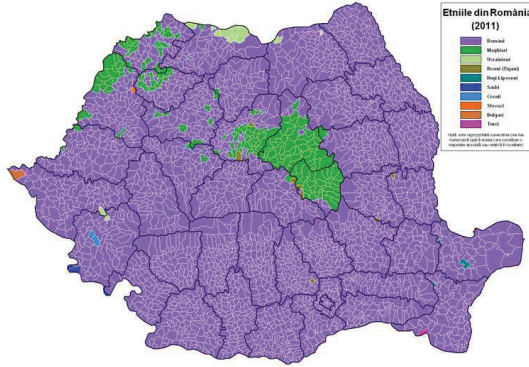
백령도

바다 - 섬 - 고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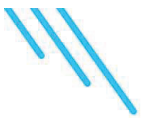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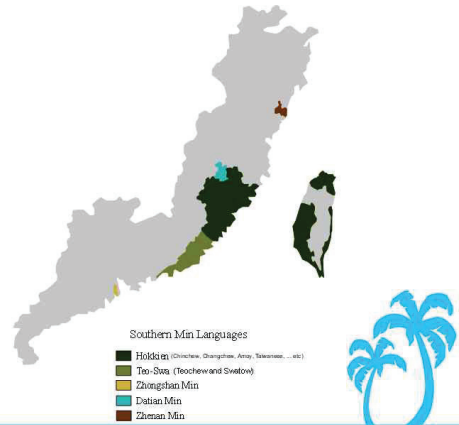


언어의 섬

루마니아어와 마자르어



민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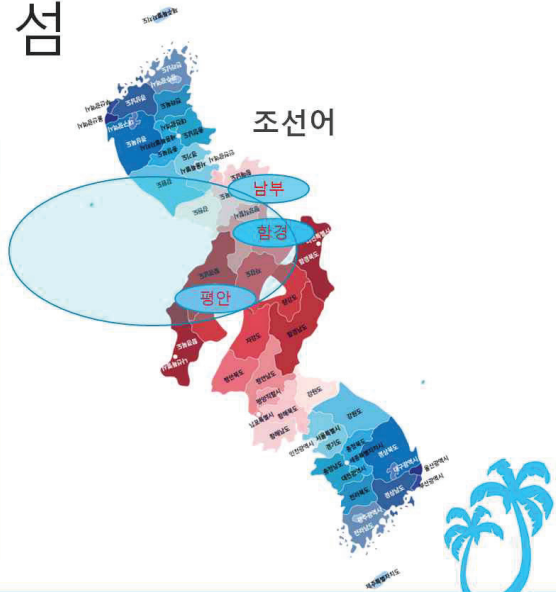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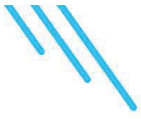
언어의 섬

고려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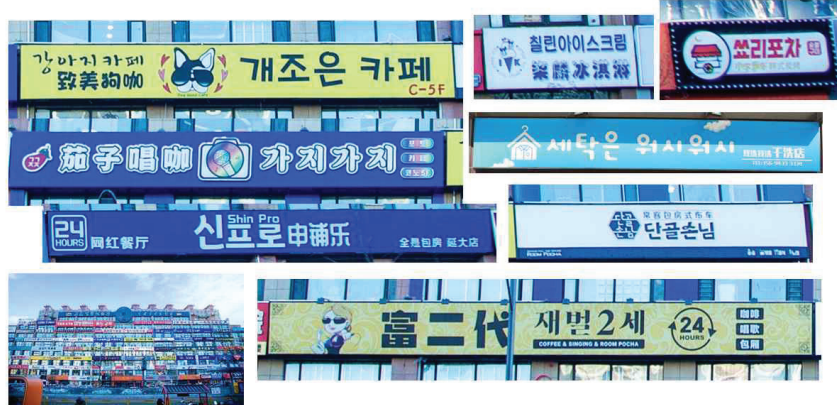
조선어





언어의 섬

연길



언어의 섬

타슈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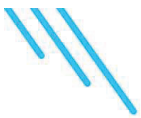


언어의 섬

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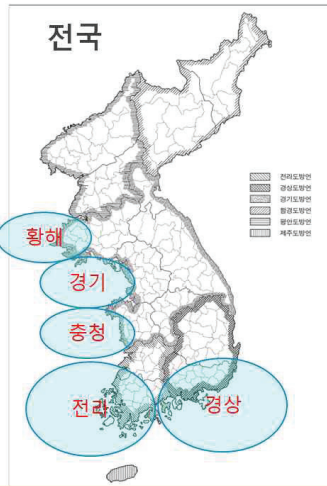


광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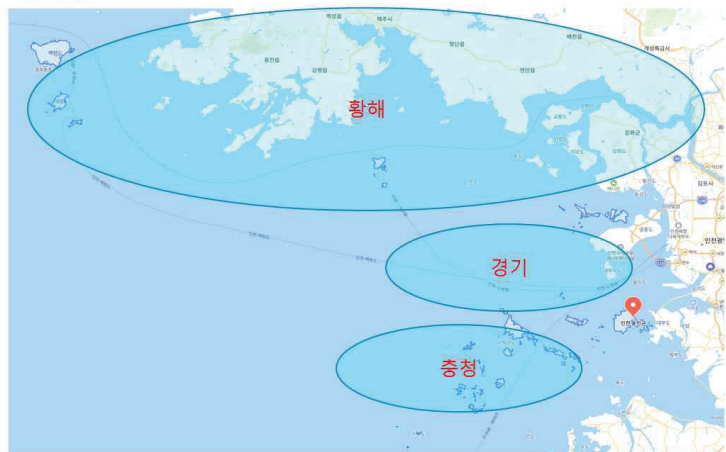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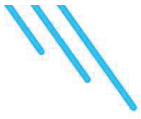
섬과 방언구획

전국



용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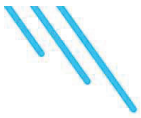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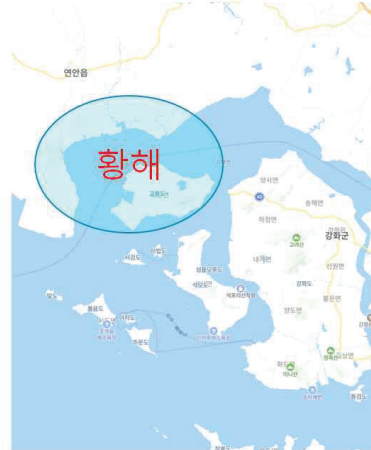


섬과 방언구획

추자도



교동도



섬과 언어의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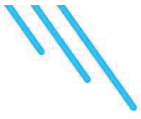
시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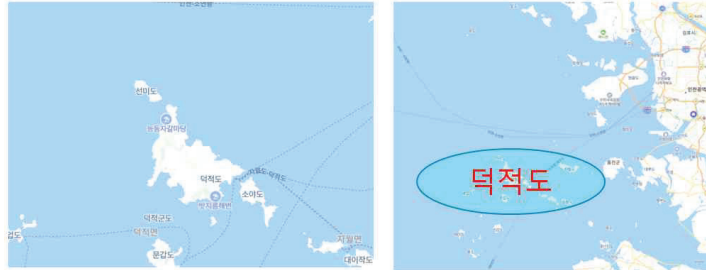
적근채(赤根菜) - 시금치

송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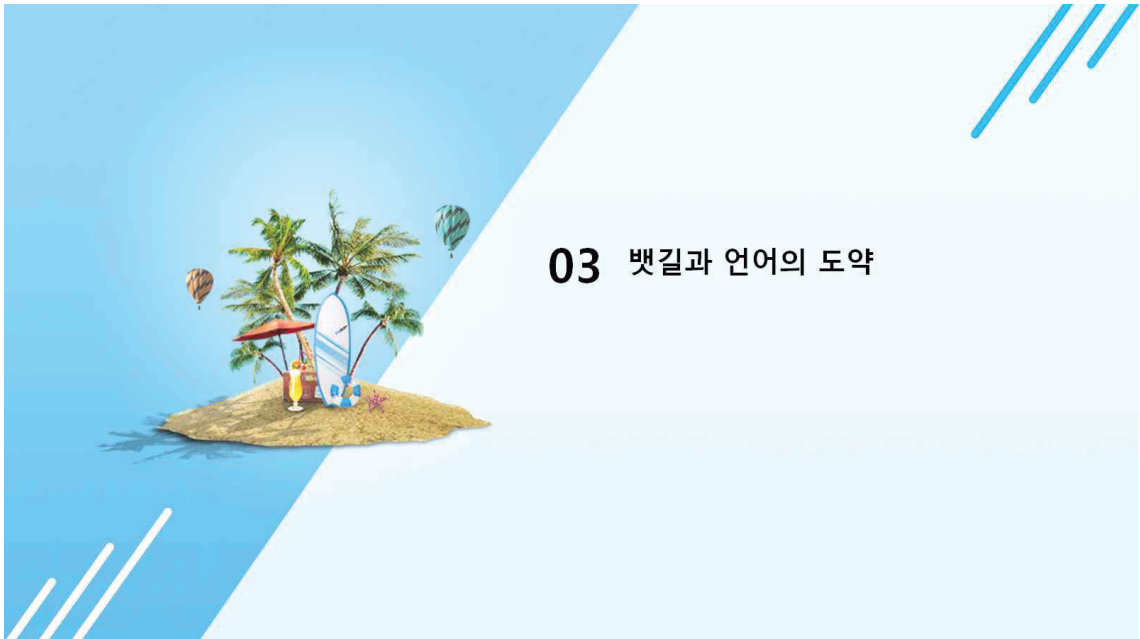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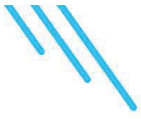
섬과 언어의 단절



풀, 풀등 - 얇은 바닷 속에 있는 모래섬
감예 - 바닷물이 나간 상태
농지다 - 고기를 전혀 못 잡다

글바탕 - 바위로 된 해저
양참 - 대조(大潮)
갠번 - 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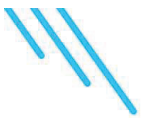
바다와 단절

바다가 육지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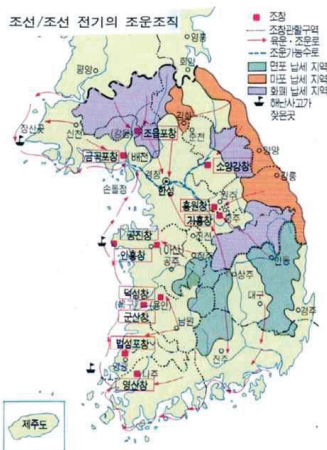
얼마나 멀고 먼지 그리운 서울은
 파도가 길을 막아 가고파도 못갑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아아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어제온 연락선은 육지로 가는데
 할 말이 하도 많아 목이 메어 못합니다
 이몸이 철새라면 이몸이 철새라면
 뱃길에 훨훨 날아 어데론지 가련만은
 아아 바다가 육지라면 눈물은 없었을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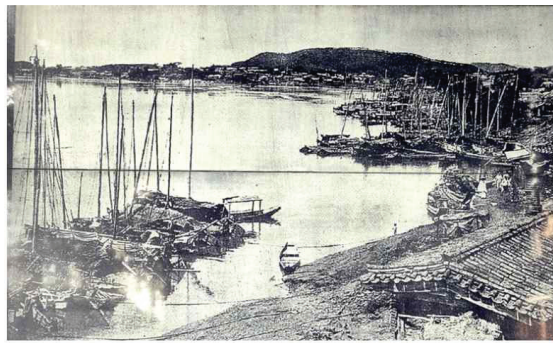


물과 뱃길

조운



마포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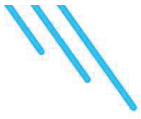


물과 뱃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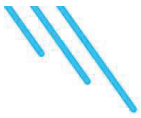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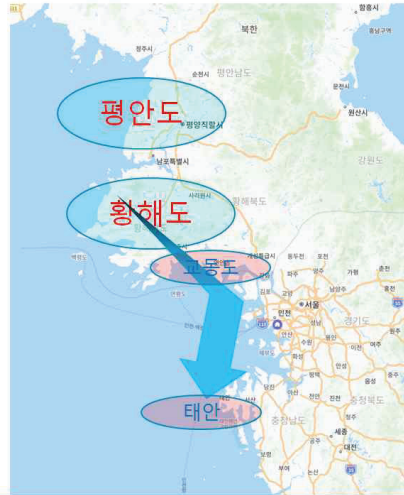
섬과 뱃길





섬과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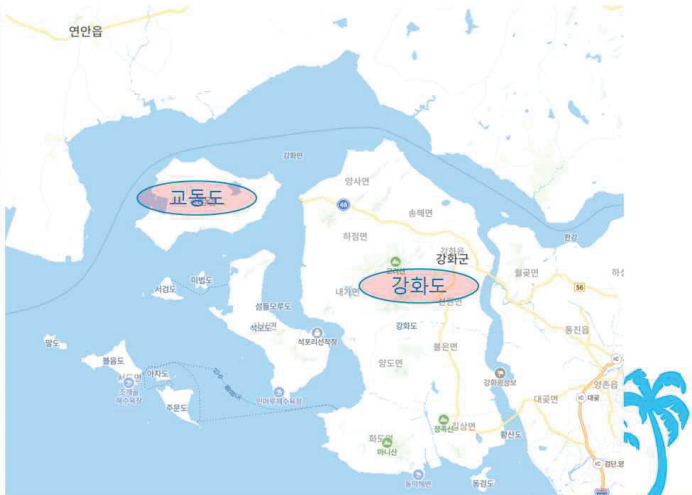
오다(來) - 오나 - 오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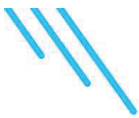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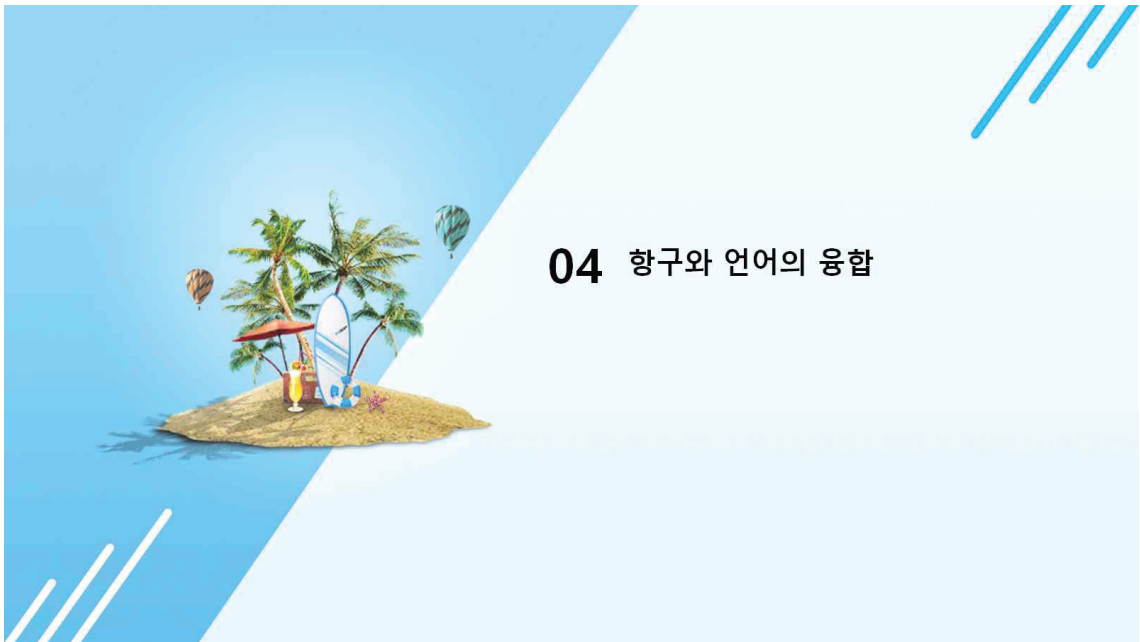


섬과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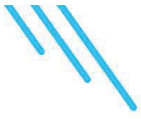
-앗/엇-
-갓-
-잇/이시-
-시까





항구





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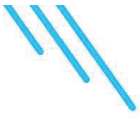


섬

덕적도 파시

연평도 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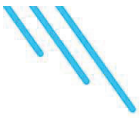


섬

덕적도의 말

뱀자, 배임자 - 선주
 건뱀자 : 가선주로서 항선을 맡은 사람.
 작사 - 해변가에 있는 주막
 씹판 - 상구선, 상고선
 영자 - 선원 중 최고령자
 이자 - 선원 중 두 번째 고령자

동사 - 일반 선원
 화장(火匠) - 주방 선원
 두깃잡이 - 사궁의 봉급
 깃반잡이 - 영자의 봉급
 한깃잡이 - 동사의 봉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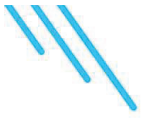
섬

덕적도의 충청 방언

바대 - 바다(海)
 니알 - 내일(來日)
 너물 - 나물
 조구 - 조기
 민에 - 민어

농에 - 농어
 가남쇠 - 나침반
 했으라우 - 했어요
 했간디? - 했나?





섬

덕적도의 남부 방언

늪절, 늪, 놀 - 파도의 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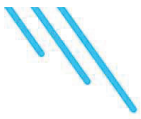
두지 -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소낙비가 오는 날씨

하단 - 상여(喪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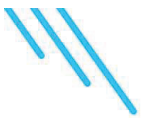
홀목 - 손목



05 섬과 '따로 또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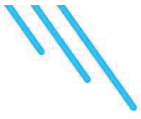


백령도 섬과 언어의 융합



영종도 섬과 언어의 융합





그 섬에 가고 싶다

영종도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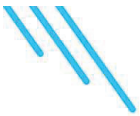
백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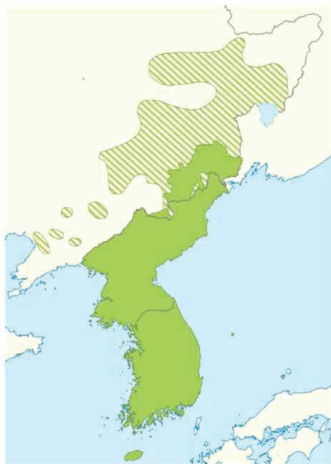
06 제주 또 하나의 우주



濟州島/濟州道



제주어



제주어는 한국어인가?

제주어는 언어인가?

제주어는 소멸하고 있는가?

현재의 제주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미래의 제주 사람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제주어

홈 > 오피니언 > 칼럼

유네스코, 제주어를 소멸 위기 언어로 분류하다

차 서귀포신문 | © 입력 2023.08.25 09:05 | 댓글 0

'소멸위기 제주어 막자' 제주교육청, 사라져가는 제주어 보전

김현환 기자 | 입력 2024.12.31 10:59 | 댓글 0

[제주=뉴스프리존]김현환 기자=제주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초·중·고 10개교를 대상으로 제주어 노래를 제작하여 제주어 교육을 운영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멸하는 제주어를 살리는 방법, 이젠 어떻습니까?

[주장] 인터넷에서 인식되지 못하는 아래아 모음이 제주어의 공유를 막고 있다

24.12.09 10:34 | 최종 업데이트 24.12.09 10:37 | 장승환(jdhotel) |

홈 > 오피니언 > 기고

소멸 위기 제주어를 살리기 위해 아래아 표기를 포기하자

차 장승환 news@jpost.net | © 입력 2024.12.01 13:00 | 댓글 8



제주어 소멸 위기,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박예진(장보사화·15) | 입력 2017.04.05 18:51 | 조회수 1186 | 댓글 0

제주도의 발원인 제주어는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제주어는 지난 2010년 유네스코로부터 소멸 위기 언어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절멸 위기에 처한 언어'로 지정되었다. 제주어가 편성 받은 4단계는 '이대로 두면 소멸될 게 확실한 언어'라는 의미로, 다음 5단계가 '소멸 언어'인 것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다.

제주어가 소멸 위기에 처한 핵심적인 원인은 '변종 제주어'에 있다. 최근 제주도의 젊은층이 주로 사용하는 '엔' 접사를 비롯한 '니' 접사 등은 모두 변종 제주어이고, 유네스코에서는 변종 언어 사용자들을 모두 언어 사용 인구에서 제외시킨다. 변종 제주어를 사용하는 10대와 20대 계층의 대다수가 제주어 사용 인구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제주도 인구의 38.8%를 차지한다. 심지어는 70대, 80대 제주도민이 변종이 아닌 제주어의 사용자 중 약 7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제주도 인구의 9.4% 불과하다.

제주어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도내 제주어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현재 제주어 사용 인구는 노년층에 밀집되어 있는 역피라미드 형태이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제주어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층의 사용 인구를 늘려 제주어 보존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디어'를 활용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와 일본에선 소수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아이누어 방송국'은 소수언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고, 자연스레 '아이누어'의 사용 인구가 증가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JBS(SBS 제주방송)' 혹은 다른 방송국에서의 제주어 프로그램 제작을 장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주어를 보존할 수 있는 해결책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해결책을 고안하기 전에 실행되어야 할 것은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뒷받침하여 제주어를 보존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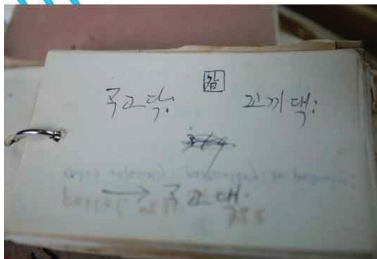
제주어

제주어는 변하지 않는가/않아야 하는가?

누가 제주어를 변화시켰는가?

누가 제주어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누가 이중언어 화자를 만들었는가?



제주어 문장과 단어 및 그 뜻 자료: 제주어사전 애플리케이션

소랑이나 호계 마썸
사랑이나 힘시디요

무싱 거엔 고틀더가
워라고 말하던거요

날 도랑 가썸서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어뎡 살아 썸썸과
어뎡게 살고 있습니까

나 모심 물르쿠과
제 마음 모르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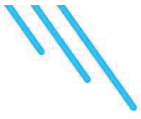
그거부사
아블싸

곤밥
험밥, 썰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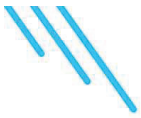
개
그레

고득이
가만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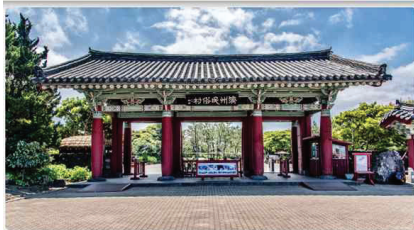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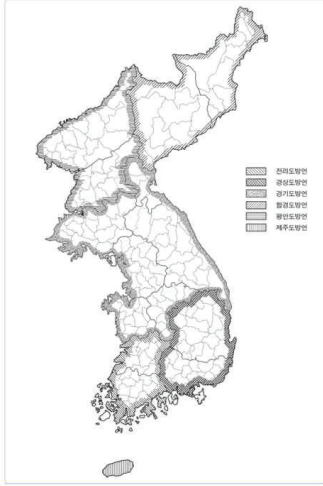
제주어



제주어



한국어



모든 한국어는 변화한다.

모든 한국어는 방언이다.

한국어와 한국인은 운명을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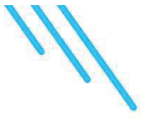
한국인이 살아 있으면 한국어도 살아 있다.

제주도에 사람이 있으면 제주어도 살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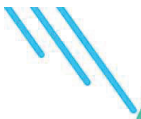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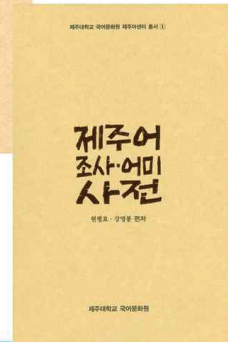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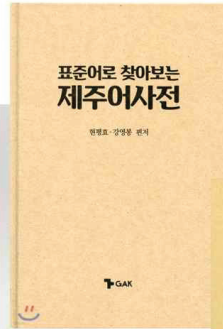


제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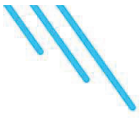


제주어



제주항





옛 그곳 - 지금 이곳
옛 사람 - 지금 사람
옛말 - 지금 말





주제 발표

제주바다가 키운 제주어와 문화

- '물질, 물때, 채취 행위'를 대상으로 -

김순자(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 차례 >

1. 머리말
2. 물질 관련
3. 물때 관련
4. 채취 행위 관련
5. 맺음말

1. 머리말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제주해녀는 바다를 터전으로 물질을 하면서 삶을 꾸려간다. 해녀를 제주에서는 '좁녀, 좁네, 좁수, 해녀' 등으로 부른다. 기량에 따라서는 '대상군, 상군, 중군, 하군'이라 하고, '좁녀'나 '좁수' 앞에 접두사 '상-, 중-, 하-'를 붙여 기량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물질 기량이 아주 낮은 해녀를 '돌파리, 툄파리, 똥군'이라는 특이한 어휘를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귀덕리에서는 기량이 낮은 해녀를 가리켜 '엇자리'라고 하였다. 이런 해녀들이 바닷가와 깊은 바다를 누비며 창출한 다양한 어휘와 문화는 제주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주해녀들이 바다 밭을 일구며 만들고 전승해 온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물질, 물때, 채취 행위'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바다 관련 어휘와 문화가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 지도 확인할 것이다. 이는 제주도방언은 제주 지역의 동서와 남북의 차이가 크다는 연구 결과¹⁾에 기인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제주시 동쪽 해안마을 1곳, 제주시 서쪽 해안마을 1곳, 서귀포시 동쪽마을 1곳, 서귀포시 서쪽 해안마을 1곳 등 4개 해안마을의 현지 조사 내용 가운데 '물질, 물때, 채취 행위'와 관련한 어휘와 문화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조사는 민족지학적 방식으로 제보자들에게 채록한 구술을 한글 전사한 후에 관련 어휘와 문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논의 자료는 발표자가 2020~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며 조사²⁾한 내용 가운데 4개 지역의 '물질, 물때, 채취 행위' 관련 어휘와 문화 양상이 그 대상이다.

1.2. 조사 지역과 제보자

- 1) 김순자(2010)는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를 통하여 제주도 방언은 제주시를 중심에 두고 동과 서, 남과 북이 다른 경우가 많음을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도 방언을 동북방언, 서북방언, 동남방언, 서남방언 등 4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구획한 바 있다.
- 2) 이는 제주학연구센터가 '마을기록·해녀문화'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보고서는 2021년 <<위미 2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고은솔 김순자 고영자 오경임)과 <<귀덕1·2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고은솔 김순자 고영자 양지혜), 2022년 <<신천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고은솔 김순자 고영자 양지혜), <<일과1·2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고은솔 김순자 고영자 양지혜), <<신흥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고은솔 김순자 고영자 양지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5권으로 묶였다.

논의 대상으로 삼은 마을은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서귀포시 위미2리,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이다. 김순자(2011)에 따르면, 이 조사 지점을 제주도방언의 하위방언으로 구획할 때, 신흥리는 동북방언, 귀덕리는 서북방언, 위미2리는 동남방언, 일과리는 서남방언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서 관련 어휘를 대비해 보는 데 부합하다 하겠다.

신흥리는 제주시 동쪽 14k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제주시 조천읍의 한 마을이다. 조천과 함덕 사이에 있는 마을로 1914년 1월 7일 조천리와 함덕리에서 분리하였다. 반농반어의 해안마을로 현재는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 주소득원은 해산물, 마늘 등 일반 밭작물, 감귤이다. 어업은 14명의 해녀들에 의해 명맥을 잇고 있다. 이들 해녀는 60대 9명, 70대 4명, 80대 1명이다. 주요 채취물은 소라와 성게다. 우뭇가사리와 톳을 채취하기도 한다.

귀덕리는 제주시내에서 서쪽으로 25~27k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한림읍의 첫 마을이다. 귀덕1리, 귀덕2리, 귀덕3리 세 마을로 이루어졌다. 주민 대부분은 쪽파와 옥수수, 브로콜리 등 채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 해녀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소라, 성게 등의 물질을 하고 있다. 귀덕2리에는 한수풀해녀학교가 있어 이 마을 해녀들은 해녀 양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사 당시인 2021년 현재 귀덕1리는 30명, 귀덕2리는 37명의 해녀가 물질을 하고 있었다.

위미2리는 서귀포시에서 동쪽으로 9.8km에 위치한 서귀포시 남원읍에 속해 있는 반농반어 마을이다. 주민 대부분은 감귤 농사를 짓고 있고, 일부는 식당 등 서비스업과 목축업을 하고 있다. 제1종 어항인 위미항을 중심으로 어업도 발달해 있다. 2020년 조사 당시 45명의 해녀들이 물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13명, 70대 31명, 80대 1명이다. 주요 채취물은 소라와 성게, 우뭇가사리다.

일과리는 제주시에서 일주도로변을 따라 54.4km의 거리에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해안마을의 하나다. 일과1리와 일과2리로 이루어졌는데 주민 대부분은 마늘 농사 등 채소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해녀들은 물질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조사 당시 일과1리는 18명, 일과2리는 10명의 해녀가 물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1명, 30대 3명, 50~70대 16명, 80대 이상 8명이었다. 주요 소득원은 소라와 성게, 해삼이다.³⁾

이들 마을의 해녀를 보면 현재 물질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해녀들은 고령인데다 빠른 속도로 해녀 수가 감소하고 있어 해녀 문화와 관련 어휘 등도 빠르게 소멸하거나 변모할 수 있다. 따라서 해녀 관련 어휘와 문화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⁴⁾

제보자는 50년 이상을 물질을 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도 물질을 하고 있는 60~90대 해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60대 4명, 70대 4명, 80대 5명, 90대 2명 등 15명의 해녀를 통하여 '물질, 물때, 채취 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어휘와 문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표 1>은 제보자 정보다.

<표 1> 제보자 정보

조사마을	제보자	출생연도	조사연도
위미2리	강선	1952	2020
	양○순	1948	
	오○생	1934	
	오○만	1942	
귀덕리	김○생	1933	2021
	이○순	1936	

3) 조사 마을 소개는 주)2에 소개된 보고서와 제주도청 누리집의 '제주의 마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4) 일과1리를 예로 들면, 1992년 일과1리의 해녀 수는 35명이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9명, 50대 미만 10명, 60세 미만 12명, 60세 이상 4명이었다.(일과1리(1992). 《일과1리지》 참조. 그런데 2023년에는 절반 가까운 17명의 해녀가 줄었다. 해녀 분포도 50대 미만이 전체 해녀수의 54.2%인 19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50대 미만 해녀가 5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제주해녀 수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한편 해녀문화를 전승할 해녀들이 많지 않아 제주 관련 제주어와 문화도 위기를 맞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일과리	고○례	1949	2023
	백○옥	1949	
	양○월	1958	
	이○자	1943	
	이○순	1940	
신흥리	신○자	1957	2024
	양○자	1958	
	이○자	1956	
	현○자	1944	

2. 물질 관련

2.1. 물질, 큰물질, 무레질

‘물질’은 해녀들이 바다 물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말한다. 조사 마을 모두에서 ‘물질’이라고 하였다. 제주시 서쪽인 귀덕리에서는 ‘물질’을 ‘무레질’이라고도 하였다. 제주시 동쪽 신흥리에서는 ‘무레질’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고기무레’, ‘메역무레’, ‘오분제기무레’, ‘툃무레’처럼 ‘고기, 메역, 오분제기, 툃’에 ‘무레’를 붙여서 만든 합성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서귀포시 동쪽과 서쪽에서는 ‘무레’나 ‘무레질’이 조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한라산을 경계로 하여 북쪽에서는 ‘무레’와 ‘무레질’이 쓰이고 있는 반면, 남쪽 지역인 ‘위미리’와 ‘일과리’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어 방언차를 보이고 있었다.

‘무레질’의 ‘무레’는 ‘물’에 처격 조사 ‘에’가 단일한 명사로 재구조화 되어 굳어진 것이다.⁵⁾ 이 ‘무레’는 ‘무레질’, ‘헛무레’, ‘고기무레’처럼 파생어나 합성어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뿐 단일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용례 (1)은 해녀들의 경제 활동상과 기량을 엿볼 수 있다. “미역 흔 해 허민 밧 흐나씩 샷주게 (미역 한 해 하면 밧 하나씩 샷지.)”에서 해녀들의 경제력을 확인하고, 기량이 뛰어난 해녀들이 하는 물질을 ‘큰물질’이라고 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기량이 뛰었던 해녀들은 “막 지픈 데 나강 허주게.(아주 깊은 데 나가서 하지.)”에서 알 수 있듯이 먼바다에까지 나가 물질을 하고, 물질을 갔다가 ‘비계(두툃상어)’와 같은 큰 물고기도 잡고 와서 나눠 먹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비계’를 잡고 올 때는 해녀들이 물웃인 ‘속곳’을 벗어서 씌워서 갖고 왔다. 용례에서는 또 귀덕1리 해녀들은 물질을 심하게 하여도 귀덕2리에서는 심하게 물질을 앓고 있다. 이는 생업 환경이 바뀔에 따라 물질 한경도 바뀌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귀덕2리는 쪽과 주산지로 마을 주민들은 쪽과 등의 채소 작물을 주요 소득원으로 삼고 있다.

(1)

가. 그뎨 물질 잘허는 사름이 부자랏어. 미역 흔 해 허민 밧 흐나씩 샷주게.(위미2)

나. 물질 잘허는 사름은 막 지픈 데 나강 허주게.(일과1)

다. 물질헛 때 젤 앞이 히는 사름은 젊고 잘 히는 사름 헤렌 허주게. 게민 그 사름 조름에 어께 테와 이레 농곡 허영 짹 일렐로 가는 거라.(위미2)

라. 우리 어머니 옛날에 비계 스몹 속곳들 벗으멍 그 비계들 씌와근에 잡아난 뭍가 나도 봐난 기억이 있어. 여름에 영 씌와근에 그거를 잡는 거라. 우리 어머니가 큰물질 헤나니까.(일과2)

마. 귀덕일리렌 무레질 경 막 심허게 허여도 우린 경 안 허여.(귀덕2)

2.1.1. 헛물

‘헛물’은 해녀가 바다 물속에 들어가 소라나 전복 따위를 잡는 일을 말한다. 달리 ‘헛무레’라고도

5) 이기갑(2024), <전남 흑산 지역의 해녀 관련 어휘>(제주어연구소 개소 여덟 돌 기념 초청강연회 자료), (사)제주연구소, 11~12쪽.

한다. '헛물'은 특정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이 아니라 바다 속을 돌아다니면서 소라나 전복 따위의 해산물을 따는 일을 말한다. 이 조사에서는 '헛무레'의 쓰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2)

가. 헛물에 허는 건 거 소라. 구제기 허는 거 헛물.(귀덕2)

나. 헛물엔 허민 기자 전복이고 고둥이고 동천 몰르게. 불만 허민 밧디 갓당 물싸민 왕 물에 들곡.(위미2)

다. 옛날에 헛물 잡는 거 소라하고 전복하고. 해삼철엔 해삼 잡고 경벳긴 엇어.(일과1)

2.1.2. 고기무레, 메역(미역)무레, 툭무레, 성계물질

'고기무레'는 바다에 들어가 고기를 쏘는 일을 말하고, '메역무레'는 바다에 들어가 미역을 따는 일, '오분제기무레'는 바다에 들어가 오분자기를 채취하는 일을 말한다. '툭무레'는 툯을 채취하는 일을 말한다. 여기에서 '고기'는 바닷고기를 말하고, '메역'은 미역, '오분제기'는 오분자기, '툭'은 신흥리에서 사용하는 툯의 방언형이다. '성계물질'을 성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용례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기무레'는 보통 여름에 든다는 점이다. 우럭이나 '웁이(혹돔)'는 바위가 있는 구멍 안에서 잘 놀아서 작살로 쏘기 쉽다고 하였다. 또한 '툭무레'의 경우, 음력 2월 그믐에서 삼월까지 하는데 예전에는 '두 물찌'를 해도 다 못했는데 지금은 없다고 하였다. 이는 신흥리 바다에서 툯이 잘 자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3)

가. 여름에는 헛 거 엇이면은 이제 고기무레 드는 거라. 고기무레 들민 그때는 고기도 하고 하간 것이 풍성할 때난 가민 고평에 들영. 강 보민 우럭 ㄴ똥 거 웁이 ㄴ똥 거 먼똥 앓아. 경허민 걸 쏘는 거지.(신흥)

나. 불턱 영 둘러쌌음 금방 들영 미역무레 헤영은에 막 불턱 초른 이디가 별경허민 아이고, 저 어머니는 막 상군이엔 막 곱어나수다게. 이 바당에선 우리 메역즈문은 안 해난.(신흥)

다. 툭무레 음력 이월 그믐에서 삼월까지. 원래 툯이 막 좋았을 때 경 헛는데 지금은에 엇어. 그땐 두 물찌를 해도 다 못했어마씨.(신흥)

라. 성계물질헛 때는예, 물때 엇이에 그거 깔 여산으로게. 무조건 눈만 트문 바당 가는 거라. 물싸고 안 싸고 그자 물이 들어도 웨살 때고 조금 때고 그 시간이라. 성계는 강 즈물양 와사.(신흥)

2.1.3. 뱃물질, 섬물질

'뱃물질'은 해녀들이 배를 타고 나가 하는 물질을 말하고, '섬물질'은 섬에 나가 하는 물질이다. '물질'에 '배, 섬'이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의 어휘가 만들어졌다. 용례 (4)는 남원읍 위미리의 물질 환경을 엿볼 수 있다. 위미리 앞바다에는 '지꾸섬(지귀섬)'이 자리잡고 있어 위미1리 해녀들은 배를 타고 나가 물질을 하고 있다. 이를 '뱃물질', 또는 '섬물질'이라고 한 것이다. 위미리가 1리와 2리로 나뉘지기 전에는 위미1리를 '서카름'이라 하고 위미2리는 '동카름'이라고 불렀다. 용례의 '가에 물질'은 해안에 가까운 곳에서 하는 물질로, '섬물질'과 대비해 일컫는 용어다.

(4)

가. 옛날은 지꾸섬은 경계엇이 계속 소라 잡으레도 가곡. 뱃물질도 가곡 막 계속 멩겅는다이젠 서카름 딱허게 이제 우린 가지도 못헤.(위미2)

나. 위미일리는 섬물질이라. 우리는 가에 물질허는 거주.(위미2)

2.2. (물에) 들다, 털어지다, 트다, 숨비다, 나다

'물에 들다'는 '해녀들이 해산물을 캐기 위해 바닷물에 들어가다'는 말이다. 이는 단순히 '물에 들어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바다로 들어간다는 의미다. '물에'를 생략해서 '들다'라고도 한다. 위에서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털어지다(떨어지다)'(위미리)를 사용하

기도 한다. 이는 바닷물이 있는 곳이 물보다 낮을 쓰는 용어가 아닌가 싶다.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가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의미로 '트다(뜨다)(귀덕리)'를 쓰기도 한다. 해산물 채취가 끝난 후에 바다 밖으로 나오다라고 할 때는 '나다'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해녀 사회에서는 물질을 위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물에 들다'라고 하고, 물질을 끝내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나다'라고 하였다. '숨비다'는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다. 위미리와 일과리에서 조사되었다.

용례 (5 라)는 고무옷이 나오기 전의 물질을 끝낸 후의 해녀들의 신체 상황을 엿보게 한다. 고무옷이 나오지 않았을 때, 추운 겨울에 물질을 끝내고 나와 불을 쬐는 해녀들의 다리에 불그스레하고 얼룩얼룩한 무늬가 생긴다. 이를 신흥리에서는 '불꽃(불꽃)'이라고 하고, '불꽃'이 핀 해녀들을 상군으로 인식하였다. 상군들이 기량이 낮은 해녀들보다 깊은 바다에서 오래도록 물질을 하다 보면 몸이 더욱 시리고, 그러면 불을 쬐었을 때 불꽃이 더 많이 피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불꽃'이 핀 해녀들을 상군으로 대접한 것이 아닐까 싶다.

(5)

가. 요즘은 물에 들어도 소라 이십 킬로 못 헤여.(신흥)

나. 우린 개끗바위난 물에 들레 가민 그 개밭 안에서 막 히주게.(위미2)

다. 옛날이 나가 퀘기 이 동네서 최고로 쏘아났저. 아척 해 터올 때 들믄이 별경해 나와.(귀덕2리)

라. 물에 들엇당 나왕 불초문 추웠다가 다리가 별경허민, 불꽃 허민이 얼룩얼룩허민이 여기선이 상군이엔도 헤났저. 아이고, 자이 불꽃 막 피영 상군이여 경 해연.(신흥)

마. 썰물엔 올랑개에서 털어지면 알랑개까지 갔다가 들물 나민 지꾸내바위로 나와.(위미2)

바. 올힌 동바당도 소라가 없고, 게난 두 번에 터, 날이 불믄 서쪽에 트고, 날이 씨믄 동쪽에 트고 경 허여.(귀덕2리)

사. 우리 아이 때 물질헐 때 보면 그디 가지 말라 영 허영 어른덜이 영 숨비당 노끈여 왓저 허멍 올라와 불더라고.(위미2)

아. 한양개는 더 물 아래 깜깜해영 못 들어가. 아침 아홉 시에 가면 물 아래 꺼끔해 가지고이 숨비지 못 허여.(일과2)

2.3. 숨바쁘다

'숨바쁘다'는 해녀들이 해산물을 따기 위하여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숨이 가쁘다는 의미로 쓰였다. '숨' 즉 호흡이 가쁘게 뛰는 것을 '바쁘다'로 표현하였다. 숨이 바쁘면 빠르게 물 밖으로 나와 '호이'하고 숨을 비워야 한다.

용례 (6)은 위미2리 제보자 양○순이 들려준 <해녀노래>의 노랫말의 일부다. 노랫말을 보면, 열다섯에 물질을 배워서 스물다섯에 기량이 아주 뛰어난 '대상군'이 되어 '호미(낫)'를 물웃인 '속곳'의 배 부분에 차고, 해산물을 넣을 그물, 즉 망사리를 차고 '한강바당'으로 헤어가지만, 그곳에 소라와 전복이 쌓여 있어도 숨이 바빠서 따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강바당'은 넓고 깊은 먼바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다. '고동'은 '소라', '생복'은 전복을 위미리에서 일컫는 방언형이다.

(6)

가. 열다섯에 요 물질 배왕 스물다섯 대상군 뉘영 호미 배에 차곡 그물에 차곡 한강바당 허어간다. 고동 생복 쌓엇건만 나의 숨바빠 못 따놔라.(위미2)

2.4. 가두다, 가치다, 금채허다, 막다, 트다, 해경, 해경허다, 허채허다(헤치허다)

'가두다, 가치다, 금채허다, 막다'는 소라나 미역 따위의 해산물의 채취를 금하다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다. 일과리에서는 '바당 가두다'처럼 쓰고, 귀덕리에서 '가치다', 신흥리에서는 '금채허다'라고 하여 지여에 따라 표현에 차이가 있었다. 가두다는 해산물이 있는 바다를 가두었다는 의미이고,

‘가치다’는 예문의 “구제기 시월 일일날부터 동짓달까지 허영 선달 쟁이월 저실에 가쳤당(소라 시월 일일부터 동짓달까지 해서 선달 정이월 겨울에 간혔다가)”에서 보이듯 채취물인 소라가 바다에 간혔다는 의미로 쓰였다.

‘막다’는 해산물 채취하지 못하게 막다는 의미로 일과리에서 조사되었다. ‘트다’(일과리)는 막혀 있던 것을 치우고 통하게 하다는 의미다. 즉 해산물 채취를 금하였던 것을 해제하다는 의미로 ‘막다’에 상응하여 쓰인 표현이다. 해경(解警)은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제주어사전)이고, 이를 시작하는 것을 ‘해경허다’라고 한다. ‘허채하다, 헤치허다’는 채취를 허락하다는 의미로 ‘해경하다’와 비슷하게 쓰이는 어휘다.

용례 (7)을 보면, 예전에는 미역 금채를 하였으나 요즘은 소라를 주로 금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귀덕리에서는 선달과 정월 이월에 소라 채취를 금한 후에 삼월과 사월에 허채를 하고, 다시 양력 5월이나 6월에 가둔 후에 10월에 채취를 허락하고 있다. 일과리와 신흥리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소라 채취를 금하고 있다. 예전에는 소라 채취를 일반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였으나 요즘은 어업권이 해녀들에게만 주어져 일반인들의 원성도 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과리에서는 물질을 하지 않고 조간대에서 보말이나 게 따위를 잡는 사람을 ‘물쌍천’이라고 하였다.

(7)

가. 여름엔 기자 물쌍천도 물에 들어근에 막 잡았주께. 겐디 이젠 경 못헤여. 바당 가두와 부난 해녀들만 허주.(일과1)

나. 구제기 시월 일일날부터 동짓달까지 허영 선달 쟁이월 저실에 가쳤당 삼월 나쁜 해경. 양력 오월 나쁜 딱 가쳐.(귀덕2)

다. 코지엔 헌 디 넘은해 해경헤연 간 보난 삼년 가쳤단 완 보난 소라가 하나도 웃엇어. 올히는 육개월 가쳤단 헤채허난 고라흙 소라가 질 만헤여.(귀덕2)

라. 구쟁기 옛날엔 사시사철 헛는데 지금은 이제 오월달부터 금채기 하면은 구월달까지 금채허면은 이제 시월달부터 작업허면은 사월말까지 우리가 소라 작업을 험수다.(신흥)

마. 소란 이젠 오월⁷장 행 막알 시월 나사 트주께. 게민 물쌍천덜은 난리가 나. 바당 막암젠.(일과1)

바. 옛날엔 좀녀덜도 메역에 돈 나니까 헤치힐 때만 헛주께. 이젠 헤치힐 때고 아널 때고 허여. 이젠 미역 잘 사지 안허는 따문.(일과2)

사. 구살 유월 일일부터 터근에. 구살 허는 거 장마오믄에, 메칠 못 험니다. 칠월 말까지 해야 잘 해야 이십일.(일과2)

2.4.1. 메역해경, 메역허채(미역허채), 툷허채(툷헤치)

‘해경’이나 ‘허채’는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 또는 허락하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메역해경’ 또는 ‘메역허채’는 미역 채취를 금하였다가 이를 풀고 채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툷허채(툷헤치)’는 채취를 금지했던 ‘툷’ 채취를 시작하는 일을 말한다. 미역이나 툷은 일정 크기로 자라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안마을에서는 금채기를 두어 관리를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바다 환경이 나빠지고 판로가 좋지 않아 따로 ‘미역’의 금채기를 두고 있지 않다.

용례 (8)은 일과리에서 미역 해경을 하면 물질을 잘하는 해녀 몇을 뽑아서 ‘좀들이’해서 미역을 한 망사리씩 해서 합친 다음에 마을 이장 등 유지들한테 한 바구니씩 먼저 선물로 보내는 미풍양속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좀들이’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문맥상으로 보아 ‘본격적인 물질에 앞서 잠깐 들어서 하는 물질’의 의미로 쓰인 게 아닌가 싶다. 미역허채는 보통 이월이 저물고 삼월 초부터 하는데, ‘삼월 보름 물찌’에 주로 한다. ‘툷’은 미역보다 조금 일찍 허채하였다.

(8)

가. 미역은 그 옛날에 우리 친정 살 적에 돈이 날 거 없으니까 물질 배우면서. 그때는 미

역해경을 헤여예, 가뒀다가. 계민 마을 사름덜이 다 줌들이 허여근에, 물질 잘허는 사름 허여근에 뽑아근에 물에 들어강은에 혼 망사리씩 물건을 헤여 내면 그 미역 다 합쳐 가지고 이장 집으로, 흐꿈 영 뒀헌 집으로 다 질구덕으로 그것을 혼 구덕씩 다 돌리면서 허곡.(일과2)

나. 메역허채 허레 가젠 허민 요디 우리 중손 할망, 쟈 할망은 아침이 서물날. 서물날은 바당에 인칙 가주게.(위미2)

다. 툏허채 낋나면은 이월 구물영 삼월초 나면 메역허채. 옛날 삼월 보름 물찌 그 시기가 메역허는.(위미2)

2.4. 바다밭

2.4.1. ㄱ이, ㄱ, 옷밭, ㄹ큰밭

해녀들이 물질하는 바다도 장소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해안가 근처 바다를 ‘ㄱ이’(귀덕), ‘ㄱ’(위미), ‘ㄱ디’(일과), ‘옷밭’(귀덕, 일과), ‘ㄹ큰밭’(일과)이라고 한다. ‘ㄱ이’와 ‘ㄱ’, ‘ㄱ디’는 ‘가, 또는 가에’라는 의미로, 바닷가와 인접한 바다 밭을 말한다. ‘옷밭’은 조간대 가까이에 있는 바다 밭을 말하고, 물이 썩면 바닷물이 밀려 나가 조간대가 마르기 때문에 ‘ㄹ큰밭’이라고도 하였다.

용례 (9), (10), (11)을 통해, 바다 밭의 환경과 생태, 해녀들의 기량에 따른 어장도 확인할 수 있다. (9)를 보면, ‘ㄱ인’ ‘궁돌’이 있고 ‘베갯디’인 먼바다에 ‘여’가 있다는 것이다. 상군들은 ‘ㄱ’에서는 물질을 얹고 멀리 떨어진 먼바다 여에서 주로 물질을 한다는 것이다. ‘궁돌’은 ‘궁돌’의 변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을 말한다. 소라의 경우, 돌기가 왕성한 ‘쌀구제기’는 ‘옷밭’에서 잡고, ‘살’이 문드러진 ‘문둥구제기’는 바닷가에 멀리 떨어진 ‘알밭’에서 잡는다.

또한 소라가 알을 깔 때는, 먼바다에 있던 소라들이 7월 경에 툏이 자라는 ‘옷밭’으로 올라와 알을 깔 다음에 점차 아래로 내려가다가 날이 추워지는 11월경에 깊은 바다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과리에서는 ‘옷밭’에서 하는 물질을 ‘ㄱ물질’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다) 가에서 하는 물질’이라는 의미다. 먼바다에서 하는 물질을 ‘큰물질’이라고 하였다.

(9)

가. ㄱ인 궁돌 싣고 베갯디 먼막 여라.(귀덕2)

나. 우리 상군덜은 썰물 때 올라개로 털어지민 알러레만 가근에 ㄱ은 잘 안 멩기주게. 저 문섬 바래지는 디까지 나가.(위미2)

다. ㄱ디 옷밭디는 쌀구제기들이 많고, 밑에 알밭디선 나이 먹은 문둥구제기 잡아, 경 굶아.(일과1)

라. 이 소라허곡 보멸이고 모든 바당에 거는 이 옷밭디로 툏밭딜로 음력 칠월 나면 새끼를 깨워. 툏밭디서 새끼 깨우민 차차차차 알러레 느려가는 거. 십일월돌 나가른 베갯디레 나가. 십일월달 나가른 기픈 바당에 물속에가 물이 뜨시주게.(귀덕2)

마. 옷밭디서 허는 거 ㄱ물질.(일과1)

바. 줌너 아너는 사름은 물쌍천. ㄹ큰밭디 멩기는 사릅들은 물쌍천. 보말도 잡고 구제기도 잡곡. 쟈디 이젠 구제길 잡지 못허게 햅주게. 윈 안네나 가근에 보말이나 잡주, 그 물싼 디 가질 못헤여.(일과1)

2.4.2. 중ㄱ, 중팻

‘중ㄱ’과 ‘중팻’은 해녀들의 물질 공간을 셋으로 나눌 때 중간 위치의 바다를 말한다. ‘중ㄱ’은 ‘중+ㄱ’ 구성이고, ‘중팻’은 ‘중+팻’ 구성으로 거센소리화한 어휘다. ‘중팻’은 중간에 있는 밭의 의미다. 해녀들은 바다의 물질 공간을 ‘옷밭’, ‘중팻’, ‘옷밭’처럼 말하기도 하고, ‘툏밭’, ‘해습밭’처럼 특정 해산물이 나는 곳을 일컬을 때도 밭을 붙여 사용한다.

용례 (10)은 고무웃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상군들도 ‘베갯바당’에 나가지 않고 ‘중팻’에 들어서 소라를 많이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베갯바당’에 나가 물질을 하는 상군들은 소라 채취를 많이 할 수 있었다.

(10)

가. 그뎨 고무웃 엇어 부난에 상군들이 아래 가는 사람은 몇 개 엇엇어. 중궂에만 들엉 얼어가민 확 나와 불곡 헛는다 이젠 막 하.(위미2)

나. 궂이에서도 소라 잡고, 지픈 디 못 가는 사람은 중팍디서 물에 들엉 궂이 소라 잡곡. 베깃바당 소라덜 스뭇게 저푸게 허멍덜 나주기.(귀덕2)

2.4.3. 대천바당, 먼바당, 베깃바당, 알밭, 한강바당

‘대천바당’, ‘먼바당’, ‘베깃바당’, ‘알밭’, ‘한강바당’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를 말한다. ‘대천바당’과 ‘한강바당’은 큰 바다를 ‘대천(大川)’과 ‘한강’에 비유하여 표현한 말이고, ‘먼바당’과 ‘베깃바당’은 ‘궂바당’에 견주어 밖에 있는 바다다. ‘알밭’은 ‘웃밭’과 반의 관계를 이루는 어휘다.

용례 (11)은 해녀들의 물질 과정을 엿보게 한다. 테왁을 만들어 주니 바다에 들어가 미역도 채취하고 소라도 채취하다 보니 ‘대천바당’, ‘먼바당’, ‘한강바당’에 나가 기량을 맘껏 펼치는 상군도 되고 대상군도 되는 과정이 그려 있다.

(11)

가. 우리 테왁 멘들아주난 숨비연 메역 즈물곡 즈물곡 헤가난 것이 베와지는 거라. 베와지난 말자이라 가난 아래 대천바당 바래지도 못허는 디 간 해넛주게.(위미2)

나. 우리 먼바당에 강 우리 막 소라를예, 많이 즈물아났수다게. 닷 놓면서.(신흥)

다. 베깃바당 소라덜 스뭇게 저푸게 허멍덜 나주기.(귀덕2)

라. 궂디 웃밭디는 쌀구제기들이 많고, 밑에 알밭디선 나이 먹은 문둥구제기 잡아, 경 곱아.(일과1)

마. 열다섯에 요 물질 베왕 스물다섯 대상군 웨영 호미 배에 차곡 그물에 차곡 한강바당 히어간다. 고동 생복 쌓엿건만 나의 숨바빵 못 따놔라.(위미2)

3. 물때 관련

3.1. 물때(무수기)

‘물때’는 하루에 두 번 조수(潮水)가 들고 나는 때를 말한다. ‘조수’는 썰물과 밀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 물때를 이용하여 해녀들은 물질을 한다. 물때는 보름과 그믐을 기준으로 하여 한 달에 두 번 반복된다. 바다 어장에 따라서 물의 흐름과 세기가 달라 물때에 맞춰 물질 장소도 바뀐다.

용례 (12)를 보면, 신흥리의 ‘관곶바당’은 소문날 어장이다. 이 바다는 물때를 맞추지 않으면 물질을 못하는 바다인데, 물때를 맞추면 상군들은 이곳에서 소라를 칠팔십 킬로그램씩 채취했었다고 하였다. 신흥리에서는 또 물때에 따라 조금에는 서쪽 바다, 두물에는 ‘동바르’, 서물과 너물에는 ‘세벳바당’에서 물질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성계물질’의 경우는 물때를 맞추지 않고 하고 있다. 이는 ‘성계물질’은 먼바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 근처 바다에 들어서 하고, 성계 채취 후에는 성계알 손질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때를 가리지 않고 물질을 일찍 시작한다는 것이다.

(12)

가. 신흥리 관곶바당은예 물때를 맞추지 안 허민 못 가는 바당인데 그 바당에 가면은예, 옛날에 상군덜은 소문날 정도로 소라 칠팔십 키로 그렇게 해넛수다.(신흥)

나. 조금에는 저 서쪽 바당 가고 서물 너물부턴 이젠 세벳바당. 두물엔 동바르 쪽에 경 갈 때 잇입니다. 두물 서물은 동바르. 물때 맞추명 경 작업해넛수다.(신흥)

다. 성계물질헛 때는예, 물때 엇이에 그거 깔 여산으로게. 무조건 눈만 트문 바당 가는 거라. 물싸고 안 싸고 그자 물이 들어도 웨살 때고 조금 때고 그 시간이라. 성계는 강 즈물양와사.(신흥)

3.1.1. 혼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열두물, 막물·조금(조기, 췌기, 첫조금), 아끈조금(아끈제기, 아끈췌기),한조금(한조기, 한췌기), 부날

물때는 음력 '보름'과 음력 '그믐'을 기준으로 한 달에 두 번 반복된다. 지역에 따라서 '보름 여섯 그믐 여섯' '보름 일곱 그믐 일곱'을 기준으로 하여 보름과 그믐이 여섯무날인 경우도 있고 일곱무날인 경우도 있다.

물때를 세는 것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흔물'에서 '열두물'까지는 대동소이하고, 조금 3일을 세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 지역에 따라 열두물 다음에 '열서물' 또는 '막물(신흥)'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물때인 15일째를 '부날(일과)' 또는 '개무슴(귀덕)'이라고 하였다.

조사 지역의 물때표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사전에 올라 있는 물때와 제주 지역에서 표현하는 물때 관련 어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미도 다르다. 예를 들어 국어사전의 '한무날'은 '무수기를 볼 때 열흘과 스무닷새를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고, '한조금'은 '조수(潮水)가 가장 낮은 때를 이르는 말. 대개 매월 음력 7, 8일과 22, 23일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표 2> 지역별 물때표

표준어	위미리		귀덕리		일과리		신흥리	
	물때	날짜	물때	날짜	물때	날짜	물때	날짜
한무날	흔물	9, 24	흔물	10, 25	흔물	10, 25	흔물	9, 24
두무날	두물	10, 25	두물	11, 26	두물	11, 26	두물	10, 25
서무날	서물	11, 26	서물	12, 27	서물	12, 27	세물	11, 26
너무날	너물	12, 27	너물	13, 28	너물	12, 28	네물	12, 27
다섯무날	다섯물	13, 28	다섯물	14, 29	다섯물	14, 29	다섯물	13, 28
여섯무날	여섯물	14, 29	여섯물	15, 30	여섯물	15, 30	여섯물	14, 29
일곱무날	일곱물	15, 30	일곱물	1, 16	일곱물	1, 16	일곱물	15, 30
여덟무날	여덟물	1, 16	으덟물	2, 17	으덟물	2, 17	여덟물	1, 16
아홉무날	아홉물	2, 17	아홉물	3, 18	아홉물	3, 18	아홉물	2, 17
열무날	열물	3, 18	열물	4, 19	열물	4, 19	열물	3, 18
열한무날	열흔물	4, 19	열흔물	5, 20	열흔물	5, 20	열흔물	4, 19
열두무날	열두물	5, 20	열두물	6, 21	열두물	6, 21	열두물	5, 20
아츠조금	조기	6, 21	아끈조기	7, 22	아끈조기	7, 22	막물	6, 21
한조금	아끈조기	7, 22	한조금	8, 23	한조기	8, 23	아끈채기	7, 22
무쉬	한조기	8, 23	개무슴	9, 24	부날	9, 24	한채기	8, 23

위미리 제보자는 물때 세는 것이 복잡해서 보름과 그믐을 기준해서 '흔물'부터 '열다섯물'까지 센다고 하였다. 조금은 지역에 따라서 조기(귀덕, 위미2, 일과), '제기·채기'(신흥)라고 하고 표준어인 조금을 쓰기도 하였다.

'조금' 물때의 경우, '아끈조금(아츠조금)'이 '한조금'보다 물이 높고, '한조금'과 '한무날'의 물은 비슷하다고 하였다. 한조금에 물질을 할 때는 아침에 물에 든다. 위미2리에서는 '열두물날 굴멍이 잡는다'는 관용표현도 조사되었다. 열두무날은 물이 흐름이 어중간해서 물질을 해도 소득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굴멍이'는 군소의 방언형으로 해산물 가운데 별로 쳐주지 않는 허드레 물건이다. 반면에 좋은 물때는 한무날부터 서무날까지다. 신흥리에서는 이때의 물때를 '집 밧 산다는 물때'라고 하였다.

(13)

가. 물때 흔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강. 열두물 허영 한조기 부날 경 댜. 세 가는 게. 한조기날부터 시작허게. 경허민 부날 그 담은 흔물 경해근에 다섯물날 7장 물질헤여. 거면 흔 물찌에 일주일.(일과1)

나. 첫 번에 헐 때는 이제 초조금물 아끈채기 한채기. 그다음은 흔물 두물 세물 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 여덟 아홉 열물까지. 아, 열흔물.(신흥)

다. 흔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 으스 일고 여다 아홉 열 열흔나 열두물 열서물 아끈조기 한조기 그다음 흔물. 아끈조기는 한조기보다 물이 높이 들곡 한조금허고 흔물은 물이 비슷

비슷하게 들어. 열두물부터 열서물 열너물 열다섯물이 물때가 다 어둡어 불어. 계난 한조금 날은 물에 들젠 허민 아침이 강 들어.(위미2)

라. 여기 한제기 아끈제기 해도 켈로 물때가 좋은 때는 한물 두물 서물까지. 이거는 옛날에도 집 밧 산덴 허는 물때라마씨. 물때가 경 좋아. 그렇게 물때가 종양 가쁜 작업이 잘 돼 어근에 물건을 경 많이 헌덴. 아끈제기 한제기는 물때 못 맞추민에 그것도 막 사리가 돼어. 우리 해 보민.(신흥)

마. 우리가 옛날에 물질할 때 열두물날 굴멍이 잡으켜 허주게. 열두물날에는 물때가 어중 그랑헤영 무신거 못한다는 말로. 물때가 안물에 드는 것도 그렇고 저녁물에 드는 것도 그렇게 물때가 어중그랑헤영. 계민 야, 열두물날 물질허민 열두물날 굴멍이 잡을 거냐. 물때가 어중그랑하덴. 물때가 미그랑탕헤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위미2)

3.1.2. 보름 으삿 그믐 으삿, 보름 일곱 그믐 일곱

‘보름 으삿 그믐 으삿’ ‘보름 일곱 그믐 일곱’은 물때를 셀 때 기준으로 삼는 관용 표현이다. ‘보름 으삿 그믐 으삿’은 보름과 그믐의 물때가 여섯무날이고, ‘보름 일곱 그믐 일곱’은 보름과 그믐의 물때가 일곱무날이라는 의미다. 제주를 동서로 나눌 때, 동쪽 지역은 ‘보름 일곱 그믐 일곱’을 적용하고, 서쪽 지역은 ‘보름 여섯 그믐 여섯’을 적용하여 물때를 헤아리고 있다.

(14)

가. 그믐 으삿 보름 으삿. 거른 열나흘꺼지. 이 그믐에 열나흘꺼지 허민 막 날이 어둡아. 열나흘날까지도 무레질허여, 이디도.(귀덕2)

나. 보름 으삿 그믐 으삿, 보름 후에 물때는 달이 족으면 또나주게. 저 다섯물에서 다섯물도 되고 으삿물도 되고 헐 적에는 우리 양식장 헐 때는 큰들로 세어.(일과2)

다. 보름을 기준해 갖고 일곱. 막물 아끈제기 한제기 허면은 그다음에는 한물 두물 이제 서물 너물 다섯 으삿 일곱물 허면은 이제 또 막물 아끈제기 한제기 이렇게.(신흥)

다. 보름 일곱 그믐 일곱예. 그믐날이 일곱물. 족아불민 흐 물 돌아나 불주게. 족으면 기사 검사기사 그믐 일곱, 으답물을 검사기사로 헝 으답물로 넘어가 부는 거.(위미2)

3.2. 물끼, 물찌, 보름물끼, 그믐물끼

‘물찌’는 해녀들이 한 물때에 물질을 하는 날을 말한다. 물때가 한 달에 두 번 반복되는 것처럼 ‘물찌’도 한 달에 두 번 헤아린다. 해녀들이 물질할 수 있는 기간은 마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전에는 한 물때의 ‘물끼’가 15일이나 그 날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하였다. 일과1리에서는 한 ‘물찌’에 일주일의 물질을 하고, 일과2리에서는 열흘 동안 물질을 하고 있다. 신흥리에서는 한 ‘물찌’에 8일을 작업하고 7일은 쉰다고 하였다.

위미리에서는 용례 (15, 가·사)의 “옛날에는 흐 들이면 이제 흐 물찌에 십오일씩 물끼난(옛날에는 한 달이면 이제 한 물때에 십오일씩 ‘물끼’니까.)”로 보아, ‘물찌’를 물때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 따라서 이 마을에서는 ‘보름물끼’는 보름을 기준하는 물때를 말하고, ‘그믐물끼’는 그믐을 기준으로 해서 헤아리는 물때다. 다른 지역의 ‘물찌’에 해당하는 용어로는 ‘물끼’를 쓰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15)

가. 옛날에는 흐 들이면 이제 흐 물찌에 십오일씩 물끼난 시월 내내 물질허난 사름이 다 죽게 뻘어. 계난 물때 존 때 흐 메칠 허영 설려벼.(위미2)

나. 흐 들에 두 물찌가 있어. 한조기 그 담은 부날 뉘는디 한조기날부떠 헤여. 다른 딴 아끈조기 허는디 우린 한조기부떠 허메. 경허민 일주일. 아끈조기 한조기 부날. 그다음 흐물 뉘는 거. 우리 동네 흐 물찌에 일주일 물질허여.(일과1)

다. 여기는 열서물에서 저 일곱물날까지 열흘. 예전부떠 십일 정돈 허기로 결정이 뉘는 거냐. 한 달에 두 번이니까 흐 물찌에 십일. 경허난 이십일을 물질허는 디 다 못헤.(일과2)

라. 우리 한 물찌에 보름으로 계산하는데 팔일 작업허곡 칠일은 이렇게 쉬꼭예.(신흥, 이승자)

마. 혼물 두물 서물 그건 보름물끼. 그믐물끼. 뜨나진 안 허곡 물 가는 것이 혼물 두물 서물꺾장은 물 혼웃이 안 가도 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드레 가민 물이 엄청 가주게. 들물이고 썰물이고.(위미2)

3.2.1. 이월 보름 물찌, 삼월 보름 물찌, 칠월 보름 물찌

‘이월 보름 물찌’는 음력 2월 보름의 ‘물때’를 말하고, ‘삼월 보름 물찌’는 음력 3월 보름의 물때를 말한다. ‘칠월 보름 물찌’는 음력 7월 보름 물때이다. 이월 보름과 삼월 보름은 해안마을에서 아주 중요한 물때이다. 이때는 채취를 금했던 툇과 미역을 해경하여 본격적으로 물질을 시작하는 때다. 그래서 미역을 한창 하는 삼월 보름에 바다에 나가 지 않고 집안에 있는 사람은 도둑장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편잔을 듣게 된다. ‘칠월 보름 물찌’는 물살이 아주 센 때이다. 달리 ‘백중사리’라고 하여 바다에 가지 않는다.

(16)

가. 이월 보름날 보름물찌에 해경하여. 게문 스윌나도록 허주게. 늦은메역.(귀덕2리)

나. 툇허채 낚나면은 이월 구물엿 삼월초 나면 메역허채. 옛날 삼월 보름 물찌 그 시기가 메역허는.(위미2)

다. 물 잘 싸는 건 삼월 보름 이월 보름 물찌. 이월 보름 물찌덜은 미역도 강 툇아 먹고 게. 사름덜이 막 가. 바당에 물도 잘 싸고. 삼월 보름 물찌는 세는 물찌. 삼월 보름 물찌날 집안네 앞으면 도둑쟁이밖에 안 댜덴 곧주게. 게난 삼월 보름 물찌. 칠월 보름 물찌야 다 잊지만은 그 후로 안 세어. 백중사리로 썰주게. 게난 우리 여름 물질을 안 허니까 몰라.(일과2)

3.2.2. 사리, 백중사리, 웨살

‘사리’는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를 말한다. 물살이 센 사리를 ‘와살·웨살’이라고 한다. ‘웨살’은 일곱무날과 여덟무날로 이때는 물이 제일 세서 멀리까지 간다고 한다. 사리 가운데도 음력 7월 보름의 백중사리가 밀물이 가장 높고 물살이 세다고 한다. 물이 끓는 것처럼 ‘와상와상’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물건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조금에는 물건이 잘 나기 때문에 “고기를 사려고 할 때는 조금에 사라.”고 하였다.

(17)

가. 웨살은양 일곱물 오답물이 그 날이 완전 고비라. 물 제일 썰게 갈 때가 웨살.(위미2)

나. 서물인가 너물인가부더가 웨살 들어가는 거 님아. 웨살은 뿔도 안 난다 허명 경. 바닷고기 꺾든 것도 우리 사젠 허민 조금에가 우리 저 시장 강 허민 그것이 뿔허고 웨살엔 그것이 덜 난덴 허주마썰.(신흥)

다. 물끼게 다섯물부더 열물날꺾지가 웨살. 웨살이라부난 물 하영 간다 허영은예. 백중사리 그때가 물이 엄청 가.(위미2)

라. 칠월 백중사리 물 막 썰여. 와상와상 썰는 거꺾치.(귀덕2)

마. 아끈제기 한제기는 물때 못 맞추민예 그것도 막 사리가 뿔어. 우리 헤 보민.(신흥)

3.3. 미세기

3.3.1. 든물, 들물, 써물, 썰물(쌀물, 썰물)

미세기는 ‘밀물’과 ‘썰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밀물’은 ‘바닷물이 밀려와서 해면이 높아지는 현상 또는 바닷물’로 제주에서는 ‘든물, 들물’이라고 한다. ‘썰물’은 ‘바닷물이 밀려 나가서 해면이 낮아지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로 ‘써물, 썰물, 쌀물, 썰물’ 등으로 일컬어진다. 신흥리와 귀덕리에

서는 ‘싼물, 쓴물’, ‘든물’이라고 하고, 위미2리와 일과리에서는 ‘쓸물’과 ‘들물’이라고 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라산 북쪽은 관형형 어미 ‘-ㄴ’ 형태의 ‘싼물·쓴물, 든물’이 쓰이고, 한라산 남쪽의 위미2리와 일과리에서는 관형형 어미 ‘-ㄴ’ 형태의 ‘쓸물, 쓸물, 들물’이 쓰이고 있는 게 특이하다.

(18)

가. 물이 싸민 싼물 들민 든물.(신흥)

나. 쓸물에 올랑개로 들면 저 상코지ㄱ장 이젠 갓당 다시 들물이 돌아오민 이제 다시 글로 왕 나저.(위미2)

다. 우리 바당은 조금에는 물이 잔잔해. 경헨 물이 가질 안헤고 이제 두서물ㄱ장은 존 디 너물날부면 물이 썬여. 절로 쓸물엔 막 알러레 꺾어 불고 들물엔 우트레 기냥 올라오곡 경 허여.(일과1)

라. 쓸물엔 올랑개에서 털어지면 알랑개까지 갔다가 들물 나민 지꾸내바위로 나와. 그딘 수심이 알아. 톨파리들이 휘는 디주게.(위미2)

3.3.2. 물들다(물이 들다), 물싸다, (물)싸다

‘물들다’는 ‘썬던 바닷물이 물으로 밀려오다’는 의미로, 표준어 ‘물밀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반면 ‘물싸다, (물)싸다’는 ‘바닷물이 육지에서 빠져 바다 쪽으로 나가다’의 뜻으로 쓰는 어휘로 표준어 ‘물싸다’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물질을 물이 썬 때 하였다. 특히 ‘헛물’할 때는 물이 싸야 들 수 있다. 조금에는 아침에 물이 썬다고 하였다. 귀덕리에서는 ‘물 흐름이 세었다가 점차 잔잔해지는데’ 현상을 가리켜 ‘물이 죽어간다’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물이 잔잔하던 물이 점차 세지다’는 의미로는 ‘물이 살아나다’라고 하였다.

(19)

가. 헛물엔 허민 기자 전복이고 고둥이고 동천 물르게. 불만 허민 밧디 갓당 물싸민 왕 물에 들곡.(위미2)

나. 성계물질헛 때는예, 물때 엇이에. 그거 깔 여산으로게. 무조건 눈만 트문 바당 가는 거라. 물싸고 안 싸고 그자 물이 들어도 웨살 때고 조금 때고 그 시간이라.(신흥)

다. 물싸는 거 바짜 싸 불엇저. 싼물이렌 허지 안헛니까? 싼물 든물.(신흥)

라. 조금에는 거의가 아침에 쌌니다게. 열두물날 후에는. 경허난 이제 우리가 열다섯물날은 아침에 일찍 물에 들레도 가. 헛 두물날ㄱ장은. 게민 서너물 뉘가면은 흐끔 영 늦게 허고. 물때가 시간상으로 조금 늦게.(위미2)

마. 우리 동넨 물싸사만 헤여. 아침에 쓰는 건 헛물 두물에 싸는 거고, 오후에 싸는 거는 물이 죽어가른 싸는 거고.(귀덕2)

3.3.3. 아침물·안물, 저녁물(저녁물)·전물

물은 물때에 따라 아침에 썬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썬는 경우도 있다. 아침에 썬는 것은 ‘아침물’ 또는 ‘안물’이라고 하고, 저녁에 썬는 물은 ‘전물’ 또는 ‘저녁물’이라고 하였다. 한조금에는 아침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물이 썬다. 그래서 해녀들은 이때에는 아침 저녁 두 차례나 물질을 할 수 있다. 해가 짧은 겨울에는 주로 ‘안물’에 물질을 한다. 일과리에서는 보통 조간대인 ‘므른밧’은 열두 시부터 썬다고 하였다. 열두무날에는 물때가 ‘안물’이나 ‘저녁물’에 드는 것 모두 어중간하다고 해서 물질을 잘 하지 않는다.

(20)

가. 저녁물은 기냥 물찌로 싸는 거고. 아침물은 안물.(일과2)

나. 안물은 아침이고 전물은 오후고. 오후에가 물싸주게. 므른밧디 열두 시부뎀 물싸.(일과1)

다. 겨울엔 안물에 가주게. 헛 여섯 시 일곱 시에 그때 가. 강 해근에 허지근해 가민 바르가 이런 돌트멍에 빠죽빠죽허는디. 이젠 바르가 씨 끊어져 불연. 날웨 바당은.(일과1)

라. 한조금날 안물, 그날은 저녁물도 허주게, 안물에 헐 땀 하루 두 번.(위미2)

마. 우리가 옛날에 물질헐 때 열두물날 굴멍이 잡으켜 허주게, 열두물날에는 물때가 어중그랑헤영 무신저 못한다는 말로, 물때가 안물에 드는 것도 그렇고 저녁물에 드는 것도 그렇게 물때가 어중그랑헤영. (위미2)

4. 채취 행위 관련

해녀들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한다. 해산물은 전복과 소라, 우럭과 같은 어패류는 물론이고 미역과 우뭇가사리, 톳 등의 해조류를 채취한다. 해녀들은 바다에서 채취하는 해산물을 ‘물건’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물건’이 많았는데 요즘은 물건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자연산 전복은 구경을 못한다고 하였다. 용례 (21)에서처럼 전복이 많은 것을 “저 하늘에 구름은 그칠까 몰라도 우린 바다에 강 전복 안 허는 날이 엇어났수다. (저 하늘에 구름은 그칠까 몰라도 우린 바다에 가서 전복 안 하는 날이 없었습니다.)”에서처럼 전복과 구름을 비교해 말하기도 하였다.

(21)

가. 이디도 엄청 물건 하영 나난 디주게, 경헌디 이디도 이거 딱 가되져 부난 물건이 전혀 엇어.(위미2)

나. 저 하늘에 구름은 그칠까 몰라 우린 바다에 강 전복 안 허는 날이 엇어났수다. 그 정도로 물건이 좋아나서예, 근디 지금은 자연산 전복 하나 구경을 못해마씨.(신흥)

해녀들은 바다에 있는 물건, 즉 소라나 전복, 미역 따위의 물건을 채취할 때 채취 방법이나 서식 및 생태 환경에 따라 채취 행위에 따른 표현을 달리하여 썼다.

예를 들어 바다 속에 ‘숨비어’ 들어가 해산물을 따는 것을 ‘즈물다’라고 하고, 물이 썬 바닷가에서 톳을 채취하는 것을 ‘톳 비다’라고 한다. 그런데 바다 속에 들어가서 톳을 채취할 때는 ‘톳 비다’라는 표현 대신에 ‘톳 즈물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해산물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는 채취 관련 어휘는 해녀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

4.1. 즈물다, 즈문허다, 메역즈문(미역즈문), 메역즈문허다, 오분제기즈문

‘즈물다’는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 숨비면서 고둥이나 미역 따위를 채취하다’는 의미다. 이 ‘즈물다’는 식물이나 동물 할 것 없이 해녀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할 때 쓰는 말이다.

신흥리에서는 미역 만을 채취하는 일을 ‘메역즈문’, 오분자기만을 채취하는 일을 ‘오분제기즈문’이라고 하였다. 즉, ‘메역즈문’은 ‘바닷물 속에 들어가 미역을 채취하는 일’을 말하고, ‘메역즈문허다’는 ‘미역을 채취하다’는 의미다. 이 ‘즈문’은 ‘즈물다’에서 파생한 명사형 ‘즈뭉’을 이렇게 발음한 게 아닌가 한다. 물질을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는 ‘고녕이 국거리’한다고 빗대어 표현하였다.

(22)

가. 옛날엔 고지기 즈물앙 돛통에 보리짚 깔앙 아저다 낡 걸로 걸름허영.(위미2)

나. 옛날은 구제길 즈물아 보질 아녜어. 그때는 구제기 헛자 누게 살 사름이 웃고 그루후제 줍복도 저디 강 보른 비잘비잘비잘 부땡 그거 테영 왕.(귀덕2)

다. 소라가 금채가 돼 불 경우에는 우리 오분제기 즈물앗저, 칠팔월에 우리 오분제기 땡 거 같애.(신흥)

라. 미역을 즈물면서 보니까 존스라덜이 그자 바당 돌구멍에 직각허게 잇언게.(위미2)

마. 훗디 현 아이덜 톳파리, 메역도 못 즈물아난 아이덜 고무웃 나난 아래까지. 느네 나 헐 땀 고녕이 국거리 헤나신디 경험덴 허멍 굴으멍 쳐웃주게, 고녕이 국거리 행 허는 아이가 이제 그추룩 잘 험젠 허멍 나 차꾸 우스개 해불주게.(위미2)

바. 옛날에 우리 물질 시작헐 때 속곳 입영 헐 때 미역즈문이 시작이다 경허른 그냥 가근에 다 도에 앓앗

단 테와 들렁 잇앗당 호로기로 불던가 마이크로 왕허게 울리민 들어가. 미역 즈물 때. 경허명 우리 메역즈문 헤낫저게.(신흥)

사. 메역즈문 때 삼월달에. 삼월 보름부떠 물찌가 가니까 물이 잘 싸. 그때는 물 지픈 디 갈 때라 부니깐 물때 맞찬 들고 이제는 야픈 디 드난 물이 들고 싸고 그런 거 엇고.(신흥)

아. 불턱 영 둘러쌍 금방 들영 미역무레 헤영은에 막 불턱 초른 이디가 벌경허민 아이고, 저 어머니는 막 상군이엔 막 곱아나수다게. 이 바당에선 우리 메역즈문은 안 헤난.(신흥)

자. 옛날에 오분제기가 많이 나난이 오분제기즈문을 헤낫어이.(신흥)

4.2. 떼다, 띠다, 테다, 티다, 트다

‘띠다’와 ‘떼’는 ‘돌 따위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 내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이를 제주에서는 ‘테다, 트다, 티다’처럼 거센소리로 표현하기도 하고, 표준어의 영향에 따라 ‘떼다, 띠다’처럼 짐차 그 쓰임이 된소리화하고 있다. 이 ‘떼다, 띠다, 테다, 티다, 트다’는 돌에 붙어사는 전복이나 ‘굼벵이(군부)’, ‘오분자기’ 등을 딸 때 하는 표현이다. 트다’는 귀덕리에서, ‘티다’는 신흥리와 일과리에서 조사되었다. 일과리에서는 오분자기를 ‘바르’라고 하였다.

(23)

가. 오분제기 죽도 췌 먹곡 국도 끌렁 먹곡게. 그 옛날에는 혼 바구리씩 떼어당 잘 먹었지.(귀덕2)

나. 전복 비창 꺼꺼지명양 떼지 못허는 전복덜 잇어낫수다게.(위미2)

다. 옛날에 곱갱이 웨로 영헌 거 오분제기 트는 거 허여낫주.(귀덕2)

다. 전복 새끼 빗제기. 전복 티엇저. 오분제기 떼레 가게.(신흥)

라. 굼벵이 띠어다근에 막 밀어근에 닥살 벳겨근에 푸는 생이랑게. 젊을 땐 저 굼벵이 띠어당 그추룩헝 먹어전게 이젠 니가 좋지 아녀난산디 안 헤저.(일과1)

마. 바르 여기 엄청 많아낫수다. 바르도 물에 들어갈 때민 삼 필로씩 넘어 띠어낫어. 그 옛날 몸 차랑차랑헌 아래 여에 가근에 늙은 바르덜 띠어나신디 이젠에 하나도 엇어.(일과2)

4.3. 잡다

‘잡다’는 ‘붙들어 손에 넣다’는 의미다. 해녀 사회에서 ‘잡다’는 해안가 조간대나 바다 속에서 별도의 도구 없이 손으로 집을 수 있는 ‘소라, 고둥, 해삼’ 등을 채취할 때 쓰는 말이다. 바닷물 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즈물다’라고 하지만 별도의 도구 없이 채취할 때도 ‘잡다’라고 한다.

(24)

가. 줍녀 아녀는 사름은 물쌍천. 므른बाट 땡기는 사름들은 물쌍천. 보말도 잡고 구제기도 잡곡.(일과1)

나. 마태살은 잡아단 먹어보지 아녀난 몰라. 메옹이 ㄴ땡 거는 잡아근에 삶양 올라근에 물 먹으면 막 물 맛이 들하여. 메옹이도 바당에도 짓고 원에도 짓고.(일과1)

다. 구제기 이쪽으로 저프게 잇어나수다. 옛날에 헛물 잡는 거 소라허고 전복허고게. 해슴철엔 해슴 잡고 경벳긴 엇어.(일과2)

라. 십이월 중순부터 일월 이월 삼월 사월까지 해슴은 허는디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씩 잡다가 이삼월 뉘민 많이 잡앗어. 눈 오고 경 허여근에 꺾나민 많이 잡아신디 이젠 그놈의 해삼들 다 어디사 가 붙어신디.(일과1)

4.4. 꿩다, 비다

‘꿩다’는 ‘실, 줄, 끈 따위의 이어진 것을 잘라 따로 떨어지게 하다.’는 의미다. ‘비다’는 표준어 ‘베다’의 방언형으로 ‘날이 있는 연장 따위로 무엇을 꿩거나 자르거나 가르다.’의 의미다. 바닷물 속에서 자라는 미역이나 모자반, 툫 따위를 채취할 때 쓰는 말이다. ‘꿩다’나 ‘비다’ 대신에 물속에 들어가서 채취할 때는 ‘즈물다’를 더 많이 쓴다. 신흥리에서 툫을 물이 썰 때 베지 않고 물이 들 때 ‘즈무는’ 것은 채

취한 뜻을 물 밖으로 져나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25)

가. 걸름몹은 노리게 보이고 요런 디 부뜬 것이 질게 보여. 경허민 그거 다 빵 내려강 끓 영 올라오꼭 허주게.(일과1)

나. 돌 이젠 바당에 가에로 강 비어근에 지어올리는 게 아니로 지어줄 사름도 엇고 허난 이젠 물질 때 즈무는 거라마씨.(신흥)

4.4. 메다

‘메다’는 바닷가 바위나 모래밭 따위에 붙어 있는 것을 손으로 떼어 내다는 의미다. 표준어 ‘매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보통 이 ‘메다’는 논밭의 잡풀 따위를 뽑을 때 쓰는 말인데, 해녀들이 바닷가에서 해조류를 채취할 때도 쓰고 있다. 특히 ‘우미 메다’처럼 크기가 작고 손으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해조류와 함께 사용한다. ‘우미’는 우뭇가사리를 말한다. 우뭇가사리도 해녀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 채취할 때는 ‘우미 즈물다’처럼 쓰기도 한다.

(26)

가. 여름에 우미 같은 거 메고 막 해낫주게.(일과1)

나. 우민 즈물기도 허고 손으로 메기도 허고.(일과1)

4.5. 굽다

‘굽다’는 바위에 붙어 있는 풀가사리와 파래김을 채취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때는 전복의 작은 껍데기인 ‘조갱이’를 가지고 바위에 붙어 있는 해조류를 굽어서 채취한다. 일과리에서는 전복껍데기를 이용하여 ‘가사리’를 채취하는 것을 ‘굽다’라고 말하고, 신흥리에서는 ‘프레김’을 전복껍데기의 가장자리 끝을 이용하여 굽어서 채취하였다.

(27)

가. 전복껍데기 죽은 전복 요만씩헌 거 그 죽은 거로 가사리 막 굽어난디 큰전복 껍데기론 아녀.(일과1)

나. 프레김 전복 먹어난 조갱이 아정강 북북 그거 멘짝헌 돌에 나민 굽어났어.(신흥)

4.5. 쏘다, 찢르다

‘쏘다’는 해녀들이 물질하면서 작살로 고기를 잡을 때 쓰는 말이다. 일과리에서는 작살을 ‘창’이라고 하는데, ‘쏘다’ 대신에 ‘찢르다’라고 표현하였다.

(28)

가. 우리 예전에 창 ㄱ져서 고기도 찢러나수다마는예, 이런 어음에 구리찌 같은 거 잇어나신디 까만돔이 영 서나신디, 갯돔 갯은 거 서나신디 깨로 엇수다.(일과2)

나. 옛날 나 제스힐 때도 우럭 큰 거 썩지민 베타근에 냉동헛단 우럭국 끌리곡.(신흥)

다. 갯돔은 엉덕에만 살양은에 갯돔 쏘기가 제일 쉬와.(위미2)

라. 여름에는 힐 거 엇이면은 이제 고기무레 드는 거라. 고기무레 들민 그때는 고기도 하고 하간 것이 풍성힐 때난 가민 고망에 들영. 강 보민 우럭 ㄱ뜬 거 웅이 ㄱ뜬 거 문딱 앗아. 경허민 걸 쏘는 거지.(신흥)

5. 맺음말

제주해녀들은 제주의 보배다. 제주해녀들이 삶을 영위하며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와 언어는 제주

문화를 한층 가치 있게 해준다. 이들이 물질하면서 만들어낸 역사, 환경, 도구, 민속, 신앙, 경관 등과 관련하여서는 역사적, 민속학적,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다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제주의 해녀 사회가 제주바다에서 키워낸 해녀 관련 어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해녀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물질, 물때, 채취 행위’를 대상으로 관련 어휘와 문화를 용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언어지리학적 관점에서 제주를 네 개 지역으로 구획한 데 기인하여 제주 북동과 북서, 남동, 남서 지역으로 나눠 관련 어휘를 해녀들이 구술한 용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물질’ 분야에서는 ‘물질’과 ‘무레(질)’과 관련하여 ‘헛물’, ‘고기무레’, ‘메역무레’ ‘오분작무레’, ‘툫무레’처럼 채취물에 따라 어휘가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에 들고 날 때의 표현, 허채와 금채, 바다 밭과 관련한 다양한 어휘가 분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바다 밭을 나눠 ‘ㄱ이, ㄱ, 알밭’, ‘중궤, 중팻’, ‘베깃바당, 먼바당, 대천바당, 한강바당, 옷밭’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었다.

‘물때’ 분야에서는 제주를 동서로 나눌 때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의 물때의 차이를 확인하고, 지역에 따라 물때를 표현하는 어휘도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표준국어사전의 설명과도 부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열두물은 ‘굴뚝이 잡는 물때’라고 해서 물질을 잘하지 않는 반면에 ‘한무날에서 서무날까지’의 물때는 ‘집과 밭을 사는 물 때’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금에는 아침에 물이 썩는데, 이때 썩는 물은 ‘아침물, 안물’이라고 하고, 저녁에 썩는 물은 ‘저녁물, 전물’이라고 하였다. 물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물찌’라고 하는데, 지역마다 ‘물찌’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채취 행위 관련’에서는 물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는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해녀들이 바다 물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즈물다’라고 말하지만 해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채취 행위를 나타내는 어휘도 ‘트다 티다 테다’와 ‘잡다’, ‘꺾다·비다’, ‘꺾다’, ‘메다’, ‘쏘다·찔르다’처럼 다양하게 표현해 해녀 관련 어휘의 말맛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고은솔 김순자 고영자 오경임(2021), 《위미2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고은솔 김순자 고영자 양지혜(2021), 《귀덕1·2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_____ (2023), 《일과1·2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_____ (2024), 《신흥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2009), 《해녀 어부 민속주-제주의 민족생활어》, 글누림.

김순자(2011),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김순자(2014), 《제주도방언의 어휘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김순자(2020),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 도서출판 각.

김순자 외(2021), 《상군 짐 부린 던 톨과리덜은 땡기지도 못허여》(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 마을기록·해녀문화 구술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이기갑(2024), 〈전남 흑산 지역의 해녀 관련 어휘〉(제주어연구소 개소 여덟 돌 기념 초청강연회 자료), (사)제주연구소.

일과1리(1992), 《일과1리지》.

“제주바다가 키운 제주어와 문화 - ‘물질, 물때, 채취 행위’를 대상으로” 에 대한 토론문

김보향(제주대)

이 발표문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서 지역 해안마을에서 조사된 해녀 어휘를 ‘물질, 물때, 채취 행위’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구술을 채록하고, 그것을 전사하여 언어학적 특징을 검토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주어를 조사하면서 여러 마을에서 해녀분들을 만나 뵈며 구술 조사를 하고 있기에 선생님의 발표가 기대되고, 흥미로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토론자로서의 소임이 있기에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 이 글은 제주방언을 하위방언권으로 나눈 김순자(2010)에 의지하여, 하위방언권에 포함되는 4개 해안마을 조사 자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을 나누어 고찰한 이유는 해녀 어휘, 문화에서도 지역 간의 차이가 드러나는지 살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는 ‘무레’, ‘물때’, ‘든물/들물’ 등을 제외하고는 지역 간의 차이가 있고 없음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 제시한 어휘 중에는 해녀들의 바닷일에 관한 일반적인 어휘들이 많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해녀 관련 어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미미한 편”이라 보고, 이들 어휘를 일일이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만, 해녀 관련 어휘 연구는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시한 ‘물질, 물때, 채취 행위’ 관련 어휘들이 다양한 어휘, 표현이 분포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보다는 조사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는 어휘, 문화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2. 방언을 연구하다 보면 방언 화자들의 조어법이 흥미롭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신홍리에서 조사된 자료 중에 2.1.2의 ‘고기무레, 메역무레, 툫무레, 성계물질’을 제시하였는데, 앞에서 제시한 ‘오분제기무레, 툫무레’를 포함하여 ‘고기, 메역, 툫/툫, 오분제기’인 경우는 ‘무레’, ‘성계’를 채취하는 경우는 ‘성계물질’이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글에서는 조사된 구술 자료에서 어휘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복, 우미’ 등 다른 해산물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무레’와 ‘물질’이 결합하는 해산물이 나설지 궁금합니다.

3. 2.1.3의 ‘뱃물질, 섬물질’은 해녀들의 작업 환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는 위미리에서 조사된 자료로, ‘섬물질’은 위미리 해녀들이 작업 영역이 되는 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섬에서의 작업이 없는(귀속되는 섬이 없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섬물질’이라는 말이 파생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신홍리나 귀덕리, 일과리의 작업 환경은 어떤지 궁금

합니다. 배로 물질을 나가는지, 해안에서 물질을 나가는지, ‘뱃물질’을 한다면 혹시 ‘뱃물질’에 대응하는 ‘갯물질’ 등의 말이 파생되어 쓰이지는 않는지요.

4. 마지막으로 혹시 조사하면서 마을 간의 해녀 집단의 특이한 차이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조사마을의 해녀 수에서 일과리는 “20대 1명, 30대 3명, 50~70대 16명, 80대 이상 8명”으로 총 28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흥리나 위미리(귀덕리는 연령별 인원이 제시되지 않음) 해녀들이 모두 60대 이상인데 비해, 일과리는 20대, 30대의 해녀가 있고, 80대 이상 해녀도 다른 마을에 비해 많습니다. 혹시 해녀 전승 활동 등에 있어 다른 마을과 차이점이 있는지, 특이할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양 지명어 분석 연구

- 바위에 대한 후부 지명소를 중심으로 -

김지숙(경성대)

< 차례 >

1. 머리말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 해양 지명 개관
4. 해양 지명에 대한 몇 가지 논의
5.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인 데다가 3,305개의 도서를 가지고 있어 일찍부터 수산업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으로 바다 환경에 적응하여 그와 관련된 직업과 문화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어촌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¹⁾ 어촌 생활어의 하위 범주에 속해있는 해양 지명은 어민들의 어촌 지역의 공간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그동안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에 대한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²⁾ 더구나 해양 지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해양지명위원회의 발족 이후라는 점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한 연구 자료의 부족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의 미미함으로 인해 해양 지명에 관한 연구는 몇몇 관심이 있는 학자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연구만이 이루어졌다.³⁾

이 글은 어부와 해녀 집단이 동해안 어촌 현장에서 사용하는 해양 지명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촌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해양 지명은 육지에서의 지명과는 다른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다. 이 글은 어민들이 사용하는 해양 지명 중 특이한 몇 가지를 대상으로 그 사용 양상과 어휘 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명칭은 우리 조상과 지역 주민들의 역사, 문화, 생활 양식 등을 담고 있는 언어 유산이라는 점에서 문화 유산으로서도 그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 김지숙(20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발표문 재인용.

2) 어촌 지역의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말을 ‘어촌 생활어’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어촌 생활어는 정부기관이나 학자들에 게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해 어촌 생활어에 대한 조사는 조사 지역의 편중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빈 공간이 많은 실정이다.

3) 육상 지명의 경우는 1958년부터 중앙 및 지방지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명 발굴과 정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명과 관련된 지명학회, 지리학회, 지도학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지명이란 지리적 실체들을 서로 구별해주는 언어적 표현으로서, 일정한 환경에서 인간이 경험하고 지각하여 만든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12). 즉, 지명은 단순히 장소나 지형을 가리키는 언어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인간의 공간 인식의 결과물이다. 이 연구의 대상인 해양 지명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해협, 만, 포 등도 존재하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바다 속의 바위도 존재한다. 이처럼 해양 지명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 해상 지명(sea surface names)과 해저 지명(undersea feature names)으로 분류되는데, 해상 지명은 해면 위의 지형에 대한 명칭으로 대양, 바다, 해협, 수로, 만, 포 등을 말한다. 또한 간조 시 바닷물에 잠기지 않고 해수면 위로 노출되고 만조 시 바닷물에 잠기는 여, 서, 암, 탄 등의 간출암도 해상 지명으로 분류한다. 반면 해저 지명은 초(礎), 퇴(堆), 해저협곡, 해저산, 해저산맥, 해령, 해구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을 의미한다.⁴⁾ 이렇게 구분된 지명은 지명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전부 요소와 후부 요소로 구분하는데, 위에 언급된 '만, 포, 여, 서, 암' 등은 후부 지명소, 속성 지명으로 앞에 위치해 다른 지리적 실체와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소는 전부 지명소, 고유 지명이라고 한다.⁵⁾

해양 지명의 사용 양상을 통해 현지인들이 공간을 인식하고 해양 지형에 대한 명명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동안의 연구자가 구축한 자료를 토대로 예비 조사를 한 후 본격적인 조사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된다. 먼저 2010년 1월 10일부터 2013년 10월까지 국립국어원의 민족생활어 조사의 일환으로 동해안 어촌 지역인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연구의 일환으로 2022년 8월부터 2025년 현재까지 동해안 일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자가 참여했던 국립국어원 민족생활어 조사의 <어촌 생활어 질문지>와 연구자가 추가로 구성한 내용과 사진을 보완한 것이다. 조사는 사진을 통해 1차 명칭을 확인한 후 준비된 질문지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후 1차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보자를 대상으로 하위 범주의 내용을 확장하는 2차 작업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지역 어촌계 구성원인 어부와 해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한 지점과 제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⁶⁾

4) 2004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한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은 해양 지명을 해상 지명(sea surface names)과 해저 지명(undersea features names)으로 구분하였고 해상 지명은 항상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으로 해양, 해협, 만, 포, 수로 등이 해당되며 해저 지명은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초, 퇴, 해저 협곡 등 물속의 지형에 관한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다.

5) 임영태 외(2011)에서는 우리나라 해양 지명의 속성은 조선수로지에 근간을 두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일본이 우리나라 연안의 수심, 위험물 등을 조사하여 최초로 간행한 수로지는 1886년(明治 19년) 간행한 『환영수로지』이며 이후 여러 번의 수정 보완을 거쳐 우리나라 전 연안의 항과 포구의 수심과 항해 위험물, 등대 및 조류, 해류, 기상 등 거의 모든 해양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1907년(명치 40년) 조선수로지와 1920년(대정 9년) 일본수로지 제10권 상편 중 조선편으로 “조선 동안에서 남안”과 “조선 서안편”으로 나누어 2권으로 간행되었다. 이 수로지에서 분류한 해양 지명의 속성에 관한 원전은 영국 해군성 수로부가 간행한 CHINA PILOT에 근거하고 있다. 이때 분류한 해양 지명의 속성은 주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해안가 지형에 대한 것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양 지명의 속성에 관한 분류는 이들 『조선연안수로지』에 있다고 본다.

6) 이 글에 반영된 정보 제공자는 주로 지역 어촌계 구성원어촌계장과 어촌계 어민, 해녀이며, 이 중 고성·속초·양양 지역에서 조사 수집된 일부 해양 지명은 해양 지명 표준화 연구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들 지역은 추가적 조사를 통해 보완 중에 있다. 또 <표 1>의 제보자 나이는 현재의 나이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임을 밝힌다.

<표 1> 참여 제보자 정보

구분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구분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어부	전00	남	72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육지해녀	김00	여	67	울진군 평해읍
	김00	남	66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초리		손00	여	77	울진군 평해읍
	이00	남	66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초리		천00	여	66	울진군 평해읍
	최00	남	60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초리		정00	여	64	울진군 평해읍
	김00	남	62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초리		이00	여	72	울진군 기성면
	최00	남	60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부리		이00	여	68	울진군 후포면
	김00	남	58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부리		김00	여	75	영덕군 축산면
	주00	남	66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부리		김00	여	74	영덕군 강구면
	박00	남	87	강원시 주문진 연곡면		임00	여	73	영덕군 영덕읍
	김00	남	82	강원시 주문진읍		최00	여	72	영덕군 축산면
	박00	남	77	강원시 주문진읍		이00	여	68	영덕군 영덕읍
	신00	남	77	강원시 주문진읍 연곡면		유00	여	59	영덕군 축산면
	김00	남	61	강원시 주문진읍 연곡면		임00	여	74	포항 청하면
	최00	남	88	강원시 주문진읍		임00	여	83	포항시 구룡포
	박00	여	86	강원시 주문진읍		성00	여	72	포항시 구룡포
	조00	여	81	강원시 주문진읍		박00	여	70	경주시 감포읍
	정00	여	76	강원시 주문진읍		염00	여	79	경주시 감포읍
	임00	여	60	강원시 주문진읍		김00	여	77	경주시 감포읍
	이00	남	87	충청북도 천부리		부00	여	71	경주시 감포읍
	견00	남	87	충청북도 천부리		김00	여	76	사시 동구
	임00	남	81	충청북도 천부리		김00	여	80	사시 동구
	정00	남	86	충청북도 천부리		이00	여	75	사시 동구
	강00	남	87	충청북도 천부리		손00	여	76	사시 동구
	정00	남	70	충청북도 천부리		김00	여	62	사시 동구
	박00	남	70	충청북도 태하리		김00	여	78	사시 동구
	김00	남	66	충청북도 태하리		박00	여	78	사시 동구
	김00	남	60	충청북도 태하리		박00	여	77	사시 동구
	김00	남	56	충청북도 태하리		김00	여	84	사시 동구
김00	남	56	충청북도 태하리	김00	여	85	사시 동구		
강00	남	56	충청북도 태하리	손00	여	83	사시 동구		
제주 출항 1세대 해녀	최00	여	77	포항 구룡포읍	이00	여	74	사시 동구	
	조00	여	85	포항 구룡포읍	김00	여	83	사시 동구	
	박00	여	70	경주시 감포읍	김00	여	68	사시 동구	
	이00	여	76	경주시 감포읍	조00	여	68	사시 동구	
		이00	여	76	경주시 감포읍	부00	여	78	사시 동구
이00			여	76	경주시 감포읍	고00	여	76	사시 동구
김00	여	76	부산시 기장군	김00	여	76	부산시 기장군		
주00	여	77	부산시	김00	여	77	부산시		
김00	여	73	울릉도	김00	여	73	울릉도		

이 연구의 조사 방법은 어휘의 다양한 모습을 규명하기 위해 참여 관찰, 심층 면접 등과 같은 민족지학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⁷⁾ 민족지학적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격식 질문지를 중심으로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현장 상황에 맞추어 참여 관찰, 대화, 심층 면접, 생애 구술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귀납적인 연구 방법이다. 현재까지 조사한 지역의 음성 자료는 전사 프로그램 Transcriber 1.4.2를 사용하여 텍스트 문서로 가공하고 조사 질문지의 번호에 맞춰서 엑셀(Excel) 자료로 재구성하였다.

7) 하임즈(Hymes)에 의해 시작된 언어인류학에서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은 사회 생활에서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말하기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다. 이는 언어와 사회 구조, 언어 행위와 사회 행위 간의 상호관계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연구의 방법론적 도구로는 민족지학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은 언어의 존재 양태가 말하기에 기반하고, 이를 통해 언어·문화·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김지숙(2020:193) 재인용.

그동안 해양 지명의 연구는 지리학과 해양 수산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임영태 외(2012), 임영태(2012)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해양 지명과 해도에서 사용되는 해양 지명 분석을 통해 해양 지명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안세진 외(2019)는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 해도에 나타난 한반도 연안 해양 지명을 국가별로 정리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시의 공간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어학 분야에서는 대부분 육상 지명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해양 지명을 다룬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중 문덕찬(2005)은 제주 지역 토속 지명의 후부 요소를 분석하면서 부분적으로 해양 지명을 다룬 바 있고, 오창명(2016)은 제주도 해양 지명과 해양 지명 표준화 편람간의 내용의 상이함을 지적하면서 지명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채 고시된 현 해양 지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기존에 발간에 <지명 사전>에서도 육상 지명을 다루면서 일부 해양 지명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지만 소수의 자료만 담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해안 지역의 해양 지명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 해양 지명 개관

지명은 중국의 지리를 최초로 일괄 정리한 <한서(漢書, 중국 전한의 역사책, 1세기 후반)> 지리지 머리말에 나오는 말이다. 따라서 지명의 역사는 2000년이 넘었다고 할 수 있다.⁸⁾ 최초의 지명은 나라 이름, 수도와 같은 육상 지명 등에 국한되었지만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양 지명까지 확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대상은 이러한 해양 지명 중 간출암, 초(礁)에 해당하는 후부 요소이다. 이 중 '암(岩), 도(島)'는 1770년(영조 46년)에 발간된 '조선 지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⁹⁾ 이처럼 지도에 표기된 해양 지명은 지도가 제작될 당시의 해양 지형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작한 지도 중 해양 지명은 '암(岩), 도(島), 초(礁)'에 국한되어 이 글에서 다루는 해양 지명을 고증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림 1] '조선 지도' 중 부산 동래

동해안에서 현지 주민이 사용하는 속성 지명은 바위의 이형태인 '바우, 방구, 바구, 방이, 방

8) 건설부국립지리원(1987:11) 지명 유래집.

9) '조선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 지도'를 그의 아들이 자료를 기반해 교정하여 영조 46년(1770년)에 제작된 것이다.

우, 바~와 '째(잡), 돌'과 '암(岩)'을 찾아볼 수 있었다.¹⁰⁾ 어민들은 '간출암, 초'를 '암(岩)'이 아닌 '째, 바위, 돌'이 결합된 (1)의 형태로 주로 표현하고 있었다.

(1) 가. 응 거 인제 저 대밭 끝이 깨치밭의 끝이라 하거든. 그 {째} 이름이 인제 {깨치밭끝째이라} 하거든. 미역 인제 멥 옛날에 미역 바위 농굴 때 옛날 어른들이 여기는 깨치밭. 요거는 {검둥바위}. 요거는 분리대로 인제 이렇게 이름을 지워가지고 나뉘가지고 옛날에 인제 노인들 해잡졌거든. {큰바우띠} 요 뺨에 {허릿째이란} 게 있고요. 거는 지방째이고 {큰바우띠} {셋째} 그 인제 바위가 바다 밑에 가른 이렇게 높게 있는 데는 {든돌}이고. 궁돌은 바다 밑에 가면 인제 이래 돌이 자그마시자그마시 해가지고 인제 이래가 째 깔려있는 데는 {궁돌}. 둥글둥글한 거는 궁돌 밑에 가여. 오늘 궁돌 하마 물건 해가면 다르거든. 아 오늘 궁돌 밑에 가 전복 해왔네. 이려고 이른다. 그거는 인제 바위 물밑에 이래 가면은 든돌이라고 좀 아꾸거든. 바위가 인제 물에 이래 가면은 밑에 {자갈밭에} 이래 물 질과 저런 데는 자갈밭에 밑에 잔뜩 깔려 가지고 있고 고 담에 인제 저 산 같으면 저 높은 거 같은 이 바다 밑에 있어. 그래 있는데 인제 요기서 이래 보면은 저 째아도 이래 보면은 이래 퍼렇게 까맣게 이래 보인다고. 이래 여도. 그면 오늘 {든돌에} 가 했나 이러면서로 그래 든돌에 가서 했다. 든돌. 그 말고도 {도박바우}, {새바우}, {갈매기바우}. 인제 갈매기가 앓으면 그래 인제 일로 보고 앓으면 {도박째}. 도박 많이 한다고 도박째. 시개 많이 난다고 {시개째}. 시개라고 있어.(영덕)

나. 예. {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기 뭐 {꼬꾸랑돌} 캐셨고 또 이거 무슨 돌이고 {갈매기돌} 캐셨고 돌 이름 돌을 바닷 속에 있는 돌을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만들어가 지어가지고. 그 답에는 물 속에 들어간 거는 {무덤}. 여그, 여기. 여그는 저 {갯방돌}.(경주)

(1)은 모두 바위 이름인데 전부 요소에 의해서는 그 의미를, 후부 요소에 의해서는 그 대상물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제 동해안 지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바위 명칭은 '깨치밭끝(째), 검둥바위, 큰바우띠, 허릿째, 지방째, 셋째, 든돌, 궁돌, 자갈밭(째), 도박바우, 새바우, 갈매기바우, 시개째'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바위 명칭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바위, 바우' 외에 '째, 째'이라고 지칭하는 속성 지명은 해저 지명인 초(礁)에 대응하는 것이다. 즉, 실제 어촌에서는 표준화된 한자 지명인 초(礁)가 아닌 고유어 지명 '째, 째'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임영태 외(2011:62)에서도 '울진군 오산항 인근에 있는 "큐우젼초(礁)"는 지역 방언으로 "구째"(째: 동해안 일부 지역의 방언으로 바닷가 해안선 부근의 바위 또는 미역 채취 등이 가능한 얕은 지역의 수중 바위)이라 부르던 것을 러시아 함대가 이 지역을 조사하여 제작한 해도에 러시아어로 한글 소리와 비슷하게 "큐우젼"으로 표기하였다. 후일 해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큐우젼"에 해저 지명인 초(礁)를 덧붙여서 "큐우젼초"가 되었으나 해양지명위원회가 2005년 "거북초(礁)로 명명하는 우를 범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1)에서 말하는 '째, 째'은 '초(礁)'의 고유어를 말하는 것이다.

지명은 하나로 표현되거나 기록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구째, 큐우젼초, 거북초'와 같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해양 지명은 어민들의 실태 사용에 대한 조사를 기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기관과 학계에서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 명명하여 사용함에 따라 실제 어촌의 지명 사용 양상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었다.¹¹⁾ 그래서 어떤 장소에는 한 개

10) 후부 지명소 '바위'에 대한 이형태인 '방구, 바구'가 들어간 'ㄱ'형태가 고어형이고, 이에 대한 통시적 변화는 k>h>ø로 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정태(2007:75)를 참고하기 바란다.

11) 최근에 고시된 해양 지명의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인 1952년 1월 해군본부 수로관실(현재 국립해양조사원의 전신)에

이상의 지명을 지니기도 하며 서로 다른 장소들이 동일한 이름을 가지거나 동일한 장소가 여러 방식으로 표기되거나 발음되고 있었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양 지명을 살펴보고자 한다.

4. 해양 지명에 대한 몇 가지 논의

해양 지명은 바다 장소에 대한 이름으로서 각각의 장소에는 제각기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해양 지명 중 '짚, 방귀, 방구, 바우'와 같은 후부 요소이지만 독특한 형태를 지니는 몇 가지 명칭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1) '-성에'형

바다 속 바위인 해양 지명 중 특이한 형태로 '-성에(성애, 성어, 성이, 성해, 서해, 서예)'가 확인되었다.

- (2) 가. 김정성에, 낙타성어, 대구성에(고성)
- 나. 군단성애(속초)
- 다. 큰서예, 새서예(양양)
- 라. 갈마성애, 된마성애(강릉)

(2가)의 '김정성애'는 검은 바위를, '낙타성어'는 바위 모양이 낙타의 봉우리처럼 생긴 바위를, '대구성애'는 대구가 많이 잡히는 바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2나)의 '군단성애'는 속초시 청호동 일대가 한국전쟁 당시 국군 군단이 주둔하였던 곳이라는 점에서 유래된 말이다. (2다)는 양양 지역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큰 바위는 '큰서예'로, 북쪽에 위치한 바위는 '새서예'로 지칭하고 있었다. 이는 뒤에서 다루는 (9다)의 '새바람내기'의 '새'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2라)의 전부 요소인 '갈마, 된마'는 모두 바람 명칭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이들은 모두 남풍인 '갈바람, 마파람'과 관련된 것으로 '된마'는 동남쪽을, '갈마'는 서남쪽을 말하며 이들 전부 요소를 통해 해당 바위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¹²⁾ '성에'는 (2)와 같이 강원도 지역에서만 확인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려웠다. 다만, 제보자들의 말에 의해 다소 규모가 큰 바위가 수심이 깊은 바닷 속에 군집되어 우뚝 솟아 있을 때 이를 '성에'로 부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에'는 '성애, 성어, 성이, 성해, 서해, 서예'의 형태로 나타났다.

현재 사전에는 바위와 관련한 '성에'와 그 이형태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다만, <우리말샘>에

서 서해, 동해, 남해를 대상으로 약 4개월에 걸쳐 800항을 실제 조사, 측량한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직접적인 일상 생활과 관련이 깊은 해양 어류, 패류, 해조류 등과 달리 해양 지명은 관련 기관에서 조사, 보고된 사례가 많지 않다. 즉 현장 자료도 체계적으로 조사한 자료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해양 지명 880개를 국내에 고시하였지만 여전히 표준화, 통일화되지 않은 해양 지명이 많아 이에 대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12) 東南의 고유어는 '새마' < 싯마 싯마(동남쪽바람; 牧島·統營) 東南風謂之繁麻即景明風也(→ 된마) 星湖僊說 西南의 고유어는 하늬마 西南의 고유어는 '하늬마' 갈마바람(서남쪽바람; 河東) 西南風謂之緩寒意(→ 느린하늬) / 或謂之緩麻即冷風也(→ 느린마) 星湖僊說 최창렬(1984) 참고.

‘어초’의 북한어로 정의된 ‘성에004’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어초(漁礁)’는 ‘해양 물고기가 많이 모여드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 어장의 한 형태로 암초, 모래톱 따위의 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경우와 블록, 암석, 폐선(廢船), 폐차(廢車) 따위를 바다에 가라앉혀 인공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로 정의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북한어로는 ‘물고기성에’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의 예시들은 모두 해저에 있는 바위를 의미하고 있어, ‘성에004’와의 의미적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성에’는 (2)와 같이 어촌 지역에서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성에’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5세기 <훈민정음(해례본)>에는 이와 비슷한 형태인 ‘서에爲流漸요<훈정 용자>’를 확인할 수 있다. ‘서에’는 유리나 벽 따위에 얼어붙은 서릿발이 아니라, “물 위에 떠내려가는 얼음덩이. =성엿장(물 위에 떠내려가는 얼음덩이. ≍성에, 유빙)”을 말한다. ‘서에’와 관련된 ‘성에<역어유해 상, 1690, 7>, <동문유해 상, 1748, 9>, <한청문감, 1956, 23a>, <한중록, 1762, 162>, 氷筏子 성에<방언유석, 1778, 申部方言11b>, 結漸 성에 지다<방언유석, 1778, 申部方言11b>’는 모두 얼음 결정을 가리키고 있어 (2)의 의미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런데, 1554년에 출간된 <중종실록>에서 남해 도서 지역을 설명한 글에 ‘媻妹嶼’를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으로 제시하고 있어 ‘성에’와 ‘서’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且進獻加德島圖形而啓曰: “右道熊川等各鎮, 及左道多大等浦, 與對馬島相對。聞對馬島形勢於古老人, 其長至於五日程, 其廣半日程, 彼倭發自陶沙只島, 經木島, 媻妹嶼, 抵于加德, 木島有井泉, 且可藏船, 故必休憩于此, 過前山浦迤邐, 而入于薺浦.<중종실록 104권,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우도의 웅천(熊川) 등 각진(各鎮) 및 좌도의 다대포(多大浦) 등은 대마도(對馬島)와 상대하였습니다. 대마도의 형세를 고로(古老)에게 물었더니, 그 길이는 5일정(日程)이고 너비는 반 일정이며, 저 왜인들은 도사지도(陶沙只島)에서 떠나 목도(木島)·**남매서(媻妹嶼)**를 거쳐 가덕도에 닿는데, 목도에는 우물이 있고 배도 감출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기에서 쉬고 전산포(前山浦)를 지나 구불구불 둘러서 제포(薺浦)로 들어갑니다.¹³⁾

<조선연안 수로지의 해저 지명 속성 분류표(1920년, 일본 수로부)>에는 서(嶼, Islet)와 애, 험해(崖, 險崖)를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서(嶼)’는 본래 육지 지명으로서 작은 섬을 뜻하는 것으로 섬 서(嶼)로 표기되며, ‘애(崖)’는 벼랑, 모, 기슭을 말하는 것이다. 서(嶼)는 작은 섬이라는 뜻으로 만조 시에도 항상 물 위에 노출되어 있는 작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것을, 모나거나 가파른 암석은 ‘애’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즉, ‘서’는 간출암(干出巖)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간출암인 ‘서’ 뒤에 결합한 ‘에, 애, 예’ 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19세기의 문헌인 <한불자전(1880)>과 <한영자전(1987)>에서 한자어 ‘서(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4) 가. 여 嶼<한불자전 1880,25>
- 나. 여:*嶼 (섬-*서)<한영자전 1897,12a>

(4)는 19세기 당시의 규범어를 담고 있는 사전에 등재된 ‘여’를 제시한 것이다. (4)를 고려하면, 우리말 ‘여’와 ‘서(嶼)’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서’는 물 밖으

13) 국사편찬위원회 <https://sillok.history.go.kr/id/kka> 해석 참고.

로 우뚝 솟은 바위를, ‘여’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는 ‘수중여’로, 썰물 때 바닷물 위로 드러나고 밀물 때 잠기는 바위는 ‘간출여’로 구분된다. 그럼에도 19세기 사전에는 ‘서(嶼)’와 ‘여’를 모두 동일한 말로 제시하고 있다. 즉 이 시기에는 적어도 ‘여, 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듯, 실제 사료에서도 ‘수도, 해만, 만, 포’에 비해 ‘간출암’과 ‘초’는 ‘서, 초, 암, 여’와 같은 속성 지명이 뒤섞여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여’에 유의어 지도[우리말샘]

다음의 <표 2>는 1787~1876년에 간행된 해도 사료를 보기 쉽게 정리한 안세진 외(2019:312)를 가져온 것이다.¹⁴⁾

속성지명	국가	지명	빈도
수도	영국	Purvis Inlet(대방수도), Emperor Reach(교동수도), Murray Sound(거차수도), Admiralty Inlet(거급수도), Douglas Inlet(가덕수도)	5
	미국	Febigers Channel(초도수도)	1
해만	프랑스	Golfe du Prcé, Jérôme(아산만), Golfe de l'impératrice(남양만)	2
	영국	Shoal Gulf(친수만), Shadwell Gulf(통영해만), Willes Gulf(여수해만), Washington Gulf(마로해)	4
만	프랑스	Baie Broughton(함흥만), Baie Younghing(영흥만), Baie Déception(삼길포), Baie Caroline(가로림만), Baie Joachim(-)	5
	영국	Deception Bay(제주항), Foul Bay(성산포), Hooper Bay(서귀포항), Basil's Bay(비인만)	4
	러시아	Бухта Гашкевича(조선만), Порта Лазарева(송전만), Заливь Броутона(동한만)	3
	미국	Wachusett Bay(목동만)	1
포	영국	Ashby Inlet(낙동포), Herschel Cove(-)	2
	러시아	Бухты Унковского(영일만)	1
간출암 ·초	프랑스	R. Chasseriau(장안서), R. du Chat(무당서)	2
	영국	Samarang Rock(갯새기여), Saracen Rock(양암), Leven Rf.(복사초), Salamis Reef(번서), Deceifful Reef(-)	5
	미국	Philips Rock(구미전서)	1
사퇴·천퇴	프랑스	Banc Chasseriau(장안사퇴), Banc du Tardif(-)	2
합계			38

<표 2> 1787~1876년 타국에서 간행한 해도에 나타난 우리나라 해양 지명

<표 2>는 앞서 제시한 19세기 사전과 비슷한 시기인 1787~1876년에 간행된 해도에 나타나

14) 안세진 외(2019)의 <표 2>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도, 고해도 속의 우리 바다(국립해양조사원, 2016)에 수록된 해도, 한상복 개인 소장 해도 143점과 일본 국립공문서관 데이터 아카이브 웹사이트(<https://www.digital.archives.go.jp>)의 해도 11점을 수집 정리한 것이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항해기에 나타난 지명(Broughton, 1804; Hoppner, 1813; Hall, 1818; Mcleod, 1818a; 1818b; Gützlaff, 1834; Lindsay and Gützlaff, 1834; Belcher, 1848; Blakeney, 1902; 문준일 역, 2014), 영국과 미국에 의해 간행된 해도 카탈로그집(Dunsterville, 1868; U.S. Navy Hydrographic Office, 1876; Bullock, 1884; Bowditch, 1888; U.S. Navy, 1910), 수로지와 Gazetteer집(Jarrad, 1873; King, 1861)에서 한반도 연안 해역 일대를 묘사하는 해양 지명을 추가로 수집하여, 총 581개의 지명을 공간 DB로 구축하였다.

해양 지명이다. 군사 또는 교역을 목적으로 간행된 해도라는 점에서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간출암, 초'에 관한 지명인 '장안서, 무당서, 잣새기여, 양암, 복사초, 변서, 구미전서' 등이 확인된다. 우선 <표 2>에는 reef, rock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둘다 암초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여, 암, 초, 서'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즉 간출암은 썰물 때 바닷물 위로 드러나고, 밀물 때 잠기는 바위를, 초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은 바위나 산호를 말하지만 이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또 괄호 속 지명이 현재 해당 지역에서 불리는 지명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해양 지명의 명명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안세진 외(2019:313)에서 언급된 1877~1910년에 일본에서 간행된 해도에 표기된 '黃達嶼(황달서), 烏岩(우두암), 龍田礁(용전초), フェーム岩(용암), 彦嶼(언서), 漁夫岩(어부암), フク瀨(복뢰), Manderi Reef(만데리여), 南越礁(나무초), 橋本礁(교본초), 馬岩(도뢰), 海門礁(고래여), 甘嶼(감서), 尾張岩(가섬앞초), 玄嶼 (Kamuru Yō)(가문여), 出雲礁(완도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를 거쳐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해도와 문헌에 '여'와 '서(嶼)'가 혼재되어 나타난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규범어인 '서, 애, 여' 등도 비교적 늦게 정착된 것으로 파악된다.¹⁵⁾ 이를 보여주듯, 현재에도 '서'와 '여'가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오창명(2016:236)에서도 2013년 해양 지명 표준화 작업에서 제주 해양 지명인 '여'와 '초'가 혼동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 임영태 외(2011:61)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해상과 해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초(礁), 암(岩), 서(嶼), 여(礪, 汝) 등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었다는 기술을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¹⁶⁾

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에'에 대한 또 다른 가정으로는, 바위를 가르키는 '서(嶼)+애(崖)' 또는 '서(嶼)+여(礪, 汝)'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 '성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비슷한 의미를 지닌 두 개의 단어가 경쟁 관계에 있다가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 합성어로 보여진다. 실제 암석에 대하여 제보자에 따라 서(嶼) 또는 여(礪, 汝), 암(岩)이라 부르고 있었다. 방언은 '명사+명사' 결합이 많은데, 이로 인해 '합성어'가 나타나기도 한다. '서+여, 서+애'의 변화 과정은 '서애 > 성애, 성애 > 서애 / 서여>서애'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해당 지명의 옹고 그룹을 떠나 (2)와 같이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현지 주민들에게 일관된 속성지명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¹⁷⁾ 특히 '초(礁)'와 같은 해저 지명은 국내의 기준이 아니라 국제 기준이 따로 명기되어 있어 현지 주민들이 인식하는 지명과 해도에 기재된 지명에 대한 괴리감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2) '듬'형

'듬'과 관련된 형태는 동해안 지역에서 'दै이, 듬이, 듬, 듬, 듬, 듬, 듬, 듬, 듬, 듬, 듬, 듬' 등으로 나타나

15) 강봉룡, 천명량 외(2022:128)에서는 '주산시(舟山市) 보타(普陀)의 지명에는 '신라초(新羅礁)', '신라서(新羅嶼)', '신라산(新羅山)', '신라방(新羅坊)', '고려도두(高麗道頭)'가 있다.'를 언급하면서 '서, 초'를 제시한 바 있다.

16) 임영태 외(2011:61)는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해양지명위원회에서 고시한 우리나라 해양 지명을 분석하면 만조 시 물 위로 보이는 간출암에 대하여는 거의 모두 "여(礪, 汝)"라는 속성지명으로 명명하였으나 해양 지명 표준편람과 분류표에는 존재하지 않는 해양 지명이다. 현재 嶼(서),와 礪, 汝(여), 礁(초), 岩(암)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면 향후 최소한 해상 지명과 해저 지명에 대한 속성 분류 만이라도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暗礁, 岩礁(암초), 礪, 汝(여)에 대한 새로운 표준 속성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17) 2007년 해양지명위원회에서는 간조 시 수면 위로 들어나는 암석(岩石)에 대하여, 여(礪, 汝)로 고시하였는데, 여(礪, 汝)는 속성 분류표에 없는 지명이므로 해양 지명으로 속성을 재분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고 있었다.

- (5) 가. 우럭덩이/우럭뚝, 방어등이(고성)
 - 나. 섭덩이(강릉)
 - 다. 고래듬/골듬, 경술듬/경술에담/경술네, 가부름덕, 알개돔(영덕)
 - 라. 깜빡듬/깜빡덤, 고동돔/고등돔, 이덕/이득¹⁸⁾(울산)

(5) 역시 모두 간출암, 또는 초로 추정된다. 이 중 (5가)의 전부 요소인 ‘방어, 우럭’은 물고기인 방어, 우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당 어종이 많이 잡힌다는 의미를, (5나)의 ‘섭’은 홍합을 말하는데 이 역시도 홍합이 많이 달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5가) ‘방어등이’, ‘우럭덩이(우럭뚝)’와 (5나) ‘섭덩이’의 ‘덩이, 등이’의 구체적인 뜻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제보자들은 ‘덩이’, ‘등이’, ‘뚝’을 모두 ‘바다 속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를 말하고 있었다. 한편, 영덕과 울산 지역에서 확인되는 ‘듬, 덕, 돔, 득’은 (5가나)와 형태적인 차이가 있지만 지시 대상은 모두 동일하게 바다 속 바위를 가르키고 있었다. (5다)의 ‘고래듬’ 또는 ‘골듬’은 고래의 등과 같이 바위 윗부분이 굽어져서 솟아있는 바위를 지칭하였고, ‘경술듬’은 경술네 소유의 바닷속 미역 바위로 다른 말로 ‘경술에담, 경술네’로도 불렸고, ‘알개돔’은 다섯 개의 바위가 바다에 웅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마치 날개와 같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 중 (5다)의 ‘가부름덕’은 깊은 바다 한 가운데 있는 바위를 가리켰지만 ‘가부름’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가부름덕’의 후부 요소인 ‘덕’은 <제주토속지명사전(1992)>에서도 ‘홀에미덕(1992:47, 안덕면), 물뿔는덕(1992:52, 안덕면), 남덕(1992:26, 대정읍), 물내리는덕(1992:26, 대정읍), 자리덕(1992:26, 대정읍)’으로 확인되었다. 또 문덕찬(2005:19)은 <제주시 옛 지명(1996)>, <남제주군 고유지명(1996)>,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9)>에 실린 8,000여 개 지명을 토대로 바위 지명에 ‘검은덕(안덕), 꿩두둑, 당두둑(표선), 알지방툑, 웃지방툑(대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제주 지역에서는 바위 지명의 후부 요소로 ‘덕, 둑, 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다 위로 노출된 높고 커다란 암반, 바위를 가르키고 있었다. (5라)의 ‘깜빡듬’은 조류에 따라 바위 윗부분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모습이 마치 깜빡깜빡한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고, ‘고동돔’은 미포시돌 옆에 있는 바위로 고동이 많이 나는 바위를, ‘이덕, 이득’은 넓은 바다 가운데 있는 돌이라는 의미로 ‘한섬’이라고도 불렸는데, ‘이’의 명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었다. (5)는 조류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깜빡듬’과 ‘고래듬’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다 속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고 있었다. (5)와 같이 어촌 지역에서 다양한 이형태로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덩이’형은 현재 사전에서는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제보자들의 말에 의해 바위라는 것만을 짐작하고 있는 ‘덩이’형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5)에서 제시된 후부 요소인 ‘덩이, 듸, 덤’은 해양 지명은 아니지만 육상 지명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6) 가. 듸대산(상주)
 - 나. 사립듬(합천)
 - 다. 빨취덤(의령)

18) 울산시 이수사(207쪽)에는 점점이 떠있던 미역 바위들을 가리키는데 “울기등대 바깥에 나가면 ‘석우듬’이라는 돌(암초)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하다가 옆~”가 제시되어 있어, ‘듬’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 라. 미륵댕이/미륵당, 두릉댕이/두릉댕이(안동)
- 마. 서낭댕이(횡성, 보령)
- 바. 노루댕이/노루목(평택)
- 사. 말마댕이/말마대이/마장동¹⁹⁾(여주)

(6)은 모두 육상 지명인데, ‘듬, 덩, 댕이’를 볼 수 있다. 먼저, (6가)의 ‘듬대산’의 ‘듬’은 바위의 방언 ‘덤’의 이형태와 높고 도드라진 곳을 가리키는 ‘대(臺)’가 결합된 말로 바위산을, (6나)의 ‘사립듬’은 합천군 용주면에 위치한 바위로 그 모양이 시루떡과 같이 넓적하여 그 위에서 서당에 다니는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때때로 스승의 강론을 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 (6다)의 ‘뿔쥬덤’은 의령군에 있는 쪼개진 바위 이름인데, 그 바위 밑에 뿔쥬(뿔쥬: 박쥬)가 살고 있어서 그 연유로 나온 이름이다. 이처럼 바위의 경상도 방언은 ‘바우, 바구, 방구’ 외에도 (6가나다)의 ‘덤, 듸’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즉, ‘덤, 듸’은 바위를 가리키는 방언형이다. 이를 보여주듯이, <한국 지명 총람(1979)>에서도 경상도 지역에서 사용되는 ‘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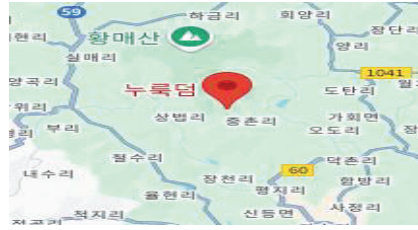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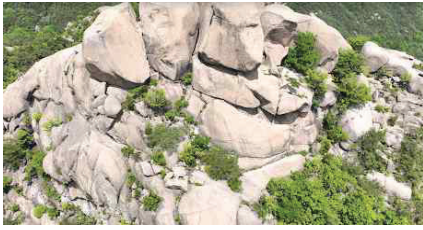
- (7) 가. 덩바위(영덕): 할미방우 북쪽 냇가에 있는 큰 바위 더미.<한글학회(1979:34)>
- 나. 고래덤(영덕): 노물 동남쪽 바닷가에 있는 바위. 모양이 고래처럼 생겼음.<한글학회(1979:61)>
- 다. 산암덤(영천): 섬제골 북쪽에 있는 바위<한글학회(1979:424)>
- 라. 앞덤(영천): 안구일 남쪽에 있는 더미<한글학회(1979:423)>

(7)은 <한국 지명 총람(1979)>에서 가져온 어휘와 그 뜻풀이인데, ‘덤’이 바위 또는 더미를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영덕에서 나타난 ‘덤’ 형태는 모두 냇가와 바다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래덤’은 (5다)의 ‘고래듬’과 동일한 장소의 해양 지명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덤’은 바위를 지칭하고 있었다. 그런데 ‘덤’이 바위만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7가)의 ‘덤바위’, (7라)의 ‘앞덤’ 때문이다. (7)의 뜻풀이를 통해 ‘덤’의 의미를 정리하면, ‘1.더미의 축약형, 2.바위의 방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지만, <우리말샘>에서도 ‘덤004 ‘바위’의 방언(경남).’, ‘덤 007 ‘더미’의 방언(제주)’로 제시되어 있다.

- (8) 덩 「004」 ‘바위’의 방언(경남). <우리말샘>
- 「007」 ‘더미’의 방언(제주). <우리말샘>
- 「008」 ‘절벽’의 방언(경북). <우리말샘>
- 듬 「002」 「명사」 「방언」 ‘벼랑’의 방언(경북). <우리말샘>

19) 순차적으로 다음을 참고하였다.

(나무위키<https://namu.wiki>, 향토문화전자대전<https://www.grandculture.net>, 안동시<http://www.andong.go.kr>, 횡성군 hs-culture.or.kr, 보령시청<https://www.brcn.go.kr>, 평택시사 <https://sis.pyeongtaek.go.kr>, 여주시청 <https://www.yeju.go.kr>, 의령군<https://osulgil.com/>,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



<그림 3> 누룩덤[구글 이미지]

한편, ‘댕이’는 (6라마바사)에서 보듯이,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까지 폭넓게 확인이 되었다. (6다)의 ‘미룩댕이, 미룩당(彌勒堂)’은 마을 뒤 산골짜기의 암반을 등지고 있는 미룩이 돌방석 위에 앉아 있다는 것에서, (6라, 마)의 ‘서낭댕이고개’는 고개로 예전에 고개 정상에 서낭당이 있다는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6바)의 ‘노루목’ 또는 ‘노루댕이’는 지형이 노루의 목처럼 잘록하게 들어간 곳을 가리키는데 이곳을 노루 장(獐)을 써서 ‘장당(獐堂)’이라 하기도 하였다. (6사)의 ‘말마댕이(말마대이)’는 여주군 능서면에 있는 말무덤 밑에 있는 마을 이름인데, 말무덤의 둔덕에서 유래된 말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바위, 돌, 둔덕’ 등에 사용되고 있었다. 즉 ‘댕이’ 역시도 육상 지명에서 바위 또는 바위와 관련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6라마바사)에서 제시된 ‘댕이, 대이’도 모두 (6가나다)의 ‘덤, 덤’과 관련된 말로 파악된다. (5)와 (6)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육상 지명과 해양 지명이 가리키는 내용이 상당히 일치하고, 이들은 모두 바위와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넓은 바위를 ‘덕’이라고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바위 외에도 일정한 구역이나 장소 등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었다. ‘댕이, 등이, 듬, 덕, 돛, 득, 뚝’에서 ‘뚝’의 변화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외의 어휘들은 모두 ‘듬, 돛, 득’의 이형태인 ‘덕’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덕’은 바위를 가리키는 명사이고, ‘덕’의 이형태로 파악되는 ‘덩’에 접사 ‘-이’가 결합된 형태가 ‘덩이’인데, 이는 ‘덩이(움라우트, |모음 역행동화) > 댕이, 댕이, 댕’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등이’는 ‘ㄱ>ㅡ’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댕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덤, 듬’은 앞서 언급처럼 <우리말샘>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²⁰⁾ <우리말샘>에는 ‘덤004’은 ‘바위의 경남 방언.’으로, ‘듬002’은 ‘벼랑의 경북 방언.’으로 나와 있는데 어원상 두 말은 동일한 말로 보이지만 각각의 어휘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3) ‘-내기’형

‘-내기’는 ‘나다(出)’에 접미사 ‘-기’가 결합된 ‘나기’에 ‘ㅣ’ 모음 역행 동화가 이루어진 접미사인데 바위 명칭에서도 확인되었다.

- (9) 가. 낙산내기(속초)
- 나. 찬물내기(울진)
- 다. 속사내기, 셋바람내기, 마파람내기(고성)

20) <번역박통사>에 ‘덩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상 차이가 있다.
 예) 더 어름 담은 그릇 우희 혼 덩잇 어름 노코. <<번박 상:5>>(원문: 那冰盤上放一塊冰.)

(9)의 '-내기'는 '서울내기, 시골내기'와 같은 접사 '-내기'이다. '-내기'는 '명사+-내기'의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전부 요소에는 지명, 바람명 등이 나타났다. 먼저, (9가)의 '낙산내기'는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 있는 바위로 '낙산'이라는 이름은 이곳의 조도와 외옹치 사이로 낙산의 봉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9가)의 '낙산'과 동일하게 지명으로 파악되는 (9다)의 '속사'는 속초를 가리키는데, 문헌을 통해서 '속사'와 '속초'와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속초의 지명(1990)>에 '속사(束沙)는 속시(木賊), 속새(經草, 어욱새)를 이두(吏讀)로 속사(束沙)라 표기한다. 황무지, 원야(原野) 등에 나는 속새과(木賊科) 식물을 말하는데, 사근(沙斤)이나 원야(原野)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어 과거 속초에는 속새풀이 많았고, 이로 인해 '속사'라는 지명이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된다. 즉, '속사'는 속초의 옛 지명이며, '속사내기'는 고성 앞바다에 있는 속초 방향의 바위를 가리킨다. (9나)의 '찬물내기'는 울진군에 있는 수중 바위, 즉 미역바위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때 전부 요소인 '찬물'은 '차가운 물'과 관련되어 보인다.²¹⁾ 이처럼 '-내기'가 붙어 바위를 가리키는 지명은 육상 지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²²⁾

(10) 가. 명내기(함양): 명맥바위, 명내기바위, 추상마을 뒤 깃대봉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바위.

나. 약물내기(영월): 상리를 지나 연하리로 가기 직전인 약물이 나는 바위. 약수가 있는 마을 이름.

(10)은 모두 '-내기'가 결합된 말로, 바위를 의미한다. 즉 후부 요소인 '-내기'가 결합되어 바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9)와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찬물내기'는 (9)와 같은 육상 지명 외에도 해양 지명인 바위 명칭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가 있다. 2002년 7월 1일 발족한 해양지명위원회가 동해, 남해, 서해 해양 지명 4건을 처음으로 12월 23일 제정, 고시했을 때 동해시에 있는 수중 암초를 '찬물내기초'로 명명하였기 때문이다.²³⁾ 해양지명위원회가 고시한 명칭은 사시사철 찬물이 솟아 흐르는 바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9나)의 의미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찬물내기'는 해양 지명뿐만 아니라 육상 지명으로도 광범위하게 확인되었다.

한편 (9다)의 '셋바람내기, 마파람내기'는 고성군 아야진항 앞바다에 있는 바위인데 바람 명칭인 '셋바람, 마파람'과 결부되어 나타났다. 흔히 동해안에서 방위는 '새'는 동을, '하늬'는 서를, '마'는 남을, '뒤'는 북과 대응 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9다)의 '새'와 '마'는 각각 동쪽과 남쪽을 말한다. 즉, 방위 명칭에 '-내기'가 결합되어 나타났는데, 여기서 방위는 해당 바위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²⁴⁾ 그런데 '셋바람내기, 마파람내기'는 강원도 지역의 바람 명칭에서도

21) 육상 지명에서 '찬물내기'는 폭넓게 확인이 되었는데, 모두 '찬물'은 '차가운 물이 나는 샘' 또는 '그런 물이 있는 마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 백안, 뱃설, 새각단, 찬물내기(경산) 나. 냉泉, 찬물내기, 酒幕(성주)

다. 찬물내기[冷泉](김천) 라. 냉천동, 찬물내기(충주)

마. 찬새밧골 마을, 찬물내기(함안) 바. 찬물내기들(거창)

사. 냉수동(冷水洞), 찬물내기(금오도) 아. 찬물내기(울진): 화전민이 살던 마을로 셋재 오르막길에 위치.

관련 명칭과 설명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였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grandculture.net>, 거창군 <https://www.geochang.go.kr>, 구미시 <https://gumo.kr>)

22) (10)은 함양문화원 <http://hamyang.kccf.or.kr>, 영월문화원 <http://ywculture.or.kr/bbs>을 참고하였다.

23)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22> 한국해운신문(2004. 8. 4.) 참고. <https://www.dh.go.kr> 동해시청 참고.

24) 자세한 내용은 박성중(1995:428-429)과 김지숙(2000:33-34)을 통해 참고하기 바란다.

예) 그 저 옛날부터 삼형제봉이었는데 거기서 바람이 나오는 것이 거 설악산내기라고 그 저 설악산 저 우리 야영 설악산 있지. 설악산 있지. 원산내기. 원산내의. 응 이거 여서 부르기는 설악산내기. 설악산바람. 바람이구나 그래.(강원

확인이 되었다. 박성중(1995:428-429)이 강원도 지역의 바람 명칭을 정리하면서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삼척 지역의 바람의 명칭으로 ‘온산내기(서북풍), 원산내기(서북풍), 설악산내기(서북풍)’를 언급한 바 있고, 김지숙(2000:33-34)에서는 해당 바람 명칭이 ‘-매기’가 아니라 ‘-내기(내이)’이며, 박성중 외(1995:428-429)에서 언급한 어휘 외에도 다른 어휘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동풍	동남풍	남풍	남서풍	서풍	북서풍	북북서풍	북풍	북동풍
동풍, 들바람, 셋바(파)람, 동새(풍), 동셋바람, 들분다, 이스바람	남동풍, 동남풍, 갈바람, 남쪽하고동쪽생간에서 부는기, 마대로 들어분다, 동갈, 을진(바람)	갈바람, 마파람, 남서풍, 오수바람, 남갈, 바람	남서풍, 하늬바람, 마대들바람, (마갈수)바람, 마대로 들어온다, 갈바람, 뉘갈(바람), 치진갈	서풍, 청풍(바람), 하늬바람, 내바람, 내부는바람, 내분다, 내부는것, 웨스바람, 대관령내기	북서풍, 서북풍, 북청, 청풍, 댄갈(청풍), 북서계절풍, 디갈기, 뉘갈기(바람), 웃고(굴)새, 설악산내기(설악산바람)	금강산내기	셋바람, 북풍, 북바람, 북새, 북청, 웃고(굴)새, 원산내기(내이) , 노스바람	셋바람, 북동풍, 동새, 인간풍, 마대로 들분다, 마대들바람, 새대로 들어오다, 새뎃바람, 새대들바람, 들바람, 새대로들어오는 거, 들어오는바람

<표 3> 바람의 분화 기제에 따른 분화 양상과 어휘 목록(김지숙2015:36) 재인용

<표 3>에서 ‘-내기’가 결합된 바람 명칭은 ‘금강산내기(북북서풍), 대관령내기(서풍), 설악산내기(북서풍), 원산내기(정북풍)’이다. 이들은 모두 강릉보다 위쪽 지역인 원산, 대관령, 설악산에서 오는 바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른 말로 ‘웃고새, 웃굴새’라고 하거나 ‘지역명+-내기(내이)’로 각 바람을 구분하고 있었다. 이를 보여주듯이, 강원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남 통영에서도 바람 명칭에 ‘-내기(내이)’가 결합된 ‘사천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²⁵⁾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장하는 접미사 ‘-내기’는 ‘서울내기, 시골내기’와 같이 지역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곳 출신의 사람’의 뜻과 ‘흔히 그런 사람을 낮잡아 이를 때 쓴다’고 뜻풀이하고 있다. <표 3>에 나타난 ‘-내기(내이)’는 설악산, 원산, 대관령이라는 지명과 결합되어 쓰인다는 점에서 출신 지역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출신지가 바람의 근원지, 시작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사 ‘나다, 내다’의 의미와도 관련된다.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내기’는 경상도, 강원도에서 해양 지명뿐만 아니라 육상 지명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내기’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지역 특성 또는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라고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9), (10), <표 3>을 고려하면, 고유 요소인 바람, 지명 등의 다양한 명사에 결합되어 상당한 생산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상 지명과 해저 지명의 거리상의 인접으로 인해 생기는 명칭 간의 혼효가 아니라 바위와 바람이라는 다른 범주에서 ‘-내기’가 사용된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다.²⁶⁾

강릉) 김지숙(2000)과 김지숙(2011) 참고.

25) 예) **사천내기**라 그러는 기. 우리가 무식한 말로 **사천내이**라 그러지. 요기 사천 같으면 사천개에서 나오는 바람. 동풍은 셋바람, 뉘바람은 북쪽에서 오는 겁니다. 편갈은 편갈이라 하는 건 **사천내이**라고.(경남 통영 옥지도)

26) 조항범(2005:66)에서는 지명은 어형의 변화가 의미 변화를 유발하고, 일반적인 언어보다 어형 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내기’의 경우는 어형 변화 없이 의미 변화만 가져왔다는 점에서 일반적이지는 않다.

다만 전부 요소를 통해서는 근원지, 시작점을 표현하면서, 후부 요소인 '-내기'를 통해서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하려는 발화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해양 지명을 통해 어민들의 어촌의 공간 인식과 실제 쓰임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제작한 해양 지명이 명기된 지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양 지명을 고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지명은 어민들을 통해 구전되고 있어 이분들이 사망할 경우 그 어원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이로 인해 현지인이 오랫동안 사용한 해양 지명을 토대로 이를 실체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표준화된 해양 명칭이 아니라 어부와 해녀 집단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해양 지명이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로 사용되는 해양 지명을 자료화하였다는 점에서 지명 관련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조상의 역사, 문화, 풍속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문화 유산으로도 그 가치를 지닌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어민들이 사용하는 해양 지명의 후부 요소 몇 가지만을 다루고 있어 다양한 해양 지명을 포괄적으로 파악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지인들의 구술 발화를 대상으로 지명 자료를 구축, 검증하였기 때문에 해당 지명의 어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 그리고 육상 지명과 해양 지명의 관련성, 현재 해양 지명 표준화로 고시된 지명과 민간에서 부르는 지명의 괴리감 문제 또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연구가 가지는 이러한 한계점은 앞으로 해양 지명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각각의 지명에 대해 역사학, 언어학, 지리학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보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방언유석(1778), 한영자전(1987), 한불자전(1880), 훈민해례(1446), 역어유해(1690), 동문유해(1748), 한청문감(1956), 한중록(1762), 중종실록(1554).

2. 단행본 및 논문

강봉룡 외(2022), 《한중 해양문명 오천년》, 국립해양박물관 학술 총서 7, 국립해양박물관.

강정희, 김지숙 외(2014), 《민족생활어 조사 어촌 생활어 질문지》, 국립국어원.

건설부국립지리원(1987), 《지명 유래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2009), 《한국어 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1999/2008), 《표준 국어 대사전》, 두산동아.

김정태(2007), 〈후부지명형태소 '바위(岩)'의 교체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62호, 한국언어문학회, 73-96쪽.

김지숙 외,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5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국립국어원, 2010.

김지숙 외,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5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국립국어원, 2011.

김지숙 외,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5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국립국어원, 2012.

김지숙(2015), 〈동해안 어촌 생활어에 나타난 바람 명칭 명명법 연구〉, 『한민족어문학』 71호, 한민족어문학회, 1-40쪽.

김지숙(2020), 〈언어 접촉으로 육지 해녀의 언어에 나타난 제주 방언 연구〉, 『방언학』 32호, 한국방언학회, 191-220쪽.

문덕찬(2005), 〈제주 지명어의 형태, 음운론적 연구〉, 제주대학교(박사).

박성중 외(1995), 《강원 어촌지역 전설 민속지》, 강원도, 관동대학교 부설 강릉무형문화연구소.

박성중 외, 《강원 어촌지역 전설 민속지》, 강원도(동해출장소), 국학자료원, 1995.

서울대 규장각(2005), 《조선지도》, 서울특별시 인제정보산업협동조합.

속초문화원(1990),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안세진 외(2019), 〈한반도 연안 해양지형에 대한 시공간적 인식의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54권 3호, 301-319쪽.

오성찬(1992), 《제주토속지명사전》, 민음사.

오창명(2016), 제주 도서명과 해양지명, 해녀문화국제심포지엄 박물관과 무형유산 자료집, 227-238쪽.

일본 수로부(1920), 조선연안 수로지의 해저 지명 속성 분류표.

임영태 외(2011), 우리나라 해양지명 표준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정보학회지 19권 6호, 55-65쪽.

임영태(2012), 우리나라 지도와 해도의 해양지명에 관한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4권 2호, 65-78쪽.

정석호(2007), 《경북동남부 방언 사전: 영천·경주·포항을 중심으로》, 글누림.

제주특별자치도(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일신옵셋인쇄사.

조항범(2005), 地名의 語形 擴大와 의미 변화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17, 65-94쪽.

최창렬(1984) 〈우리말 계절풍 이름의 어원적 의미〉, 『한글』 183, 한글학회, 121-140쪽.

한글학회(1979), 《한국 지명 총람》 6 경북편 III, 평강정밀인쇄공업사.

한글학회(1979), 《한국지명총람》 6, 경북편 III, 평강정밀인쇄공업사.

한글학회(1991), 《한국 땅이름 큰사전》 (상, 중, 하), 한글학회.

한글학회(1991), 《한국땅이름큰사전》(상, 중, 하), 한글학회. 등.

3. DB, CD, 사이트

한민족 언어 정보화 자료 CD.

지역어 조사 자료(국립국어원) DB.

민족생활어 조사 자료(국립국어원) DB.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www.grandculture.net>

역사문화대전(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grandculture.net> 등.

“해양 지명어 분석 연구 - 바위에 대한 후부 지명소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문성호(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이 연구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해양 지명을 민족지적 연구 방법으로 조사하여 논의한 것입니다. 동해안 현지의 어민들의 실제 발화를 통해 몇몇 특징적인 지명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현장에 직접 나가 조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많은 품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발표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본 토론자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성애'의 어원에 관해 바위를 가리키는 '서(嶼)+애(崖)' 또는 '서(嶼)+여(礪, 汝)'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 '성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서+여, 서+애'의 변화 과정은 '서애 > 성애, 성애 > 서애 / 서여>서예'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어원 추정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의미와 성조 문제일 것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애'는 '流澌(유시=얼음이 녹아서 흐름, 또는 그 얼음.)'에 대응하는데 일단 의미 면에서 바위와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서애'는 [평평]의 성조를 보이는데, '嶼'는 [상성]의 성조를 보입니다. 이러한 의미와 성조상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듬, 돛, 득'을 '덕'의 이형태로 보았고, 이 '덕'은 바위를 가리키는 명사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덩' 역시 '덕'의 이형태로 파악하였는데, '듬'과 '덤'의 관련성은 개연성이 있지만 '덕'의 'k'과 'm'의 대응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덕'과 '덩'의 관계 역시 이형태로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러한 음운 현상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덕(德)'은 북한 지명에서 많이 확인되는데, '높은 언덕'이라는 연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지명어 후부요소 '덕(德)'의 지리적 분포와 특성 -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김우선·김현중)

3. '-내기' 역시 바위를 의미한다고 논의하였는데, (바위가) 솟아나다, 여기서 '나-'는 수직적 방향의 '나-'의 의미로 해석하면 어떨까 합니다.

* 혹시 잘못 이해 한 곳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해양언어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어촌의 언어 경관에 관한 연구

양민호(국립부경대학교)

< 차 례 >

1. 들어가며
2. 언어 경관 연구란
3. 어촌 언어 경관 연구 사례
4. 나오며

1. 들어가며

어촌은 단순히 수산업 중심의 경제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역사, 언어적 정체성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사회적 공간이다. 특히 어촌의 언어경관은 간판, 표지판, 광고물 등 다양한 시각적 언어 자료를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며,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과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드러낸다. 해양언어학¹⁾은 이러한 언어 경관을 분석하여 어촌 지역의 언어적 특성과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본 발표는 남해, 동해, 서해, 제주해의 주요 어촌 중심으로 언어 경관을 조사하고, 각 지역의 상점 간판과 공공 표지판 등 다양한 시각적 언어 요소가 어촌의 정체성과 문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어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언어학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언어 경관 연구란

해양언어학의 관점에서 어촌의 언어 경관²⁾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바다를 매개로 이루어진 문화적 교류와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같은 더 깊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구 접근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어촌의 언어 경관 일부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도시에 비해 낙후된 어촌이 지속 발전 가능한 방향을 찾고자 한다.

2.1. 조사 대상 및 연구 범위

본 연구는 대한민국 4대 해역(남해, 동해, 서해, 제주해)의 주요 어촌을 대상으로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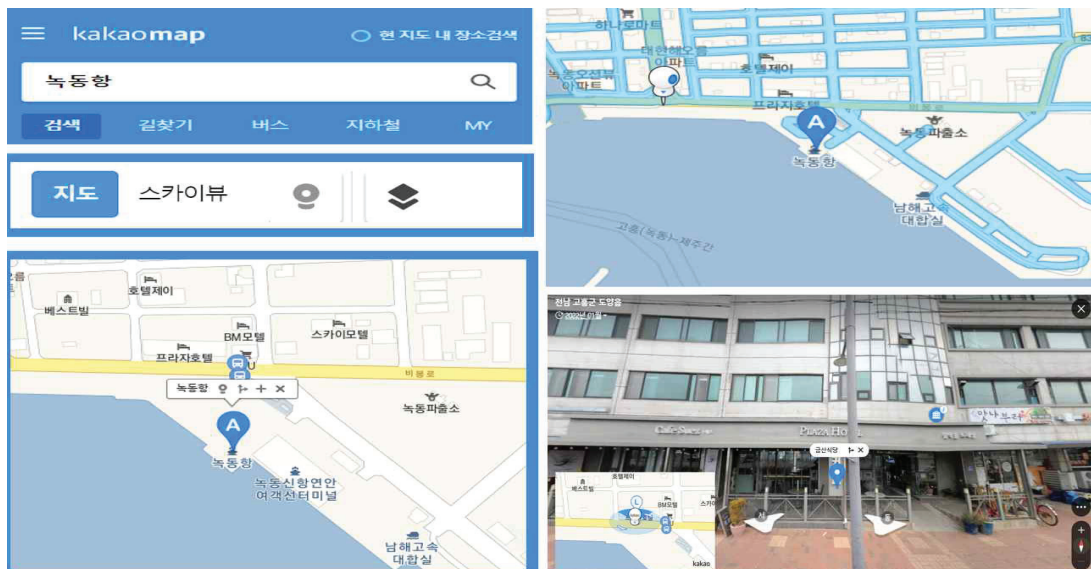
- 1) 해양언어학이란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언어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바다와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발전한 언어적 현상, 어휘, 담화, 그리고 문화적 언어 사용을 탐구한다. 이는 바다와 관련된 인간 활동, 지리적 특성,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언어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왔는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며, 비슷한 의미로 해역언어학이 있다.
- 2) Laundry & Bourhis(1997)는 '언어경관을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보이는 가시적 언어표시, 즉 문자언어에 의해 형성된 경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 경관을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 지역으로는 국가어항³⁾으로 지정된 남해의 녹동항, 동해의 대포항, 서해의 오천항, 제주해의 모슬포항을 파일럿 조사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각 지역 어촌의 주요 상업 간판을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V·T·E	대한민국의 국가어항	[집기]
부산	다대포항·대변항·천성항	
인천	덕적도항·선진포항·소래포구항·어유정항·울도항	
울산	방어진항·정자항	
경기	공평항·소래포구항	
강원	강릉항·거진항·공현진항·공촌항·금진항·남애항·대진항·대포항·덕산항·사천진항·수산항·아아진항·임원항·장호항	
충남	남당항·모항항·무창포항·삼길포항·안흥항·영목항·오천항·외연도항·장고항·홍원항	
전북	격포항·구시포항·말도항·어청도항·연도항·위도항	
전남	가거도항·계마항·국동항·남도항·녹동항·도장항·돌산항·독암항·마량항·발포항·보옥항·사동항·서거차항·서망항·소안항·수품항·시산항·안도항·안마항·어란진항·여서항·여호항·연도항·우이도항·원평항·이목항·전장포항·청산도항·초도항·초평항·품남항·회진항	
경북	김포항·구계항·구산항·남양항·대보항·대진항·사동항·양포항·오산항·읍천항·저동항·죽변항·축산항·현포항	
경남	광암항·구조라항·남포항·노랑항·능양항·능포항·다대포항·대포근포항·매물도항·맥전포항·물건항·미초항·심덕항·신수항·외포항·육지항·원전항·지세포항·호두항	
제주	김녕항·도두항·모슬포항·신양항·위미항	

2.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로드뷰 기술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최근 10년 이상 통시적으로 축적된 카카오맵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카카오맵의 다음(Daum) 로드뷰(Road View) 기능은 특정 지역 내 간판의 배치와 텍스트 정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로드뷰 이미지를 통해 간판이 실제 설치된 위치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정밀히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간판의 텍스트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한글로 표기된 간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역적 맥락과 시각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로드뷰 기술의 활용은 현장 방문 없이도 간판 배치와 텍스트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시간적 효율성을

3) 대한민국에서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2001년 「어항법」이 개정되기 전 과거 「어항법」 상의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어항의 지정권자 및 개발 주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관리청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다.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각 지역 어촌별로 분석하였다.

3. 어촌 언어경관 연구 사례

한국의 주요 어촌 지역에서 관찰된 언어 경관은 각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적 언어 요소를 통해 어촌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해의 녹동항, 동해의 대포항, 서해의 오천항, 제주해의 모슬포항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언어 경관을 분석하였다.

3.1. 남해 녹동항의 사례

남해 지역은 전라도와 경상도 방언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해안선이 발달하고 어업 활동이 활발한 특징을 지닌다. 특히 녹동항은 전라남도의 관광과 수산업이 결합된 경제 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어항이다. 이 지역의 언어 경관은 전통적인 어업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화된 어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해양언어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가능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양언어학은 단순한 언어적 텍스트의 분석을 넘어, 바다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경제적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녹동항의 언어 경관이 지역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녹동항 주변을 조사한 결과 “어부횃집”, “바다식당”, “청해남시”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상호명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맛나부러”라는 식당은 전라남도 어촌 방언을 활용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친근감을 주며, 지역성과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금산식당”은 간결한 이름이지만 지역 마을명을 활용해 지역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가 이름 외에도 녹동항과 주변 지역에서 관찰된 간판들은 어촌과 관광지가 조화된 현대적 경제 구조를 반영하며, 방문객들에게 어촌의 고유한 매력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거나 어촌과 관련된 어휘를 사용해 정취를 담는 것이야말로 어촌다움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3.2. 동해 대포항의 사례

동해의 대포항은 1970년대 초 국가지정항으로 선정된 어항으로, 현대화된 어항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지역의 언어 경관은 주로 지역 특산물인 대게와 같은 수산물을 강조하며, 어촌다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언어 경관 연구는 지역 특산물의 언어적 표현이 어떻게 지역 정체성과 경제적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학문적 틀을 제공하였다.

“대포수협 위관장”은 수산업의 중심지로서 전문성과 공신력을 전달하기 위해 표준어를 사용하였으나, ‘위관장(委販場)’이라는 어휘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위탁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수산물과 같은 어획물을 판매하는 장소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명은 해당 지역이 어촌 지역임을 인식하게 만드는 마커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정동 대게 횡집”은 대게와 지명을 결합하여 지역적 정체성을 부각시킨 사례이다. 특히 대포항에서 관찰된 다양한 간판은 ‘항구’, ‘어부’, ‘풍어’, 또는 ‘원창호’, ‘영복호’와 같은 선박명을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도시 상호명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는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반영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섬(홍합)’과 같은 지역 특산물의 방언을 활용하여 어촌 관광 산업과 결합된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 정체성과 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3.3. 서해 오천향의 사례향

서해의 오천향은 중부 방언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낚시와 여가 활동이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천향 상상피싱”, “이바다 낚시”, “월드 레저”, “스피드 피싱”, “루어낚시” 등은 낚시와 선상 출조 중심의 여가 활동을 강조하며, 실용적이고 직접적인 언어 표현으로 서해의 어촌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서해 역시 바다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언어 경관에 반영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해의 특징인 ‘조개’를 전면에 드러낸 간판들이 많이 나타나며, 이는 오천향이 단순한 어업의 공간이 아닌 관광과 여가의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린스타”와 같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상호는 외국어와 표준어를 혼합하여 글로벌 감각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 경관은 전통적인 어촌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요구를 수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오천항의 간판은 낚시와 해산물 요리를 중심으로 어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적 독특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3.4. 제주해 모슬포항의 사례

제주 지역은 제주 방언과 특산 해산물이 어우러져 독특한 언어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모슬포항은 제주 남서부의 대표적인 어항으로, 방언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판이 자주 관찰된다. 모슬포항의 간판은 단순한 상업적 도구를 넘어 지역 아이덴티티를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돈방석수산”과 같이 ‘수산’을 강조하는 단어는 제주 특유의 풍부한 해산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방어’, ‘한치’와 같은 제주 해역의 대표 수산물이 간판에 자주 등장하며, 방어와 부시리(일본어로 히라스) 같은 메뉴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제주의 독특한 방언인 ‘수놓음’(농사일이 바쁠 때 이웃끼리 서로 도와 일하는 풍속), ‘메옹이’(소라), ‘물꾸럭’(문어), ‘바당’(바다), ‘멘도롱’(따뜻하다), ‘이디’(여기) 등이 해안선을 따라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 덕분에 도내 어디에서든 어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외지인이 제주도에 입도(入島)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어촌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요소들은 제주 어촌다움을 강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제주도의 상점 간판은 관광객을 겨냥한 디자인이 많아 제주 어촌이 관광과 어업을 결합한 형태로 경제적 활성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의 언어 경관은 어촌다움을 유지하면서도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어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방어’, ‘한치’와 같은 수산물이 간판에 자주 등장하며, 방언을 활용한 상점명은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습포항의 언어 경관은 어촌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방문객들에게 제주 어촌의 다채로운 매력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3.5 언어 경관의 사회문화적 의미

각 지역의 언어 경관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 간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 어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남해는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어촌다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해는 특산물을 중심으로 어촌과 관광 산업이 결합된 경제적 활력을 보여준다. 서해는 낚시 문화와 지역 특산물을 통해 어촌다움을 형성하고 있고, 제주는 방언과 해산물을 활용해 독특한 어촌의 매력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 경관은 어촌다움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며, 지역 정체성과 경제적 활력을 상생시키는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언어적

표현들은 어촌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어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바꿔말하면 간판에 사용된 언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반영하며, 지역 주민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방문객에게 지역의 독창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동해와 서해의 간판은 특산물과 관련된 어휘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제주의 간판은 방언과 표준어가 혼용되어 지역성을 유지하면서도 상업적 균형을 보여준다. 방언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며, 방문객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러한 간판들은 수산업과 관광업의 특징을 반영하며, 지역 경제의 다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결국, 간판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어촌의 정체성과 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나오며

본 발표는 남해, 동해, 서해, 제주해의 주요 어촌 지역에서 관찰된 언어 경관의 일부 자료를 분석하여, 각 지역이 고유한 어촌다움을 유지하고 회복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방언과 특산물 관련 용어를 활용한 간판은 지역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방문객들에게 어촌의 매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어촌의 언어 경관은 지역 문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해양언어학적 관점은 이러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 학문적 틀로 작용하며, 바다라는 독특한 공간이 물리적 경계를 넘어 인간과 문화, 언어의 교류를 매개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증명하였다.

해양언어학은 언어적 현상에 담긴 지역적 맥락과 바다를 통한 문화적 상호작용의 흔적을 분석함으로써 어촌 언어 경관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어촌의 언어적 풍경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 간 정체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적 활력과 문화적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어촌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촌의 언어 경관은 어촌 문화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재생과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언어 경관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어촌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어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어촌의 경제적·문화적 활력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어촌은 다시금 지역 사회의 중요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참고문헌〉

- 김중빈(2004) 「魚譜類에 나타난 19C초의 수산물 어휘 연구」 『한어문교육』 12 pp.137-173.
- 김지숙(2015) 「동해안 어촌 생활어에 나타난 바람 명칭 명명법 연구」 『한민족어문학』 71 pp.5-44.
- 김지숙(2017) 「어획물 명명 기반에 따른 명칭 연구」 『어문론집』 69 pp.55-93.
- 김홍석(1996) 『한국산 어류 명칭의 어휘론적 연구』 공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홍석(2001) 「우해이어보에 나타난 차자표기법 연구-어명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29 pp.100-134.
- 손병태(1997) 「경북 동남 지역의 어류 명칭어 연구」 『한민족어문학』 32 pp.149-163.
- 양민호(2018) 「어촌생활어 속에 나타나는 잔존 일본어에 관한 연구」 『동북아해역과 인문네트워크』, 제1회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소명출판.
- 양민호·김준환(2020), 「동북아해역의 먹거리지수 수준과 소비자 인식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pp.113-119.
- 양민호·최민경(2020) 「동북아 해역인문학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인식조사 연구 - '해양문화지수'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1(1),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pp.27-52.
- 양민호·김준환(2023) 「언어경관을 통해 살펴본 '어촌다움' 회복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24(1), pp.213-238.
- Landry, R., & Bourhis, R. Y. (1997). Linguistic landscape and ethnolinguistic vitality: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6(1), 23-49.

“해양언어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어촌의 언어 경관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신성철(순천대학교)

이 발표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어촌에 나타난 언어 경관, 즉 각 지역의 상점 간판과 공공 표지판 등 다양한 시각적 언어 요소에 반영된 어촌의 정체성과 문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지역다움을 유지 또는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언어학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았다.

발표문에서 논의하는 분야와 그 용어 개념 등에 대해 거의 접해 보지 못한 상태라서, 토론을 수행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다는 솔직한 소감을 언급하면서, 발표문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갈음하고자 한다.

1. 제목에 사용된 학술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언어학’이라는 학술 용어가 토론자에게 낯선 개념이라서 해당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주1)에 간략 설명을 하였기는 하지만, 발표문에 기술된 전반적인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연구 방법론 또는 연구 분야 등의 개념을 지니는 용어의 정체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해양언어학’이 지니는 언어학에서의 위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개념과 해당 대상이 무엇과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자세한 기술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양민호(2019, 언어전파로 살펴본 해역언어학적 어휘 연구 - 한국의 박래어와 일본 진출 외행어를 중심으로 -, 『日語日文學研究』 110, 한국일문학회), 양민호(2000, 일본어 놀이 어휘를 통해 살펴본 해역언어학 연구, 『日語日文學研究』 113, 한국일어일문학회)과 양민호·김준환(2023) 등에서 사용되는 해역언어학(Sea Region Linguistics)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어떠한 연구 영역 또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기존의 언어학의 연구 방법과 연구 분야 등과 구분되는 차이점을 확인하고 싶다.

발표문과 앞의 글을 통해서 보면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방언학, 사회언어학 등의 여러 분야를 합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해양언어학’의 정확한 정체를 알고자 한다.

2. ‘언어 경관’이라는 용어도 근래에, 대략 2010년대부터 우리 학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주2)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언어 경관은 Landry and Bourhis(1997)에서 주어진 지역 또는 지역의 공공 및 상업 표지판에 대한 언어의 가시성 및 중요성으로 정의(Landry and Bourhis, 1997, p.23)한 이래로 최근 들어 새로운 연구 주제로 우리 학계에서도 다수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문 검색(학술연구정보 www.riss.kr)으로 판단하건데, 국내에서는 대략 2015년 전후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일본은 그 도입과 논의가 더 앞선 듯하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전개 과정에 대한 언급이 양민호·김준환(2023)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필자가 피력하는 ‘해양언어학’의 관점에서 ‘언어 경관’ 연구의 소개와 전개 과정에 대한 순차적인 정리와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3. 서론의 마지막은 “지역의 어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언어학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로 끝난다. 토론자는 발표문에서 ‘언어학적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있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언어학적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자 한다.
4. 절의1의 마지막 내용과 연결된 것으로, “3.5장 언어 경관의 사회문화적 의미”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양민호·김준환(2023)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접근도 ‘해양언어학’에 포함하는 영역인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한다.

이상입니다.

제1 분과

방언학

자음 연쇄에서의 음운 현상 고찰

- 제주방언의 ‘ㄹ’ 복사를 중심으로 -

권미소(제주학연구센터)

< 차 례 >

1. 서론
2. 제주방언의 ‘ㄹㅎ’, ‘ㄹㅇ’ 연쇄 양상
3. 자음 연쇄에서의 ‘ㄹ’ 복사에 대한 해석
4. 결론

1. 서론

이 글은 제주방언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 자음이 ‘ㄹ’이고, 후행하는 자음이 ‘ㅎ’이나 ‘ㅇ’일 경우에 선행 자음 ‘ㄹ’이 복사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다각적 해석을 시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온라인상에서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활용해 제주도박이 화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음성을 전사해 보면 ‘일허레’, ‘결혼’에서 비어두 위치의 ‘ㅎ’이 그대로 발음되거나 혹은 탈락하여 1음절에 쓰인 ‘ㄹ’이 연음되는 경우 외에 ‘일러레’, ‘결론’과 같이 2음절에 ‘ㄹ’이 복사된 형태로 텍스트화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¹⁾.

우리 국어에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현실 발음에서는 공명 자음 ‘ㄹ’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한다²⁾고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도 이 환경에서 ‘ㅎ’ 탈락이 발생하여 형태가 바뀌어 버린 ‘올히>오리’, ‘올흔쪽>오른쪽’ 등과 같은 예도 존재한다(이진호, 2021:182). 현실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ㅎ’은 어두에서만 온전하게 실현된다. 이 말은 곧 ‘ㄹ-ㅎ’의 연쇄에서 비어두에 위치하는 ‘ㅎ’은 온전한 제 음가 [h]로 실현되지 못하고 약화되거나 탈락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제주방언 자료에서는 ‘ㄹㅎ’, ‘ㄹㅇ’의 연쇄에서 그 음가가 그대로 유지됨은 물론이고 일부 약화·탈락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선행 자음 ‘ㄹ’이 복사되는 독특한 현상이 발생한다. 타 방언과는 다르게 제주방언의 ‘ㄹㅎ’, ‘ㄹㅇ’ 연쇄에 관련하여 그 실현 양상을 살피고, 종성에 쓰인 ‘ㄹ’이 왜 ‘ㅎ’ 자리에 복사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상 제주방언의 복사 현상에 대해서는 정승철(1991, 1995, 1999)의 연구 외에는 찾

1) 이러한 정보는 제주방언의 음운 현상 가운데 복사 현상이 간혹 방언 전사자의 표기 인식에 의한 오기,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 등이라는 비판, 발화자의 개인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발화 실수라고 평가되는 일부 의견을 소거해 주는 근거가 된다.
2) 여기서 다루는 ‘ㅎ’ 탈락과 관련한 논의는 정인호(2004, 2021), 차계은(2001), 하영우(2017) 등이 주목된다. 한편, 전진호·홍석우(2023)에서는 ‘ㅎ’ 탈락 현상의 방언별 실현 양상도 확인되는바, ‘ㅎ’ 탈락이 실현되는 세부적 분류, 환경에 따른 탈락률을 확인할 수 있다.

기가 힘들다. 정승철의 논의에서 ‘복사’는 하나의 기식군 안에서, 선행하는 요소가 폐음절 단어이고 후행하는 요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휘 형태소일 때 선행어의 종성을 후행어의 첫음절 초성 자리에 복사하여 발음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한국음식 [한국곰식], 만아덜[마따덜], 지집아이[지집빠이], 비단옷[비단논], 물안경[물란경], 칠월[칠월], 발#아프다[발라프다]³⁾ 등의 예에서처럼 선행 자음의 음운론적 성격과 관계 없이 또 두 개의 성분이 하나의 음조군을 이루었을 때 조건만 충족된다면 종성이 후행 단어의 초성에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승철(1991, 1995, 1999)은 이것을 가리켜 수의적 현상이지만 가장 특수한 제주방언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보았으며, 배주채(2015), 박주성(2024) 등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복사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제주방언의 복사 현상 가운데 선행음이 공명 자음 ‘ㄹ’이고, 후행 자음이 소위 후두 유성 마찰음으로 불리는 ‘ㅎ’, ‘ㅇ’의 연쇄에서의 복사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이것은 앞선 설명에서의 복사와는 달리 복합어 경계 외에 형태소 내부에서도 그 변화가 포착⁴⁾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몇 방언에서도 유사한 변화⁵⁾가 나타나며, 관련한 형태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국어에서 ‘ㄹ’이 선행하는 연쇄는 그 어느 자음 연쇄보다도 넓은 분포와 많은 예들을 보여줌과 동시에 유일하게 동일 자음 연쇄(‘ㄹㄹ’)가 가능하다. ‘ㄹ’이 가지고 있는 음성적인 성격을 근거로 한 ‘VㄹCV’의 자연스러움 때문이다. 이에 음운론적으로 동일하게 조건화된 형태, 선행 자음 ‘ㄹ’과 후행 자음 ‘ㅎ’, ‘ㅇ’의 연쇄의 예를 실제 발화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 제주방언 가능한 많은 자료를 토대로 제주방언에서 실현되는 많은 복사 현상의 예를 보여줌으로써 ‘ㄹㅎ’, ‘ㄹㅇ’의 입력형에서 ‘ㄹㄹ’의 출력형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이 지역에서 문증되는 않는 자료들의 빈칸을 채우며 이전 시기의 형태를 재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3장에서의 제주방언의 ‘ㄹ’, ‘ㅎ’ 소리 변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글은 몇 가지 전제를 두고 있다. 다음에서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은 제주방언의 선행 자음 ‘ㄹ’ 선행 연쇄의 공식적인 기술이다. 이 말은 곧 현재 분명하게 분석될 수 있는 자료에 의지함을 의미한다. 구술 발화만큼 가장 자연스러운 방언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 보이는 예들은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어 구술 자료집』(2017~2020)⁶⁾,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4~2013) 가운데 음성 확인이 가능한 자료⁷⁾와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 『제주어

3) 여기서 제시한 예 외에 선행어의 다양한 종성 뒤 복사 현상과 관련된 더 많은 예들은 정승철(1999) 등을 참조하면 된다.

4) 정승철(1991) 역시도 비어두 음절에 ‘ㅎ’이 오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복사 현상과는 구분을 두고 있다. 이 경우에는 제주방언 화자들은 비어두 음절 초성의 ‘ㅎ’을 인식하고 있고, 복사 현상이 나타나는 조건이 복합어 경계 외에 형태소 내부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 일부 몇 방언에서도 동일 조건에서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5) 최근 발표된 박주성(2024)의 논의에서 『한국 방언 자료집』에 실린 자료를 대상으로,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의 방언에서 자음과 후음이 연속될 때 발생하는 음운 현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제주도 지역을 비롯한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ㅎ’이 탈락한 후 선행하는 공명음이 후행 음절 초성으로 복사되는 현상을 세부적으로 언급한 바 있어 매우 흥미롭다. 박주성(2024:80)에 따르면 최명옥(1982:87~88)에서는 월성 지역에서 공명음-ㅎ 연쇄(예) 결혼, 백일홍, 올해; 전화, 손해, 면회)가 공명음-공명음 연쇄(예) [겔론, 백길룡, 올래; 전나, 손내, 맨내])가 되는 현상이 있고, 정승철(1995:106)에서도 제주도 방언에서 ‘골히(<골회), 불리(<불휘), 올리(<올히), 일름(<일흠)과 ‘논누-(논호-), 빈네(<빈혀)와 같이 ㄹㅎ>ㄹㄹ, ㄴㅎ>ㄴㄴ의 과정을 거친 예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하였다.

6) 『제주어 구술 자료집』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의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2014~2016)에 일부 누락되었던 전사 자료를 보충하고 음성을 재확인한 뒤, 표준어 대역 등을 제시한 자료다.

사전』(2009)과 <우리말샘> 누리집 등을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수집된 어형들은 가능한 단어의 형성 방법, 음절 수, 형태·품사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을 기술한 뒤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음운의 특징과 관련하여 해석해 보고자 한다.

2. 제주방언 ‘ㄹㅎ’, ‘ㄹㅇ’ 연쇄의 양상

여기에서는 ‘ㄹㅎ’과 ‘ㄹㅇ’의 연쇄되는 형태들의 예를 통하여 제주방언의 선행 말음 ‘ㄹ’과 후행 자음 ‘ㅎ’, ‘ㅇ’이 온전히 실현되는 경우와 ‘ㅎ’, ‘ㅇ’ 자리에 ‘ㄹ’이 복사되는 경우 등을 단어의 성격, 음절 수의 차이, 품사 구분 등을 통해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1. ‘ㄹㅎ’ 연쇄의 실현 양상

- (1) ㄱ. 골흙, 골히, 굴형, 불히, 설흔, 쓸항, 열흘, 올히~올해, 일흔⁸⁾~일은
 ㄴ. 물훤, 물항, 쓸항, 알항⁹⁾
 ㄷ. 결혼(結婚)~결흔~겔흔~절흔, 괄호(括弧), 밀항(密航), 별호~별호(別號), 일행(一行)

(1)은 제주방언 구술 자료에서 선행 말음이 ‘ㄹ’이고 후행 초성의 자음이 ‘ㅎ’인 ‘ㄹㅎ’ 연쇄의 실현 양상을 보인 것이다. (1ㄱ)은 단일어 가운데 고유어인 경우, (1ㄴ)은 합성어 가운데 한쪽이 고유어인 경우 (1ㄷ)은 한자어의 예들이다.

(1ㄱ)의 ‘골흙’은 ‘골흙(16세기~18세기)>고름(18세기~19세기)>고름’으로, ‘골히’는 ‘골히(15~18세기)>골히(16세기)>골희(17~19세기)>고리’, ‘굴형’은 ‘굴형(15세기)>굴형(16세기~19세기)>굴형(18세기~19세기)>구령(18세기~19세기)’, ‘불히’는 ‘불희(15세기~19세기)>불희(16세기~18세기)>뿌리(18세기)>뿌리(19세기)>뿌리’, ‘서른’은 ‘설흔(15세기~19세기)>서른(19세기)>서른’ 등과 같이 이전 시기 문증되는 형태와 유사하다. ‘열흘’은 15세기 문헌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올히~올해’는 ‘올히’에서 ‘·>ㅏ’의 소실에 따라 19세기부터 ‘올해’로 나타났다. ‘일흔’은 ‘닐흔<용가>’ 정도로만 확인되는데, 제시한 ‘일은’에서 ‘ㅎ’는 탈락되었으나 ‘ㄹ’이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형태여서 주목할 만하다. (1ㄴ)의 ‘물훤’은 고유어 ‘물’과 한자어 ‘훤(膾)’의 구성, ‘물항’, ‘쓸항’, ‘알항’은 후부 요소가 항아리를 가리키는 ‘항’에 선행 요소 ‘물’, ‘쓸’, ‘알’이 결합된 형태에서 ‘ㄹㅎ’ 연쇄가 실현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ㄷ)은 후행 요소인 한자어 ‘흔(婚)’, ‘호(弧)’, ‘항(航)’, ‘호(號)’, ‘행(行)’이 선행 요소 ‘결(結)’, ‘괄(括)’, ‘밀(密)’, ‘별(別)’, ‘일(一)’ 등과 결합했을 때 비어두 초성 자리에서도 ‘ㅎ’이 제 음가로 온전히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자료다.

(1)의 예에서 비어두에 위치한 ‘ㅎ’는 1차적으로는 현실 발음에서 유성 자음과 모음 사이라는 탈락 조건을 가졌음에도 ‘ㅎ’이 약화되거나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모

7) 여기서 음성 확인이 가능한 자료라고 한정한 이유는 필자가 두 사업에 참여하여 실제 음성 파일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리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8) ‘일흔’의 표준 발음은 [일흔]이며, 타 지역에서는 ‘일흔’의 현실발음이 반영된 [이른]처럼 발음하기도 한다. <우리말샘>에서는 ‘ㄹ’이 복사되어 재구조화된 형태의 ‘일른’을 강원 방언으로 올리고 있어 흥미롭다.

9) ‘알’은 ‘아래’를 뜻하는 것으로 ‘우알’, ‘알오름’ 등과 같은 복합어를 구성하기도 한다. ‘알오름’은 [알로름]처럼 발음되는 예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습을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에서 보인 ‘ㄹㅎ’ 자음 연쇄가 다음 (2)의 ‘ㄹㄹ’ 연쇄로 나타나는 형태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 (2) ㄱ. 골롬~골름, 굴렁, 빨리¹⁰⁾, 설른, 열름, 울리~올레, 일른, 일름(>일흠)
 ㄴ. [물뿔~물레]¹¹⁾, [물랑], [쓸랑], [알랑~알랑]
 ㄷ. 결혼~겔론~절론, [괄로], [밀랑], [일랭], 설랍(>설합)

(2)는 (1)의 ‘ㄹㅎ’ 연쇄가 나타나는 어형 가운데 ‘ㄹㄹ’의 연쇄가 발음과 형태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일름’, ‘설랍’의 예를 보인 것이다. (1ㄱ)에서는 ‘골히’가 ‘골이’처럼 ‘ㄹㅇ’ 연쇄가 실현되는 것, (1ㄷ)에서는 ‘별호~벨호’¹²⁾, ‘설랍(>설합)’처럼 실현되는 예를 제외한 모두가 모두 제주방언의 ‘ㄹㅎ’과 ‘ㄹㄹ’ 연쇄형으로 공존한다. 특히 (1ㄱ)의 ‘골롬~골름’, ‘굴렁’, ‘빨리’, ‘울리’, ‘일른’, (1ㄷ)의 ‘결론~겔론~절론’ 등은 ‘ㄹㄹ’ 재음절화를 거친 ‘ㄹㄹ’ 연쇄형이 발음에서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넘어 표기에 까지 적용되어 제주방언의 고유 형태로 『제주어사전』(2009), 〈우리말샘〉 등에 올라 있기도 하다. 한편 ‘일름’은 현재 제주방언에서 ‘ㄹㄹ’ 연쇄로만 나타나는 어형으로 역사적으로는 ‘일흠/일흠(15세기~19세기)>일흠(17세기~19세기)>일음(18세기)>이름’의 과정을 거쳤다. 제주방언에서는 18세기의 ‘일음’이 ‘이름’으로 연음되는 마지막 단계가 나타나지는 않고 ‘ㄹㅎ’ 혹은 ‘ㄹㅇ’ 연쇄에서 ‘ㄹㄹ’ 복사형으로 실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1ㄴ, ㄷ)의 경우 ‘설랍’을 제외하고는 (1ㄱ)에 비해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형태들이다. (1ㄴ, ㄷ)의 ‘물뿔’, ‘물항’, ‘쓸항’, ‘알항’, ‘결혼’, ‘괄호’, ‘밀항’, ‘일행’ 등처럼 ‘ㄹㅎ’의 연쇄로 실현되는 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다만 (1ㄴ)의 [물뿔~물레], [물랑], [쓸랑], [알랑~알랑]이나 (1ㄷ) [괄로], [밀랑], [일랭]처럼 발음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수의적인 현상이다. 즉 빠른 발화, 합성어의 경계에서 음절 경계가 인식되는 경우는 ‘ㄹㅎ’과 ‘ㄹㄹ’의 형태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ㄱ. 쉼골히, 옷골흠~옷골름, 존불리~존불휘~존불히
 ㄴ. 일학년[일랑년]¹³⁾, 송별뿔[송별뿔~송별레]
 ㄷ. 돌하르방[돌라르방]¹⁴⁾

(3)은 3음절 이상의 합성어 구조에서 ‘ㄹㅎ’ 자음 연쇄가 실현되는 형태들을 보인 것이다. (3ㄱ)의 ‘쉼골히’, ‘옷골흠’, ‘존불휘’ 등은 (1ㄱ)에서 제시한 ‘골히’, ‘골흠’, ‘불히’에 ‘쉼’, ‘옷’, ‘존’이 결합된 복합어로 2음절 중성에 위치한 ‘ㄹ’과 3음절 초성에 위치한 ‘ㅎ’이 음절 수와 관계없이 모두 제 음가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3ㄱ)의 ‘옷골

10) ‘빨리’ 앞에는 ‘냥’, ‘늑물’, ‘대’, ‘척’ 등의 다양한 명사가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11) 다음에서 [] 안에는 발음을 제시하도록 한다.
 12) 〈우리말샘〉에 보면 ‘별호’의 제주방언으로 ‘벨랑’, ‘벨런’, ‘벨뤼’, ‘별명’의 제주방언으로 ‘벨리’가 올라 있다. 또한 〈제주어 구술 자료집〉(2020, 인성)에서도 ‘별명’의 의미로 ‘벨리’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모음의 변화와 함께 ‘ㄹㅎ>ㄹㄹ’의 변화를 겪은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더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13) 제주방언 80대 이상의 화자 가운데 ‘학(學)’을 [혹]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으나 필자가 확인한 ‘일+학년’의 발음에서 ‘학(學)’은 모음 ‘ㅏ’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제시한다. 또한 ‘일학년’은 음절 경계에 휴지를 두어 ‘일#학년’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발화의 측면을 고려하여 긴밀 합성어의 구조로 보고 처리한다. 여담이기는 하나 필자가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때에 배웠던 노래 중 ‘우리들은 일학년’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이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께서 선창을 하시며 늘 [우리드룬 일랑년]이라 했던 것이 여전히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다.
 14) 정승철(1991)에서도 유성 자음 뒤 ‘ㅎ’에 관한 설명에서 ‘돌라르방(돌#하르방)’이 제시된 바 있다.

흡'과 '즌불휘'의 경우는 (2ㄱ)에서 제시한 재음절화된 'ㄹㄹ' 형 '웃골름', '즌불리'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것은 선행 말음 'ㄹ'과 모음 사이에 있는 'ㅎ'이 탈락할 때 'ㄹ'을 연음시키는 것을 저지하고자 그 자리에 'ㄹ'이 한 번 더 나타나는 이른바 'ㄹ' 복사 현상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3ㄴ)은 한자어로 형성된 3음절 합성어 가운데 '일(一)+학년(學年)', '송별(送別)+회(會)'의 구조를 예를 든 것으로, (3ㄱ)과 마찬가지로 음절 수와 관계없이 발음에서 'ㄹㅎ'의 연쇄가 실현될 뿐만 아니라 수의적으로는 'ㄹㄹ' 연쇄형까지 발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3ㄷ)의 '돌하르방'은 'ㄹㅎ' 연쇄인 [돌하르방]과 'ㄹㄹ' 연쇄의 [돌라르방]이 모두 확인되는데 [돌라르방]은 비교적 빠른 발화에서 포착된다.

- (4) ㄱ. 각뻔히[각뻔리], 수월히[수월리], 특별히~특별히[특별리~특별리], 확실히[확싨리]
 ㄴ. 한걸히~한걸리

(4)는 'ㄹ'가 선행하고 'ㅎ'가 후행하는, 이른바 부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부사들의 예다. (4ㄱ)의 '각뻔히', '수월히', '특별히', '확실히' 등은 제주방언 발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부사들로 표기 그대로의 'ㄹㅎ' 연쇄도 나타나지만 'ㄹㄹ' 연쇄가 실현되는 발음으로도 자주 확인된다. (4ㄴ)의 '한걸리'는 표준어의 '한가히'에 대응되는 말인데, 『제주어사전』(2009)에 보면 의미가 동일한 '한거하다'가 확인된다. 표준어 '한가하다'는 한자어 '한가(閑暇)', 제주방언은 한자어 '한거(閑居)'에 '-하다' 접미사가 결합된 형태로 이해된다. 그런데 『제주어사전』(2009)에는 '한거하다'의 이표기인 '한걸하다'도 확인되는 바, 실제 부사 파생 접미사 '-히' 혹은 '-이'¹⁵⁾가 결합되어 나타날 것으로 추측되는 '한거히', '한거이'는 없고, (4ㄴ)의 '한걸히'와 '한걸리'의 형태만 확인되는 점이 무척 흥미롭다. 더욱이 『제주어 구술 채록 자료집』의 '한걸히'와 '한걸리'의 단순 표기 빈도수만 확인했을 때도 '한걸리'가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하나의 형태가 등장한 것만으로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한걸히', '한걸리'의 존재는 제주방언 화자에게 부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된 부사가 나타날 때 'ㄹㅎ' 혹은 'ㄹㄹ' 연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에서 온 결과이지 않나 한다.

- (5) 건실허게[건실러게], 단출허지[단출러지], 말하기[말라기]~말허기[말러기] 듣기¹⁶⁾, 말헤근에 [말레근네]¹⁷⁾, 일허레[일러레], 활발헌[활발런]

(5)는 '명사+-하다'로 구성된 제주방언의 용언 가운데 'ㄹㅎ' 연쇄로 실현되는 예들이

15) 'ㄹㅎ' 연쇄 부사의 경우는 우리 국어의 비어두 위치 'ㅎ' 탈락을 중에서 부사에서 'ㅎ' 탈락이 빈번하다는 연구 결과(하영우, 2017)와 관련이 있다. 하영우(2017:215)에 따르면 '열심히', '당연히', '확실히', '특별히'처럼 선행 음소 중 유성 자음의 비율이 높은 부사는 비어두의 탈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부사의 높은 'ㅎ'의 탈락률과 관련한 또 하나의 가정이 부사 파생 접미사 '-이', '-히'가 언중에게 애초에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시적으로 '-이'와 '-히'는 'X하-(<ㅎ-)'에 '-이'가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데, '-이'는 선행하는 'ㅎ'가 완전히 탈락한 유형이고 '-이'는 'ㅎ'의 '·'만 탈락한 유형이다(구분관 외 2015:150~151). 사실 화자들이 '-이'와 '-히'를 구분해서 쓴다고 하기는 어렵다. 구어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이', '-히' 파생형은 선행 음소가 유성 자음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이]로 실현되기 때문에 이 둘의 파생형 구분은 더욱 어렵다고 본다.

16) 과거 초등학교 교과서명에서 사용되었던 '말하기·듣기'를 발음했을 때의 경우를 확인한 것이다.

17) 제주방언에서 동사 'ㅎ-/허-'형은 노년층에서 실현되는바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표준어화된 '하-' 앞에 명사 '일', '말', 부사 '잘'이 붙는 경우에도 발음은 ㄹ이 복사된 일러-, 잘러-, 말러-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 이들의 특징은 수의적이기는 하나 빠른 발화에서 선행 음절의 말음으로 쓰인 ‘ㄹ’가, 후행 초성 음절의 ‘ㅎ’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인된다는 점이다. 제주방언 화자들은 (5)의 [건설러게], [단출러지], [말라기~말러기], [말레그네], [일러레], [활발런] 등의 발화시 ‘ㄹ’이 쓰인 음절에 힘을 주는 듯한 인상을 남기기도 한다. 이들은 ‘명사#하다’로 일부 휴지를 두고 발음할 경우에는 ‘-하다’의 ‘ㅎ’ 음가가 탈락하지 않고 온전하게 발음되기도 한다. 전라방언의 경우에는 (5)와 같은 예에서 ‘ㅎ’이 탈락이 적극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¹⁸⁾ 제주방언은 그와 다르게 ‘ㅎ’ 유지·복사의 양상을 띠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올 한 해[올란내]

(6)은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만든 구의 구조 즉, ‘올’, ‘한’, ‘해’처럼 단음절이 연속되는 경우에서 ‘ㄹㅎ’ 연쇄와 ‘ㄹㄹ’ 연쇄가 모두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 예이다. 앞선 (1)~(5)와 달리 (6)은 어절 경계를 넘어선 경우에도 ‘ㄹ’이 복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방언 화자들은 단음절이 연속될 때 대체로 휴지를 두고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올란내]와 같은 음성이 자주 확인된다. 즉 표기상의 어절 경계는 존재할지라도 발음시의 어절 경계는 화자의 인식에 내재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한다. 즉, 이와 같은 예들은 하나의 음운구로 발화되는 것이다. 한편,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지만¹⁹⁾ ‘한해’에서의 [란내]처럼 실현되는 ‘ㄹㅎ’의 연쇄가 ‘ㄹㄹ’으로 바뀌는 것 또한 흥미롭다.

- (7) ㄱ. 딸ㅎ곡~딸허곡[딸ㄹ곡~딸러곡], 아덜ㅎ곡~아덜허곡[아덜ㄹ곡~아덜러곡]
 ㄴ. 군인덜한티[구닌덜란티], 자식덜한티[자식떨란티], 소님덜한티[소님덜란티]

(7)은 제주방언에서 ‘ㅎ’으로 시작되는 조사 ‘ㅎ곡~허곡’, ‘한티’ 앞에 선행 말음에 ‘ㄹ’을 가진 명사가 결합되어 ‘ㄹㅎ’, ‘ㄹㄹ’의 연쇄를 보이는 예를 제시한 것이다. 조사 ‘ㅎ곡~허곡’, ‘한티’는 가령 ‘나’, ‘느’처럼 선행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결합할 때도 ‘ㅎ’이 탈락하지 않는다. 복사 현상은 문법 형태가 결합할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7)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딸’, ‘아덜’, ‘군인덜’, ‘자식덜’, ‘소님²⁰⁾덜’ 뒤에 조사 ‘ㅎ곡~허곡’, ‘한티’가 후행할 경우 ‘ㅎ’ 자리에 ‘ㄹ’이 복사되는 현상이 확인된다. 물론 ‘ㄹㄹ’의 연쇄가 나타나는 것은 휴지가 없는 발화라는 조건이 붙는 듯하다. 화자가 ‘ㄹ’을 말음으로 가진 명사와 조사에 대한 경계 인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각각의 음가들을 제 소리로 발음한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이 모두 자연 발화에서 수집된 것들이기 때문에 (7)과 같은 예들은 경계 없이 발화되어 더욱 ‘ㄹㄹ’ 연쇄 현상이 잘 관찰되는 것이다.

18) 이 경우 ‘ㅎ’ 탈락의 발생이 높은 이유는 이 방언권 화자들에게 ‘-하다’와 선행하는 어근 사이의 경계가 더욱 잘 인식되는 것 때문으로 추측해 본다.

19) 제주방언은 유성 자음 ‘ㄹ, ㄴ, ㅇ’과 ‘ㅎ’의 연쇄에서도 일부 ‘ㄹㄹ’, ‘ㄹㄴ’, ‘ㅇㅇ’ 등과 같이 선행 자음을 ‘ㅎ’ 자리에 복사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글에서는 다루는 범위를 ‘ㄹㅎ’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추후로 남겨둔다.

20) 제주방언에서는 ‘소님’과 같이 유성 자음 ‘ㄹㄴ’이 연쇄되는 경우에서 앞 음절의 ‘ㄴ’을 탈락시키는 복사의 반대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것은 유성 자음 ‘ㅇㅇ’의 연쇄에서도 ‘과양>광양’과 같이 나타나는데 추후 위의 각주에서 밝힌 바와 같이 ‘ㄹ’ 이외의 유성 자음 복사 현상을 다루는 논의에서 역방향으로 나타나는 동일 유성 자음 탈락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2.2. ‘ㄹㅇ’ 연쇄의 실현 양상

- (8) ㄱ. 십일월[시뵐뵐~십뵐뵐], 일월[일뵐], 팔월[판뵐], 칠월[칠뵐]
 ㄴ. 돌웃[돌뵐]²¹⁾, 물알[물랄], 출왓[출랄]²²⁾, 울왓[울랄], 질왓[질랄] 물웨~물뵐[물레]
 ㄷ. 걸름(>걸음), 몰래(>몰애), 놀래(>놀애), 멀뵐~멀리(>멀위), 일뵐~일레(>닐웨)

(8)은 제주방언 구술 자료와 『제주어 사전』(2009)의 표제어에서 선행 발음이 ‘ㄹ’이고 후행 자음이 ‘ㅇ’인 ‘ㄹㅇ’ 연쇄의 실현 양상을 보인 것이다. (1ㄱ)은 한자어 합성어 가운데 후행 요소가 ‘월(月)’인 경우, (1ㄴ)은 합성어 가운데 선행, 후행 요소 모두 고유어이거나 어느 한쪽이라도 고유어인 경우다. (8ㄷ)은 엄밀히 말하면 ‘ㄹㅇ’의 연쇄가 실현된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전 시기 ‘ㄹㅇ’ 연쇄를 가졌던 어형들이 현재 제주방언에서 ‘ㄹㄹ’의 연쇄로 나타나는 예들이다.

(8ㄱ)처럼 우리 국어에서 ‘달’을 세는 한자 가운데 선행 요소에 ‘ㄹ’을 가진 형태는 ‘일(一), 칠(七), 팔(八), 십일(十日)’이 존재한다. 제주방언에서는 이들 뒤에 ‘월(月)’이 결합하게 되면 간혹 선행 발음에 쓰인 ‘ㄹ’이 연음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대체로 발음 ‘ㄹ’이 복사되는 특징을 보인다.

(8ㄴ)은 ‘돌웃’, ‘물알’, ‘출왓’, ‘울왓’, ‘질왓’, ‘물웨~물뵐[물레]’ 등에서 ‘ㄹㅇ’ 연쇄형과 ‘ㄹㄹ’ 연쇄형이 발음 모두에서 실현됨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제주방언에서만 쓰이는 어형들이다. ‘물알’의 경우는 ‘ㄹㅎ’의 연쇄에서 확인했던 (1ㄴ)의 ‘알항’ 중 선행 요소 ‘알’이 ‘물’ 뒤에 후행 요소로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에 처소격 조사 ‘로’가 사용되어 [물알로~물랄로] 등으로 나타나는 자연 발화 자료를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출왓’, ‘울왓’, ‘질왓’ 등의 후행 요소 ‘왓’은 ‘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왓’의 경우 선행 발음이 ‘ㄹ’이거나 모음일 때 나타나는 형태다. 이들 역시 ‘ㄹㅇ’ 연쇄형과 수의적인 ‘ㄹㄹ’형이 모두 실현되는데, ‘ㄹㅇ’의 연쇄형에서 ‘ㅇ’이 소리나는 이유는 이기문(1972)에서 ‘글뵐>글왓’처럼 첫음절의 발음 위치에 ‘ㄹ’을 묶어 두고 ‘ㅇ’이 실현되는 것은 [wal]의 ‘w’ 때문이라고 한 것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8ㄷ)의 ‘몰래’, ‘놀래’, ‘멀뵐~멀리’, ‘일뵐~일레’ 등은 중세국어 시기의 ‘ㄹㅇ[h]’ 연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형태²³⁾다. 주지하듯이 ‘ㅇ[h]’는 중세국어 시기에 소실되었다. 현대 국어의 ‘모래’는 ‘몰개>몰애>모래’([g]>[h]>∅)의 단계를 거쳐 나타난다. 그런데 제주방언은 이 경우 ‘ㄹ’이 복사된 형태 ‘몰래’²⁴⁾가 확인된다.

현평효(1982)와 강영봉(1983)에서는 제주방언의 자음 체계에 후두 유성음 ‘ㅇ[h]’가 독립된 음소로 존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의 음성적 환경은 ‘ㄹ’과 모음 사이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ㅇ[h]’는 유성음 사이에서 실현되지 않고 생략되는 ‘h’와 같

21) 돌이나 바위에 낀 이끼를 말한다. 주로 산담 등에서 발견된다.

22) 마소의 사료인 꼴을 가꾸는 밧을 말한다. ‘꼴’은 ‘꼴>꼴’의 변화를 입은 것인데 제주방언에서는 ‘꼴>출’로 실현되었다.

23) 절음의 개념을 중세국어의 ‘몰애, 놀애’ 등과 같은 단어의 음운론적 해석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단어들에서 ‘ㄹ’이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절음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단어들을 절음과 결부 지으려면 ‘ㄹ’ 뒤에 오는 ‘애’가 어휘 형태소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빠져 있다. 현재 일반화된 설명은 절음과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둘째 음절의 초성 ‘ㅇ’이 후음으로서 음가를 가지고 있어서 연음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방식이다.

24) 선행 요소에 ‘백’이 결합한 ‘백몰래’, 후행 요소에 ‘물’, ‘밧’, ‘판’이 결합한 ‘몰래물’, ‘몰래밧’, ‘몰래판’ 등도 매우 활발히 사용되는 어형이다.

은 후두 계열의 음이며 중세국어의 ‘ㄹㅎ’에서의 ‘ㅇ’와 같은 적극적인 직능을 가진 것이라 하였다(권미소, 2021:4). (8)에서 보인 ‘ㄹㅇ’ 연쇄는 강영봉(1983)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후두 유성 마찰음이 비어두 음절 초에 존재하다가 사라질 상태에 놓이자 선행 말음이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현상을 저지하고 말음 ‘ㄹ’을 한 번 더 자리에 복사되는 것으로 ‘ㄹ’의 음가를 공고히 한 것이 아닌가 한다.

(9) 잘 알아[잘 라라], 풀 아판[풀라판]

(9)는 정승철(1999)에서 설명한 바 있는 구 형태의 ‘ㄹㅇ’ 연쇄 양상이다. 앞서 (6)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만든 구의 구조에서도 ‘ㄹㅇ’ 연쇄가 ‘ㄹㄹ’ 연쇄로 발음될 수 있다. 즉, 어절 경계를 넘어선 경우에도 ‘ㄹ’이 복사되는 것으로, 만약 이 경우 제주방언 화자가 ‘잘#알아’, ‘풀#아판’에서 ‘잘’과 ‘풀’의 음절 경계를 휴지로 두었다면 [잘라라], [풀라판]과 같은 ‘ㄹㄹ’ 연쇄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분절음의 형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음운구로 이해되기 때문에 ‘ㄹ’을 연음시키지 않고 복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듯하다.

3. 자음 연쇄에서의 ‘ㄹ’ 복사에 대한 해석

2장을 통해 제주방언은 현대 국어의 현실 발음에서 ‘ㅎ’가 탈락하는 경우에도 비어두 초성의 ‘ㅎ’가 그대로 실현되기도 하며, 탈락한 자리에는 선행 말음 ‘ㄹ’이 연음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복사되어 ‘ㄹㄹ’과 같은 양음절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제주방언에서는 ‘ㅎ’ 자리에 ‘ㄹ’이 한 번 더 나타나는지에 대해 ‘ㅎ’과 ‘ㄹ’으로 나누어 해석하고자 한다.

3.1. 후두 유성 마찰음 ‘ㅎ’과 ‘ㅇ’의 탈락으로 인한 복사

2장에서 살펴본 ‘ㄹㅎ’, ‘ㄹㅇ’ 연쇄의 특징은 첫째, 한자어이거나, 둘째, 이전 시기부터 후두 유성 마찰음 ‘ㅎ’, ‘ㅇ’을 가지고 있던 단일어이거나, 셋째, 다른 방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제주방언에서만 사용하는 단일어 혹은 이전 시기에서도 타 방언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제주방언 고유의 형태들 넷째, 발화에서 어절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 등으로 정리된다.

먼저 ‘결혼(結婚)’, ‘괄호(括弧)’, ‘밀항(密航)’, ‘일행(一行)’ 등과 같은 2음절 한자어는 그 구성 요소가 한자어임은 알 수 있으나 그 각각의 의미와 기능을 알지 못해 거의 단일어처럼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의미를 아는 한자어 ‘일월(一月)’, ‘팔월(八月)’ 등도 실질적으로는 언중의 인식 속에 단일어로 내재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이들의 현실 발음은 비어두 초성의 ‘ㅎ’을 탈락시킨 후 ‘ㄹ’이 연음된 형태로 나타난다²⁵⁾. ‘올해’, ‘열흘’, ‘일흔’ 등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들을 단일어로 인식하여 [오래], [여를], [이른] 등과 같이 발음한다. 그러나 제주방언에서는 선행 말음에 위치한 ‘ㄹ’과 후행하는 ‘ㅇ’, ‘ㅎ’을 그대로 발음하고자 하는 경

25) 다른 지역 방언의 분포 및 음운 현상에 관해서는 박주성(2024)의 논의를 참고하면 된다.

향이 있다. 이것은 제주방언의 ‘ㅎ’과 ‘ㅇ’이 가지는 성격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진호(2012:253~254)에 따르면 중세국어에서 홑받침 ‘ㅎ’, 겹받침 중 후행 자음이 ‘ㅎ’ 어느 경우든 ‘ㅎ’은 연음되어 표기될 뿐 탈락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현대 국어로 진행되어 오던 도중에 ‘ㅎ’이 탈락하였다. 어중에 ‘ㅎ’을 분명히 지니던 형태들의 표기가 현대에 와서 ‘ㅎ’이 없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ㅎ’의 탈락이 실재했던 변화라는 것이다. 이것을 볼 때 ‘ㅎ’의 연음 여부와 상관없이 비어두의 초성에 놓인 ‘ㅎ’은 역사적으로 탈락이라는 음운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비어두의 초성이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모음이나 ‘ㄹ’ 등과 같은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에 후행하는 음절의 초성을 말한다. 제주방언은 꽤나 오랫동안 ‘ㅎ’ 탈락의 변화를 겪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일찍이 강영봉(1983:31)에서는 현평효(1982) 논의를 이어받아 이기문(1977)이 설정한 후두 유성음[h]을 토대로 ‘불이(根), 딸이(葡萄), 곶이(粉), 물이(宗)’ 등의 방언형을 설명한 바 있다. 이들은 [부리, 머리, ㄱ리, ㄴ리]로 발음되지 않고 [불-이, 딸-이, 곶-이, 물-이]와 같이 발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음절의 ‘ㅇ’은 아무런 음가도 없는 자형 구성상의 허자(虛字)가 아니라 ‘ㄹ’과 ‘ㅇ’ 사이에 존재하는 자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15, 16세기의 후두 유성음 [h]의 잔재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후두 유성음이 제주방언에 존재하며, 이의 음성적 환경은 ‘ㄹ’과 ‘모음’ 사이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이다. ‘ㄹ’과 ‘모음’이라는 음성적 환경에서 선행 음절의 ‘ㄹ’이 다음 음절로 내려서지 못하게 제자리에 묶어두는 기능을 하는 것은 ‘ㄹ’과 ‘모음’ 사이에 내재된 자음적 요소로 말미암은 현상이라 본 것이다. 또한 이때 음성적 환경에 내재된 자음적 요소는 유성음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강영봉(1983)의 논의에 근거하면 앞선 2장의 ‘ㄹㅎ’, ‘ㄹㅇ’의 연쇄에서 비어두 음절에서의 ‘ㅎ’과 ‘ㅇ’은 탈락되지 않고 제 음가대로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ㄹㅎ’과 ‘ㄹㅇ’의 연쇄를 보이는 어형들도 이전 시기부터 존재해 오며 음 변화를 거친 형태들이고, 제주방언에서만 확인되는 ‘돌왓’, ‘출왓’, ‘물웨’ 등과 같은 형태들에 쓰인 ‘ㅇ’은 충분히 이들이 유성 후두 마찰음 [h]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제주방언에 유독 ‘ㅎ’ 발음 체언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중세국어에 다수 존재했던 ‘ㅎ’ 발음 체언들은 근대국어를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고, 일부 복합어에서만 화석화되어 그 흔적만이 확인된다. 즉 현대국어에는 ‘ㅎ’ 발음을 가진 체언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제주방언에는 여전히 표기상 ‘ㅎ’ 발음 체언이 복합어에서 드러난다. ‘ㅎ’ 발음 체언은 유성 자음 ‘ㄹ, ㄴ, ㄹ’ 뒤에서만 나타나는데 제주방언의 ‘ㅎ’ 발음 체언은 어간 발음이 ‘ㄹ’일 때 실현되는 형태가 가장 많다(권미소·배영환, 2021). 이러한 관점에서 ‘ㄹㅎ’의 연쇄는 제주방언 화자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러우며 매우 익숙한 환경이기에 각각의 소리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준다.

그러나 ‘ㄹㅎ’, ‘ㄹㅇ’의 연쇄는 수많은 소리의 변화의 물결²⁶⁾과 함께 결국 음운론적인 환경에 의해 ‘ㅎ’ 탈락이 될 수밖에 없는 음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ㄹㅎ’의 연쇄는 비어두 초성의 ‘ㅎ’의 탈락, ‘ㄹㅇ’의 연쇄는 선행 발음의 ‘ㄹ’이 연음의 형태로 ‘ㅎ’가 더 이상 음절의 초성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압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나마

26) 유성 자음과 ‘ㅎ’가 연쇄되는 경우에서 탈락하는 대상은 음성·음운론적으로 약한 ‘ㅎ’이 될 수밖에 없다. 선행 자음이 ‘ㄹ’일 때 수의적인 ‘ㅎ’ 탈락이 일어나면 선행 자음이 초성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 이 말은 곧 ‘ㄹ’과 ‘ㅎ’가 초성 위치를 두고도 경쟁적 관계로 설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하영우, 2017:211).

제주방언에서는 기존 어형의 형태를, 특히 어간말 자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내재적 인식이 잘 표출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어간의 말음 자리의 ‘ㄹ’이 ‘ㅎ’ 탈락과 연속한 연음 등의 과정을 저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에서 ‘ㄹㄹ’의 양음절성이 실현된다고 볼 수 있겠다.

3.2. 제주방언의 ‘ㄹ’ 특징에서 비롯된 ‘ㄹ’ 복사

주지하듯이 유성 자음 ‘ㄹ’ 앞에는 ‘ㄹ’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음도 올 수 없다. 이 말은 곧 ‘ㄹ’이 어떤 자음도 지배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3.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ㅎ’ 자리에 선행 자음 ‘ㄹ’을 복사하는 것은 ‘ㅎ’ 탈락 이후 화자가 선행 말음의 ‘ㄹ’의 연음을 저지하는 현상과 함께 선행 종성의 ‘ㄹ’ 소리의 분명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자음 연쇄라고 생각된다.

제주방언의 용언 어간 ‘골르-27), 끌르-, 딸르-~똥르-, 실르-28), 알르-, 일르-29)’ 등은 국어의 ‘꺾-, 꿇-, 뚫-, 쫓-, 앓-, 잃-’에 해당하는 형태이다. 이들은 모두 이전 시기부터 어간말 자음군 ‘ㄹ’을 가진 어간들인데 제주방언에서는 ‘가프-’, ‘나끄-’ 등과 같이 ‘-’ 모음이 삽입되고, 어간말 자음군이 각각 종성과 초성에 위치한 뒤 앞선 2장의 예들과 같은 변화를 입었거나, ‘ㅎ’의 탈락으로 ‘ㄹϕ>ㄹㄹ’의 변화를 겪어 각각 ‘-’ 말음을 가진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⁰⁾ 이 말은 곧 어간말에 자음군 ‘ㄹ’은 나타날 수 없으나 ‘ㅎ’ 탈락과 ‘ㄹㄹ’의 변화를 겪은 형태들은 얼마든지 이 방언에서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한편, 제주방언에서는 유독 1음절 어간말 자음이 ‘ㄹ’인 경우가 많다. 권미소(2021:80, 145~160)의 자료는 물론 『제주어사전』(2009), <우리말샘>의 표제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갈르-, 거실르-, 걸르-, 게을르-, 골르-, 글르-, 널르-, 놀르-, 달르-, 둘르-, 문질르-, 물르-, 몰르-, 발르-, 벨르-, 불르-, 설르-, 소리질르-, 실르-, 얼르-, 울르-, 저질르-, 질르-, 착글르-31), 클르-, 흘르-’ 등과 같은 ‘Xㄹㄹ-’형의 용언 어간은 음절 말음 ‘ㄹ’과 음절 초성의 ‘ㄹ’의 연쇄가 매우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 준다. 이들은 ‘Xㄹ-’ 형과 공존하기는 하나 ‘Xㄹㄹ-’ 형태가 자음 어미 앞에서 보다 많이 실현되는 것으로 볼 때 조금 더 안정성을 띤 어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어의 많은 자음들이 음절말에서는 그대로 발음되지 못하고 다른 자음으로 바뀐다. 그에 비해 ‘ㄹ’을 비롯한 공명 자음은 기본적으로 구강 또는 비강의 울림이 크기 때문에 종성에 놓인 공명음을 단아서 발음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성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27) ‘담긴 것이 그릇에 가득 차지 아니하고 조금 비다’의 의미를 가진 ‘꺾다’를 말한다. 『제주어사전』에는 ‘꺾다’도 표제어로 올라 있다.
 28) ‘똥르-’의 경우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해석해야 하는 형태이기는 하다. 15세기 ‘똥-’부터 16세기 모음의 변화, 17세기 종성 ‘ㄷ’의 ‘ㄹ’로 재구조화된 어간으로 해석하는 관점, 혹은 종성 ‘ㄷ’에서 ‘ㅎ’이 탈락한 것으로 보는 관점은 물론 19세기에 와서 종성 ‘ㄷ’이 ‘ㄹ’으로 변한 형태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할 사항이 많다. ‘똥-’ 등에 대해서는 배영환(2013)을 참조하면 되고 여기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29) 현대국어 ‘쫓다’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으로 16세기에 ‘쫓다’로 문증되는 형태가 제주방언에서는 전설모음화의 영향을 입어 ‘쫓->쫓-’의 변화를 겪고 어간말자음군에 사용된 ‘ㄹ’은 다른 어간들과 마찬가지로 ‘ㄹㄹ’의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닌가 한다.
 30) 정승철(1995:195~198)에서도 이미 제주방언에서 ‘ㄹ’ 말음을 가진 용언 어간이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예와 함께 ‘-’ 삽입과 유성 자음 사이의 ‘ㅎ’ 탈락, ‘ㄹϕ>ㄹㄹ’의 재구조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31) <우리말샘>을 보면 ‘그르-’다의 전남·평북방언으로 ‘꺾-’ 형이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확인은 더 필요해 보인다.

본래 음대로 실현된다. 제주방언에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어간 말음으로 올 수 있는 자음은 동일하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국어에서 어간 말음이 경음, 격음, 혹은 어간말 자음군으로 끝나는 경우의 용언 어간은 현대 국어의 시각으로 볼 때 제주방언에서 유독 ‘ㄷ’ 모음의 삽입형으로 나타난다. 가령 ‘값-, 낚-’ 등의 종성 말음이 ‘ㅍ’, ‘ㄱ’인 경우에 제주방언에서는 이들이 ‘가프-’, ‘나끄-’ 등과 같이 실현된다. [값], [낚]과 같이 평과열음화를 거치지 않고, 2음절 초성에서 그 소리가 온전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주방언에서 음절말 소리는 비어두 음절로 연음³²⁾시켜서라도 그 형태와 소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해석이다.

4. 결론

이 글은 선행 자음이 ‘ㄹ’이고, 후행 자음이 ‘ㅎ’, ‘ㅇ’인 연쇄의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제주방언에서 나타나는 ‘ㄹ’ 복사 현상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이에 제주방언의 구술 발화 자료 가운데 ‘ㄹㅎ’, ‘ㄹㅇ’의 연쇄를 보이는 어형들을 단어의 형성 방법, 음절 수, 형태·품사별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기술하였고, 그 실현 양상에 대해 자음의 성격, 특징 등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제주방언에서 ‘ㄹㅎ’ 연쇄는 현실 발음에서 유성 자음과 모음 사이라는 탈락 조건에도 약화·탈락 없이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또 ‘ㅎ’가 탈락하게 되더라도 ‘ㅎ’ 자리에 ‘ㄹ’이 복사된 형태 ‘ㄹㄹ’ 연쇄로 나타나 연음되는 경우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즉, ‘올히’, ‘올리’와 같이 ‘ㄹㅎ’ 연쇄형과 ‘ㄹㄹ’ 연쇄형이 공존하는 것이다. ‘ㄹㅎ’ 연쇄의 형태에서 ‘ㄹㄹ’ 연쇄 발음은 2음절 이상의 합성어, 단음절이 연속되는 구의 구조는 물론 ‘ㅎ’ 조사가 사용된 경우에도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음절수와 음절 구조와 관련 없이 비교적 빠른 발화가 이루어지거나 복합어, 구, 명사+조사 등의 구조를 하나의 소리의 단위로 인식해서 나타나는 복사 현상이라고 파악되었다. ‘ㄹㅇ’ 연쇄도 ‘ㄹㅎ’의 연쇄와 마찬가지로 ‘ㄹㅇ’ 연쇄형과 ‘ㄹㄹ’ 연쇄형이 한자어 합성어, 제주방언 어형, 구 등의 구조에서 모두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방언에는 15~16세기에 존재했던 ‘ㅎ’과 ‘ㅇ’를 후두 유성 마찰음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로 인해 선행 말음의 ‘ㄹ’은 비어두 음절의 초성으로 가지 못했고, 각각의 음가가 실현되었으나 결국 ‘ㅎ’이 탈락하게 되자 화자가 선행 말음의 ‘ㄹ’의 연음을 저지하고자 노력에서 ‘ㄹㄹ’의 양음절성이 실현된 것이다. 이때 ‘ㄹㄹ’의 연쇄는 앞의 ‘ㄹ’ 소리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제주방언에서 ‘ㄹ’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보다 안정성을 띤 어형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다룬 제주방언의 ‘ㄹ’ 복사는 결국 ‘ㅎ’ 탈락이라는 음 변화에 대한 제주방언 화자의 심리적 체계와 관련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방언 화자들은 이전 시기부터 ‘ㄹ’과 ‘ㅎ’ 각각의 음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후두 유성 마찰음으로 존재하던 음들이 탈락의 환경에 놓일 경우 그 자리에 선행 자음 ‘ㄹ’을 드러내어, 연음을 저지하고, 선행 자음의 소리는 더욱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에 의해 ‘ㄹ’이 복사되는 것으로 해석해 본다.

32) 여기서 사용하는 ‘연음’은 ‘절음’의 개념과 구분 짓지 않고,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기본 자료〉

- 국립국어원(2004~2013), 『지역어 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2017~2020), 『제주어 구술 자료집』 1~36.
현평호 외(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
지역어 종합 정보(<https://dialect.korean.go.kr>)

〈참고문헌〉

- 강영봉(1983), 「제주도 방언의 후음」, 『탐라문화』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9~43.
권미소(2021), 「제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남원읍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권미소·배영환(2022), 「복합어에서의 유기음화 현상 연구-제주방언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51, 영주어문학회, 5~28.
기세관(1989), 「국어의 음운 탈락 및 음운 첨가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2, 순천대학교 어학연구소, 17~68.
김현(1997), 「15세기 국어 자음연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주성(2024), 「한국어 자음-후음 연쇄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배영환(2005), 「‘ㅎ’-말음 체인과 관련 음운현상」, 『언어학연구』 9, 한국중원언어학회, 41~76.
_____ (2013), 「‘뽇’-[穿]의 형성과 방언 분화」, 『어문논집』 56, 중앙어문학회, 63~91.
신지영·차재은(2000), 「공명 자음 뒤에 위치한 /ㅎ/,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도서출판 월인.
_____ (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국어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안병섭(2019), 「한국어의 /ㅎ/는 공명 자음 뒤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되는가」, 『한국학연구』 6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5~228.
이진호(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_____ (2017), 『국어 음운론 용어 사전』, 도서출판 역락.
_____ (2021), 『(개정·증보판) 국어 음운론 강의』, 집문당.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전진호·홍석우(2023), 「‘장애음-ㅎ’ 연쇄의 방언별 실현 양상」, 『어문연구』 51-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1~68.
정승철(1991), 「음소연쇄와 비음운론적 경계: 제주도방언을 중심으로」,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김완진 선생 회갑기념논총』, 민음사, 360~372.
_____ (1995), 『제주도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_____ (1999), 「제주방언의 음조와 음조군」,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543~554.
_____ (2022), 『(개정판)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_____ (2024), 『제주방언 연구』, 태학사.

- 정인호(2004), 「자음-ㅎ 연쇄에서의 음변화」, 『한국문화』 3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1~41.
- _____ (2007), 「음운론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위한 제언」, 『인문과학연구』 30,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19.
- _____ (2021), 「음변화로서의 자음탈락 고찰」, 『방언학』 34, 한국방언학회, 41~65.
- 차재은(2001), 「/ㅎ/의 음운 자질과 음운현상」, 『어문논집』 43, 안암어문학회, 23~44.
- 차재은·정명숙·신지영(2003), 「공명음 사이의 /ㅎ/의 실현에 대한 음성, 음운론적 고찰」, 『언어』 28-4, 한국언어학회, 765~783.
- 하영우(2017), 「수의적 /ㅎ/ 탈락의 경향성과 해석」, 『겨레어문학』 59, 겨레어문학회, 197~226.

■ 토 론

“자음 연쇄에서의 음운 현상 고찰 - 제주방언의 ‘ㄹ’ 복사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양세정(제주대학교)

본 연구는 제주방언의 독특한 ‘ㄹ’ 복사 음운 현상을 ‘ㄹㅎ’과 ‘ㄹㅇ’ 자음 연쇄 환경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공식적 관점에서 기술하며, 필요에 따라 통시적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ㄹ’ 복사 현상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과,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자가 장기간 직접 채록한 제주방언 말뭉치를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는 데 있다. 또한, 수집된 어형을 단어의 형성 방식, 음절 수, 형태 및 품사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통해 향후 후속 연구의 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토론문은 저자의 논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후속 연구의 확산을 기원하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자는 “ㄹㅎ 자음 연쇄”에서의 ㄹ 복사(예: 결혼[결론])와 “ㄹㅇ 자음 연쇄”에서의 ㄹ 복사(예: 칠월[칠뿔])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ㄹㅇ 자음 연쇄에서 “ㅇ”을 자음으로 보고, 발표문 후반부에서는 “ㅇ”을 후두 유성 마찰음(h)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이 후두 유성 마찰음(h)을 ㅎ(h)의 변이음으로 보지 않고 현재(또는 과거에) 제주방언 자음 체계에서 음소적 가치를 지닌 독립적인 음소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b) 연구자가 제시한 모든 예가 후두 유성 마찰음(h)을 포함한다(또는 포함했었다)고 보아도 무방한지 궁금하다.

2) 본 연구의 결과 제주방언의 ㄹ 복사 음운현상이 ㄹㅎ 연쇄와 ㄹㅇ 연쇄 환경에서 각각 수의적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였으며, 복사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후행 자음이 탈락되지 않고 실현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ㄹ 복사와, 후행 자음 유지 발음이 각각 어떤 환경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발생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제주방언 발화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언급한 부사(예: 각뻔히[각뻔리])의 경우 이러한 현상의 발생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3)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제주방언 화자들이 ‘ㄹ’과 ‘ㅎ’(그리고 ‘ㅇ’)의 음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ㄹㅎ(그리고 ㄹㅇ) 연쇄 환경에서 ㅎ(그리고 ㅇ)이 탈락하더라도 연음을 방지하고 선행 자음의 소리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ㄹ을 복사하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한다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을 가진 새로운 인공 단어(예, 줄히, 별흔)를 제시하여 발화하게 하는 실험에서도 유사한 음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20세기 초 제주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 『朝鮮語方言の研究(1944)』를 중심으로 -

장정민(제주대)·배영환(제주대)

< 차 례 >

1. 머리말
2. 小倉進平과 『朝鮮語方言の研究(1944)』
3. 제주 방언의 음운 현상
4. 맺음말

1. 머리말

본고는 20세기 초 제주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을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 방언을 가장 이른 시기에 채록한 小倉進平의 『朝鮮語方言の研究』를 중심으로 어휘를 분석하여 제주 방언의 자음과 모음에서 발생한 음운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주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언은 언어가 지역적·사회적으로 분화되어 다양한 변화를 일으킨 모습으로, 1944년 小倉進平이 국어를 6개의 방언권으로 구획한 이후 제주 방언은 다른 지역어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이후 제주 방언을 비롯하여 각 방언은 생성음운론에 기반한 공시적인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을 기술하는 패러다임을 속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제주 방언은 현평호(1969), 정승철(1988), 고동호(1991) 등에 의해 자음과 모음의 음운 체계와 제약, 음운 현상 등이 논의되었다.¹⁾ 이 글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제주 방언을 조사한 小倉進平의 『朝鮮語方言の研究』를 중심으로 하여 20세기 초 제주 방언의 모습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朝鮮語方言の研究』는 1910~1930년대의 제주 방언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자 언어학 연구자가 방언을 정밀 전사하였기 때문에 이른 시기의 제주 방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朝鮮語方言の研究』를 중심으로 제주 방언을 면밀하게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²⁾이므로 본고는 이 자료를 중심으로 20세기 초 제주 방언의 모습을 살펴보고 제주 방언에서 발생했던 음운 현상과 특징의 한 측면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小倉進平과 『朝鮮語方言の研究』²⁾

- 1) 제주 방언에 대한 다양한 음운론적 연구는 고동호(2014), 정승철(2014), 오창명(2018), 신우봉(2020) 등에서 정리한 바 있다.
- 2) 이 장은 정승철(2010)과 이상규·이순열(2009)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되, 조사 항목의 종류와 내용은 다시 검토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朝鮮語方言の研究』의 저자인 小倉進平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학의 근대화를 수립하였다고 평가받는 학자이다. 1911년 한국으로 건너와 조선총독부 관리로 지내며 본격적으로 한국어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에 1차 방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1924년 유럽과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보낸 뒤 1926년 한국으로 돌아와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로 지내며 많은 한국어 연구와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1933년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는 동경제국대학의 교수로 정년까지 활동하였으며 이 시기에도 경성제국대학의 겸임교수로 지내며 한국에서 방언 조사를 진행하였다(정승철, 2010).

『朝鮮語方言の研究』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자료집에 해당하는 상권은 1911년부터 1933년까지 제주(1911), 황해(1913), 경상(1915), 함경(1917), 충청(1918), 전라(1918), 강원(1923), 평안(1928) 순으로 직접 조사한 어휘를 수록한 것이다. 방언 조사를 위해 사용한 질문지, 즉 조사 항목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상규(2009:635)에서는 일본의 ‘국어조사위원회’에서 제작한 『方言採集簿(1904)』를 기초로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제보자는 보통학교 상급반 남녀 학생 10여 명을 선발하여 조사하되 조사 항목에 따라 노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제주 방언 역시 다음 내용을 통해 보통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상규·이순열, 2009).

(1) “내가 조사 장소로 택한 보통학교는 제주, 대정, 정의의 세 읍에 신설된 것에 지나지 않고 교장은 학교 창설과 사무에 심신이 지쳐 있는 듯했다.”(이상규·이순열, 2009:35 재인용)

제주 조사에 있었던 일을 위와 같이 회고하며 조사 장소로 ‘보통학교’의 학생을 선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주, 대정, 정의’ 세 읍을 조사하였다고 하였는데, 1911년 1차 조사 당시에는 제주, 성산, 정의, 서귀, 대정을 모두 조사하였으며 1930년 동경제국대학의 출장 명령으로 2차 조사를 올 당시에는 정의를 제외한 네 지역만을 조사하였다. 다만, 실제 자료집에서 ‘정의’는 소수 항목에서만 나타날 뿐 대체로 ‘제주, 성산, 서귀, 대정’을 중심으로 조사 지역을 기록하고 있다.³⁾ 조사 방법은 10명의 제보자를 모아 놓고 3~5시간에 걸쳐 300~600개의 단어를 조사하였으며(이승근, 2005:41), 조사된 자료는 ‘천문, 시후, 지리·하해, 방위, 인륜, 신체, 가옥, 복식, 음식, 농경, 화과, 채소, 금석, 기구, 날짐승, 달리는 짐승, 수중 생물, 곤충·파충, 초목, 형용사, 동사, 조동사, 부사, 조사, 접두사·접미사, 구·단문, 잡’의 28개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1,301개 항목을 수집하였다.⁴⁾ 다만, 1,301개 항목에 대한 모든 방언형이 지역별로 나타나 있지는 않으며 제주

3) 고려 시대 제주의 행정 구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쪽의 ‘제주목’과 남쪽의 ‘대정현’, ‘정의현’으로 구분된다. ‘대정현’은 서쪽을 ‘정의현’은 동쪽을 이르며 이러한 구분은 1935년 이전까지 유지되었다. 『朝鮮語方言の研究』에 기술된 ‘성산’과 ‘서귀’는 행정 구역상 ‘정의현’ 안에 있는 지역으로 자료집에 등장하는 ‘정의’는 ‘성산’ 및 ‘서귀’와 구분되는 ‘표선’ 인근 지역으로 추정된다.

4) 이상규(2009:633)에서는 『朝鮮語方言の研究』에서 조사된 항목을 1,220개로 파악하고 있어 본고에서 파악한 수와 다르게 나타난다. ‘인삼채취자의 방언’을 제외하더라도 소항목에서 그 수에 차이를 보이고 일부 어휘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항목 및 어휘의 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목록은 다음과 같다.

소항목	지리·하해	방위	채소	초목	조동사	조사	부사
이상규 (2009:635)	39	16	38	26	426	0	24
본고	40	15	39	46	425	25	20

방언의 경우 530개⁵⁾의 항목에서만 방언형을 보이고 있다. 제주 방언의 수와 전체 항목의 수를 소항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2) 천문(11/27), 시후(8/17), 지리·하해(23/40), 방위(6/15), 인륜(24/59), 신체(42/55), 가옥(17/39), 복식(22/51), 음식(11/32), 농경(17/33), 화과(10/14), 채소(23/39), 금석(6/11), 기구(39/76), 배와 수레(1/11), 날짐승(18/29), 달리는 짐승(35/61), 수중 생물(11/18), 곤충·파충(21/27), 초목(15/46), 형용사(18/36), 동사(39/70), 조동사(59/425), 부사(14/24), 조사(19/25), 접두사·접미사(5/7), 구·단문(5/7), 잡(11/33)

(2)는 조사 어휘를 28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그 수를 파악한 것으로 ‘천문~초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명사를 의미별로 나눈 것이고, ‘형용사~접두사·접미사’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어휘를 정리한 것이다. 이외에 ‘구·단문’에서는 ‘가에(가+에)’와 같이 명사와 조사의 결합, ‘그렇지’, ‘예’와 같은 감탄사 등을 다루고 있으며, ‘잡’에서는 ‘낮잡’, ‘냄새’와 같이 앞선 의미 구분에서 나누지 못한 명사와 ‘어찌[何]’와 같은 의문 부사 등을 다루고 있다. 『朝鮮語方言の研究』의 수록된 어휘를 현대 국어의 품사 분류⁶⁾에 따라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표준국어대사전』 품사 분류에 따른 제주 방언 어휘의 수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374	1	39	18	15	3
조사	어미	접사	기타	합계	
4	73	3	1	530	

<표 1>은 『朝鮮語方言の研究』에 수록된 제주 방언 어휘 530개를 현대 국어의 품사 분류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어미와 접사는 국어의 9개 품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이 나누어 구분하였다. 기타에 해당하는 1건은 ‘-상이여(-한 모양이다)’와 같은 종결 표현으로 ‘구·단문’에 있던 항목을 품사로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타’로 처리하였다. 조사 어휘는 명사가 374개로 가장 많으며 ‘명사>어미>동사>형용사>부사>조사>감탄사·접사>대명사’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일부는 小倉進平이 분류한 항목과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잡’에 해당하는 어휘를 대부분 명사에 포함하였고,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조동사’와 ‘조사’의 구분 등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3) ㄱ. 갓(가[邊]), 경영(경영), 뇌~뇌기(연기), 돛채비(도깨비), 몬독~몬지~몬지라기(티끌),

5) ‘어제’, ‘저기’와 같이 일부 항목에서는 방언 조사 지역을 ‘대다수 지방’으로 표기하여 ‘제주’가 포함되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본고에서는 파악한 530개의 어휘는 ‘대다수 지방’을 제외한 항목만을 파악한 것이다.
6) 학교 문법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조사, 부사, 감탄사로 나누어 표시하고 덧붙여 접사, 의존 명사,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어미의 표시를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일러두기>

- 불(벌[件]), 불체~불치(재), 설(살[歲]), 순(숯), 식개(제사), 퇴(무리), 해답(회답[回答]), 혼자(혼자)
- ㄴ. 무시건(어찌[何])
- ㄷ. 듣고(듣고), 조랍다(졸리다)
- ㄹ. 시(있다)
- ㄱ. 매매(고양이 부르는 소리)
- ㄴ. 게매(그렇지), 예~야~양~기여(예)
- ㅅ. -간되~-건되(-지), -건(거든), -나네~-난(-는즉), -단(-다가), -덴~되원~-된(-든), -랜(-라고), -명(-(-으)면서), -문~민(-(-으)면), -사(-(-어)야), -센~-생(-시라고), -양/왕~영/영(-(-어)서), -젠(-자고), -키원(-겠다고)

(3)은 다른 소항목에 있던 어휘를 현대 국어 품사 체계에 맞도록 재배치한 어휘의 예이다. (3ㄱ)은 ‘천문~초목’에 포함되지 않던 명사로 ‘갓’은 ‘구·단문’에서 ‘ㄱ세(가+에)’로 나타난 것으로 명사와 조사로 나누어 ‘갓’을 명사에 배치한 것이다. ‘불(벌[件])’과 ‘설(살[歲])’은 본래 ‘접두사·접미사’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한 불’, ‘두 설’과 같이 의존 명사로 쓰이므로 명사에 포함하였다. (3ㄴ)의 ‘듣고’는 ‘잡’으로 ‘조랍다⁷⁾’는 ‘형용사’로 분류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3ㄷ)은 ‘잡’에서 ‘어찌’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중앙어 ‘무엇’에 해당하므로 대명사로 분류하였다. (3ㄹ)은 동사에서 형용사로, (3ㄱ)은 ‘달리는 짐승’에서 부사로, (3ㄴ)은 ‘잡’에서 감탄사로 품사를 분류하였다. (3ㅅ)은 모두 제주 방언의 어미에 해당하며, ‘-양/왕~영/영’은 동사에서 어미로, ‘-건’, ‘-문~민’ 등은 조사에서 어미로 분류하였다.⁸⁾

- (4) ㄱ. 거, 보미(가는 사람(사람), 신펡니(신펡리) 아들(아들), 우남(안개), 우편(우편), 훼손리(회수리),
- ㄴ. 내, 제
- ㄷ. 강(가다), 누엉(눅다), 우수왕(우습다), 죽젠(죽다), 헛다~하다~회다(하다)
- ㄹ. 뗏(뗏), 못(못), 무사(왜)

(4)는 조사 항목으로 설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충형 혹은 예문에서 나타난 제주 방언의 예이다. (4ㄱ)은 추가 설명 혹은 예문에 나타난 명사이고 (4ㄴ)은 대명사, (4ㄷ)은 동사, (4ㄹ)은 부사이다. (4ㄱ)의 ‘우남’은 ‘아지랑이’의 제주 방언이 ‘안개’로 나타나자,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안개·연무를 [un-am]⁹⁾이라 한다”와 같이 덧붙이며 새로운 어휘를 수록하고 있다. ‘아들’, ‘강’, ‘무사’ 등은 다른 조사 항목에서 예문을 제시하며 나타난 것이다. ‘우편’과 마을명 ‘훼손리, 신펡니’ 등은 ‘ㄱ>기’의 단모음화와 같은 어휘 내에서 발생한 음운 현상이 다른 어휘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보인 예에서 등장한다. 그런데 ‘사람’과 ‘뗏’은 다른 항목의 예문에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제주의 방언형으로 수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이하다.¹⁰⁾ 이외에도 ‘축오름, 물오름, 피바위름’ 등의 산 이름도 마을 이름도 일부 제

7) 『朝鮮語方言の研究』에서 ‘조랍다’는 형용사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방언사전』에서 ‘조랍다’는 표준어 ‘졸리다’에 대응하고 있으며 품사는 동사로 처리되고 있다. 만약 ‘조랍다’의 ‘졸-(<즈올-)+-압/업-+-다’로 분석한다면 형용사 파생의 접미사인 ‘-압/업-’에 의해 형용사로 볼 수도 있다.

8) 어미에 해당하는 어휘는 대체로 기존의 소항목 ‘조동사’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사’와 ‘조사’에 수록된 일부 어미와 ‘조동사’의 어휘가 곧 조사된 어미에 해당한다.

9) 『朝鮮語方言の研究』은 형태소의 기본 형태를 밝히어 적는 형태음소적 표기 방식을 따르고 있어 연음, 경음화 등의 다양한 음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10) ‘사람’은 소항목 ‘인류’의 첫 번째 항목으로 있으며 방언형 ‘사:람’은 ‘대다수 지방’에서 사용하는 어형으로 나타나 있다. ‘대다수 지방’에 제주 방언이 포함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4ㄱ)에서 보이는 ‘사람’과는 어형이

시하고 있어, 보충형과 예문의 어휘를 모두 더한다면 약 550개의 어휘가 수록된 것으로 파악된다.

3. 제주 방언의 음운 현상

음운 현상은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거나 사라지거나, 혹은 첨가되는 모든 변화를 말한다. 이 장에서는 20세기 초 제주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앞서 살펴본 500여 개의 어휘를 모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과 자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¹¹⁾

3.1. 모음 관련 음운 현상

3.1.1 ‘·’의 변화

‘·’는 중세어 시기에 존재했던 모음의 하나로,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소실된 음운이다. 국어에서 ‘·’는 두 단계에 걸쳐 소멸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16세기 비어두 위치에서 ‘· > ㅡ’의 변화가 먼저 발생한 후 17세기 무렵 어두 음절에서 ‘· > ㅏ’의 변화를 겪으며 현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제주 방언에서는 ‘말[馬]’, ‘쌀[米]’과 같이 어두 음절에서 대체로 ‘·’를 유지하고 있으며 ‘늑말’과 같이 일부 어휘에서는 비어두 음절의 ‘·’가 발견되기도 한다. 즉, 제주 방언에서 ‘·’는 제1단계의 비어두 위치 ‘· > ㅡ’ 변화는 겪었으나 제2단계 어두 위치의 ‘· > ㅏ’ 변화는 이 시기에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세어와 제주 방언의 ‘·’가 정확하게 대응하지는 않는바, 이 시기 ‘·’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5) ㄱ. 살구~쌀귀(살구), 온ㄱ음~온가음(옷감), 차다(짜다[鹽]), 툃~탁(턱)
 ㄴ. ㄱ랑비~고랑비(가랑비), 놈(남[他])
 ㄷ. 흙~혹(흙)

- (6) ㄱ. 즈락~즈록(자루[柄])
 ㄴ. 바농(바늘), 불(벌)
 ㄷ. 감저~감제(고구마), 아척(아침)
 ㄹ. 들~들~털(들), 설(살)

(5~6)는 중세어의 ‘·’가 제주 방언에서 다른 모음으로 변화한 예이다. (1)은 어두의 ‘·’가 다른 모음으로 변화한 어형으로 (5ㄱ)은 ‘· > ㅏ’의 변화를 (5ㄴ)은 ‘· > ㅓ’의 변화를 (5ㄷ)은 ‘· > ㅡ’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활발하지는 않으나 20세기 이전부터 ‘·’의 변화가 일부 어휘에서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²⁾ (6)은 비어두 위치의 ‘·’가 각각 ‘· > ㅏ’, ‘· > ㅓ’, ‘· > ㅓ’, ‘· > ㅡ’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제주 방언에서 비어

달라 여전히 방언형을 보이지 않은 점에 의문이 든다.

11) 제주 방언의 음운 현상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발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朝鮮語方言の研究』는 조사 내용이 어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한 음운 현상만을 포착하는 데 집중한다.
 12) 정승철(1995)에서는 제주 방언의 ‘·’가 [+grave] 자질에서 먼저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았으며 장정민(2024)에서는 치찰음에서 먼저 변화를 겪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는 ‘·’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만큼의 어휘가 수집되지 않아 이러한 경향성을 증명하기 어렵다.

두의 ‘·’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ㅡ’의 변화를 겪었으며 일부 어휘에서만 ‘ㅏ, ㅑ, ㅓ’의 특이한 변화를 보이는데, (6ㄱ)의 ‘즈락~즈록’은 비어두 음절에서 ‘ㅏ’의 형태를 보이는 독특한 어형이다. 1940년대 이후의 제주 방언 자료집인 석주명(1947), 현평효(1962)에서도 ‘즈록~즈록’ 등의 형태는 보이지만 ‘즈락’은 나타나지 않으며 다른 어휘에서도 비어두 위치 ‘·>ㅏ’의 변화는 찾기 어렵다. (6ㄴ)은 ‘·>ㅑ’의 원순모음화로 볼 수도 있으나 이기문(1977), 백두현(1992) 등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주 방언에서 ‘·>ㅑ’ 원순모음화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ㅡ’의 제1단계 변화가 발생한 후 ‘ㅡ>ㅑ’ 혹은 ‘ㅡ>ㅓ’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6ㄷ)은 ‘·>ㅓ’의 변화를 겪은 예로 선행하는 자음이 모두 [+설정성(coronal)] 자질을 가진 자음이라는 특징이 있다. 김완진(1978:132-135)에서는 비어두 위치의 ‘·>ㅓ’의 변화는 ‘ㅓ’의 후설화라는 모음 체계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 ‘ㅓ’의 후설화는 [+설정성] 자음 뒤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3.1.2. 움라우트

움라우트는 후설모음이 특정 환경에서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선행하는 후설모음 ‘ㅏ’, ‘ㅓ’, ‘ㅑ’ 등이 후행하는 모음 ‘ㅣ’ 혹은 반모음 ‘y’에 의해 대립하는 전설모음 ‘ㅓ’, ‘ㅕ’, ‘ㅖ’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움라우트는 게제자음이 연구개음, 순음 등의 [-설정성] 자질을 가진 자음을 갖고 있을 때 활발하게 일어나며 ‘ㄴ, ㄷ, ㅌ, ㅈ’ 등의 [+설정성] 자질을 가진 자음이 게제할 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 (7) ㄱ. 가뻬다~개뻬다(가뻬다), 들뻬이(달뻬이), 모개지/야가지~야가지~야개기~야개(목), 얽겨한다(예뻬하다), 장기~쟁기(쟁기)
 ㄴ. 뚝개~뚝쟁이(뚝쟁), 주뻬이~주뻬기(주뻬니), 줌뻬이~줌뻬이(가랑비)
 ㄷ. 궤기~궤기(고기), 궤미(호미), 토기~토개~뚝개(토기)
- (8) ㄱ. 공다리(무서워하는 꼴랑지~꼴랑이(꼬리), 다님(대님), 도라지(질경이), 도지(도끼), 사람), 아시(아우), 통시(변소), 황고지(무지개)
 ㄴ. 나비(나비)

(7~8)는 제주 방언에서 나타나는 움라우트 현상의 예로, (7ㄱ)은 후행 모음이 ‘ㅣ’ 혹은 ‘y’일 경우 선행하는 선행 모음 ‘ㅏ’가 ‘들뻬이’, ‘개뻬다’와 같이 ‘ㅓ’로 나타난다. (7ㄴ)의 선행 모음 ‘ㅓ’는 ‘뚝쟁이’, ‘주뻬이’와 같이 ‘ㅕ’로 실현되고 (7ㄷ)은 선행 모음이 ‘ㅑ’일 때 ‘궤기~궤기’, ‘궤미’ 등 ‘ㅓ’ 혹은 ‘ㅕ’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선행 모음 ‘ㅑ’에 움라우트가 적용될 때에는 ‘궤기’, ‘궤미’와 같이 ‘ㅑ>ㅓ’로 나타나지만 제주 방언에서는 ‘ㅓ’ 혹은 ‘ㅕ’로 나타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는 20세기 이전 시기에 하향 이중모음 ‘ㅓ[oy]’가 단모음화를 겪어 ‘ㅓ[ö]’로 변화하였고 이 시기에 움라우트 현상의 적용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이후 제주 방언에서 단모음 ‘ㅓ[ö]’는 상향이중모음 ‘ㅕ[we]’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20세기 초에는 움라우트 환경에서 ‘궤기[kweki]’, ‘궤미[hwemi]’와 같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면내 ‘궤천리’를 ‘뚝천리’라 한다, 면내 ‘궤수리’를 ‘뚝수리’라 한다.”라고 설명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9) 궤뻬다(궤뻬다), 궤운다(궤두다), 궤(소)

- (10) ㄱ. 괴간되~간매(모자), 뵈~뵈뵈기(배[腹]), 와~괴와속(호주머니), 퇴악(박)
 ㄴ. 너뇌(너), 뇌~뇌기(연기), 박쇠기(바가지), 버렁이(벌레), 번괴~뺨괴(번개), 쇠중이(장
 판지), 썰괴(담), 퇴(무리), 퇴성물(태성마), 회서(해서)

이 시기에 ‘니>계’의 변화가 이미 완료되었음은 (9)의 예를 통해 알 수 있으나 (10)의 존재는 제주 방언에서 단모음 ‘니’의 존재를 의심케 한다. (10ㄱ)은 ‘니’에 선행하는 자음이 순음 ‘ㄱ, ㄴ’이거나 후행하는 모음이 원순성을 가진 반모음 ‘w’로 시작될 때 나타나는데 인접하는 순음 혹은 원순모음의 [+순음성(labial)]에 이끌린 ‘계>니’ 변화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며 (10ㄴ)과 같이 순음이나 원순모음에 접하는 환경이 아님에도 ‘니’가 나타나고 있어 음운 현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평호(1964:17)와 정승철(2024:78)에서도 전설원순모음인 [ü]와 [ö]는 이중모음 [wi]와 [we]에 합류한 8~9모음 체계로 보고 있으며, (10)의 어휘는 다른 자료집에서 모두 ‘계’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이 자료집에 나타나는 ‘니’는 전설중모음인 ‘계’에 대한 오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8)은 (7)과 동일한 환경에서 움라우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8ㄱ)은 게재 자음이 [+설정성] 자질을 가진 ‘ㄴ, ㄷ, ㅅ, ㅈ’ 등일 때 움라우트의 제약이 발생함을 보여주고 (8ㄴ)은 움라우트가 ‘-니>ㅣ’의 단모음화를 겪기 전에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나비’의 이전형은 ‘나뵈’로 하향이중모음 ‘-니’로 존재했기 때문에 움라우트 환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니>ㅣ’의 단모음화가 이루어진 후에 움라우트가 적용되었다면 ‘내뵈’와 같은 어형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를 통해 움라우트 현상은 ‘-니>ㅣ’의 단모음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생산성을 잃은 통시적인 음운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3.1.3. 전설모음화

전설모음화는 치찰음 ‘ㅅ, ㅆ, ㅈ’ 뒤의 후설모음 ‘-ㅣ’가 전설모음 ‘ㅣ’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치찰음은 조음 위치보다는 조음 방법에 중점을 둔 용어로 일반적으로 음운 현상이 조음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전설모음화의 환경이 치찰음이라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김현(2009:378)에서는 전설모음화 역시 ‘ㅅ, ㅆ, ㅈ’의 전설성, 즉 조음 위치에 이끌린 것으로 것으로 보고 있다.

- (11) ㄱ. 지실(감자), 베실(벼슬)
 ㄱ. 집지슬(처마밑)
 ㄴ. 기시렁득새(굴뚝새)¹³⁾, ㄱ울~ㄱ실(가을), ㅁ울~ㅁ술~ㅁ실(마을), 부시럼(부스름), 여
 히~여시(여우), 온ㄱ습~온가심(웃감), 저실(겨울)
 ㄷ. 오징애(오징어)

(11)은 형태소 내부에서 ‘-ㅣ’의 전설모음화를 겪은 예이다. (11ㄱ)은 ‘ㅅ’ 아래에서 전설모음화를 겪은 것으로 『朝鮮語方言の研究』에서는 ‘ㅣ’ 단일형만을 보이지만 현평호(1962)에서는 ‘-ㅣ~ㅣ’의 교체를 보이는 어휘이다. (11ㄱ)은 ‘ㅅ’ 아래임에도 전설모음

13) 중앙어의 ‘굴뚝새’에 대응하는 제주 방언은 ‘기시렁득새~고망득새’로 나타난다. ‘기시렁득새’는 ‘그슬*--+영#득새’의 합성어로 분석된다.

화를 겪지 않은 예인데, ‘집+지슬’의 합성어 구성인 ‘기슬’이 구개음화를 겪은 형태이다. 그런데 석주명(1947)에서는 ‘집지슬~집지실’의 교체가 나타나고 있어 전설모음화는 이 시기에 생산적인 음운 현상으로 추정된다. (11ㄴ)은 ‘ㄹ슬’, ‘ㄹ슬’ 등과 같이 중세어에서 ‘△’을 가지고 있던 어휘가 ‘△>ㅅ’의 변화를 겪은 후 전설모음화를 겪은 예이다. ‘△’은 제주 방언에서 ‘∅, ㅅ, ㅈ’ 등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ㅅ’형 ‘ㄹ슬’, ‘ㄹ슬’은 전설모음화를 겪고, ‘△>∅’형 ‘ㄹ슬’, ‘ㄹ슬’에서는 전설모음화를 겪지 않은 ‘ㄹ울’과 ‘ㄹ울’¹⁴⁾로 나타난다. (11ㄷ)은 ‘ㅈ’ 아래에서 발생한 전설모음화로 현평효(1962)에서는 ‘질겁다(즐겁다)’, ‘징명(증명)’과 같이 강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 정승철(2024:112)에서는 제주 방언의 전설모음화가 형태소 내부뿐만 아니라 ‘우시난(웃+-으난)’, ‘쫘치난(쫘+-으난)’과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도 활발하게 발생하는 생산적인 음운 현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 (12) ㄱ. 땀(땀치), 땀(땀), 베풀(벼룩), 베풀(벼슬), 베풀(벼장), 땀(땀), 땀로~땀로(땀로), 땀~땀~땀(땀[病]), 땀(땀), 땀(땀), 땀(땀[病])
 ㄱ. 가뻐다~개뻐다(가뻐다)
 ㄴ. 세(혀), 제~제뻐(젓가락)
 ㄷ. 표~뻐~뻐(표)
 ㄸ. 표뻐(표뻐), 보뻐(뻐족)

- (13) ㄱ. 땀(땀)~땀(땀)
 ㄴ. -(으)뻐~뻐(-(으)뻐), -(으)뻐(-(으)뻐)

(12~13)은 이중모음 ‘ㄱ’이 전설모음 ‘ㄱ’로 단모음화된 예이다. ‘ㄱ>ㄱ’의 변화는 ‘ㄱ’의 단모음화 이전에 발생한 반모음 ‘y’의 영향으로 인한 하향성 반모음이 첨가 후 ‘yæy>yey’의 전설모음화, 그리고 음절말 반모음 탈락의 단계를 겪은 것으로 본다. ‘ㄱ’의 단모음화 이후에는 곧바로 ‘ㄱ’이 반모음의 전설성에 의해 ‘ㄱ’로 변화를 겪은 후 역시 반모음이 탈락한 ‘ㄱ’로 변한 것으로 본다(김성규, 2003:178).¹⁵⁾

(12)는 ‘ㄱ>ㄱ’의 전설모음화를 겪은 예이다. (12ㄱ)은 ‘ㄱ, ㅂ’과 같은 순음 아래에서 ‘ㄱ>ㄱ’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 ‘ㄱ>ㄱ’의 변화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땀~땀~땀[病]’은 전설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땀’과 개신형인 ‘땀’이 모두 나타날 뿐만 아니라 ‘ㄱ>ㅣ’의 고모음화가 이루어진 ‘땀’까지 보이고 있다. (13ㄱ)의 ‘땀(땀)’ 역시 중앙어에서는 ‘땀(땀)’에 대응하는 제주 방언으로 ‘땀>땀>땀’의 전설모음화와 고모음화가 이루어진 어형이다. (12ㄱ)는 순음 아래의 ‘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반모음에 의한 움라우트가 일어나 반모음이 오랜 기간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석주명(1947)의 조사까지만 하더라도 ‘가뻐다~개뻐다’형은 유지되었으나 현평효(1962)에서는 ‘가뻐다~개뻐다’로 ‘ㄱ>ㄱ’의 변화를 겪은 어형만이 나타난다는 점이

14) 『朝鮮語方言の研究』를 현평효(1962)와 비교하면 일부 어휘에서 ‘우남:으남(안개)’, ‘ㄹ울:가을’, ‘ㄹ슬:마슬(마을)’과 같이 ‘ㄹ’과 ‘ㅡ’의 대응이 확인된다. 이 변화를 제주 방언에서 발생한 ‘ㄹ>ㅡ’의 변화로 설명하기보다는 조사자 小倉進平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가 아닌가 싶다. 일본인의 모음 오류를 분석한 조운주(2018:69)에서는 ‘ㄹ’을 ‘ㅡ’로 발음하는 오류가 가장 높았으며 하호빈·이화진(2016:15)에서는 일본어의 모음체계가 국어와 달리 원순성의 대립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ㅡ’와 ‘ㄹ’의 원순성 대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오기로 보인다.

15) 소강춘(1989:61)에서는 반모음 ‘y’가 조음상 비인여적인 것으로 기능하여 [palatal] 자질을 후행하는 모음에 전이시켜 ‘yæ>e’로의 축약을 일으킨 것으로 보았다. 이외에 ‘ㄱ>ㄱ’의 변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김현(2010)을 참고할 수 있다.

독특하다. (12ㄴ)은 설정성 자음 아래에서 ‘ㄷ>ㄱ’의 변화가 일어난 예이다. 국어에서 이중 모음은 구개음화된 ‘ㅅ’ 과 ‘ㅈ’ 등 아래에서 나타나지 못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정승철, 1995:65-66), 제주 방언에서도 이러한 환경에서의 이중모음은 ‘조곰(<조곰)’, ‘뿔서(<뿔서)’와 같이 반모음의 탈락을 겪는다. 그런데 (12ㄴ)은 ‘세’와 ‘제’는 반모음 탈락이 아닌 전설모음화를 겪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는 ‘혀’가 구개음화된 것으로 ‘혀>서>세’의 변화를 겪은 독특한 예이다. 현평효(1962)의 ‘성(형)’, ‘혈기(설기)’와 같이 ‘ㅎ>ㅅ’ 구개음화를 겪은 ‘ㅅ’ 아래의 ‘ㄷ’는 모두 ‘ㄱ’로 탈락을 겪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¹⁶⁾ (12ㄷ)은 순음 아래 ‘ㄱ’의 변화로 (13ㄴ)은 어미에서 순음 아래 ‘ㄷ’의 변화이다. ‘-(으)민’은 ‘빙애기’와 같이 고모음화까지 이루어진 반면, ‘-(으)명’은 ‘ㄷ>ㄱ’ 변화를 겪지 않고 반모음 탈락만이 발생하였다.

3.2. 자음 관련 음운 현상

3.2.1. △의 변화(1)

‘△’은 중세어에 존재했던 자음으로 16세기에 접어들면서 ‘△>∅’ 혹은 ‘△>ㅅ’의 변화를 겪으며 소실된 음운이다. 이기문(1959:38-48)에서는 ‘△’이 ‘ㅣ’ 또는 ‘y’ 앞에서부터 소멸되기 시작했다고 보았는데 중앙어에서는 대체로 ‘△>∅’의 변화를 겪지만 남부 방언에서는 대체로 ‘△>ㅅ’의 변화를 겪었다. 제주 방언 역시 전자보다는 후자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 (14) ㄱ. ㄱ새(<궤애), ㄱ(궤), 난시~난생이(<나시), 아시(<아스), 겨실(<저슐), 여사본다~염본다(<여사본다), -사(<-사)
- ㄴ. ㄴ울~ㄴ실(<ㄴ슐), 온ㄴ음~온ㄴ슴(<온ㄴ슴), 지애~지새(<디새*), ㄴ울~ㄴ술~ㄴ실(<ㄴ슐)
- ㄷ. 여히~여시(<여시)
- ㄹ. ㄹ우리(<궤위)
- ㄷ. 혼자(<ㅎ분사)

(16)은 ‘△’이 제주 방언에서 겪은 변화를 보인 예로 ‘∅, ㅅ, ㅈ’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16ㄱ)은 ‘△>ㅅ’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난시(냉이)’를 제외하면 모두 모음 사이의 ‘△’이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¹⁷⁾ 중앙어어에서 ‘가위, 가[邊], 아우, 겨울, -어야’와 같이 ‘△>∅’의 변화를 겪은 것과 달리 제주 방언에서는 ‘△>ㅅ’의 변화로 ‘가새, 갓, 아시, 겨실, -사’ 등이 나타나는데 ‘아시, 겨실’은 ‘△>ㅅ’의 변화 이후 치찰음 ‘ㅅ’ 아래에서 전설모음화를 겪어 ‘-ㅣ’로 나타난 것이다. (19ㄴ)은 ‘△’이 ‘∅~ㅅ’의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는 예로, 이를 통해 이전 시기에 제주 방언에도 ‘△’이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최명옥, 1982:91). (19ㄷ)은 ‘지렁이’의 중세어인 ‘궤위’에서 ‘△>∅’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석주명(1947)과 한중연(1995)에서는 ‘계우리’로 나타난다. (16ㄷ)은 ‘△>ㅈ’의 변화를 보인 예인데 이는 중앙어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기문(1985:39)에서는 ‘몹소>몹소’, ‘손소>손조’ 등의 예를 통해 ‘m-V’, ‘n-V’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현평효(1962)에서는 ‘냉이’의 방언형으로 ‘난지~난생이~나시’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

16) 정승철(1995:67)에서는 ‘혀>세’의 변화를 접미사 ‘-이’의 첨가로 파악하였다.

17) 이기문(1985:30)에서는 15세기 ‘△’의 출현 환경을 ‘V-V’, ‘y-V’, ‘r-V’, ‘n-V’, ‘m-V’ 등의 유성음 사이로 보았다.

승철(1995)에서도 ‘거좁~건좁(<거쇠), 생진날~생일(<싱실)’의 예를 보이며 ‘△>ㅈ’의 환경을 ‘n-V’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3.2.2.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ㄷ, ㄱ, ㅎ’ 등이 후행하는 모음 ‘ㅣ’ 혹은 ‘y’의 영향을 받아 경구개음 ‘ㅈ, ㅉ(18)’ 등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¹⁹⁾ ‘ㄷ’ 구개음화는 전국적으로 활발한 변화를 일으킨 반면, ‘ㄱ’ 구개음화와 ‘ㅎ’ 구개음화는 남부 방언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어 제주 방언에서 역시 세 변화를 모두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5) ㄱ. 지렁이(지렁이), 짐치~짐끼~김치(김치)
 ㄴ. 불한디~불한지(반딧불이)

(17)은 제주 방언에서 ‘ㄷ’ 구개음화를 겪은 어휘의 예를 보인 것이다. 『朝鮮語方言の研究』에는 ‘ㄷ+ㅣ’ 혹은 ‘ㄷ+y’ 환경에 놓인 어휘 많지 않아 ‘김치(<딤치)’, ‘지렁이(<디렁이)’만이 나타나고 있으나 제주 방언의 다양한 어휘를 보이는 현평효(1962)에서는 ‘ㄷ’ 구개음화는 ‘절(<덜)’, ‘천지(<턴지)’와 같이 모든 환경에서 나타난다. (17ㄴ)은 비어두 음절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난 예로 ‘디>지’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구개음화의 환경은 ‘ㄷ’ 뒤의 ‘ㅣ’ 혹은 ‘y’가 접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디>지’의 변화는 독특한 변화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견디다(<전디다)’, ‘버티다(<버티다)’ 등의 환경에서 구개음화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구개음화가 적용되던 시기가 ‘-ㅣ>ㅣ’의 단모음화보다 이른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 (16) ㄱ. 지동(기동), 지러기~지러지(길이), 지름(기름), 지애~지새(기와), 지푸다(길다), 진뽀한다(기빠하다), 질(길), 질다(길다), 질른다(기르다)
 ㄱ. 기시렁독새(굴뚝새)
 ㄴ. 저실(겨울), 전된다(참다)²⁰⁾, 절(결), 제우(겨우), 지지빠이(여아),
 ㄴ. 경영[經營]
 ㄷ. 도:지(도끼)

(18)은 ‘ㄱ’ 구개음화의 예로 중앙어와 달리 제주 방언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ㄱ)은 연구개음 ‘ㄱ’이 후행하는 모음 ‘ㅣ’의 영향으로 연구개음 ‘ㅈ’으로 변화를 입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ㄱ’ 구개음화는 어두에서만 작용하는 것으로 믿어지는데(곽충구, 2001:239), 제주 방언에서도 대체로 어두의 ‘ㄱ’은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8ㄱ)의 ‘기시렁독새’와 같이 어두의 ‘기’가 남아 있는 어휘가 보인다.²¹⁾ 특히, ‘기막히다(氣막히다)’, ‘기생(姦生)’, ‘기여이(期於이)’와 같이 한자

18) 현대 국어에서 ‘ㅈ’은 구개음이 아니지만 근대 국어 시기에 ‘ㅈ, ㅊ, ㅉ’과 함께 구개음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치조음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추정된다(이진호, 2017:73),

19) 구개음화의 피동화주에는 ‘ㄱ, ㄷ, ㅎ’ 이외에 ‘ㄴ, ㄹ’도 올 수 있다. 즉, ‘니, 리’ 등에서 ‘ㄴ, ㄹ, ㅅ’ 등의 치조음이 경구개음 [ɲ], [ʃ], [ʃ]으로 변할 때에도 구개음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어에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하므로 변이음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외에도 근대 국어 시기에 본래 치음이던 ‘ㅈ, ㅊ’이 경구개음으로 조음 위치가 바뀐 것을 구개음화라 말하기도 한다.

20) 현평효(1962)에서는 중앙어 ‘참다, 견디다’에 대응하는 제주 방언을 ‘준디다~전디다’로 보고 있어 ‘-ㅣ>ㅣ’의 변화가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기문(1977)에서는 ‘준디다’의 이전형을 ‘군디다’로 재구한 바 있다.

어의 경우에는 ‘ㄱ’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고유어와 한자어 모두에서 구개음화를 겪은 ‘ㄷ’과는 차이를 보였다. (18ㄴ)은 반모음 ‘y’ 앞에서 ‘ㄱ’ 구개음화를 겪은 어휘로 이때에도 한자어가 올 때는 구개음화를 겪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즉, ‘ㄷ’ 구개음화와 달리 ‘ㄱ’ 구개음화는 어두에서만 실현된다는 제약²²⁾이 있으며 고유어에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18ㄷ)은 비어두 음절에서 ‘ㄱ’ 구개음화를 겪은 예로 중앙어 ‘도끼’의 고�형은 ‘dotki’이다. 앞서 (17ㄴ)에서 ‘불한디>불한지’와 동일하게 ‘니’ 앞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인데 흔하지는 않지만 ‘니>ㅣ’의 변화 이후에도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 (17) ㄱ. 심~힘(힘)
- ㄴ. 세(혀)
- ㄷ. 황고지(무지개)

(19)는 ‘ㅎ>ㅅ’ 구개음화의 예를 보인 것으로 (19ㄱ)은 ‘ㅣ’ 앞의 변화, (19ㄴ)은 반모음 ‘y’ 앞의 변화이다. 현평호(1962)에는 이 외에도 ‘상(향)’, ‘성(형)’, ‘소심~효심(효심)’, ‘숭(홍내)’ 등의 ‘ㅎ’ 구개음화를 겪은 어형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반모음 ‘y’ 앞에서 ‘ㅎ>ㅅ’의 변화를 입은 뒤 구개음 ‘ㅅ’ 아래의 이중모음 제약으로 인해 반모음 탈락을 겪은 것이다. ‘ㄱ’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ㅎ’ 구개음화 역시 대체로 어두에서 적용되었으며 수의적인 교체형을 보였다. 다만, ‘ㄱ’ 구개음화와 달리 ‘ㅎ’ 구개음화는 한자음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9ㄷ)은 중앙어 ‘무지개’ 대응하는 제주 방언으로 석주명(1947)과 현평호(1962) 등에서는 ‘항고지~상고지’ 등으로 수의적인 교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어휘 역시 ‘ㅎ>ㅅ’의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 (18) ㄱ. 뚝지(어깨)
- ㄴ. 짐치~짐끼~김치(김치)

(20)은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과도교정으로 언중이 변화를 거부하고 그 이전형으로 소급하여 발화하려는 노력에서 생기는 오류이다. 즉, ‘ㄷ>ㅈ’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자 이전형인 ‘ㄷ’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본래부터 ‘ㅈ’이던 어형까지 ‘ㅈ>ㄷ’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20ㄱ)은 ‘어깨’에 대응하는 ‘뚝지’가 반모음 ‘y’ 앞에서 구개음화를 겪어 ‘뚝지>죽지>죽지’로 변화하였던 것을 이전형으로 소급하고 ‘뚝지>뚝지’로 어두경음화가 발생한 것이다. (20ㄴ)은 대표적인 과도교정의 예로 ‘뚝치’에서 변화한 ‘짐치’를 잘못 소급하여 ‘김치’로 되돌린 것이다. 즉, ‘ㄷ>ㅈ’의 구개음화를 ‘ㄱ>ㅈ’의 구개음화로 잘못 적용하여 과도교정한 것이다. 어두에서의 과도교정뿐만 아니라 비어두의 ‘치~끼’의 교체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ㄱ’ 구개음화에 대한 교정으로 보인다.

21) 앞서 ‘기시렁득새’를 ‘그슬-+-영#득새’로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어형은 본래 ‘기’를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스렁득새>그스렁득새>그시렁득새>기시렁득새’의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제1음절의 ‘ㅡ’가 제2음절의 ‘ㅣ’에 동화되어 ‘그>기’의 변화를 겪은 시기가 ‘ㄱ’ 구개음화의 적용 시기보다 늦다면 중앙어의 ‘견디다(<견되다)’와 같이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2) 김주필(1985)에서는 ‘ㄷ’ 구개음화의 변화가 비어두 음절 위치에서 먼저 발생한 뒤 어두 위치로 확대한 것으로 보았다. 비어두 위치에서 음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언어학적으로 일반적이지만, 유사한 음운 현상인 ‘ㄱ’ 구개음화의 경우 어두 음절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독특한 일이다.

4. 맺음말

본고는 20세기 초 제주 방언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1944년 발간된 小倉進平의 『朝鮮語方言の研究』를 중심으로 550여 개의 어휘를 검토하여 음운론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다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 방언에서 모음과 관련된 특징적인 현상으로 다른 지역어에서는 사라진 ‘·’가 제주 방언에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비어두 위치에서의 ‘·’는 대체로 ‘·>ㅡ’의 변화를 겪었으며 어두의 ‘·’만 유지되고 있었다. 현대 제주 방언에서 어두의 ‘·’는 ‘·>ㅏ’와 ‘·>ㅑ’의 변화를 겪어 80대 이상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확인할 수 없는데 20세기 초에는 ‘·’가 대체로 유지되었으나 일부 어휘에서 이미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음라우트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ㅏ, ㅑ ㅓ’ 등에서 발생하였는데 선행 모음이 ‘ㅓ’인 경우에는 ‘ㅓ’가 아닌 이중모음 ‘내’ 혹은 ‘네’로 나타나 이 시기에 ‘ㅓ, ㅑ’는 이중모음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설모음화는 ‘ㅓ, ㅑ, ㅓ’ 등의 치찰음 아래에서 발생한 ‘ㅡ>ㅣ’와 이중모음 ‘ㅓ’의 단모음화 두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치찰음 아래의 전설모음화는 제주 방언에서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는 음운 현상으로 20세기 중반까지도 진행 중이었던 음운 현상으로 보인다.

제주 방언의 자음과 관련된 특징적인 현상은 ‘ㅓ’이 대체로 ‘ㅓ’에 합류하였다는 사실이 있다. 일부 어휘에서는 ‘ㅓ’이 ‘ㅇ~ㅓ’의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는데, 모음 ‘ㅡ’와 결합할 경우 ‘ㅓ’형은 대체로 전설모음화까지 이루어진 어형으로 나타났다. 구개음화는 여타 남부 방언과 마찬가지로 제주 방언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ㄱ’ 구개음화의 영향이 컸다. 다만 ‘ㄱ’ 구개음화는 어두에서 발생한다는 제약으로 비어두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런 제약은 ‘ㅎ’ 구개음화도 동일하다.

〈참고문헌〉

- 이진호(2008), 「小倉進平의 국어 음운론 연구」, 『우리말연구』 23, 우리말학회, 87-111.
정승철(2010), 「小倉進平의 국어 음운론 연구」, 『방언학』 11, 한국방언학회, 155-184.
정승혜(2016), 「일제강점기 小倉進平의 朝鮮 典籍 수집」, 『대동한문학』 49, 대동한문학회, 107-143.
배영환(2009), 「廣州 地域語의 음운론적 연구」, 『개신어문연구』 29, 개신어문학회, 28-60.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국아학총서 19, 대학사.
강희숙(2005), 「고모음화의 실현과 방언 분화-전남방언과 서울말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33, 1-32.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국어학회.
권미소(2021), 「제주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소강춘(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정승철(2024), 『제주방언연구』, 태학사.
이진호·飯田綾織(2009), 『小倉進平과 國語音韻論』, 제이앤씨.
곽충구(2001), 「구개음화 규칙의 발생과 그 확산」,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237-268.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岩波書店; 이상규·이순열(2009), 『조선어방언사전』, 한국문화사.
현평효(1962), 『제주도 방언 연구(자료편)』, 정연사.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방언자료집(제주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기문(1977), 「제주도 방언의 ‘ㅇ’에 관련된 몇 문제」, 『이승녕선생고회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183-195.

▣ 토 론

“20세기 초 제주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 『朝鮮語方言の研究(1944)』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최영미(경동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小倉進平의 『朝鮮語方言の研究』에 실린 제주 방언 어휘를 분석하고 제주 방언의 음운 현상을 살펴서, 20세기 초 제주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朝鮮語方言の研究』의 서지 사항을 기술하고, 제주 방언의 어휘를 재분류 및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모음과 자음에 관련된 음운 변화 및 음운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토론자는 논문을 읽어가면서 생긴 의문을 말씀드리며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연구 내용에 관련하여

첫째, 음운 변화와 음운 현상을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이 어떨까요? 3.1에서는 ‘·’의 변화, 움라우트, 전설모음화를 기술하고, 3.2에서는 ‘△’의 변화, 구개음화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운 변화와 음운 현상은 결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기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 설명과 관련해서, 연구자는 “제주 방언에서 ‘·’는 제1단계의 비어두 위치 ‘·>’ 변화는 겪었으나 제2단계 어두 위치의 ‘·>ㅏ’ 변화는 이 시기에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술하고, (5)에서는 어두에서 ‘·’의 변화한 예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세기 초 ‘·’의 음가와 모음체계 상에서 ‘·’ 위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 음가와 모음체계 안에서 변화 정도는 어떠한지가 궁금합니다.

셋째, 둘째와 관련해서 20세기 초 제주 방언의 음운 변화를 다루는 만큼 음운체계(자음체계/모음체계/이중모음체계)에 대한 기술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2) P8. ‘ㄷ>기’ 변화 시기 및 과정에 관하여

연구자는 “(12~13)은 이중모음 ‘ㄷ’가 전설모음 ‘기’로 단모음화 된 예이다. ‘ㄷ>기’의 변화는 ‘기’의 단모음화 이전에 발생한 반모음 ‘y’의 영향으로 인한 하향성 반모음이 첨가 후 ‘yæy>yey’의 전설모음화, 그리고 음절말 반모음 탈락의 단계를 겪은 것으로 본

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어에서 최윤현(1998:14-25)에서는 18세기 후반의 자료인 ‘예수(십구사략 1:8)/예수(십구사략 1:7), 계자(십구사략1:7)/계자(십구사략1:70)’ 등 예의 존재를 통해 18세기 말엽에 ‘꺀’와 ‘꺈’가 단모음화 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12~13)에서 ‘yæy>yey’의 전설모음화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가 없는데, 20세기 초 나아가서 현대 제주 방언에서 전설모음화 과도교정을 보여주는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꺀>꺈’의 변화과정에 대한 많은 다른 설명(도치 및 축약, 단모음화, i 또는 j 첨가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김성규(2003)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기타 : 발표문에서 나타난 오타

- P9 △의 변화(1) > △의 변화
- 예시 번호 (16) > (14)
- 예시 번호 (17) > (15)
- 예시 번호 (18) > (16)
- 예시 번호 (19) > (17)
- 예시 번호 (20) > (18)

좋은 논문을 읽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 분과

한국어교육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 기사 분석

- 토픽 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1)

고경민(건국대), 남재우(건국대)

< 차례 >

1. 머리말
2. 연구 설계
3.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
4. 맺음말

1. 머리말

현대 사회는 급격한 글로벌화와 이주 현상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08년 이후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다문화 가족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가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은 노동력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문화적으로는 다채로운 전통과 가치관이 서로 교차하며 한국 사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또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의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복잡성,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는 단지 이론적 관심을 넘어서, 정책적 접근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현상에 대한 논의는 특히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다문화 가족,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적 그룹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문화 정책은 이제 단순한 정책적 요구를 넘어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한국 사회가 향후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신문 기사를 분석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트렌드를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다문화와 관련된 주요

1) 이 발표는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 신문 기사 분석' 주제에 대한 두 번째 발표로 기발표에서는 TF-IDF 및 파이계수, 감정분석 등의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였고, 이번 발표에서는 SNA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함.

키워드와 주제를 도출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텍스트 마이닝은 대량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특히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과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신문 기사는 사회적 담론과 여론을 반영하는 중요한 매체로, 다문화 관련 인식과 정책의 변화 양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현상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경향성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선택한 이유는 다문화라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사회적 현상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텍스트 마이닝은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다문화 현상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키워드의 변화와 관계성을 분석할 수 있어, 다문화 정책과 인식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므로, 향후 다문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룰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신문 기사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 데이터는 다문화 관련 주요 키워드와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둘째, 수집된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하고, 형태소 분석을 통해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다. 셋째,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통해 키워드 간의 관계와 중심성을 평가하고, 넷째, 토픽 모델링(LDA)을 활용하여 주요 담론과 토픽을 도출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다문화 트렌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트렌드의 발전과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 발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 관련 주요 키워드와 그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 담론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다문화 관련 정책과 인식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문화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다문화 정책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한국 사회의 통합 과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규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 통합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연구 설계

2.1. 데이터 구축

이 연구는 다문화 담론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내 주요 신문 기사를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 플랫폼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다문화'라는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기사

를 검색하였다. 빅카인즈는 한국의 언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신뢰성 높은 데이터 수집과 다양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검색 대상은 국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전국지 6개(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국민일보)로 제한하였다. 이는 연구의 초점이 신문을 통한 다문화 담론의 변화와 사회적 인식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수집 결과, 총 2,849개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연구 목적과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중복된 기사, 제목만으로 작성된 미완성 기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성 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연구 결과에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검토를 통해 제거되었다. 또한, 기사 선정 과정에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사의 작성 맥락과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분석 대상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2,650개의 기사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다문화와 관련된 실제 사회적 담론과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 규모로 판단되었다.

2.2.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필수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정리, 어휘 추출, 그리고 구조화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사 내에 포함된 광고 문구, 불필요한 HTML 태그, 특수문자, 숫자 등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행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문장에서 의미 있는 최소 단위의 어휘를 추출하고, 각 어휘의 품사를 태깅하였다. 이를 위해 Konlpy와 같은 자연어 처리 도구를 활용하였다. 형태소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에 적합한 명사와 동사 중심의 어휘를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주요 키워드 집합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어휘를 토큰화(tokenization)하여 데이터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각 기사의 텍스트를 키워드의 빈도와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였다. 이를 통해 단어별 사용 빈도, 문맥 내 연결성, 그리고 상호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완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전처리된 데이터는 중복 단어를 포함하여 총 386,373개의 어휘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연구의 주요 텍스트 마이닝 과정에서 활용되었다.

2.3. 데이터 분석

한국의 전반적인 다문화 담론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의 다양한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먼저, SNA(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단어의 연결 구조를 살펴보고, 네트워크 상에서 중심성이 높은 주요 단어를 확인하였다. SNA는 단어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고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어, 다문화 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과 그들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어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다문화 담론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들을 추출하고 각 주제별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였다. 토픽 모

텔링은 문서 집합의 추상적인 "주제"를 발견하기 위한 통계적 모델로, 텍스트 본문의 숨겨진 의미구조를 발견하는 데 사용된다. 이 방법을 통해 다문화 담론의 주요 주제와 그 변화 양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시기별로 중심 연구 토픽을 추적하고 그 변화의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방법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다문화 담론 구조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데 기여한다. SNA를 통해 전체적인 단어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고, 토픽 모델링으로 주요 주제들을 추출하여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담론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정책 수립이나 연구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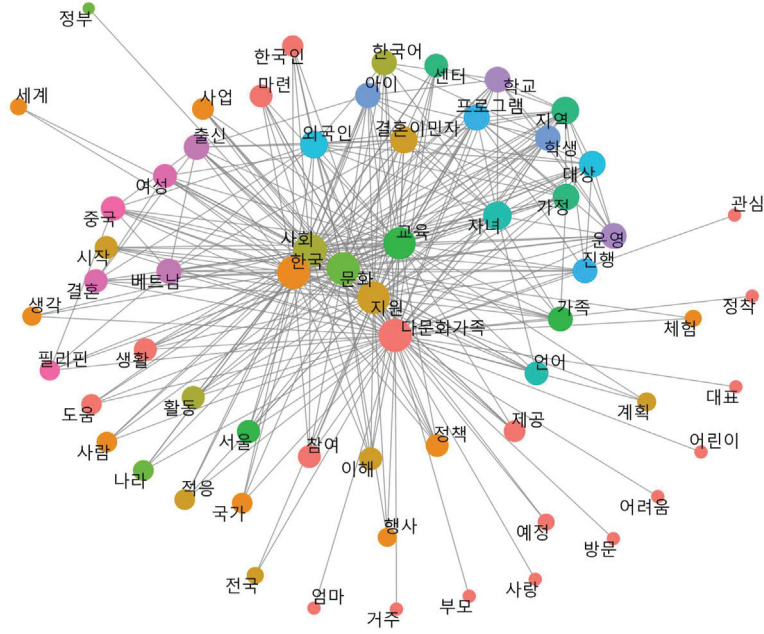
3.1. SNA 분석

3.1.1 SNA 분석방법 및 과정

SNA는 각 키워드의 상호 관계와 네트워크 내 위치를 평가하여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의 중심과 주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신문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다문화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SNA를 수행하였다.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문기사에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불용어 제거 및 토큰화를 통해 단어 빈도를 계산하였다. 이후, 단어 간 동시출현 관계를 파악하여 단어쌍 데이터를 생성하였고, 동시출현 빈도가 250회 이상인 단어쌍만을 필터링하여 노이즈를 줄이고 의미 있는 단어 간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필터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방향 그래프를 생성하고 중심성 지표(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연결중심성)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는 ggraph 패키지를 활용해 시각화하였으며, 그 결과인 <그림 1>은 주요 키워드와 그룹 간 관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다문화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2008~2024)

<표 1>은 SNA 분석에서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기준으로 상위 15개 노드를 추출한 결과이다. 매개중심성은 각 노드가 다른 노드들 간의 경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네트워크 내에서의 연결성과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중심성이 높으면 다른 중심성도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을 선별하여 제시하고자 했다.

<표 1>SNA 분석결과(상위 15개 키워드)

no	name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연결중심성	그룹
1	다문화가족	819.8532	0.0159	1.0000	118	1
2	사회	195.2365	0.0128	0.9368	88	4
3	문화	178.7699	0.0128	0.9339	88	5
4	한국	159.2199	0.0127	0.9243	86	2
5	지원	152.4199	0.0125	0.9102	84	3
6	교육	73.9342	0.0116	0.8571	72	6
7	외국인	6.4294	0.0095	0.5416	34	9
8	자녀	6.3941	0.0097	0.5972	38	8
9	지역	3.2195	0.0094	0.5354	32	7
10	결혼이민자	2.8032	0.0093	0.5114	30	3
11	베트남	1.5611	0.0090	0.4002	22	13
12	출신	1.3214	0.0091	0.4272	24	13
13	중국	1.2000	0.0089	0.3746	20	15
14	가정	1.1306	0.0092	0.4726	26	7
15	대상	0.8944	0.0092	0.4737	26	9

3.1.2. 분석결과

1) 네트워크 구조의 전반적 분석

〈그림 1〉의 네트워크 그래프를 살펴보면, 노드(node)의 크기와 연결선(edge)의 분포를 통해 키워드 간의 관계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화된 네트워크에서 '다문화가족'은 가장 큰 노드로 표현되어 있으며,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여 다른 모든 키워드들과 높은 연결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표 1〉의 결과에서 중심성 지표들에서 '다문화가족'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으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사회', '문화', '한국', '지원' 등의 주요 키워드들이 비교적 큰 노드로 표현되었으며, 이들 노드 간 강한 연결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시각화 결과는 다문화가족 담론에서 이들 키워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색상으로 구분된 군집 분포를 살펴보면, 네트워크가 크게 15개의 하위 군집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 군집(녹색)이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며, '한국', '사회', '문화' 등을 중심으로 한 군집들도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족 관련 담론이 여러 하위 주제 영역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네트워크의 주변부에는 '정부', '세계', '관심', '거주'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노드들이 위치해 있었다. 이들 키워드는 중심 키워드들과의 연결성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다문화가족 담론의 외연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연결선의 밀도 분석 결과, 중심부에 위치한 노드들 간에는 매우 조밀한 연결 관계가 형성된 반면, 주변부로 갈수록 연결선의 밀도가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족 담론의 중심 주제들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주변적 주제들은 특정 중심 키워드들과 제한적인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 핵심 키워드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다문화가족'이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중요한 노드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키워드는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값이 819,8532로 가장 높았고, 고유벡터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값이 1.0을 나타내고 있어, '다문화가족'이 다문화 관련 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값이 118로 매우 높아, '다문화가족' 키워드는 다양한 다문화 관련 키워드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은 '지원', '교육', '한국', '자녀', '지역', '결혼 이민자', '가정' 등 주요 키워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각 키워드는 정책적 지원, 교육 시스템, 국가적 맥락, 자녀 복지, 지역 사회 통합,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적응, 가족 단위 지원 등 다양한 주제 분야를 암시하고 있다.

3) 중심성 지표가 높은 키워드

'지원', '한국' 등의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매개중심성(152,4199)과 고유벡터중심성(0.9102)을 보였다. 연결중심성이 84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다른 키워드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과 '한국' 키워드는 다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키워드로, 다문화 사회에서의 구조적 지원과 한국 사회의 역할을 다루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두 키워드가 다문화 사회의 핵심 요소로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3) 상대적으로 낮은 중심성 지표를 가진 키워드

'자녀', '가정', '지역' 등은 중심성이 높은 15개 키워드 중 비교적 낮은 중심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분석결과에서 중심성이 높은 15개의 키워드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녀'는 연결중심성이 38로 상대적으로 적은 연결을 보였고, 매개중심성도 낮았다. 이는 다문화가족 내 자녀의 교육, 생활, 문화적 적응과 관련된 논의가 다소 부족함을 반영할 수 있다.

'가정'과 '지역'은 다문화 관련 논의에서 중요하지만,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서 주로 언급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문화 사회에서 가정과 지역은 중요한 사회적 맥락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제로 다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 사회의 복잡한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중심성 지표가 낮은 키워드

'가족', '결혼이민자', '대상' 등의 키워드는 중심성이 높은 15개 키워드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중심성을 보였지만, 이들이 다문화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변함없다. 이들 키워드는 연결중심성이 18로 작은 값을 나타내고, 매개중심성이 낮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연결수나 매개중심성 지표가 낮을 뿐, 다문화 논의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키워드들이다. '결혼이민자'와 '가족'은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양한 논의에서 간헐적으로 등장하며, '대상' 또한 다문화 이슈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키워드는 특정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5) 주요 행위자 네트워크 분석

다문화 관련 신문기사에서 언급된 주요 행위자들을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단체, 그리고 실제 다문화 가정과 결혼이민자 여성 등이 중요한 행위자로 나타났다.

먼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을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는 다문화 정책의 기본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정책과 사업이 다문화 가족 및 이주민 지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실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가족 통합 교육, 이주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녀 언어 발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단체 역시 다문화 수용성 제고와 사회 통합 활동에 힘쓰고 있다. NGO 단체들은 문화 이해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차별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과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실제 당사자로서 중요한 행위자가 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요구 사항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시키며, 때로는 목소리를 내어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한다. 다문화 담론의 주체로서 그들의 활동과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1.3. 시사점

SNA 분석 결과는 '다문화가족'이 다문화 관련 논의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높은 매개중심성과 고유벡터중심성 값은 다문화 관련 트렌드와 정책의 중심에 놓인 핵심 이슈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이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자녀', '가정', '지역' 등의 키워드는 중심성이 높은 15개 키워드 중 비교적 낮은 중심성을 보였으나, 여전히 다문화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키워드는 연결중심성 및 매개중심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기록했으나, 다문화 사회에서 교육, 가정, 지역적 맥락이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다. '자녀'는 다문화가족 내 자녀의 교육, 생활, 문화적 적응과 관련된 핵심적인 주제이며, 향후 다문화 사회에서 교육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정'과 '지역'은 다문화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맥락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제한된 논의로 다루졌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 가족 단위의 지원 체계와 지역 사회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부족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자녀', '가정', '지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수적이다. 다문화 사회는 단순히 가족 단위의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각 사회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환경이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필요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문화 사회의 미래를 위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문화가족 중심 논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3.2. 토픽모델링 분석

3.2.1 분석방법 및 과정

이번 발표에서는 다문화 관련 주요 주제를 추출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 기법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델을 사용하였다. LDA는 각 문서가 여러 주제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 하에 동작하며, 각 주제는 특정 단어들의 확률적 분포로 정의된다. 문서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확률적 가중치를 가지며, LDA는 반복적인 샘플링 과정을 통해 주제의 분포와 단어의 분포를 추정한다. 이처럼 LDA는 각 문서에 가장 적합한 주제를 찾아내기 위한 토픽모델링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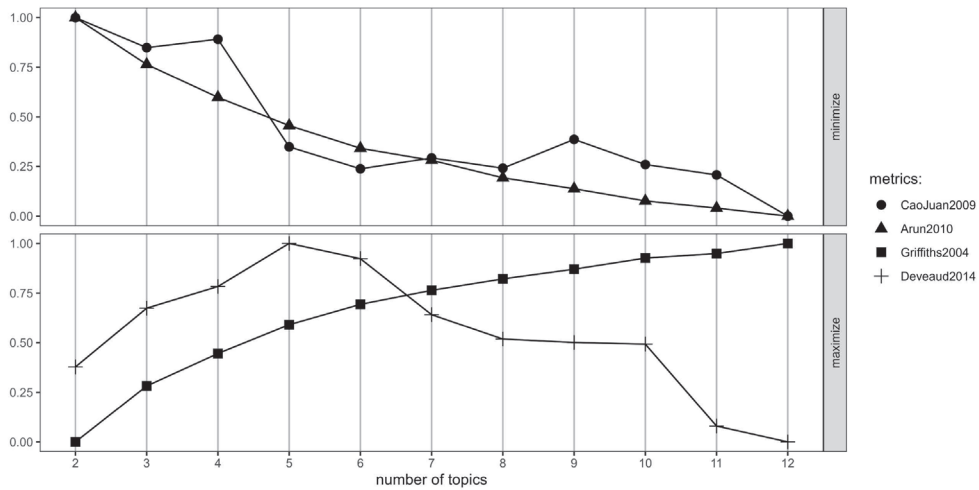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를 정제한 후 문서-단어 행렬(DTM, Document-Term Matrix)을 생성하였다. DTM은 각 문서에서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를 행렬로 나타내며, 행은 문서, 열은 단어를 의미한다. DTM은 문서와 단어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 구조로, 이를 통해 문서 내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파악할 수 있다.

이후 DTM을 기반으로 LDA 모델을 적용하여 각 문서의 주제 분포를 추정하고, 주요 토픽을 도출하였다. 이후,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최적 토픽 수를 결정하였고, DTM을 기반으로 LDA 모델을 적용하여 각 문서의 주제 분포를 추정하고, 주요 토픽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관련 논의에서 다루지는 주요 주제들을 시각화하고, 현재의 주요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3.2.2. 토픽 수 산출

최적의 토픽 수를 산출하기 위해 Griffiths (2004), Cao & Juan (2009), Arun et al. (2010), Deveaud et al. (2014)이 제안한 평가 지표를 활용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에서 최적 토픽 수를 결정하기 위해 4가지 지표가 활용된다. CaoJuan(2009)는 토픽 간 유사성을 측정하며, 값이 낮을수록 토픽들이 잘 구분됨을 의미한다. Arun(2010)은 토픽과 단어 분포 간의 차이를 측정하여 값이 낮을수록 의미있는 주제가 형성됨을 나타낸다. Griffiths(2004)는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며 값이 높을수록 좋은 결과를 의미한다. Deveaud(2014)는 토픽들 간의 의미적 차이를 측정하며, 값이 높을수록 토픽들이 서로 다른 주제를 잘 표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최종적으로는 연구자가 데이터의 특성과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하게 된다.

각 지표의 변화 추이를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그래프를 사용하여 토픽 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 6개의 토픽이 최적의 균형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Cao & Juan (2009) 지표는 6개의 토픽에서 주제 간 차별성이 가장 명확했으며, Griffiths (2004) 지표는 해당 구간에서 모델 적합도가 안정적인 값을 보였다. Arun et al. (2010) 지표는 6개의 토픽에서 모델 복잡성이 완화된 경향을 보였고, Deveaud et al. (2014) 지표는 5~6개의 토픽에서 주제 간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6개의 토픽이 데이터 내 주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면서도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과도하게 단순화되지 않는 적절한 구성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토픽 수는 데이터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 다문화 관련 텍스트 데이터의 핵심 주제를 명확히 도출하는 데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2> 토픽 수에 따른 지표별 적합도 변화

3.2.3. 분석결과

LDA 기법을 활용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6개의 주요 토픽은 ‘문화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아이와 가족’, ‘결혼이민자와 정책’, ‘이주민과 사회’, ‘다문화 교육’으로 구분되었다. 각 토픽은 다문화 관련 중요한 이슈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2> 주요 토픽

토픽	제목	설명	주요 단어
1	문화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활동, 행사, 체험 프로그램	문화, 다문화가족, 행사, 체험, 서울, 공연, 참여, 축제, 진행, 마련
2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지역 활동 및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 지역, 사업, 사회, 활동, 센터,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대상
3	아이와 가족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가족 내 역할, 사회적 관계	아이, 한국, 베트남, 출신, 사람, 엄마, 가족, 생각, 친구, 어머니
4	결혼이민자와 정책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관련 정책, 사회적 변화, 이민자 지원	외국인, 정책, 결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여성, 한국, 정부, 증가, 조사
5	이주민과 사회	이주민, 차별, 노동자 등의 사회적 이슈와 이주민의 사회적 역할	사회, 한국, 문화, 이주민, 교수, 이주, 차별, 이민자, 미국, 노동자
6	다문화 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및 언어 교육 중심의 다문화 교육	교육, 학생, 학교, 자녀, 다문화가족, 한국어, 운영, 교사, 언어, 수업

첫 번째 토픽인 ‘문화와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활동, 행사, 체험 프로그램

등을 다룬다. 주요 단어로는 '문화', '다문화가족', '행사', '체험', '서울', '공연', '축제', '진행', '참여' 등이 포함되며, 이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문화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된 문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으며, 이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결속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장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축제, 행사,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문화적으로 적응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토픽인 '다문화가족 지원'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지역 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주요 단어로는 '지원', '다문화가족', '지역', '사업', '사회', '활동', '센터',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등이 포함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중심이 되었다. 이 토픽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세 번째 토픽인 '아이와 가족'은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가족 내 역할 및 사회적 관계 등을 다룬다. 주요 단어로는 '아이', '한국', '베트남', '출신', '사람', '엄마', '가족', '친구', '어머니' 등이 포함되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교육적 어려움과 가족 내에서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적응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 환경과 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 교육, 사회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네 번째 토픽인 '결혼이민자와 정책'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관련 정책, 사회적 변화, 이민자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주요 단어로는 '외국인', '정책', '결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여성', '한국', '정부', '증가', '조사' 등이 포함된다. 이 토픽은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정책 변화와 다문화가족의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논의가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권리와 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강조되었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지난 과정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섯 번째 토픽인 '이주민과 사회'는 이주민의 사회적 위치, 차별 문제, 노동자로서의 역할 등을 다룬다. 주요 단어로는 '사회', '한국', '이주민', '차별', '이민자', '노동자', '미국', '교수' 등이 포함된다. 이 토픽은 이주민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다. 또한,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주제는 한국 사회가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도전과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토픽인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다룬다. 주요 단어로는 '교육', '학생', '학교', '자녀',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사', '언어', '수업' 등이 포함된다. 이 토픽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적 어려움과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다문화 교육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2.4. 시사점

분석결과, 다문화 관련 논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 이주민의 사회적 역할, 결혼이민자 정책, 다문화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정책적 이슈가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토픽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 개선을 필요로 한다. 또한, '아이와 가족'이라는 토픽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는 교육적 지원 시스템의 강화와 맞물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을 암시한다.

'이주민과 사회'와 같은 토픽은 이주민이 직면한 차별과 노동 환경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어, 이주민의 사회적 역할과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정책'이라는 주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 정책의 진전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 사회의 복잡성을 반영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을 위한 보다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의 강화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더욱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이번 발표는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다문화 관련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SNA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하여, 다문화 사회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고, 정책적 접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SNA 분석에서는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중심성이 가장 높은 15개 단어들(단어들이) 도출되었으며, 그 중 '다문화가족', '사회', '문화', '한국', '지원', '교육'은 중심성이 매우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는 다문화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반영하며, 정책적으로 중요한 영역들을 제시한다. 특히 '다문화가족'은 다문화 사회의 핵심 단위로, 가족 단위의 지원과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사회'와 '문화'는 다문화 사회 내에서의 통합과 연대,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의미한다. '지원'과 '교육'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들은 다문화 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다문화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는다.

한편, 토픽모델링을 통해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주요 주제들이 도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문화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아이와 가족', '결혼이민자와 정책', '이주민

과 사회’, ‘다문화 교육’이다. 이들 주제는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주제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시된다. 특히 ‘다문화가족 정책’과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사회 통합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나타나며, ‘지역사회의 역할’과 ‘가족 복지’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SNA 분석과 토픽모델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 사회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함께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중요한 중심적 키워드로, 이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 교육과 사회적 통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내 자녀 교육, 가정 환경 지원,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의 세부적인 요소들이 다문화 사회의 성공적인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은 단지 가족 단위에서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다문화 사회 내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생략〉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 기사 분석

- 토픽 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소영(성균관대학교)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다문화 관련 신문기사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담론 변화와 주요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과 토픽 모델링을 통해 다문화 관련 핵심 키워드와 주요 주제를 도출하여 다문화 사회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논문에 대한 토론을 몇 가지 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SNA 분석 결과와 토픽모델링 결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SNA 분석에서 '다문화가족'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였고, 토픽모델링에서도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주제가 여러 토픽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결과의 연관성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둘째,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토픽모델링 결과에서 '다문화 교육'이 독립적인 토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다문화가족' 키워드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법령과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넷째, 시간에 따른 다문화 담론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문화 관련 담론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향후 다문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호칭어를 활용한 사회언어학적 문화 교육 방안 연구

김관태(제주대)

< 차 례 >

1. 머리말
2. 사회언어학으로서의 호칭어와 문화 교육
3. 호칭어를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
4. 맺음말

1. 머리말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인간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호칭어는 사회 내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 중에서도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규범을 가장 명확하게 반영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호칭어는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말에 그치지 않고, 화자와 청자 사이의 권력 관계, 사회적 지위, 나이, 성별, 친밀도 등 다양한 사회적 변인을 고려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호칭어의 사용은 한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학습자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준다.

호칭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가 언어를 단순히 익히는 것을 넘어,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와 규범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영어 인사는 상대방의 이름을 아는 경우, 이름을 같이 부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인사말에서 이름을 함께 부르지 않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관습이 행위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방식 영어 인사에서도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형태로 드러나는데 원어민에게 인사할 때 호칭을 생략하여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옥중석, 2015).

그러나 현재까지의 사회언어학적 호칭어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국가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는 연구에 그치고 있다¹⁾. 교육과 관련된 호칭어 연구 역시 대부분이 호칭

1) 한칭. 한중 호칭어 대비 연구. 국제문화연구 3.1 (2010) 87-100.

양수경. "남북한 친족 호칭어 비교 연구." 화법연구 0.32 (2016): 121-151.

한현희. "러시아어와 한국어 호칭어의 사회언어학적 비교 연구." 노어노문학 28.2 (2016): 103-139.

응우옌 응옥 뚜이옌, 하채현. 한국과 베트남 부부 호칭어, 지칭어 사용 양상 비교 연구. 베트남연구 19.2 (2021) 219-254.

박상택. 한·몽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언어학연구 0.28 (2013) 49-80.

김우성. 멕시코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호칭어 체계 비교 연구. 스페인어문학 0.48 (2008) 123-145.

Dinh Lan Huong. 호칭어에 반영된 한·베 문화 비교 연구 - 친족과 직함 호칭어를 중심으로 -. 베트남연구 11.- (2011) 1-32.

어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는 차원이며(강영, 2006, 최경희, 2011) 이를 모든 학생을 위한 문화 교육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오늘날의 교육은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다문화 사회에서 국어 교육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법과 문학,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교육을 넘어서 문화적 소통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국어 교육에서 문화적 요소를 교육하는 방식은 혼한 방식이 아니었으며 특히 사회언어학적 교육에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화 교육에서 국어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가 많지 않았다는 점은 한편으로 국어교육의 학문적 보수성을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영역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할 것이다. 호칭어를 활용한 사회문화적 문화 교육은 글로벌-다문화 소통 역량이 중요시되는 현 시대에 국어교육이 ‘문화’라는 영역에서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도가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호칭어가 문화 교육에서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고, 호칭어의 차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문화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교육 모형을 제시하고, 국어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육 영역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사회언어학으로서의 호칭어와 문화 교육

2.1. 사회언어학과 호칭어

사회언어학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찾아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언어학의 한 분과라 할 수 있다(김혜연, 2010). Milroy는 사회언어학을 사회적 관계가 언어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맥락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구조, 관계 역학이 언어적 변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Milroy, 1991). 사회언어학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거리가 있는데 언어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전반 Sapir, Whorf, Malinowski, Bakhtin 등과 같은 인류학자가 사회와 문화, 사회 행위를 연구하기 위해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여기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김혜연, 2010). 특히 그간 언어학의 연구가 그 테두리 안에서 형태와 내용의 범주를 다루어왔다면 사회언어학은 인간과 언어, 사회의 관계성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이라 여겨진다(김혜숙, 2004).

사회언어학은 크게 세 가지 지향점을 두고 구분되는데 ‘사회적 측면과 언어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접근’,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언어학’, ‘사회에 의해 구성된 언어학’이 그것이다(Hymes, 2020). 먼저 사회적 측면과 언어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접근은 기존의 언어학에 도란하지 않는, 언어와 언어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이는 실용적 측면에서의 연구이며, 전통적 언어학 이론과는 별개로 사회언어학

이명아. 한중 이름 호칭어의 사회문화적 의미. 철학·사상·문화 0.21 (2017) 192-214.

김은경. 한국어와 영어의 호칭어 대조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4 (2016) 61-80.

D Otgontsetseg. 한국어와 몽골어에 있어서의 언어예절에 대한 비교연구 - 호칭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15.- (2010) 330-352.

홍민표. 사회적 인간관계와 호칭사용에 대한 한일 대조연구. 비교일본학 36.- (2016) 357-372.

의 연구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구되는 방향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언어학은 기존의 언어학을 확장하고 이에 도전하는 연구이다. 언어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의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고 가정하며 기존 언어학 이론이 이러한 변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세 번째로 사회에 의해 구성된 언어학은 언어 자체가 사회적 기능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언어의 구조나 규칙이 단순히 언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방향은 기존 언어 이론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며 언어가 단순히 문법적 규칙에 따라 설명될 수 없고 사회적 의미와 의사소통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은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를 이해해야만 언어의 실제 사용을 분석할 수 있다고 여긴다(Hymes, 2020).

사회언어학적 접근이 문화 교육에서 유효한 이유 중 하나는 언어와 문화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에 그치지 않고 특정 사회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변화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언어학은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대한 실제 현상을 보여주며, 이 현상을 통해 문화적 맥락과 그 안에서의 언어적 관습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교육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이다.

먼저 사회언어학은 언어 변이와 사회적 계층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언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다(황적륜, 2010). 이와 같은 변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특정 언어 집단 내에서의 경어 사용 방식이나 연령에 따른 호칭어의 차이 등은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언어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사회언어학적 접근은 다중언어 환경과 언어 접촉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이주민, 소수 언어 집단,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과 정책을 분석한다(Jaspers, 2018).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셋째, 문화는 언어를 통해 사회적 의미를 구성한다(Kashima, Kashima, & Kidd, 2014). 사회언어학은 언어가 사회적 규범, 가치, 그리고 정체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형성하는지 탐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 교육은 언어 사용을 통해 문화적 이해와 소통 능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글로벌-다문화 교육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즉, 사회언어학적 접근은 언어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고, 문화 교육이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 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돕는다.

다음으로 호칭어를 정의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겠다. 호칭어는 화자가 자신의 대화 상대를 지칭하는 언어적 표현을 의미한다(Braun, 1988).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방식이 사회적 관계와 대인 관계의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호칭어에 대한 연구는 사회언어학과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다. 호칭어를 지칭어와 구분하여 쓰는데 지칭어는 대화에서 다른 사람을 가리켜 부를 때 쓰는 말로 호칭어와 지칭어가 상황에 따라 같은 형태일 수도 있으나 지칭어로만 쓰이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 써야 할 것이다(손춘섭, 2010).

호칭어를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데 1인칭 대명사, 고유 명사, 친족 호칭어, 직함, 별명 및 형용사적 용어가 그것이다(Fitch, 1998). 1인칭 대명사는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칭하는 모든 방식을 포함하고 고유명사는 성, 별칭, 전체 이름이 포함된다. 친족 용어는 생물학적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직함은 친족 관계가 아닌 관계나 직위를 반영한 호칭어이다. 끝으로 별명이나 형용사적 용어는 이름이나 성에서 파생되거나 개인

의 능력, 특성, 외모를 지칭하는 항목이다.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을 친족 호칭어, 이름 호칭어, 직함 호칭어, 일반명사형 호칭어, 감탄사형 호칭어, 외래어형 호칭어, 기타 호칭어로 나누는 경우(전혜영, 2005)도 있고, 가족형 호칭어, 이름형 호칭어, 대명사형 호칭어, 직함형 호칭어, 일반명사형 호칭어, 자녀 이름 매개형 호칭어, 주의 환기형 호칭어로 나누기도 한다(강소산, 전은주, 2013).

형태적으로 볼 때 국어의 호칭어는 '명사+접사/의존명사'형, 명사형, 대명사형으로 크게 나뉘고 세부적으로 '명사+접사/의존명사'형은 '명사+-님'형, '명사+씨'형, '명사+군/양'형, '명사(지명)+댁', '명사(자명)+-네'형으로 나뉜다. 명사형은 '성명/성/이름'형, '성명/성/이름+직함/친족어'형, '지명/부서명+직함/친족어'형, '자명+친족어'형, '친족어'형이 있다. 대명사형은 '너', '당신', '자기', '자네' 등이 있다(손춘섭, 2010).

호칭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는 앞서 Hymes가 언급한 세 가지 연구 방향 가운데 세 번째인 '사회에 의해 구성된 언어학'이 적합할 수 있다. 호칭어는 단순히 언어 내부의 규칙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관계, 기능에 따라 변화하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 간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언어적 요소이다. 예를 들어 같은 대상을 같은 사람이 부를 때, 그 상황에 따라 불리는 대상이 다르게 불리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같은 회사를 다니는 가족을 회사에서 만났을 때 친족어로 부르기보다는 직급에 맞춰 예의를 갖추어 부르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의 의미와 사용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언어학인데, 사회적 맥락과 그 맥락 속에서 언어적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한 축이 된다. 이는 기존 언어학 이론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다. 윗사람을 부를 때는 존칭어를 쓴다는 언어학적 규칙이 친밀한 사이에서 쓰는 반말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2.2. 호칭어와 문화 교육

2.2.1. 호칭어와 문화의 관계

문화란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획득한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및 기타 능력의 복합체다(Taylor, 1871).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으로 공유성을 든다(한상복 외, 2022). 문화는 한 사회에서 용인되거나 권장되는 행위 양식이고 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Goodenough는 문화는 생물학적 특성과 달리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며 습득된 지식의 결과물이라 하였다(Goodenough, 1957). 또한 Taylor는 문화는 사람들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Taylor, 1994).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타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낸 결과가 곧 문화라는 뜻이다.

호칭어가 문화적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와 특징 때문이다. 첫째, 호칭어는 기본적으로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라는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이때 사용되는 호칭어는 양쪽의 관계나 상호 간의 기대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부를 때 '형', '누나'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동시에 연령에 따른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다. 반면, 영어권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이름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 상호 존중이 동

등한 위치에서 이뤄진다.

둘째, 호칭어는 문화적 관습에 따라 정해진다. 같은 의미라도 문화마다 다른 호칭어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호칭어라도 사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회사 내에서 '부장님'과 같은 직급을 호칭어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구권에서는 보통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관습은 각 사회가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한 가치관, 특히 위계와 예절을 존중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호칭어는 사회적 지위, 역할,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맥락 의존적이다. 한국어에서 교수에게는 '교수님'이라 부르고 학생 간에는 이름이나 '선배'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듯, 호칭어는 상황에 맞게 변하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람을 두고도 상황에 따라 호칭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그 사회가 특정 맥락에서 요구하는 기대치와 예의에 따른 것이다.

넷째, 호칭어는 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는 도구이다. 호칭어를 통해 구성원들은 자신의 문화적 소속감을 드러내며, 같은 문화권 사람들과의 일체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친밀한 표현으로 친척 관계를 무시하고 두루 '삼촌'이라는 호칭으로 일반 어르신들을 부른다(김미진, 2010). 이 삼촌이란 말은 사용하는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공통된 이해를 강화한다.

다섯째, 호칭어는 세대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문화적 흐름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남편을 이르는 말을 '여보'나 'OO아빠'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점차 '오빠'라는 명칭을 남편에게 쓰는 세대가 늘고 있다²⁾. '오빠'라는 명칭이 친족 순위 형제에게 쓰던 말에서 점차 남편에게도 쓰는 말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로, 호칭어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문화적 지표임을 보여준다. 호칭어는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 관계와 예절, 정체성, 시대적 변화 등 다양한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언어적 요소이다.

2.2.2. 문화 교육에서의 호칭어 활용의 효과

문화 교육의 목적과 대상은 특정 소수 학생의 문화 적응 교육에서 전체 학생의 문화 소통 능력 향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는 유럽의 주류 다문화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초기 다문화 교육 정책은 동화주의였다. 이는 프랑스의 자유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의 법적 가치와 원칙을 존중해야 포용적이고 응집력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동화는 단일 문화성을 기반으로 하며 지배 사회의 규칙과 가치를 완전히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소수 집단은 지배 사회와 문화적으로 구별되지 않게 된다. 이에 반해 등장한 다문화주의 모델은 영미 전통에서 비롯되며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모델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Rodríguez-García, 2010).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민족, 종교를 포함한 문화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만 그 자체를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요소로 보아 문화 간의 소통과 공통의 연대감을 촉진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반면 상호문화주의는 문화를 동적이고 진화하는 개념으로 여기며, 그룹의 정체성이 유동적이라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변화하고 재형성된다고

2) 조선일보,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오빠!" 부르자 남자 스무 명이 돌아왔다, 2024.10.26.
링크: <https://m.news.nate.com/view/20241026n00230>

여긴다. 이는 공동체적 가치와 소속감을 발전시키고 개방적인 대화를 촉진한다(Meer, Nasar, Tariq Modood, Ricard Zapata-Barrero, 2016). 최근 유럽의 이민자 교육 정책이 다문화주의에서 상호문화주의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요인으로 다문화주의가 필연적으로 갖는 보수성을 꼽는다. 다문화주의는 자문화와 타문화를 모두 인정하나 상호 교류를 차단하며 이로 인해 점차 각자의 자문화 중심주의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최근 유럽에서 발생하는 이민자 2세대 주도의 테러 사건 등이 유럽 다문화주의가 실패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영국, 프랑스, 독일의 각 국 지도자들 역시 다문화주의가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였다(권경희, 2012). 또한 여러 유럽 국가의 극우 정당이 선거를 휩쓰는 현상도 다문화주의의 실패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³⁾.

상호문화주의로의 전환은 단지 유럽에서만 현상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문화 교육에서 상호문화주의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으며, 여기서 필요한 능력이 곧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점에서 문화 교육의 방향성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이 동화주의에 기초한 소수자 문화 교육이었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 간 소통 교육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소통 교육으로서 문화 교육은 글로벌 교육, 다문화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글로벌 교육, 다문화 교육은 글로벌 역량, 다문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며 이 역량의 핵심은 '다양한 관점과 세계관에 대한 이해, 존중 능력'이다(Piacentini, Mario & Barrett, Martyn & Mansilla, Veronica & Deardorff, Darla & Lee, Hye-Won, 2018).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상은 곧 다른 국가, 다른 문화권, 다른 지방을 뜻하기도 하고 동시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문화를 공유하는 다른 세대, 곧 다른 모든 사람을 뜻한다.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나 역시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면 상호 소통이 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은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호칭어 교육은 소통 교육의 한 방편으로서 유용하다. 대화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상대방을 부르는 행위다. 또한 호칭은 사회적 지위나 친밀도, 연령의 차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부르는 사람과 불리는 사람의 관계를 반영한다. 호칭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통의 시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소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호칭어를 선택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일은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다.

물론 호칭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적/비언어적 문화 교육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특히 비언어적 제스처는 언어적 요소와 함께 교육할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호칭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호칭어는 언어적 요소로서 사회적 위계와 관계성, 정체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 요소와는 차별화되어 있다. 다만 학습 자료로서 호칭어 활용을 보여줄 때 다양한 멀티미디어 영상 자료가 제시될 수 있는데, 이때 비언어 소통 방식도 함께 교육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여 둔다.

3. 호칭어를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

3.1. 문화 교육 목표

3) Ömer Taşpınar, Multiculturalism and Integration in Europe, 2010, Brookings, 링크: <https://www.brookings.edu/articles/multiculturalism-and-integration-in-europe/>

문화 교육이라는 말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힘든 면이 있다.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배우는 어떤 것 중에 문화적이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문화는 공유되고 습득된 모든 행위 양식이며, 또한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모든 과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문화 교육은 그 목표와 대상, 필요성을 한정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 문화 교육이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의사소통 교육으로 그 방향성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말하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은 언어적, 문화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복합적인 능력이다(Fantini, 2005). 이는 외국어 교육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인데, 외국어 교육 목표가 단순히 언어를 활용한 메시지, 정보 교환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문화 교육은 간접적인 예의를 담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 준다(Byrum, 1997).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은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주목할 수 있다.

Byrum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태도(attitudes), 지식(knowledge), 기술(skills)로 나누는데, 먼저 태도는 타인의 의미와 신념에 대한 의심과 판단을 중단하고 호기심과 개방성을 갖는 자세라고 하였다. 그는 Kohlberg 외(1983)가 주장하는 ‘탈중심화(decentre)’ 능력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상대화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다음으로 지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자신의 나라의 사회 집단 및 문화에 대한 지식과 대화자의 나라에 대한 유사 지식이고 둘째, 개인 및 사회적 수준에서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지식이다. 첫 번째 지식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되며 개인은 국가적 정체성, 지역적, 민족적, 사회 계층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집단의 상징적 특성과 구별되는 특성에 대한 의식이 생긴다. 두 번째 지식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개인이 사회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다른 집단의 대화자를 인식하면서 생긴다. 끝으로 기술은 해석과 발견에 관한 것인데 해석은 다른 문화의 문서(document)를 특정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그 문서에 담긴 암시와 함축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이다. 발견은 문서나 상호작용과 같은 특정 현상에 내재된 신념, 의미, 행동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구축하는 기술이다(Byrum, 1997).

호칭어를 활용하여 문화 교육을 수행할 때,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태도, 지식, 기술을 목표 역량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 이를 새롭게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7] 호칭어를 활용한 사회언어학적 문화 교육 목표

영역	내용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언어에서 사용되는 호칭어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 특정 문화에서 호칭어가 사용되는 규범과 방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한국과 다른 국가의 호칭어 문화 변화를 분석하고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다.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타 문화권의 호칭어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호칭어를 선택하고 그 사용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서 호칭어 사용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이를 반영한 대안적 표현을 제안한다.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권의 호칭어를 학습하며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한국 및 다른 국가의 호칭어 문화에 대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갖는다. • 글로벌-다문화 사회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호칭어 학습을 바탕으로 협력적 태도를 갖는다.

위 각 영역별 목표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데 학생이 습득한 호칭어와 관련된 지식은 다양한 상황에서 호칭어를 적용하고 평가하는 기능적 능력과 연계된다. 또한 다양한 호칭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다른 문화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호칭어 학습으로 익힌 지식과 기능이 다시 실질적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 교육을 실현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언어를 매개로 문화를 학습한 학생은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된다.

3.2.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문화 교육 자료 선정 기준

호칭어를 활용한 문화 교육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사회언어학 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사회언어학적 요소를 확인하는 일은 문화 교육자료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안된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평가 방식과 교육 방식, 교육자료 선정 등을 배치하는데 이는 이른바 백워드 설계 방식으로(Wiggins, McTighe, 2005),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유효하다. 이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교육과정에서 성취목표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교육 자료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사회언어학 교육과 관련한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9국01-03] 담화 공동체에 따른 듣기·말하기 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듣고 말한다'에 일부 드러나는데 이 성취기준은 개인이 속해 있는 담화 공동체의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식을 고려한 의사소통 참여를 뜻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목적으로 설정된 성취기준이며 세대, 성, 직업, 지역, 공동의 관심사나 이해관계, 언어문화와 관습 등이 공동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한다. 이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고정된 언어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집단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자신의 언어생활을 고찰할 것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공통 과목에서도 사회언어학과 관련한 성취기준이 있는데 '[10공

국1-01-01]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 대화하고 자신의 듣기·말하기 과정과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성찰은 비판적 성찰이며, 우리 담화 관습의 과거와 현재를 조사하여 인식하는 노력을 뜻한다. 이는 담화 관습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인데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등 대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⁴⁾.

일반 선택의 화법과 언어 영역에서도 관련 성취기준이 있는데 ‘[12학년01-15]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기준이 그것이다. 이 성취기준에는 이전 10학년 성취기준에 있었던 담화 관습을 공유하는 집단을 ‘언어 공동체’로 정하고, 이 틀에서 벗어나는 문화에 대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이 성취기준은 두 가지 태도 영역을 동시에 만족할 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는 담화 공동체의 관습에 따라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틀에서 벗어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즉 하나는 언어 공동체에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이며, 다른 하나는 언어 공동체 외의 문화에 대한 포용력이다.

위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선정한다면 먼저 다양한 문화가 반영된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 자료를 병렬적으로 보여준다면 각 문화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특정 문화의 고유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맥락이 나타난 교육 자료가 좋다. 단순히 자료에 나타나는 차이점만을 부각하는 것은 학습자가 인식에서 이해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다. 그 때문에 사회적 맥락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한 자료여야 한다. 여러 국가의 다양한 자료가 위계 없이 제시되기보다는 비교 가능한 수준에서 같거나 유사한 위계와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가능하다면 문화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좋다. 물론 여러 국가의 문화적 변화를 모두 반영한 자료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일부 자료라도 문화적 변화가 드러난다면 이는 학생에게 문화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당초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여러 사회언어학적 호칭어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 연구에서 새로운 호칭어를 찾아 분석하거나 분류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연구된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호칭어의 차이와 원인을 제시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라 하겠다.

3.3. 문화 교육 모형

호칭어를 활용한 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 모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문화 교육 방법적 절차는 다양한데 그 방법 중 호칭어 교육은 비교문화를 활용한 수업 모형이 적절할 것이다. Moran은 문화적 삶의 틀을 네 단계로 구분하는데 먼저 문화적 정보를 단순히 습득하는 ‘알기(know about)’ 단계가 있다. 그 다음으로 문화적 실천에 적절하게 참여하는 ‘방법 알기(know how)’ 단계다. 그 다음은 믿음이나 가치, 태도 등 문화적 관심을 이해하는 ‘이유 알기(know why)’ 단계다. 끝으로 자기 인식을 통해 성찰하는 단계인 ‘자기 인식(know oneself)’ 단계가 있다(Moran, 2000). 그는 이를 네 단계 문화 교육 모형을 제안하는데 대상 알기(knowing about), 자신 알기(knowing oneself), 비교하기

4)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2022

5) 교육부, 위의 책, 79쪽

(comparing), 표현하기(expressing) 단계이다. 대상 알기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이 타 문화에 대한 정보를 알고 직접, 간접 체험하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교사는 이 단계에서 주로 문화적 정보를 제공한다. 자신 알기 단계에서는 제시된 문화 소재에 대해 자문화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수업을 한다. 이전 단계에서 배운 타 문화와 비교하여 자문화는 어떤지 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생각해 보도록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지식을 활성화하도록 돕는다. 비교하기 단계에서는 앞서 살펴 본 두 문화를 공통점, 차이점으로 나누어 비교해 본다. 문화 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표현하기 단계는 문화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이나 경험을 표현하도록 한다. 교사는 학생의 표현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시한다(김솔, 박선호, 2015).

문화 교육 모형 가운데 상호문화 교육 모형도 이와 유사하다. 이 모형은 7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 개념 소개, 자문화 인식, 타 문화 발견, 양 문화 비교, 문화상대성 이해, 타 문화 존중 단계다(장한업, 2020). 위에서 소개한 Moran의 모형과 상호문화 교육 모형을 적절히 조합해 교육 모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호칭어를 활용한 사회언어학적 문화 교육 모형

단계	내용	호칭어 교육 내용
문화 개념 학습	문화의 일반적 개념을 학습하고 인지한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호칭어의 일반적인 개념과 범위, 특성을 배운다.
자문화 탐구	자신의 문화에서 앞서 배운 개념을 구체화한다.	우리나라 호칭어의 특성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지식을 구체화한다.
타 문화 발견	타 문화에서 앞서 배운 문화적 개념을 구체화한다.	다른 나라 호칭어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식의 외연을 넓힌다.
문화 비교	자신의 문화와 타 문화를 병렬적으로 비교,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다.	우리나라 호칭어와 다른 나라 호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본다.
문화적 성찰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고찰하고 문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성찰해 본다.	호칭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를 찾아보고 자신의 문화적 태도에 대해 돌아본다.
표현 및 실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확장하고 내면화한다.	호칭어와 관련되어 배운 점을 성찰해 보고, 앞으로 문화 수용 태도에 대해 정리, 발표해 본다.

3.4. 교육 자료 선정

앞서 언급한 문화 교육 자료 선정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호칭어와 다른 여러 나라의 호칭어를 비교 예시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데, 미국, 중국, 베트남, 몽골, 러시아, 멕시코 등 국가와 호칭어를 비교한 선행 연구가 있었다. 여기서는 영어를 중심으로 그 예를 들어보겠다.

영어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외국어다. 그러나 익숙하다는 사실과 별개로 호칭어 문제는 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호칭어를 보면 그 위계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하다. 그 예로 성명과 직함호칭어를 14단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도 한다(이익섭, 1994).

과장님-박과장님-박영호씨-영호씨-영호형-박과장-박씨-박형-박군-박영호군-영호군-박영호-영호-영호아

또한 직함 호칭어를 다섯 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접미어 ‘님’을 붙여 그 단계를 더 세분화하며, 직함과 성명을 모두 쓰는 경우는 드물지만 직함과 성만 쓰는 것보다 한 단계씩 높다고 판단하여 다음 다섯 단계를 제안하기도 하였다(채서영, 유원호, 2008).

변호사님-김영호변호사님-김변호사님-김영호변호사-김변호사

영어에서 이름과 직함(titles) 호칭어는 5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름 전체를 부르는 경우(full first name), 약칭 이름을 부르는 경우(abbreviated first name), 별칭을 부르는 경우(nickname), 직함과 성을 부르는 경우(title plus family name), 직함만 부르는 경우(title alone)가 있다(Carter & McCarthy, 2006).

표 9 People's names and titles(Carter & McCarthy, 2006: 228)

form	example
full first name	Laura, have you got a minute?
abbreviated first name	Can you give me a hand, Pete.(Peter)
nickname	Hi, Red. How are you?(to a red-haired man)
title plus family name	Mr Roberts, could I have a word with you?
title alone	Thank you, doctor.

영어에서 성만을 부르는 경우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용하는데(교사가 학생에게나 군장교가 사병에게, 혹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등)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친근해지면 이름을 부른다고 하였다(Carter & McCarthy, 2006, 김은경, 2016). 우리나라에서는 성만으로 호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김군, 김씨, 김양, 김선생님’ 등 다른 호칭어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국어와 유사하게 영어 호칭어에서도 직함 자체로 부르는 호칭은 가장 큰 존칭으로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김은경, 2016).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교사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데에 반해 영어에서는 “Teacher!”라고 부르는 것은 어색한 표현이다(채서영, 유원호, 2008).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에서는 직함과 함께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과 같은 호칭이 그렇다. 그런데 영어에서 doctor가 다른 직업에 비해 자주 호칭어로 쓰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자체는 호칭어로 잘 쓰이지 않는다. ‘의사’에 ‘선생님’을 붙이지 않고 “의사!”라거나 “김의사님!”이라고 부르면 매우 어색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라는 직함이 나타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이를 대체할 여러 용어(원장님, 과장님, 선생님)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채서영, 유원호, 2008: 332-333).

영어 호칭어와 비교할 때 한국어 호칭어 가운데 은유적 친족 호칭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호칭어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언니’, ‘오빠’, ‘이모’ 등의 호칭어를 우리나라는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블랙핑크 언니들’, ‘BTS 오빠들’과 같은 호칭이나 식당에서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는 행위가 그렇다. 이것은 한국인의 집단의

식, 가족중심의 사고가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김은경, 2016).

본 연구는 호칭어의 비교를 통하여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교육 자료 자체를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겠다. 영어를 예로 들기는 하였으나 앞서 언급하였듯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하고자 한다. 학생이 스스로 찾아 다양한 언어에서 호칭어를 비교할 수 있게 유도하면 좋을 것이다.

3.5. 수업 내용 및 구성

앞서 살펴 본 교육 모형에 따라 교육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단계	문화 교육 모형	교사 행동	학생 행동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폴리와 함께」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옥종석, 2015). - 영화에 나온 대사를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한 자료를 보여주되 이름만 한국어 이름으로 바꾸어 제시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uben: Hey, Tina. Hey, Mitch. • Mitch: Hey, Reub. • Reuben: Cheryl • Cheryl: Hey. • Reuben: How does everyone know about this? • Gladys: Your mother called Mr. Indursky and told him what happened. I am so sorry, Reuben. • Reuben: Thanks, Gladys.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발문: 번역된 글을 읽어보니 어떨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를 본다. - 번역된 내용을 읽어본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수: 안녕, 영미. 안녕, 영희. • 영희: 안녕, 철수. • 철수: 미연. • 미연: 안녕. • 철수: 다들 어떻게 아셨어요? • 진우: 당신 어머니께서 병수씨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해 주셨어요. 정말 안 됐어요. 철수. • 철수: 고마워요. 진우.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답: 어색해요.
	문화 개념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개념과 속성 종류에 대해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을 듣는다.
전개	자문화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호칭어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학생들이 찾도록 유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한국어 호칭어의 특성과 종류의 예를 찾아본다.

		-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다.						
	타 문화 발견	- 다른 나라 호칭어의 특징과 종류를 나누어 조사하도록 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td>1,2</td><td>영어</td></tr> <tr><td>3,4</td><td>중국어</td></tr> <tr><td>5,6</td><td>베트남어</td></tr> </table> -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1,2	영어	3,4	중국어	5,6	베트남어	- 교사의 지시에 따라 모둠별로 나누어 다른 나라 호칭어를 조사한다. -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다.
1,2	영어								
3,4	중국어								
5,6	베트남어								
	문화 비교	- 다른 나라 호칭어와 한국어 호칭어를 비교해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도록 한다. -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 교사의 지시에 따라 호칭어의 특성을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다. -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다.						
	문화적 성찰	- 호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각자 적어본다. - 관습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를 묻는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 적은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누어 원인을 적는다. - 교사가 제시하는 질문지를 작성한다. - 적은 내용을 발표한다.						
마무리	표현 및 실천	- 배운 내용을 ‘문화다양성’을 중심으로 성찰하고 앞으로의 문화 수용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 교사의 지시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문화 수용 태도에 대해 발표한다.						

수업 도입부의 동기 유발 자료로는 영화 「폴리와 함께」에 나오는 한 장면을 제시한다 (옥중석, 2015). 이 영화에서 제시된 장면은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 장면인데 상사에게도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장면 가운데 이름을 한국 방식 이름으로 바꾸어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을 같이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호칭어와 영어 호칭어의 차이점을 부각하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유발하도록 한다.

문화 개념 학습 단계에서는 문화의 개념과 속성,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문화에 대한 여러 학자의 정의를 비교해 보고, 문화를 나누는 방식을 알려준다. 문화란 인간이 만들어 낸 산물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문화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환경적, 사회적, 역사적 요인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서 문화 개념은 너무 세세하고 전문적일 필요는 없다. 학습에 필요한 수준 정도로 간략하게 소개해야 본 수업에 더 학생이 집중할 것이다.

자문화 탐구 단계에서는 한국어 호칭어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 탐구 활

동으로 지식의 외연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한국어 호칭어의 종류를 가족 호칭어, 이름 호칭어, 대명사형 호칭어, 직함형 호칭어, 일반명사형 호칭어, 자녀이름 매개형 호칭어, 주의 환기형 호칭어로 나누어⁶⁾ 예를 하나씩 들어 준다. 이후 더 많은 예를 학생들이 찾도록 한다. 다음으로 보기를 제시해 학생이 직접 보기에서 한국어 호칭어의 특성을 찾도록 한다. 다양한 상황에서 호칭어가 쓰이는 양상을 제시하고 학생이 직관적으로 자문화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자문화를 객관화하는 방법이며 타 문화를 유연하게 수용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타 문화 발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 외국어를 모듈별로 나누어 배정해 주고, 그 언어의 호칭어 분류, 특성, 한국어 호칭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적도록 한다. 또한 조사 대상 외국어 호칭어의 특성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도록 한다. 여기서는 다양한 학술자료와 인터넷 검색을 활용할 수 있다.

문화 비교 단계에서는 조사 대상 외국어와 한국어 호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 최근 여러 외국어 교육 영상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공유되고 있어 호칭어 자체를 조사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또한 앞서 조사한 외국어 호칭어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국어 호칭어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이 과정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차이점만큼 중요한 것이 공통점인데 상호문화 교육에서 교육은 소통 과정에 보편적 가치를 찾는 데 의미를 둔다. 이 때문에 호칭어 교육에서 공통점을 찾아 정리하는 일은 타자를 낮설지만 또 친근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이끌 수 있다(양정아, 2020).

다음으로 문화적 성찰 단계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을 추측해 보고 찾아 보도록 한다. 이 단계는 학교 급에 따라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외국어에서도 영어 호칭어는 쉽게 조사할 수 있고, 그 원인도 비교적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베트남어, 중국어만 하더라도 자료가 많은 편은 아니다. 앞서 나온 외국어 호칭어 자체를 조사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그 발생 원인까지 설명해 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그래서 미리 학술 논문 가운데 관련 내용을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해 줄 수도 있다. 제시된 자료에서 원인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사회언어학적 문화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끝으로 표현 및 실천 단계에서는 문화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생이 호칭어 학습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문화 수용 태도 개선에 대해 나누도록 유도한다. 여기서 교사는 발문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 외적인 역량 향상을 인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알지 못하던 나라의 호칭어를 알게 되었어요”라고 한다면 “외국어를 배울 때 그 나라의 호칭어를 어떻게 배우면 효과적일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기술적 역량을 확인하거나, “호칭어의 차이를 알고 해당 국가의 문화나 가치, 관습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라고 하여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알게 된 외국어 호칭어를 사용하는 문화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와 같은 질문도 학생의 지식 외적 역량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호칭어가 가지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고 이

6) 강소산, 전은주(2013)의 분류를 따라 나눔

를 교육적 맥락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호칭어는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사회적 관계, 권력 구조,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문화적 규범과 맥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호칭어를 활용한 문화 교육은 학습자들이 언어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글로벌-다문화적 사회에서 필요한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이다.

사회언어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문화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언어와 문화의 상호작용을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또한, 호칭어를 중심으로 한 교육은 언어 사용의 실제 맥락을 강조하여 학습자가 언어적 표현과 사회적 의미를 연결할 때 더 나은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호칭어를 활용한 사회언어학적 문화 교육은 국어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며, 단순히 언어 학습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소통과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국어교육이 글로벌-다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와 교육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교육 모델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소산, 전은주. (2013). 한국어 교육에서 호칭어, 지칭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95, 363-389.
- 강영. (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비교한국학(Comparative Korean Studies), 14(2), 31-58.
- 교육부.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 권경희. (2012). 유럽 다문화주의의 위기. 유럽연구 30.2, 83-119.
- 김미진. (2010). 제주도방언의 친족어 연구: 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20, 27-47.
- 김술, 박선호. (2015). 자문화 및 타문화 비교 수업모형을 통한 초등영어 및 문화 지도 연구. 초등영어교육, 21(2), 67-94.
- 김우성. (2008). 멕시코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호칭어 체계 비교 연구. 스페인어문학, 48, 123-145.
- 김은경. (2016). 한국어와 영어의 호칭어 대조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4, 61-80.
- 김해연. (2010). 한국 사회언어학 연구 개관. 사회언어학, 18(2), 287-347.
- 김혜숙. (2004).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의 이론과 전개. 사회언어학, 12(1), 95-122.
- 박상택. (2013). 한·몽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언어학연구, 28, 49-80.
- 손춘섭. (2010). 현대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33, 95-129.
- 양수경. (2016). 남북한 친족 호칭어 비교 연구. 화법연구, 32, 121-151.
- 양정아. (2020). 상호문화주의 교육의 정당화.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육중석. (2015). 미국영어의 호칭어에 관한 연구: '폴리와 함께'에 등장하는 FN호칭을

- 중심으로. *영상영어교육(STEM Journal)*, 16(1), 111-132.
- 응우옌 응옥 뚜이옌, & 하채현. (2021). 한국과 베트남 부부 호칭어, 지칭어 사용 양상 비교 연구. *베트남연구*, 19(2), 219-254.
- 이명아. (2017). 한중 이름 호칭어의 사회문화적 의미. *철학·사상·문화*, 21, 192-214.
- 이익섭. (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 장한업. (2020). *상호문화 교육*. 박영사.
- 전혜영. (2005). 한국어 호칭어의 교육 내용과 과제. *Korean 연구와 교육*, 1, 121-135.
- 조선일보. (2024, 10월 26일).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오빠!" 부르자 남자 스무 명이 돌아왔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026n00230>
- 채서영, 유원호. (2008). 영어의 타이틀과 한국어의 직함 호칭어: 조건과 발달과정 비교 연구. *사회언어학*, 16(1), 317-340.
- 최경희. (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연구: 사회 호칭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8(2), 225-252.
- 한상복, 이문웅, 김광익. (2022). *문화인류학(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한청. (2010). 한중 호칭어 대비 연구. *국제문화연구*, 3(1), 87-100.
- 한현희. (2016). 러시아어와 한국어 호칭어의 사회언어학적 비교 연구. *노어노문학*, 28(2), 103-139.
- 홍민표. (2016). 사회적 인간관계와 호칭사용에 대한 한일 대조연구. *비교일본학*, 36, 357-372.
- 황적륜. (2010). 사회언어학의 기원과 성립. *사회언어학*, 18(2), 1-27.
- Braun, F. (1988). *Terms of Address: Problems of patterns and usage in various languages and cultures*. Berlin: Mouton de Gruyter.
- Byram, 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Johannesburg: Multilingual Matters LTD.
- Carter, R., & McCarthy, M. (2006). *Cambridge Grammar of English: A Comprehensive Gu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ntini, A. E. (2005). *About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A construct*. School for International Training.
- Fitch, K. L. (1998). *Speaking Relationally: Culture,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Connec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Goodenough, W. H. (1957). *Cultural anthropology and linguistics*. Georgetown University Monograph Series on Language and Linguistics, (16), 167.
- Hymes, D. (2020). The scope of sociolingu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2020(263), 67-76. <https://doi.org/10.1515/ijsl-2020-2084>
- Jaspers, J. (2018). Language education policy and sociolinguistics: Toward a new critical engagement. In J. W. Tollefson & M. Pérez-Milans (Eds.), *The Oxford Handbook of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Oxford Academic.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9838639.013.010>
- Kashima, Y., Kashima, E., & Kidd, E. (2014). Language and culture. In T. M. Holtgraves (Ed.), *The Oxford Handbook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 (pp. 46-61).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9838639.013.010>
- Kohlberg, L., Levine, C., & Hewer, A. (1983). *Moral Stages: A Current Formulation and Response to Critics*. Basel: Karger.
- Meer, N., Modood, T., & Zapata-Barrero, R. (Eds.). (2016). *Multiculturalism and Interculturalism: Debating the Dividing Line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3366/edinburgh/9781474407083.001.0001>
- Milroy, L. (1991). *Language and Social Networks*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Moran, P. R. (2001). *Teaching Culture*. Boston: Heinle & Heinle.
- Piacentini, M., Barrett, M., Mansilla, V., Deardorff, D., & Lee, H.-W. (2018). *Preparing our youth for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world: The OECD PISA global competence framework*.
- Rodriguez-Garcia, D. (2010). Beyond assimilation and multiculturalism: A critical review of the debate on managing d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 Taylor, C. (1994). Politics of recognition. In A. Gutmann (Ed.), *Multiculturalism* (pp. 25-73).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ylor, E. B. (1871). *Primitive Cultures*. New York: Harper Torchbooks.
- Wiggins, G., & McTighe, J. (2005). *Understanding by Design* (Expanded 2nd ed.).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ASCD).

“호칭어를 활용한 사회언어학적 문화 교육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

정대현(협성대학교)

오늘 “호칭어를 활용한 사회언어학적 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귀한 발표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님께서는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중요한 과제인 문화 간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호칭어라는 구체적 언어 현상에 주목하셨고,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호칭어의 문화 교육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조명하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연구가 더욱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토론자로서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Moran의 상호 문화 교육 모형과 호칭어 교육의 특수성이 어떻게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폴리와 함께」의 직장 호칭어 장면 활용에서, 현재는 영어권의 이름 호칭 사용을 보여주고 한국어 호칭어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지식 전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더 풍부한 교육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이 장면을 보며:

- 왜 영어권에서는 직장에서도 이름을 직접 부르는가?
- 이러한 호칭 방식이 그들의 조직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반대로 한국에서 직함 중심의 호칭이 발달한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가?
- 서로 다른 호칭 문화가 실제 의사소통에서 어떤 오해나 어려움을 낳을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탐구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들의 실제 경험이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접한 호칭어 사용 사례들과 연결 지어 더 풍부한 문화적 이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호칭어가 지닌 언어-문화 통합적 특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교육 모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현재 영어권의 Mr./Ms. + 성(姓)과 한국어의 직함 + '님' 호칭을 비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를 다른 문화권으로 확장하면 더욱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의 직함 + 성(姓) 구조나 일본어의 성(姓) + さん/様 형식, 베트남어의 친족 호칭어 확장 현상 등과 비교한다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호칭어가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문화권의 호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호칭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적 변인들(연령, 성별, 지위, 친밀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문화 간 비교 연구의 타당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제안하신 수업 모형이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수업 시간과 교육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추가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시된 7단계 모형(문화 개념 학습 → 자문화 탐구 → 타문화 발견 → 문화 비교 → 문화적 성찰 → 표현 및 실천)을 45-50분의 일반적인 수업 시간에 모두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타문화의 호칭어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자문화와 비교 분석하는 활동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 2-3차시의 연계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각 단계에 충분한 학습 시간 확보
- 사전 과제로 호칭어 자료 조사를 부여하고 수업에서는 비교·분석에 집중
-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디지털 학습 자료 및 활동지 개발
- 수행평가와 연계하여 프로젝트 학습으로 확장

이러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제시된다면 교육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자님의 연구는 호칭어를 통한 문화 교육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론적 토대의 심화, 실증적 연구의 확장, 현장 적용성 강화를 통해 이 연구가 문화 간 의사소통 교육에 더욱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귀중한 연구를 공유해 주신 발표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 분과

문법론

품사 통용 교육의 전개 양상 연구

- <학교문법통일안> 이후의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

허원영(제주대)·최대회(제주대)

< 차 례 >

1. 머리말
2. 기초 논의 및 연구 대상
3. 품사 통용 교육의 전개 양상
4. 맺음말

1. 머리말

이 연구는 <학교문법통일안> 이후의 문법 교과서를 대상으로 품사 통용 교육의 전개 양상을 검토하고,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963년 7월 25일에 공포된 <학교문법통일안>에는 국어 품사에 대한 용어 및 체계의 통일안이 제시되었다. 이후 해당 지침에 따라 교과서가 집필되었고, 그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되었다. 품사 교육의 주안점이라고 한다면, 첫째가 품사의 정의일 터이고, 둘째가 품사의 분류일 것이며, 셋째가 품사 통용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통일안에서 한자어를 기반으로 하여 품사의 용어를 정하고, 그 체계를 9 품사로 정했으니, 품사의 정의는 용어에 따라 일괄적으로 기술되었고, 품사의 분류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¹⁾ 이처럼 품사 교육의 두 가지 주안점을 통일된 내용으로 가르치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적어도 품사에 관한 만큼은 균질한 내용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세 번째 주안점으로 거론한 품사 통용이다. 통일안에서는 품사 통용에 대해 마땅히 논의된 바가 없었고, 교과서마다 이를 다룸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즉 품사 통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는 관계로, 통일된 품사 교육 속 품사 통용만이 유일한 차별점이 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교문법통일안> 이후의 문법 교과서를 대상으로 품사 통용 교육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 문법의 시대 구분과 이에 따른 문법 교과서의 목록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관규(2023)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되, 『역대한국문법체계(Ⅱ)』와의 상호 검토를 통해 본문에서 다시 제시하기로 한다. 나아가 각 문법 교과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품사 통용의 교육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그 전개 양상과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기초 논의 및 연구 대상

1) <학교문법통일안>이 공포된 이후에도 교과서마다 완전한 내용의 일치로 이룬 것은 아니었다. 최현배(1967/1968)에서는 그의 앞선 저서들과 마찬가지로 ‘잡음씨’를 별도로 설정하여 10 품사 체계를 유지하였고, 허웅(1968)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지정사’를 따로 두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다면, 대개 해당 지침에 따라 교과서가 집필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품사 통용은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을 뜻한다. 품사 통용이라는 말은 홍기문(1927)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형용(2016: 297-299)에서는 안확(1917)에서 이미 품사 통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품사 통용을 정의함에 있어, 안확(1917)과 홍기문(1927)을 모두 참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 안확(1917)에서의 품사 통용²⁾

- ㄱ. 었던, 한, 어느, 무슨, 뉘
우(右)는 형용사(形容詞)와 통용(通用)
- ㄴ. 더, 배, 번, 갑절, 윈
우(右)는 부사(副詞)와 통용(通用)

(2) 홍기문(1927)에서의 품사 통용

同一한 말이 이 品詞 저 品詞로 通用될 境遇가 있다. 이런 때는 文章構造上 그의 任務를 보살피어 分간할 수박게 업다.

이처럼 안확(1917)에서는 그 사례를 간략히 제시하고 있으며, 홍기문(1927)에서는 짧은 서술을 통해 품사 통용을 언급한다. 품사 통용을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으로 정의하는 것은 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같은 현상에 대한 다른 견해로 품사 전성이 있다. 최형용(2016: 293-297)에서는 품사 통용이 다의적 해석인 것과 달리, 품사 전성은 동음이의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³⁾ 품사 전성에 대한 논의는 최현배(1937)가 대표적이며,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씨의 몸바꿈’, 즉 품사 전성으로 설명한다.

(3) 최현배(1937)에서의 품사 전성

- ㄱ. 이미 이루어 진 씨 또는 씨줄기(語幹)가, 다른 아무것을 더하지 아니하고, 그 본형(本形) 그대로, 다른 씨줄기 또는 다른 씨로 몸바꾸는(轉成하는) 것이니: 이는 곧 쓰힘(用法)이 달라짐에 말미암음이다.
- ㄴ. 이미 이루어 진 씨 또는 씨줄기(語幹)에 씨가지를 더하여서(더러는 규칙적으로, 더러는 불규칙적으로) 다른 씨로 몸바꾸는 것이니: 이는 곧 그 꼴(形式)이 달라짐에 말미암음이다.
- ㄷ. 이미 이루어 진 씨 또는 씨줄기(語幹)가, 다른 이미 이루어 진 씨 또는 씨줄기하고 어울려서, 그 본대 어우른 씨들과는 다른 씨로 몸바꾸는 것이니: 이는 대개 그 뜻(意義)의 달라짐에 말미암음이다.

‘몸바꿈(轉成)’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품사 전성이란 곧 방향성을 갖는 개념이다. 예컨대 동일한 형태의 두 단어가 서로 다른 품사로 쓰인다면, 이는 기준이 되는 품사가 다른 품사로 전성한 결과라는 뜻이다. 반면 품사 통용은 동일한 두 형태를 하나의 단어로 간주한다. 이러한 점에서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을 흔히 방향성의 유무에 차이가 있다고 쉽게 구분한다.⁴⁾ 다만 이 두 개념을 같은 층위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3)의 내용을 보면, (3ㄴ)은 ‘씨 또는 씨줄기’에 ‘씨가지’를 더하는 것이므로, 파생에 대한 얘기이다. 또한 (3ㄷ)은 서로 다른 ‘씨 또는 씨줄기’들이 어울리는 것이므로, 합성에 대한 얘기이다. 품사 통용은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에 대한 개념이니, 애초에 (3ㄴ)과 (3ㄷ)은 그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파생과 합성은 형태가 변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즉 (3ㄱ)에서 말하는 ‘본형 그대로의 몸바꿈’만 품사 통용과 견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은 같은 층위에 놓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을 품사 통용 혹은 품사 전성 중 (3ㄱ)으로 해석하는 차이가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

2) 안확(1917)의 형용사는 현대 문법의 관형사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3) 다의적 해석은 동일한 두 형태를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는 것이다. 사전에서 다의어를 다룰 때, 하나의 단어 아래 여러 뜻풀이를 기술하는 방식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동음이의적 해석은 동일한 두 형태라도 품사가 다르니, 서로 다른 단어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역시 사전에서 동음이의어를 다루는 방식과 같은 맥락이다.
 4) 김호중(2014: 7)에서 품사 통용을 [-방향성], 품사 전성을 [+방향성]으로 구분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

물론 같은 현상을 두고 품사 통용을 취하는 입장과 품사 전성을 취하는 입장이 대립되는 것은 사실이다. 두 개념 모두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부분이 있으며, 동시에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학문 문법 차원에서는 학자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음이 당연하다. 다만 학교 문법은 기술이 아닌 규범에 가까운 것이므로, 여기에 두 개념을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다. 결국 학교 문법에서는 이 중 품사 통용이라는 개념 및 용어를 택하였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예들을 그 사례로 든다.

(4) 남기심·고영근 외(2019)에서의 품사 통용

- ㄱ.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명사> / 나도 그 사람만큼 떨 수 있다. <조사>
- ㄴ. 그 애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수사> /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 ㄷ.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형용사> / 벌써 날이 밝는다. <동사>
- ㄹ. 바람이 정말 많이 분다. <부사> / 정말! 큰일 났네. <감탄사>

만약 품사 전성으로 위의 예를 풀이한다면, 서로 다른 두 품사 사이의 전성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다만 최현배(1937: 721)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형 그대로 몸바꾸는 경우에는 변화 이전의 것과 변화 이후의 것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교육적으로 명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학교 문법에서는 품사 전성이 아닌 품사 통용이 쓰이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품사 통용은 학교 문법의 용어이다. 이에 따라 그 연구는 교육과 밀접하게 이루어졌다. 최형기(2011), 김한샘(2014), 엄혜성·오현아(2016), 김은진(2017), 안양(2020), 양세희(2021) 등이 최근 품사 통용에 관한 교육적 연구들이다. 이들은 모두 품사 통용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며, 주로 공식적 관점에 품사 통용의 교육을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품사 통용 교육에 대한 통시적 논의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품사 통용 교육을 통시적 관점에서 논한다는 것은 결국 과거의 문법 교과서를 검토하고, 그 안에서 품사 통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피는 작업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 문법의 시대를 구분하고, 연구 대상이 될 문법 교과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학교 문법의 시대 구분과 문법 교과서의 목록 모두 이관규(2023)를 참고한다. 먼저, 이관규(2023: 36-37)에서는 학교 문법의 시대를 4단계, 세부적으로는 총 8기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5) 이관규(2023)의 학교 문법 시대 구분

- 제1단계 혼성 단계(1895-1949)
 - 제1기 발아기(1895-1910)
 - 제2기 자성기(1910-1945)
 - 제3기 부흥기(1945-1949)
- 제2단계 김인정 단계(1949-1985)
 - 제4기 김인정기(1949-1966)
 - 제5기 통일 문법 김인정기(1966-1985)
- 제3단계 국정 단계(1985-2012)
 - 제6기 국정 1기(1985-1996)
 - 제7기 국정 2기(1996-2012)
- 제4단계 통합 김인정 단계(2012-현재)
 - 제8기 통합 김인정기(2012-현재)

또한 이 연구에서는 위의 시대 구분 중 제5기에 해당하는 통일 문법 김인정기 이후의 문법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통일 문법 김인정기는 1963년 문교부의 <학교문법통일안>이 공포된 시기이며, 이 시기 이후에 나오는 문법 교과서의 내용은 통일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교문법통일안> 이후의 문법 교과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통일안의 주된 내용이 품사와 관련된다는 점에 있다. 통일안에서는 학교마다 문법 체계가 전혀 다른 교과서로 수업하는 것을 학교 문법의 저해 요인으로 보고, 이를 혁신하기 위해 체계의 일원화를 주장한다. 이때 일원화의 핵심 대상은 품사였으

며, 품사의 용어를 한자어로 통일시키고, 그 체계 또한 9 품사로 통일시킨다. 다음은 품사의 용어와 체계에 대한 통일안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A	B	C	D	E	F	G	H	통일안
이름씨				명사	명사	명사		명사
대이름씨	인자씨	이름씨	이름씨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	명사	대명사
셈씨				대명사	수사	대명사		수사
토씨 (잡음씨)	(토)	것씨 (이음씨) (뻗음씨)	토씨	조사	(어미)	(토)	(토)	조사
움직씨		움직씨	움직씨	동사	동사	동사	동사	동사
그림씨	풀이씨	그림씨	그림씨	형용사 존재사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잡음씨 (끝)	(토)	(것씨) (이음씨) 뻗음씨	토씨 (끝)	(어미)	(어미)	(토)	(토) (어미)	(어미)
매김씨	매김씨	매김씨	매김씨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어찌씨	어찌씨	어찌씨	어찌씨	부사 접속사	부사	부사	부사 접속사	부사
느낌씨	느낌씨	느낌씨	느낌씨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10개	5개	9개	8개	10개	8개	7개	7개	9개

〈그림 1〉 문법서별 품사 분류 차이와 통일안⁵⁾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문법통일안〉에서는 당시 쓰이던 8종의 문법서를 참고하여 품사의 용어와 체계에 대한 통일안을 마련하였다.⁶⁾ 나아가 〈학교문법통일안〉 이후의 문법 교과서들은 위의 통일된 내용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품사와 관련해서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품사 통용이다.

품사를 교육할 때 주안점으로 두는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품사의 정의이고, 둘째는 품사의 분류이며, 셋째가 바로 품사 통용이다. 물론 품사 통용을 포함시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품사 통용이 품사 분류의 예외 사항임을 고려한다면, 크게 틀린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 앞서 통일안을 통해 품사의 용어와 체계에 대한 지침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품사를 정의하는 방식과 품사를 분류하는 방식도 이에 따라 통일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품사 교육의 주안점으로 보는 두 가지가 통일안 이후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큰 차이 없이 다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마지막 주안점으로 보는 품사 통용은 그 내용을 통일안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이에 한해서는 통일안 이후의 문법 교과서라도 서로 차이가 있을 듯하다. 만약 품사 통용을 다루는 방식이 교과서마다 상이하고, 그 전개 양상에 특기할 부분이 있다면, 이는 분석할 가치가 있

5) 문교부(1963), 「학교 문법의 통일에 대하여」, 『편수 자료』 제5집, 6쪽.

6) 그림에서는 참고된 문법서 8종을 A~H로 나타내었는데, 정확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최현배(1956), 『중등 말본』 / 『고등 말본』

B: 장하일(1956), 『표준 말본』

C: 김윤경(1957), 『중등 나라 말본』 / 『고등 나라 말본』

D: 정인승(1956), 『표준 중등 말본』 / 『표준 고등 말본』

E: 이희승(1956), 『새 중등 문법』 / 『새 고등 문법』

F: 이승녕(1956), 『중등 국어 문법』 / 『고등 국어 문법』

G: 최태호(1956), 『중학 말본』

H: 김민수·남광우·유창돈·허웅(1960), 『새 중학 문법』 / 『새 고교 문법』

어 보인다.

위의 논의에 근거를 두어 여기에서는 시대 구분상 제5기에 해당하는 통일 문법 검인정기 이후의 문법 교과서, 즉 <학교문법통일안> 이후의 문법 교과서를 대상으로 품사 통용 교육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이때의 교과서 목록도 이관규(2023)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분류상에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목록을 『역대한국문법대계(Ⅱ)』와 상호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제시하는 바이다.

〈표 1〉 <학교문법통일안> 이후의 문법 교과서 목록

단계	번호	저자명	교과서명	출간연도	비고
통일 문법 검인정기 (1966-1985)	1	남광우, 유창동, 이웅백	중학문법	1966	역대 1(46)
	2	양주동, 유목상	새중등 국어문법	1966	역대 1(46)
	3	이명권, 이병호	중학교 새 국어 문법	1966	역대 1(47)
	4	이원구, 이은문	표준 중등 문법	1966	역대 1(47)
	5	이희승	새 중등 문법	1966	역대 1(48)
	6	전학진	모범 중등문법	1966	역대 1(48)
	7	허웅	표준문법	1966	역대 1(49)
	8	김민수, 이기문	표준 중학문법	1967	역대 1(49)
	9	김형규	중등문법	1967	역대 1(50)
	10	문덕수, 김윤식	중학문법	1967	역대 1(50)
	11	이승녕	중학 국어문법	1967	역대 1(51)
	12	이용주, 구인환	중학교 국어문법	1967	역대 1(51)
	13	이은정, 한인석	중학 표준문법	1967	역대 1(52)
	14	이을환, 이응호, 이인섭	중학문법	1967	역대 1(52)
	15	최현배	새로운 중학말본	1967	역대 1(53)
	16	정인승	표준 중학말본	1967	역대 1(53)
	17	강복수, 유창균	문법	1968	역대 1(54)
	18	강윤희	정수 문법	1968	역대 1(54)
	19	양주동, 유목상	새 문법	1968	역대 1(55)
	20	이명권, 이길록	문법	1968	역대 1(55)
	21	이승녕	문법	1968	역대 1(56)
	22	이을환	최신 문법	1968	역대 1(56)
	23	이은정	우리문법	1968	역대 1(57)
	24	이인모	새문법	1968	역대 1(57)
	25	이희승	새문법	1968	역대 1(58)
	26	정인승	표준 문법	1968	역대 1(58)
	27	최현배	새로운 말본	1968	역대 1(59)
	28	허웅	표준문법	1968	역대 1(59)
	29	김민수, 이기문	표준 문법	1968	역대 1(59)
	30	김완진, 이병근	문법	1979	역대 1(60)
	31	김민수	문법	1979	역대 1(61)
	32	이길록, 이철수	문법	1979	역대 1(62)
	33	허웅	문법	1979	역대 1(63)
	34	이웅백, 안병희	문법	1979	역대 1(64)
국정 1기 (1985-1996)	3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문법	1985	역대 1(66)
	3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문법	1991	역대 1(67)
국정 2기 (1996-2012)	3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문법	1996	역대 1(68)
	3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문법	2002	역대 1(69)
통합 검인정기 (2012-현재)	39	박영목 외	독서와 문법 I	2012	천재교육
	40	윤여탁 외	독서와 문법 I	2012	미래엔
	41	이남호 외	독서와 문법 I	2012	비상교육
	42	이삼형 외	독서와 문법 I	2012	지학사

	43	박영목 외	독서와 문법	2014	천재교육
	44	윤여탁 외	독서와 문법	2014	미래엔
	45	이관규 외	독서와 문법	2014	비상교육
	46	이도영 외	독서와 문법	2014	창비
	47	이삼형 외	독서와 문법	2014	지학사
	48	한철우 외	독서와 문법	2014	교학사
	49	민현식 외	언어와 매체	2019	천재교육
	50	방민호 외	언어와 매체	2019	미래엔
	51	이관규 외	언어와 매체	2019	비상교육
	52	이삼형 외	언어와 매체	2019	지학사
	53	최형용 외	언어와 매체	2019	창비

이상 제시된 교과서 목록을 토대로 품사 통용의 교육 방식을 검토하고, 그 전개 양상을 살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3. 품사 통용 교육의 전개 양상

주지하다시피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에는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의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⁷⁾ 파생 혹은 합성에 의한 품사 전성은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이때의 품사 전성이란 본형 그대로 몸을 바꾸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된다. <학교문법통일안>에서 품사 통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으니, 해당 시기와 그 이후의 교과서들에서는 이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장에서는 <학교문법통일안> 이후의 문법 교과서를 대상으로 품사 통용(혹은 품사 전성)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 전개 양상을 살펴보겠다.

3.1. 통일 문법 검인정기(1966-1985)

검인정 단계는 여러 학자의 문법서가 국가의 인정을 받고 교과서로 사용되던 시기이다. 검인정 단계는 크게 검인정기(1949-1966)와 통일 문법 검인정기(1966-1985)로 나뉘는데, 두 시기를 나누는 기점이 바로 <학교문법통일안>의 공포이다. 검인정기는 학자의 주관적인 문법 이론을 담은 문법서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게 선택되던 시기라면, 통일 문법 검인정기는 통일안에 따라 일원화된 문법 이론이 교과서에 담기게 되었다. 통일 문법 검인정기의 문법 교과서는 출간연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1966년과 1967년에는 16종의 중학교 문법 교과서가 출간되었고, 1968년에는 13종의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가 출간되었다. 이렇게 총 29종의 문법 교과서가 출간된 시기를 제1차 통일 문법 검인정기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1979년에는 중등 문법과 고등 문법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만을 검인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5종의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가 집필되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를 제2차 통일 문법 검인정기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상 34종이 통일 문법 검인정기의 문법 교과서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확인된 품사 통용의 교육 방식과 그 전개 양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

7)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두 견해 중 품사 통용을 수용하고 있으니, 논문의 제목을 포함하여 해당 현상을 지칭할 때는 그 용어를 품사 통용으로 한다.

8) 본문에서는 교과서별 품사 통용의 교육 양상을 ‘교육 사례’와 ‘교육 유형’의 두 가지로 제시한다. 문법 교과서에 실린 모든 내용을 다 옮기기 어려우니, 편의상 그 사례만을 따로 정리하며, 그 교육이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 중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같이 밝힌다. 나아가 해당 현상을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 중 어떠한 관점으로 설명하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다만 두 용어 모두 사용되지 않아, 그 판단이 어려울 때는 ‘?’로 표시한다.

〈표 2〉 통일 문법 검인정기 문법 교과서에서의 품사 통용

번호	교과서	교육 사례	교육 유형	관점
1	남광우, 유창동, 이웅백(1966)	이, 그, 저(대명사-관형사)	내용	?
2	양주동, 유목상(1966)	이, 그, 저(대명사-관형사) 다섯, 여섯, 일곱(수사-관형사)	내용	?
3	이명권, 이병호(1966)	없음	-	-
4	이원구, 이은문(1966)	한, 열(수사-관형사)	내용	?
5	이희승(1966)	없음	-	-
6	전학진(1966)	없음	-	-
7	허웅(1966)	없음	-	-
8	김민수, 이기문(1967)	없음	-	-
9	김형규(1967)	다섯(수사-관형사)	내용	?
10	문덕수, 김윤식(1967)	만큼, 대로(명사-조사)	내용	?
11	이승녕(1967)	다섯, 여섯(수사→관형사) 아니(부사→감탄사)	내용	전성
12	이용주, 구인환(1967)	이, 그(대명사-관형사) 열(수사-관형사)	내용	?
13	이은정, 한인석(1967)	그(관형사→대명사) 이리(대명사→부사) 여섯(수사→관형사) 서로(부사→명사)	내용	전성
14	이을환, 이응호, 이인섭(1967)	모두(부사→명사) 그(관형사→대명사) 지적(명사→관형사) 아니(부사→감탄사) 허허(감탄사→부사)	내용	전성
15	최현배(1967)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수사-관형사)	내용	?
16	정인승(1967)	오늘(명사→부사) 열, 백, 몇(수사→관형사) 이, 그(관형사→대명사) 모두(부사→명사) 바로(부사→관형사) 보다(조사→부사) 후유(감탄사→부사)	내용	전성
17	강복수, 유창균(1968)	다, 서로(부사→명사)	내용	전성
18	강운호(1968)	다, 서로, 모두(부사→명사) 소인, 저(명사→대명사) 이(관형사→대명사) 아침(명사→관형사) 그(대명사→관형사) 다섯, 열, 첫째, 둘째(수사→관형사) 지금(명사→부사) 허허(감탄사→부사) 아주, 아니(부사→감탄사)	내용/활동	전성
19	양주동, 유목상(1968)	그(대명사→관형사) 모두(부사→명사) 아니(부사→감탄사)	내용/활동	전성
20	이명권, 이길록(1968)	여기(대명사→부사) 이, 그, 저(관형사→대명사) 다, 서로(부사→명사) 소인, 군, 신(명사→대명사) 이지적, 몇(명사→관형사) 다섯, 여섯(수사→관형사) 오늘, 참말, 정말(명사→부사) 허허(감탄사→부사) 만세(명사→감탄사) 아주, 아니(부사→감탄사)	내용/활동	전성

21	이승녕(1968)	아니(부사→감탄사) 지금(명사→부사) 이(대명사→관형사) 제일(수사→부사) 대로, 만(명사→조사)	내용/활동	전성
22	이을환(1968)	서로(부사→명사) 소인(명사→대명사) 이, 그(관형사→대명사) 허허(감탄사→부사) 만세(명사→감탄사)	내용/활동	전성
23	이은정(1968)	여덟(수사→관형사) 지금(명사→부사)	내용/활동	전성
24	이인모(1968)	서로(부사→명사) 이(관형사→대명사) 크다(형용사→동사) 참(명사→부사) 하하(부사→감탄사)	내용/활동	전성
25	이희승(1968)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어제, 그저께, 우연히, 유쾌히, 다정히, 정말로, 실로, 처음(명사→부사) 저(관형사→명사)	내용/활동	전성
26	정인승(1968)	앞(명사→관형사) 처음(명사→부사) 나(대명사→명사) 오늘(대명사→부사) 열, 백, 첫째, 둘째(수사→관형사) 이, 그(관형사→대명사) 헛, 참(관형사→부사) 모두(부사→명사) 바로(부사→관형사) 보다, 마는(조사→부사) 후유(감탄사→관형사) 하하(감탄사→부사)	내용/활동	전성
27	최현배(1968)	다, 서로(부사→명사) 군(명사→대명사) 이, 그(관형사→대명사) 다섯, 여섯, 일곱, 여덟(수사→관형사) 오늘, 자연(명사→부사) 어디, 거기(대명사→부사) 셋, 첫째(수사→부사) 허허(감탄사→부사) 만세(명사→감탄사) 아니(부사→감탄사)	내용/활동	전성
28	허웅(1968)	이, 그, 저(대명사-관형사)	내용	?
29	김민수, 이기문(1968)	없음	-	-
30	김완진, 이병근(1979)	크다, 밝다, 붉다, 맛다(형용사→동사) 오늘, 정말(명사→부사) 그, 아무(관형사→대명사)	내용/활동	전성
31	김민수(1979)	없음	-	-
32	이길록, 이철수(1979)	여기(대명사→부사) 이, 그, 저(관형사→대명사) 다, 서로(부사→명사) 소인, 군, 신(명사→대명사) 이지적, 몇(명사→관형사) 다섯, 여섯(수사→관형사) 오늘, 참말, 정말(명사→부사) 허허(감탄사→부사) 만세(명사→감탄사) 아주, 아니(부사→감탄사)	내용/활동	전성

33	허웅(1979)	없음	-	-
34	이응백, 안병희(1979)	대로, 만큼, 뿐(명사-조사)	내용	?

통일 문법 검인정기의 문법 교과서에서 확인되는 품사 통용의 교육 방식은 출간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우선, 1966년 출간된 중학교 문법 교과서 7종(1~7)에서는 품사 통용 혹은 품사 전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몇 가지 단어를 통해 '대명사-관형사' 통용, '수사-관형사' 통용 정도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로 관형사 단원에서의 주의 사항 정도로 학습 내용상에 언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은 없다. 이마저도 7종 중 3종(1, 2, 4)에서만 확인되는 것이니, 이 시기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품사 통용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967년 출간된 중학교 문법 교과서 9종(8~16)에서는 그 비중이 좀 더 늘어난다. 단 1종(8)을 제외한 모든 문법 교과서에서 품사 통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사례도 보다 많이 소개된다. 또한 대부분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해당 현상을 품사 통용이 아닌 품사 전성으로 설명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후술하겠지만 통일 문법 검인정기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품사 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 판단 자체가 모호한 경우만 있을 뿐이며, 품사 통용의 용어가 등장하는 시기는 국정 단계부터이다.

한편, 1968년 출간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13종(17~29)에서는 앞선 교육 방식이 그대로 이어진다. 단 1종(29)을 제외하고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그 사례도 더 다양해졌다. 중학교 문법 교과서와 달리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품사 전성을 별도의 단원으로 다루고 있고(28 제외), 이처럼 별도의 단원을 할애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단원마다 학습 활동을 연습 문제의 형식으로 두다 보니, 앞선 시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던 학습 활동도 확인된다. 다만 그 활동은 대개 “품사 전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정도의 수준이었으므로, 여전히 관련 교육은 학습 내용을 주된 방식으로 행해졌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1979년에 출간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5종(30~34)이 있다. 이 시기에는 문법 교육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만 실시되었다. 문법 교과서 역시 중등 문법과 고등 문법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집필되었고, 그 결과 교과서마다 품사 통용 교육의 양적·질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문법 교과서 5종 중 31, 34에서는 관련 교육이 완전히 배제되었고, 34에서는 이를 다루되, '명사-조사' 통용의 사례만 소개하였다. 나머지 30, 32에서는 여전히 품사 전성을 별도의 단원으로 다루었으며, 그 방식은 1968년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통일 문법 검인정기의 품사 통용 교육에서는 '명사-부사' 통용(19회)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다음으로는 '대명사-관형사' 통용(18회), '수사-관형사' 통용(14회), '부사-감탄사' 통용(14회)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 '명사-부사' 통용의 사례는 '오늘, 참말, 정말, 처음, 자연, 참, 지금, 내일, 모래, 글피, 어제, 그저께, 다, 서로, 모두' 등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이 중 '다, 서로, 모두' 정도만 그 기본 품사를 부사로 보고 있다. '대명사-관형사' 통용어의 사례는 모든 교과서에서 '이, 그, 저'를 제시하고, 김완진·이병근(1979)에서만 '아무'가 추가로 제시된다. 이때 '이, 그, 저'의 기본 품사는 교과서마다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수사-관형사' 통용어 사례는 '다섯~열'과 '백' 정도가 있고, 정인승(1967)에서만 '몇'이 추가로 제시된다. 이들의 기본 품사는 모든 문법 교과서에서 수사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사-감탄사' 통용의 사례는 '아주, 아니, 허허(하하), 후유' 정도가 확인되고, '아주, 아니'는 부사, '허허(하하), 후유'는 감탄사의 기본 품사를 갖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3.2. 국정 1기(1985-1996)

통일 문법 검인정기 이후 학교 문법 교과서가 국정으로 집필되는 국정 단계로 접어든다. 국정 단계는 크게 국정 1기(1985-1996)와 국정 2기(1996-2012)로 나뉘는데, 국정 1기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국정 2기에서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가 각각 집필을 맡았다. 문법 교과서의 국정화가 거론된 이유는 <학교문법통일안>의 응용적 한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문법통일안>에서는 품사를 포함한 문법 용어와 품사 체계에 대한 지침만 주었으며, 따라서 이를

응용함에 교수·학습상의 한계가 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문교부는 당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 의뢰하여 「學校文法 體系統一을 위한 研究」(1982)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품사 용어 및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그 세부적인 내용의 일원화가 논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 교과서의 심의본(1984)을 내어 심의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첫 국정 문법 교과서인 『문법』(1985)을 출간한다. 이후 총 3종의 국정 문법 교과서가 추가로 출간되었으며, 앞의 두 권이 국정 1기 문법 교과서로, 뒤의 두 권이 국정 2기 문법 교과서로 구분된다. 우선, 국정 1기 문법 교과서에서 확인된 품사 통용의 교육 방식과 그 전개 양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국정 1기 문법 교과서에서의 품사 통용

번호	교과서	교육 사례	교육 유형	관점
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85)	없음.	-	-
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91)	없음.	-	-

국정 1기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품사 통용에 관한 교육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통일 문법 검인정기에서는 문법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 품사 전성으로써 관련된 교육을 하였다. 반면 국정 1기에 와서는 그 내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다만 처음부터 품사 통용 교육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첫 국정 문법 교과서가 출간되기 전, 심의본(1984)에서는 품사 통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법』 심의본(1984) 목차	『문법』(1985) 목차
I. 총론 II. 국어의 구조 III. 단어 1. 문장과 단어 2. 품사 (1) 명사, 대명사, 수사 (2) 조사 (3) 동사, 형용사 (4) 관형사, 부사, 감탄사 (5) 품사의 통용 IV. 문장 V. 말의 소리	I. 총설 II. 단어 1. 문장과 단어 2. 품사 (1) 명사, 대명사, 수사 (2) 조사 (3) 동사, 형용사 (4) 관형사, 부사, 감탄사 3. 단어의 형성 III. 문장 IV. 말소리 부록

〈그림 2〉 『문법』 심의본(1984)과 『문법』(1985)의 목차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심의본(1984)에서는 품사 영역의 세부 단원으로 ‘품사의 통용’을 따로 두어, 이를 교육하도록 설계되었다. 통일 문법 검인정기에서는 해당 현상을 품사 전성으로 해석하거나, 별도의 용어 없이 사례만 들었으므로, 〈학교문법통일안〉 이후 품사 통용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이 심의본(1984)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심의본(1984)에 포함된 품사 통용이 왜 『문법』(1985)에서 사라졌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마땅한 설명은 없으므로, 어디까지나 짐작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지만, 예상하건대 품사 통용이 당시 국정 문법 교과서의 집필 방향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신항 외(1982)에서는 국정 문법 교과서를 집필하기 전에 몇 가지 서술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중 문법의 세부적 지식의 서술을 지양하고, 설명보다는 연습 문제 위주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품사 통용은 품사 분류의 예외적 사항이므로, 서술 방법상 세부적 지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나 추측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 문제와 같은 학습 활동의 영역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일절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결국 국정 1기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품사 통용에 대한 교육이 배제되었고, 품사 통용 교육의 공백기가 생기게 된다.

3.3. 국정 2기(1996-2012)

다음으로, 국정 2기 문법 교과서에서 확인된 품사 통용의 교육 방식과 그 전개 양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국정 2기 문법 교과서 목록에서의 품사 통용

번호	교과서	교육 사례	교육 유형	관점
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6)	이(대명사-관형사) 다섯(수사-관형사) 여기, 지금(대명사-부사) 크다(동사-형용사) 만큼(조사-명사) 같이(조사-부사)	활동	통용
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이(대명사-관형사) 다섯(수사-관형사) 여기(대명사-부사)	활동	통용

국정 2기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국정 1기와 달리 품사 통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때의 교육 방식은 문법 교과서 2종에서 모두 학습 활동을 매개로 한다. 학습 내용에서는 해당 현상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고,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에 대한 용어도 사용되지 않는다. 앞에서는 통일 문법 검인정기의 문법 교과서 중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의 용어가 모두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이에 대한 판단 자체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국정 단계의 교과서부터는 앞선 시기와 다르게 교사용 지도서가 함께 출간되었고, 이 교사용 지도서에서 품사 통용의 이론적인 설명을 첨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문법 교과서에서 품사 통용의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아도, 교사용 지도서에서 품사 통용으로 가르칠 것을 전제하고 있으니, 해당 현상에 대해 품사 통용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나아가 이때의 교육은 학습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일 문법 검인정기에서는 학습 내용 중심으로 품사 통용 교육이 행해졌다면, 국정 2기에서는 학습 활동 중심으로 품사 통용 교육이 행해진 것이다. 물론 앞선 시기에도 관련된 학습 활동은 있었으나, 이미 언급한 대로 그 당시의 학습 활동은 학습 내용의 부수적인 과정이 지나지 않았다. 반면 이 시기의 활동은 좀 더 탐구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강신항 외(1982)에서 강조한 연습 문제 위주의 체계가 반영된 결과라 봐도 좋을 듯하다. 품사 통용에 관한 학습 활동은 『고등학교 문법』(1996)에서 두 문제, 『고등학교 문법』(2002)에서 한 문제가 확인되는데,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문법』(1996) 학습 활동	『고등학교 문법』(2002) 학습 활동
<p>3. 다음에 사용된 ‘이(此), 다섯(五)’의 품사는 무엇인지 알아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곧 우리가 추구하던 바 그대로이다. • 이 나무는 자란 모양새가 아주 좋다. •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다. • 야구를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모였다. <p>4. 다음 단어는 각각 다른 품사로 쓰일 수 있다. 다른 품사로 사용된 문장을 보기로 들어 구별해 보자. [여기, 지금, 크다, 만큼, 같이]</p>	<p>2. 다음과 같이 쓰임에 따라 품사를 달리하는 단어들을 모둠별로 탐구하여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우리가 생각하던 바입니다. • 이 나무는 모양새가 아주 좋군요. •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어요. • 야구를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모였어요. • 여기에 물건을 놓아라. • 물건을 여기 놓아라. <p>2.1. 각각의 품사를 이야기하여 보자. 2.2.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는 근거를 수집하여 보자. 2.3.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는 근거를 수집하여 보자.</p>

〈그림 3〉 『고등학교 문법』(1996)과 『고등학교 문법』(2002)의 품사 통용 학습 활동

품사 통용에 대한 사례나 학습 활동의 양적인 면을 놓고 비교해 보면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학습 활동의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발전된 모습이 보인다. 즉 『고등학교 문법』(2002)에서는 품사 통용의 다양한 사례를 다루지 못하였으나, 좀 더 주도적인 탐구 활동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와 별개로 『고등학교 문법』(1996)에서는 총 6개의 품사 통용 유형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고, 『고등학교 문법』(2002)에서는 이 중 ‘이(대명사-관형사)’, ‘다섯(수사-관형사)’, ‘여기(대명사-부사)’의 사례만 유지하고 있다. 분석 대상이 단 두 교과서에 그치므로, 그 양상을 분석하기 난감한 면이 있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는 통일 문법 검인정기와 마찬가지로 ‘대명사-관형사’ 통용, ‘수사-관형사’ 통용이 중요하게 다루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일 문법 검인정기에서는 이은정·한인석(1967), 이명권·이길록(1968), 최현배(1968), 이길록·이철수(1979)에서만 언급하는 ‘대명사-부사’ 통용을 위의 두 문법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3.4. 통합 검인정기(2012-현재)

국정 단계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등장으로 문법은 『독서와 문법 I·II』(2012)이라는 이름의 통합 과목에 포함되었으며, 품사는 이 중 『독서와 문법 I』(2012)을 통해 교육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위의 I, II를 합친 『독서와 문법』(2014)이 나왔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와 매체』(2019)가 문법 교과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문법이 통합 과목의 교과서에 포함된 시기가 통합 검인정기이다. 이 시기의 문법 교과서에서 확인된 품사 통용의 교육 방식과 그 전개 양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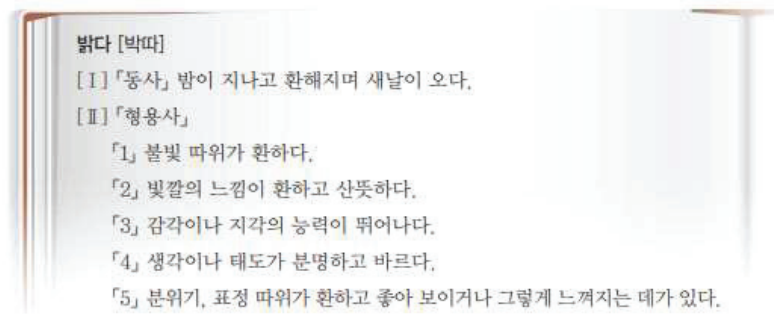
〈표 5〉 통합 검인정기 문법 교과서 목록에서의 품사 통용

번호	교과서	교육 사례	교육 유형	관점
1	박영목 외(2012)	이(대명사-관형사)	활동	통용
2	윤여탁 외(2012)	만큼, 대로(명사-조사)	활동	통용
3	이남호 외(2012)	새(명사-관형사) 바로(부사-관형사)	활동	통용
4	이삼형 외(2012)	크다(동사-형용사) 바로(부사-관형사)	활동	통용
5	박영목 외(2014)	만큼(명사-조사) 있다(동사-형용사) 여기(대명사-부사) 하하(부사-감탄사)	활동	통용
6	윤여탁 외(2014)	오늘(명사-부사) 밝다(동사-형용사)	내용/활동	통용
7	이관규 외(2014)	새(명사-관형사) 자기(명사-대명사) 바로(부사-관형사)	내용/활동	통용
8	이도영 외(2014)	오늘(명사-부사) 내일(명사-부사) 일곱(수사-관형사) 뻘, 만큼, 대로(조사-명사) 아니(부사-감탄사)	내용/활동	통용
9	이삼형 외(2014)	만큼(명사-조사) 열(수사-관형사) 밝다(동사-형용사) 지적(명사-관형사) 바로(부사-관형사)	활동	통용
10	한철우 외(2014)	다섯(수사-관형사) 그(대명사-관형사) 밝다(동사-형용사)	활동	통용

11	민현식 외(2019)	오늘(명사-부사) 만큼, 뿐, 대로, 만(조사-명사) 밝다(형용사-동사) 만세(명사-감탄사) 아니(부사-감탄사) 정말(명사-부사-감탄사) 보다(부사-조사)	내용/활동	통용
12	방민호 외(2019)	이(대명사-관형사) 다섯(수사-관형사) 오늘(명사-부사)	활동	통용
13	이관규 외(2019)	오직(관형사-부사) 다만(관형사-부사) 이(대명사-관형사) 다섯(수사-관형사) 만큼(조사-명사)	활동	통용
14	이삼형 외(2019)	크다(동사-형용사) 만큼(명사-조사) 열(수사-관형사) 밝다(형용사-동사) 지적(명사-관형사)	활동	통용
15	최형용 외(2019)	첫째(수사-관형사) 모두, 오늘(명사-부사) 만큼(조사-명사)	내용/활동	통용

통합 검인정기의 모든 문법 교과서에서는 품사 통용을 다루고 있다. 그 방식은 국정 2기와 큰 차이 없이 학습 활동 위주이며, 5종(6, 7, 8, 11, 15)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학습 내용에서도 품사 통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 시기의 문법 교과서에서 확인되는 품사 통용 관련 학습 활동은 주로 사전을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정 2기와 비교하면 좀 더 언어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는 듯하다. 다음은 통합 검인정기 문법 교과서의 품사 통용 학습 활동의 예이다.

4 다음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한 단어가 여러 품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1) 이 국어사전의 내용을 활용하여,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분류해 보자.

- 벌써 새벽이 밝는다.
- 그는 유독 눈과 귀가 밝았다.
- 밤하늘을 보니 달이 휘영청 밝다.
- 벽지가 밝아서 집 안이 환하다.
- 그는 이튿날이 밝기도 전에 길을 떠났다.

(2) '밝다'처럼 한 단어가 여러 품사로 쓰이는 단어를 더 찾아보자.

<그림 4> 윤여탁 외(2014)에서의 품사 통용 학습 활동

통합 검인정기와 국정 2기의 품사 교육 방식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의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통일 문법 검인정기와 국정 1, 2기에서는 품사 통용 대신 품사 전성의 관점을 취하거나, 품사 통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학습 내용상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통합 검인정기에서는 품사 통용으로 해당 현상을 해석하며, 학습 내용에도 하나의 문법 용어로서 등장한다. 물론 본문에서 그 용어의 사용이 확인되는 교과서는 민현식 외(2019), 최형용 외(2019)의 두 종뿐이다.

민현식 외(2019: 63)	최형용 외(2019: 67)
<p>품사의 통용</p> <p>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처리되는 경우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품사의 통용에는 '오늘'과 같이 명사와 부사로 쓰이는 경우, '만큼'과 같이 의존명사와 조사로 쓰이는 경우, '밝다'와 같이 형용사와 동사로 쓰이는 경우, '만세'와 같이 명사와 감탄사로 쓰이는 경우, '아니'와 같이 부사와 감탄사로 쓰이는 경우, '정말'과 같이 명사, 부사, 감탄사로 쓰이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p>	<p>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는 일이 기본이지만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일도 있다. 이를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가 합심하여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다. <p>'모두가'의 '모두'는 격 조사와 결합하였다는 점과 그 의미로 보아 명사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모두 해결하였다'의 '모두'는 '빠짐없이'의 의미로 뒤에 오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임을 알 수 있다.</p>

〈그림 5〉 민현식 외(2019)와 최형용 외(2019)에서의 품사 통용 학습 내용

이 밖에도 윤여탁 외(2014), 이관규 외(2014)에서는 품사 통용의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지만, 학습 내용에 품사 통용의 사례를 함께 다루며, 한 단어에 여러 품사가 쓰일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이도영 외(2014)에서는 품사 통용이라는 말 대신 '여러 품사로 쓰임'이라는 순화된 표현을 학습 내용에 사용하여 해당 현상을 설명한다.

이와 별개로 통합 검인정기의 품사 통용 교육에서는 '명사-조사' 통용(8회)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다음으로는 '수사-관형사' 통용(7회), '동사-형용사' 통용(7회), '명사-부사' 통용(5회)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보면, '대명사-관형사' 통용의 사례는 덜 활용되고, '명사-조사' 통용과 '동사-형용사' 통용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또한 민현식 외(2019)에서는 '정말'과 같은 단어를 '명사-부사-감탄사' 통용의 사례로 분류하였는데, 이로써 세 품사 통용이 문법 교과서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학교문법통일안〉 이후의 문법 교과서들에서 확인되는 품사 통용 교육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문법 검인정기에서는 품사 전성으로 해당 현상을 설명하였고, 국정 1기의 공백기를 제외한다면, 국정 단계부터 품사 통용으로 해당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통일 문법 검인정기의 경우 1966년에는 그 교육이 미비했으나, 1967년부터 좀 더 활발히 교육되었고, 1968년 교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품사 전성의 단원을 별도로 두는 등 교육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1979년에는 중학 문법과 고등 문법이 통합되며, 문법 교과서마다 교육 정도의 큰 편차가 확인된다. 이후 국정 2기에서는 품사 전성 대신 품사 통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이에 대한 교육은 통합 검인정기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

둘째, 통일 문법 검인정기에서는 주로 학습 내용을 통해 품사 통용을 다뤘으며, 마찬가지로 국정 1기의 공백기를 제외한다면, 국정 단계부터 주로 학습 활동을 통해 품사 통용을 다루기 시작했다. 통일 문법 검인정기에서도 1968년과 1979년 문법 교과서를 통해 관련된 학습 활동이 확인되지

만, 이는 주된 교육 방식이 아니었다. 반면, 국정 2기에서부터 학습 활동을 통한 품사 통용 교육이 시작되었고, 통합 검정정기에는 이러한 방식이 사전 찾기와 연계되어 언어생활에 응용하는 탐구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참고문헌〉

1. 교과서(연도순)

- 김민수·고영근 외(2009), 『歷代韓國文法大系(Ⅱ)』 第1部 第46冊~第69冊, 박이정.
 박영목 외(2012), 『독서와 문법 1』, 천재교육.
 윤여탁 외(2012), 『독서와 문법 1』, 미래엔.
 이남호 외(2012), 『독서와 문법 1』, 비상교육.
 이삼형 외(2012), 『독서와 문법 1』, 지학사.
 박영목 외(2014), 『독서와 문법』, 천재교육.
 윤여탁 외(2014), 『독서와 문법』, 미래엔.
 이관규 외(2014),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이도영 외(2014), 『독서와 문법』, 창비.
 이삼형 외(2014), 『독서와 문법』, 지학사.
 한철우 외(2014), 『독서와 문법』, 교학사.
 민현식 외(2019),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방민호 외(2019), 『언어와 매체』, 미래엔.
 이관규 외(2019), 『언어와 매체』, 비상.
 이삼형 외(2019), 『언어와 매체』, 지학사.
 최형용 외(2019), 『언어와 매체』, 창비.

2. 단행본 및 논문

- 고영근(2001), 『역대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구분관(2010), 「국어 품사 분류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12(2), 형태론, 179-199쪽.
 김은진(2017), 「국어과 품사 통용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한샘(2014), 「품사 통용 교육 현황 분석 연구 - 문법 기술과 사전 정보의 분석을 기반으로 -」, 『새국어교육』 100, 한국국어교육학회, 249-284쪽.
 김호중(2014), 「국어 명사와 대명사, 명사와 수사의 품사 통용」,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기심·고영근 외(2019), 『새로 쓴 표준 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남수경(2011), 「품사 통용의 몇 가지 문제」, 『개신어문연구』 33, 개신어문학회, 105-127쪽.
 안 양(2020), 「중국어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품사 교육 방안 모색 : 한국어 '선행명사+하 다'류 용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 확(1917), 『수정 조선문법』, 유일서관(김민수·고영근 외, 『歷代韓國文法大系(Ⅰ)』 第1部 第9冊, 塔出版社).
 양세희(2021), 「문법화에 의한 품사 통용 교육을 위한 시론」, 『국어교육』 173, 한국어교육학회, 235-270쪽.
 엄혜성·오현아(2016), 「품사 통용어 교육을 위한 품사 개념 및 품사 통용어에 관한 학습자 인식 연구」, 『언어학연구』 40, 한국중원언어학회, 141-165쪽.
 이관규(2023), 『학교 문법론』, 월인.
 이광정(2003), 『국어문법연구 I』, 역락.
 이광정(2008), 『국어문법연구 III』, 역락.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김민수·고영근 외, 『歷代韓國文法大系(Ⅰ)』 第1部 第18冊, 塔出版社).
 최형기(2011), 「품사 통용을 이용한 국어 품사 교육 방안」, 『언어학』 19(3), 대한언어학회.

293-313쪽.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허원영·최대회(2022), 「통시적 관점에서의 품사 통용 연구 - 문법화 현상을 중심으로 -」, 『영주어문』 50, 영주어문학회, 137-172쪽.

허원영·최대회(2023), 「통시적 관점에서의 품사 통용 연구 2 - 역문법화 현상을 중심으로 -」, 『영주어문』 54, 영주어문학회, 165-190쪽.

허원영·최대회(2024), 「통시적 관점에서의 품사 통용 연구 3 - 세 품사 이상 통용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 『영주어문』 58, 영주어문학회, 119-143쪽.

홍기문(1927), 「조선문전요령」, 『현대평론』 1-5, 현대평론사(김민수·고영근 외, 『歷代韓國文法大系(I)』 第1部 第15册, 塔出版社).

홍기문(1946), 『조선문법연구』, 서울신문사(김민수·고영근 외, 『歷代韓國文法大系(I)』 第1部 第15册, 塔出版社).

“품사 통용 교육의 전개 양상 연구

- <학교문법통일안> 이후의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정수현(호서대학교)

이 연구는 <학교문법통일안> 이후의 문법 교과서를 대상으로 품사 통용 교육의 전개 양상을 검토하고,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에서 정리는 충분히 기술되고 있습니다만 ‘품사 통용’과 관련한 발표자의 의견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 듯합니다. 본래 발표문의 목적이 검토와 정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토론의 의무를 하기 위해 발표자의 의견에 덧붙이는 의견과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먼저 용어를 ‘품사 전성’이 아니라 ‘품사 통용’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내일, 만큼’ 등을 학교 문법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 쓰이는 용어가 품사 전성이 아니라 품사 통용을 쓴 데에 대해 설명하신 이유에 동의합니다. 품사 전성이라는 것은 단일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보이며, 품사 통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 듯합니다. 따라서 품사 전성이라는 용어는 동일 형태가 여러 품사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조금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2. 품사 통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품사 통용의 이유는 품사를 가르치는 형태, 기능, 의미 세 기준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는 언어 변화의 요인과도 같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인접성으로 인해 ‘아침’이 오전 반나절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먹는 끼니를 이르는 말로 다의어로 쓰입니다. 다음은 ‘오늘’, ‘내일’의 예시문입니다. ‘오늘, 내일’은 명사와 부사로 쓰이는 대표적인 예시일 것입니다.

예시 1) 오늘: 오늘은 날씨가 맑다.(명사)-오늘 끝냅시다.(부사)

예시 2) 내일: 내일은 중요한 날이다.(명사)-내일 시작합니다.(부사)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오늘, 내일’은 명사와 부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관련된 단어는 부사어로서의 쓰임이 확인되고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를 명사와 부사로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다의어 처리) 시간은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개념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는 많습니다.(부사어로 쓰인다고 하여 품사 부사로 처리하는 경우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처리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로, ‘글피’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명사로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글피’가 ‘그럼 글피 오시지요.’와 같은 쓰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품사를 교육할 때 사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과론적으로 문장에서의 분포와 쓰임을 보고 사전의 풀이와 용례에 맞도록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교육적인 측면에서 품사 교육 가운데 품사 통용을 교육하고 이를 판단하는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3. 품사 통용에 대해 꾸준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으신데,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

시면서 궁극적으로 찾고자 한 것이나, 후속으로 연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얼마나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도 소개해 주십시오.

비판적 언어학의 목표와 한국적 적용

김병건(건국대 글로벌캠퍼스)

< 차례 >

1. 머리말
2. 비판적 언어학의 목표
3. 비판적 언어학의 방법
4. 논의: 한국적 적용

1.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언어학의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론을 살핀 후, 이를 통해 한국어 자료를 분석할 때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언어학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비판적 언어학이 언어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담화 속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분석 방법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Halliday(1985: xvi)의 말처럼, 언어 이론에 기초하지 않은 담화분석은 텍스트에 대한 중계방송일 뿐이다.

비판적 언어학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Critical Theory)과 Halliday의 체계-기능 언어학(Systemic-Functional Linguistics), Whorf, 사회언어학 등의 영향 아래 1970년대 중반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University of East Anglia)에서 시작되었다.¹⁾

이데올로기가 현실 속 불균형한 힘의 관계를 왜곡, 은폐, 정당화한다고 보고,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현실 세계의 왜곡을 드러내려고 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언어 분석으로 담론 속 기호, 의미와 사회적 역사적 조건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비판적 언어학의 탄생에 영향을 끼쳤다.²⁾ 그리고

- 1) 보다 구체적으로는, Roger Fowler와 Bob Hodge, Gunther Kress, Tony Trew의 1979년 저작 *Language and Control*에서 시작되었다.
- 2) 비판적 언어학은 비판적 담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에 텍스트 분석 방법을 제공했다. Janks(2010)의 ‘텍스트 분석을 위한 주요 언어 특징’과 Fairclough(2001)의 ‘텍스트 기술을 위한 10가지 물음’ 등에서 비판적 언어학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표> Fairclough의 10가지 물음

물음 A(어휘에 대한 것)	01. 낱말들이 어떤 체험적 가치를 지니는가? 02. 낱말들이 어떤 관계적 가치를 지니는가? 03. 낱말들이 어떤 표현적 가치를 지니는가? 04. 어떤 비유가 쓰이는가?
물음 B(문법에 대한 것)	05. 문법자질들이 어떤 체험적 가치를 지니는가? 06. 문법자질들이 어떤 관계적 가치를 지니는가? 07. 문법자질들이 어떤 표현적 가치를 지니는가? 08. 단순문장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물음 C(텍스트 구조에 대한 것)	09. 어떤 상호작용 관례들이 쓰이는가? 10. 텍스트가 어떤 거시구조를 지니는가?

비판적 담화 분석은 하나의 학파 또는 전문분야라기보다는 공유된 관점(van Dijk, 2001; Wodak, 2002)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공유된 관점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영향을 받은 ‘비판적’이라는 용어와 관련 있다. 현재 비판적 담화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법들을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우리는 모국어가 정해 놓은 선을 따라 자연을 해부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Whorf의 영향으로 언어가 화자/작가의 경험에 구조를 부여하고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언어가 다르면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언어결정론적 시각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언어는 사물을 분류하도록 돕고 암묵적으로 ‘상식’이라고 느끼는 특정 관점에서 세상을 생각하도록 부추긴다(Fowler, 1991)는 것이다. 또, Labov 등 사회언어학의 영향으로 언어가 사회적 구성체로 사회적 의미가 녹아있음을 알게 된다. 즉 사회언어적 변이체(Labov의 /r/ 등)의 과교정과 저교정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들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다(Fowler, 1995).

특히, Halliday는 ‘언어의 문법적 형태는 언어가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개인적 필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고, 모든 언어는 개념적 기능(ideational function), 대인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 텍스트적 기능(textual function)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보았다.³⁾ 화자/작가가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구현하는 개념적 기능의 ‘동사성(transitivity)’과 화자/작가 자신의 의견, 태도, 평가, 그리고 자신과 청자 사이에 설정하는 관계, 정보 제공·질문·인사·설득 등의 의사소통 역할을 위한 대인적 기능의 ‘양태(modality)’는 비판적 언어학의 중요한 이론적 틀이 되었다. 이로써 비판적 언어학은 “언어가 우리의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적 표상을 제공한다.”, “표현의 차이는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수반한다. 따라서 표현의 차이가 존재한다.” 등을 증명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비판적 언어학은 ‘표상(representation)의 문법’이라고도 한다. 표상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 즉 관행에 기반하는데(Wodak & Meyer, 2016), 모든 표상은 매개되고, 매체(언어)에 내재된 가치 체계에 의해 형성된다(Fowler, 1996).

2. 비판적 언어학의 목표

비판적 언어학은 문법 형태 및 구조에 매핑된 이데올로기를 밝혀, 이데올로기를 탈신비화(demystify)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주요 저작들에서 밝힌 목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비판적 언어학은 텍스트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언어 구조의 세세한 부분을 연구함으로써 언어에 부호화된 신념과 가치의 패턴을 의식에 드러내고자 하며, 담론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인식의 문턱 아래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Fowler, 1991)
- 다양한 형태의 공공 담론에서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과 차별(discrimination)을 드러내기 위해 언어 분석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 (Fowler, 1996)
- 비판적 언어학자들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이화(defamiliarisation) 또는 의식 고양(consciousness-raising)이다. (Wodak, 2002)

이러한 비판적 언어학의 목표는 비판적 담화 분석에서도 이어진다.

- 비판적 담화 분석은 사회적 권력 남용, 지배, 불평등이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텍스트와 대화를 통해 어떻게 제정, 재생산, 저항되는지를 주로 연구하는 담론 분석 연구의 한 유형으로, 비판적 담론 분석가들은 분명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이해하고 폭로하며 궁극적으로 저항하고자 한다. (van Dijk, 2001)
- 저자는 두 가지 주요한 목적을 위하여 이 책을 집필하였다. 첫 번째 목적은 다소 이론적이다.

[1] 사회-기호학적 접근법(socio-semiotics approach): van Leeuwen, Kress, ...

[2] 사회-인지적 접근법(socio-cognitive approach): van Dijk, ...

[3] 담화-역사적 접근법(discourse-historical approach): Wodak, Reisigl, ...

[4] 변증법적 관계적 접근법(dialectical relational approach): Fairclough, ...

3) 개념적 의미와 대인적 의미는 텍스트적 기능을 통해 실현되고, 일관성 있는 가닥으로 조직된다.

권력에 대한 사회적 관계를 산출하고, 유지하며, 변화시키는 데에 두루 퍼져 있는 ‘언어의 중요성’을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는 점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두 번째 목적은 다소 실천적이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도록 언어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놓고서, 자각을 일깨우고 늘려주는 것이다. 이는 자각이 해방을 향한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Fairclough, 2001)

비판적 언어학자들은 위와 같은 목표 아래 젠더,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의 문제나 미디어 담론·정치 담론, 특정 사회 집단(엘리트 및 제도에 의한)의 지배 및 권력 남용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3. 비판적 언어학의 방법

담화 분석을 위한 비판적 언어학의 분석 도구들은 [1] 동사성(transitivity), [2] 양태(modality), [3] 변형(transformation), [4] 분류(classification) 등 4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동사성

우리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할 때(개념적 기능) 항상 서술어가 문장에 표현된다. 이 서술어는 의미적으로 보면, 동작이나 정신적 과정, 언어적 행동 등을 나타낸다. Halliday는 이를 프로세스라고 칭하고 6개로 분류했는데, ‘물질 프로세스(material process), 정신 프로세스(mental process), 동작 프로세스(behavioral process), 관계 프로세스(relational process), 구두 프로세스(verbal process), 존재 프로세스(existential process)’가 그것이다.

문장은 프로세스와 하나 이상의 참여자(participant)와 영역(scope), 상황(circumstance) 등을 주요 요소로 가진다. 참여자는 문장 내 의미적 역할에 따라 행위자(actor←물질 프로세스), 목표(goal←물질 프로세스), 감각자(senser←정신 프로세스), 화자(sayer←구두 프로세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동사성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는 물음이 중요하다. 문장은 동일한 상황을 표현할지라도 의미적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에서 화자/작가의 이데올로기를 살필 수 있다고 비판적 언어학에서는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메르스 보도에 대한 신문 사설을 동사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줄고(2015:63-64)에서는 당시 대통령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를 대조한다.⁴⁾

<표 1> ‘대통령’ 프로세스의 비교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process	appraisal	process	appraisal
국문하-(병원장을)	친히	검토하-(방안을)	
달려가-(예정된 행사장에)		격려하-(관계자들을)	
방문하-(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논의하-(...이동 방향을)	
부르-(←볼러가)-	블랙코미디의 절정	방문하-(보건연구원을)	
연기하-(방미 일정까지)		방문하-(여수를)	오래전에 예정된
주-(임명장을)		소화하-(일정을)	평상시 잡아놓은
주재하-(긴급점검회의를)		연기하-(2박3일의 짧은 일정마저)	
지시하-(메르스 피담 단속까지)	공안 총리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주재하-(회의)	14일 만에야 처음 직접
		호출하-(송 원장을)	일부러

<표 1>로 한겨레신문에서는 조선일보보다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병원장을 친히 국문(鞫問)하-’, ‘메르스 피담 단속까지 지시하-’와 같은 예는 부정적 표상의 대표적 예가 된다. ‘국문’은 ‘국청(鞫廳)에서 형장(刑杖)을 가하여 중죄인(重罪人)을 신문하던 일’을 말하기에 당시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 중 하나였던 제왕적 대통령을 떠올리게 만들고, ‘피담 단속 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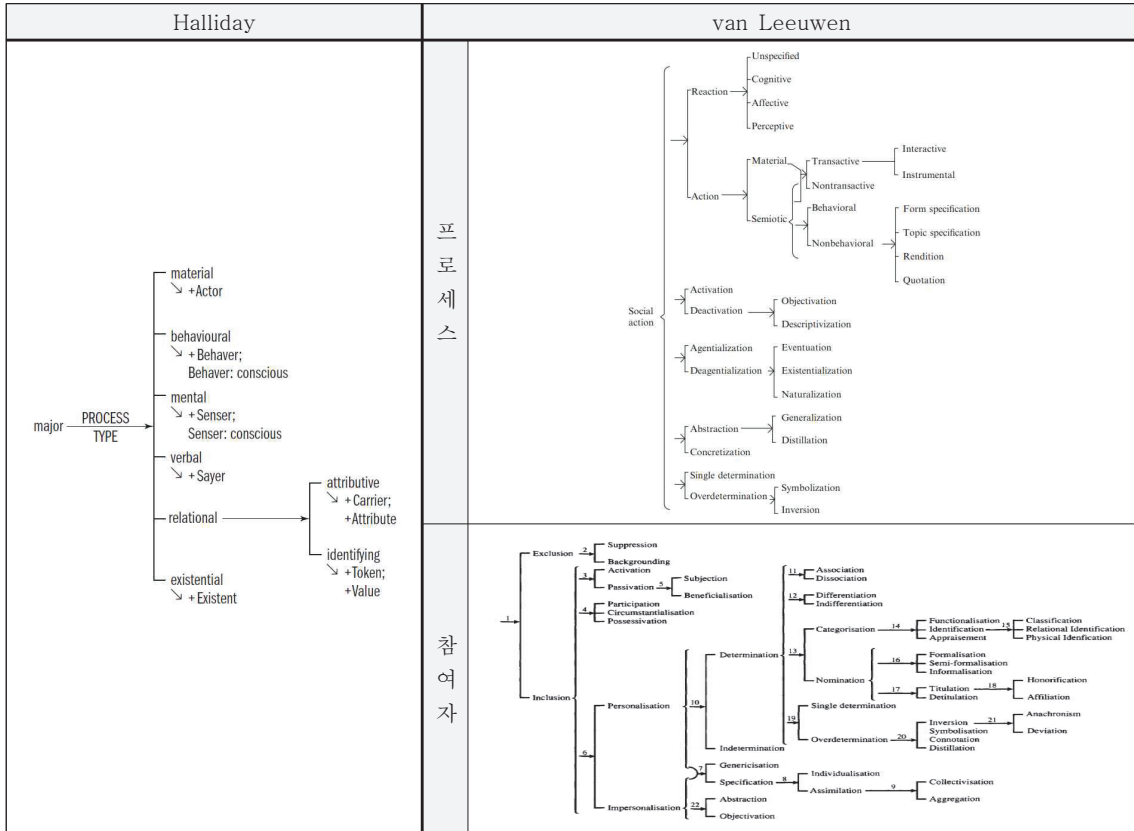
4) 음영 표시된 부분이 부정적으로 판단된 프로세스이다.

는 메르스 사태 해결보다 입단속에 신경을 쓰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실의 표상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 한겨레신문의 ‘(예정된 행사장에) 달려가-’는, 조선일보의 ‘(여수를) 방문하-’보다, 국민들의 목숨이 달린 메르스 사태의 해결보다는 잡힌 일정의 소화가 더 중요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기에 부정적이다.

van Leeuwen(2008)은 Halliday의 동사성 체계를 보다 발전시켰다.

<표 2> Halliday와 van Leeuwen 체제 비교



물질, 정신, 구두 등으로 조금은 단순했던 Halliday의 프로세스 체제는 van Leeuwen의 체제에서 행동(action)/반응(reaction), 물질적(material)/기호적(semiotic), 교류적(transactive)/비교류적(nontransactive), 상호작용적(interactive)/도구적(instrumental), 인지적(cognitive) 반응/정의적(affective) 반응/지각적(perceptive) 반응 등으로 보다 세분화되었다. 행위자, 감각자, 화자 등의 참여자들 역시 van Leeuwen 체제에서 능동화(activation)/수동화(passivation), 참여(participation)/상황화(circumstantialization)/소유격화(possessivation), 일반화(genericisation)/구체화(specification), 개별화(individualisation)/동화(assimilation), 집단화(collectivisation)/집계(aggregation), 범주화(categorisation)/지칭(nomination)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이 van Leeuwen의 체제로 기존보다 프로세스와 참여자의 특성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van Leeuwen의 체제를 바탕으로 뉴스 속 약자들의 표상을 살핀 줄고(2024)에서는 뉴스 속에서 약자들은 어떤 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 역할로, 행동보다는 반응(특히 감정적 반응)을 하는 것으로 표상되며, 비교류적 행동을 한다며, 이러한 약자의 표상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행위의 대상이 되고, 자신들의 의도와 요구 등을 관철시키는 힘이 약하기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영향을 주기 힘든, 비교류적 행동이나 반응만 하게 되는 존재로서 우리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 양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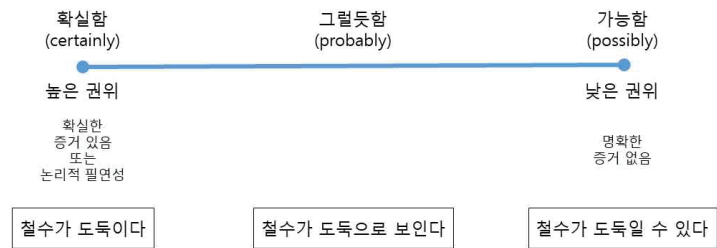
대인적 기능의 핵심인 양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 (가) 이름
- (나) 인칭대명사
- (다) 양태동사와 양태부사
- (라) 발화행위

우리말은 영어와는 달리 성과 이름, 그리고 ‘씨’나 ‘직함’(부장, 선생님 등)을 붙이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가) 이름’ 표시에서는 한국어 담화 분석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 인칭대명사’는 주목할 만하다. “누가 우리/그들인지”는 우리말 담화 분석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1)에서의 우리와 그들의 대상과 표상은 van Dijk(1998:267)의 ‘이념 사각형’(ideological square)를 통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가. “우리가 승리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경찰에 넘기자 윤 지지자 환호 <경향신문> 20250106
나. 배울만큼 배웠을 그들. 어쩌다 ‘윤석열 수호대’가 되었다 <한겨레신문> 20250107
- (2) van Dijk의 이념 사각형
 - 가. 우리에게 대한 긍정적인 정보는 표현/강조하라.
 - 나.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표현/강조하라.
 - 다.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는 억제/경시하라.
 - 리. 우리에게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억제/경시하라.

‘(다) 양태동사와 양태부사’는 “양태 동사가 표현하는 의미(의무, 능력, 가능성, 필요성, 기대 등)가 무엇인지”, “누구의 권한/권위가 발동되는지” 등으로 (즉, “누가 확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라) 발화행위’는 “직접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 등으로 힘(power)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림 1> 인식성 스케일(epistemic scale, Hart 2010:167-173)

Martin & White(2005)의 평가어 이론(appraisal theory)에서는 **대인적 의미** 해석과 관련된 주요한 담화 의미적 자원 중 하나인 화자/작가 자신의 태도 등을 분석하는, ‘태도(attitude), 강도(graduation), 개입(engagement)’의 세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진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특히 ‘개입’은 양태(modality), 극성(polarity), 증거성(evidentiality), 강화(intensification), 참조(attribution), 양보(concession)와 결과성(consequentiality) 아래에서 다루어진 단어 선택(wording)과 관련이 있다.⁵⁾

[3] 변형

구문 변형은 ‘명사화(nominalization)’와 ‘수동화(passivization)’, 두 가지 유형이 담화 분석에 의미 있다. 이들은 다양한 효과를 가져온다.

먼저 ‘명사화’의 경우, 종종 가능한 참여자들이 삭제됨으로써 ‘비인격(impersonality)’을 만들어 내어 책임 소재나 영향을 받는 대상을 불명확하게 만들며, 양태와 시제 등도 사라져서 발생한 시

5) 관련 연구 성과는 즐고(2016가; 2016나; 2016다; 201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기와 작성자의 태도를 모호하게 만든다. 이들은 오직 맥락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아래 예에서 ‘공수처 비난’은 누가 누구를 비난한 것인지, 그 비난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자세한 지식 없이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

(3) 윤석열 측 “불법 무효 체포영장 집행 ... (가)법적 조치” (나)공수처 비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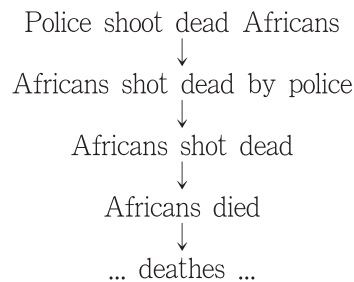
그리고 명사화는 프로세스를 하나의 객체(object)로 만든다. 객체화된 프로세스는 어휘화(lexicalization)되어 새로운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게 된다. (3)의 (가)가 예가 된다.

‘수동화’는 명사화와 같이 참여자 삭제, 어휘화와 유사한 결과를 가지며, 추가적으로 ‘주제화(thematization)’된다. 주제화는 정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첫 번째 자리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화자/작가가 강조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으며, 때론 영향을 받는 참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주는 동작주(agent)처럼 보일 수 있다.

(4) ㄱ. 공수처가 다시 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ㄴ. 담배는 암과 관련된다.

(4ㄱ)의 ‘주목되다’의 동작주는 누구인지 불명확하며, (4ㄴ)의 ‘담배’는 실제로는 객체이지만 동작주로 해석되며, ‘담배는 암을 유발한다’로 읽힌다.

이러한 불명확성, 모호성은 이데올로기를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된 예를 *Language and Control*의 Tony Trew의 “Theory and ideology at work”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1975년 Harare(짐바브웨의 수도)에서의 사건에 대한 보도를 추적 관찰하여 경찰이 책임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가를 보여줬다. Harare 사건은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군중을 대상으로 약 40초 동안 직접 발포하여 그 중 1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위 예는 원인 또는 원인을 제공하는 프로세스로 시작하여 그 프로세스의 결과만을 선택하거나 추상화하여 인과관계의 속성을 약화시켜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이것은 동작주 삭제(police가 삭제됨), 바꿔말하기(shoot dead → die → death), 명사화(... → death)와 같은 일련의 언어적 변화를 통해 실현된다.

[4] 분류

우리는 범주화(categorization)함으로써 세상을 관리하고, 이해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한 유형의 예로 설정하면 단순화되고 그 사람의 범주를 강력하게 예측가능한 속성이나 행동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는 그 유형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만 보는 극도로 단순화된 정신 모형인 고정관념으로 굳어질 수 있다. (MBTI의 유행과 그 유형으로 나와 다른 이를 판단하고 있는 우리를 생각보라.) 어휘는 이러한 범주화의 결과값으로 볼 수 있다.

어휘는 해당 문화의 대상, 개념, 과정 및 관계에 대한 지도와 같다(Fowler, 1991). 그래서 어휘(넓게 보면, 언어)는 대중 의식 관리의 구체적 수단이다. 에이즈, 원숭이두창(엠펙스)의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 간 성관계라고 알려짐과 동시에 도덕성 등 대중 의식 관리의 유용한 도구로서 뉴스 등에서 활용되었다. 하나의 어휘는 우리가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방법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해진다.

(5) “안전한 성관계 필요” ... 홍석천, 원숭이두창 확산에 ‘강한 경고’ <엑스포즈뉴스> 20240824

어휘는 이데올로기를 유지 또는 재생산 또는 변형한다. 하나의 사건을 어떤 말로 지칭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6) 내란 vs. 고도의 통치행위

‘폭동’이 그 말이 가진 의미상 진압의 정당성 부여되는 것처럼 ‘내란’은 분명 진압되고 처벌받아야 할 일이지만 ‘통치행위’는 그렇지 않다.

특정 개념이나 문제가 되는 아이디어를 새로운 용어로 재정립하는 ‘재어휘화(relexicalization)’와 특정 개념이나 문제가 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준-동의어가 과도하게 텍스트에 존재하는 ‘과잉어휘화(over-lexicalization)’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6)의 ‘내란→고도의 통치행위’ 또는 ‘고도의 통치행위→내란’은 재어휘화의 예가 될 수 있다.

[5] 기타

언어학적 전통에 기반한 최근의 분석의 방법을 소개한다. 이들은 비판적 언어학의 중요한 이론적 바탕인 체계-기능 언어학 기반의 방법론을 벗어난,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보 중 하나는 의미적 운율(Semantic prosody)이다. 의미적 운율은 언어 관계를 분석함으로써만 설명될 수 있는 의미이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함축적·화용적·감정적 의미를 말한다(남길임, 2012:139). ‘해명하다’는 <그림 2>에서도 나오듯,⁶⁾ 주로 잘못된 일에 대한 까닭을 풀어서 밝히는 일에 쓰인다. 즉, ‘해명하다’라는 말은 해명의 당사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음을 거의 확정적으로 만든다.

하 총장은 “이 총재의 발언 전의는 당비의 역수만으로 비례대표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하고 “당원이라면 당연히 특별당비를 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해 특별당비를 받을 뜻을 분명히 했다.

대미롭과 권리만 분리 “NO” 한통.한술.한술.한술.한술.한술 “NO” 관련업체, 무더 **해명**;

해명을 요구했다더니 주인은 얼버무리다가 술력 사라지고 종업원들끼리 무왕좌왕하면서 계산할 수정해 주었다.

이건희회장 증병설 상생 ‘사실무근’ **해명** “내주중 귀국일정 갑출것”;

상성은 6일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미건희(이건희) 회장 증병설은 사실무근이며, 이 회장이 빠르면 내주 중 귀국 일정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삼성측은 “이같은 소문이 모전상을 당하고도 귀국하지 않은 것과 맞물려 더욱 확산됐다”면서 “이 회장의 컨디션 회복 정도를 파악해 다음주 중 귀국일정을 갑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국경수비대의 독자적 행동’이라고 **해명**했으나, 한국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련 행자부를 따돌린 데 대한 국민회의측 **해명**은 “여러 공무원들과 상의하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경헌대행은 “민간인에 대한 고려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로즈니를 떠날 민간인은 이미 다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미은행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모DR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 결의 후 24시간 안에 증권거래소에 공시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서둘러 공표한 사항을 도미채방크측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미에 관해 해당 증권사는 “단순히 담당직원의 입력 실수”라고 **해명**했다.

미와 관련, 신동혁 한미은행장은 “도미채 방크와의 합의는 MOU(양해각서) 상태이며, 앞으로 실사(due diligence)와 관계당국의 승인을 얻은 뒤 본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측은 11일 “자료집은 북한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이 발표한 각종 자료에서 발췌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가 김일성의 항일투쟁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경실련 리스트에 거명된 의원들은 개별 **해명**에 나섰다.

<그림 2> ‘해명하다’의 코퍼스 분석 결과

Topos(또는 Topoi) 분석도 시도할 수 있다. 토포스는 특별한 논제의 전형적인 상식적 추론을 나타내는 표준 논법 도식이며, 화용론적 전제(pragmatic presupposition)이며, 독자/청자가 도전 없이 받아들일 것 같은 것에 대한 화자의 가정으로 제1 전제로 기능하는 전형적인 연상을 구성한다(Hart 2010). 토포스는 주장/결론과 연결된 내용 관련 보증(warrant)이거나 결론 규칙(conclusion rules)으로, 사회적·정치적 포함/배제와 각 개인·집단에 대한 차별/특혜 등을 정당화한다(Reisigl and Wodak 2001:45).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시기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진보’에 대한 표상을 토포스로 분석하면, 노

6) 해당 검색 결과는 <웹 기반 코퍼스 분석 도구>(corpus.korea.ac.kr)로 얻은 결과이다.

무현 정부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범죄 토포스와 불이익 토포스를 이명박 정부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줄고, 2020).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진보적 가치 또는 인물을 부정적으로 표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상된 이유는 진보가 이명박 정부 시기의 이데올로기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 논의 : 한국적 적용

비판적 언어학의 방법론을 적용해서 담화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몇 가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에 맞는 분석 도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어를 중심으로 발전된 이론이니만큼 한국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종종 만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름’ 표시도 그러하지만, 수동태의 경우 과연 한국어에서도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효과를 함의하고 있는지 의문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한국어의 특징이 드러나는 문법 요소를 통한 한국어 담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고려할만한 첫 번째 문법 요소는 ‘높임법’이다. 대인적 기능에서는 ‘힘(power)과 연대(solidarity)’라는 이데올로기 구조가 큰 역할을 한다. 힘의 차이가 적거나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성과 거리가 나타나거나 연대가 강화된다. 우리말에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 구조를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주는 “높임법”이라는 문법 요소가 있다. 이에 대한 담화적 분석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새로운 양태적 요소의 발견이다. ‘-기도 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일이 있지만 늘 그렇지는 않다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주로 나타나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주로 나타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다. 또 평가적 의미를 가지는 문법 형태들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 평가를 나타내는 ‘-올라’, ‘-는답’, ‘-는다나’, 연결어미인 ‘-는답시고’, ‘-르세라’, ‘-다가는’, 우언적 구성인 ‘-게 생겼다’, ‘-고 들다’, ‘-기 일췌이다’, ‘-는 통에’, ‘-아 대다’, ‘-은 나머지’, ‘-랬자’ 등과, 긍정 평가를 나타내는 ‘-고 싶다/싶어 하다’, ‘-으면/는다면 몰라도’와 같은 실현되지 않은 또는 실현될 수 없는 바람을 표현하는 형태들(줄고, 2016c)이 담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관찰할 수 있다.

둘째, 결론의 예측성에 대한 문제이다.

사실 민감한 독자들이라면 소개된 것과 같은 복잡한 언어적 분석이 없이도 해당 텍스트의 문제를 파악한다. 더불어, 연구 결과들은 연구자의 성향에 따른 결론을 상정한 후 그에 맞는 증거들을 수집해 결론에 이르는 것으로, 즉 편향적이라고 오해를 받기 쉽다. 비판적 언어학 연구들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결론과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

셋째, 분석 대상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이다.

비판적 언어학의 분석 대상은 현재 문제가 되는 사건이나 현상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연구가 끝난 후에는 시의성이 떨어지는 과거의 일, 평가가 다 끝난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거시적 주제는 정도가 덜 하지만 미시적 주제들은, 우리 사회 같이 극단적 대립이 나타날수록, 학문적·국가적 맥락에서 논란이 많으며 비애국적·적대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참고문헌〉

- Fairclough, N. (2001). *Language and Power*. 2nd Ed. Pearson Education Limited. (김지홍 역(2011), 『언어와 권력』, 경진.)
- Fairclough, N. (2012).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James Paul Gee and Michael Handford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Routledge. 9-20.
- Fowler, R. (1991). *Language in the News: Discourse and Ideology in the Press*. Routledge.
- Fowler, R. (1995). "Critical Linguistics". in Kirsten Malmkjaer (ed.). *The Linguistics Encyclopedia*. Routledge. 118-122.
- Fowler, R. (1996). "On critical linguistics". In C. R. Caldas-Coulthard and M. Coulthard (eds.), *Texts and practices*. Routledge. pp. 3-14.
- Fowler, R., R. Hodge, G. Kress and T. Trew (1979). *Language and control*. Routledge and Kegan Paul.
- Halliday, M. A. K. (1985)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Edward Arnold.
- Hart, C. (2010).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Cognitive Science*. Palgrave Macmillan. (김동환·이미영 역(2017), 「비판적 담화분석과 인지과학」, 로고스라임.)
- Hart, C. (2014). *Discourse, Grammar and Ideology : Function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Bloomsbury Publishing Plc. (김동환·이미영 역(2017), 「담화, 문법, 이데올로기 : 인지언어학과 비판적 담화분석」, 로고스라임.)
- Janks, H. (2010), *Literacy and Power*, Taylor & Francis Ltd. (장은영 외 역(2019), 『리터러시와 권력』, 사회평론아카데미.)
- Martin, J. R. & P. R. R. White (2005). *The Language of Evaluation : Appraisal in English*. Palgrave.
- Reisigl, M. and R. Wodak (2001) *Discourse and Discrimination : Rhetorics of racism and antisemitism*. Routledge.
- van Dijk, T. A. (1998). *Ideology: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SAGE Publications Ltd.
- van Dijk, T. A. (2001),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D. Schiffrin, D. Tannen, and H. E. Hamilton (eds.), *Th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Blackwell. pp. 352 - 371.
- van Leeuwen, T. (2008), *Discourse and Practice: New Tools for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xford UP.
- Wodak, R. & M. Meyer, eds. (2016). *Methods of Discourse Studies*. 3rd Ed. SAGE.
- Wodak, R. (2002). "Aspect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ZfAL(Zeitschrift für Angewandte Linguistik)* 36, pp. 5-31.
- Wodak, R. (2011), "Critical Linguistics a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Jan Zienkowski et al (ed.). *Discursive Pragmatic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p. 50-70.

“비판적 언어학의 목표와 한국적 적용”에 대한 토론문

윤재연(호서대학교)

이 글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비판적 언어학의 방법론이 어떻게 담론 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기법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비판적 언어학을 깊이 있게 다룬다기보다는 단편적이고 개괄적으로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연구자가 4장에서 언급한 한국적 적용의 문제 중 ‘분석의 객관성’과 관련하여, 제시된 예문을 중심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사성]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표 1>을 제시하며, 한겨레신문이 조선일보보다 부정적인 어조를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예로 ‘메르스 괴담 단속까지 지시하다’, ‘예정된 행사장에 달려가다’, ‘여수를 방문하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비판적 언어학에서는 동사성 분석을 통해 특정 언어나 텍스트가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고 특정 관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분석합니다. 그러나 단어 자체의 의미만으로 모든 해석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사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고, 강조되는 방식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어 선택은 동사성 분석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단어의 의미만으로 해석을 결론짓는 것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자는 ‘메르스 괴담 단속까지 지시하다’를 ‘메르스 사태 해결보다 입단속에 신경 쓴다’는 부정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한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까지’라는 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까지’는 범위의 끝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이로 인해 해당 문장은 오히려 ‘다른 일을 단속하는 동시에 괴담도 단속한다’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즉 문맥에 따라 ‘메르스 사태 해결보다 입단속에 신경 쓴다’라는 부정적 해석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괴담까지 단속하려는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해석도 가능하며, 이는 대통령의 권력 집중 이미지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정된 행사장에) 달려가다’와 ‘(여수를) 방문하다’의 비교에서도 논리적 타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자는 한겨레신문의 문장이 ‘메르스 사태의 해결보다는 잡힌 일정의 소화가 더 중요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을 지나치게 반영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예정된 행사장에 달려가다’라는 표현을 ‘위기 대응 부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일정 소화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적 언어 분석은 언어가 어떻게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거나 강화하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각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을 염두에 두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맥을 분석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특정 언론사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어떻게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이 부정적인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그 해석이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과도하게 확장된 것이 아님을 독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비판적 언어학 분석에서 동사성의 해석은 단어 자체의 의미나 문법적 요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문맥과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신문 텍스트를 분석할 경우,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되, 특정 입장을 과도하게 반영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독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사성을 분석할 때, 문장의 구조와 구성 요소의 관계만을 살펴서는 안 되고, 그 해석에는 반드시 문맥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는 문맥도 함께 정리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독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4 분과

음운/문법론

제주방언 ‘검다’ 계열 색채어 형용사 연구

김신자(제주대)

< 차 례 >

1. 서론
2. 제주방언 음운적 특징
3. 제주방언 문법적 특징
4. 결론

1. 서론

이 연구는 제주방언 ‘검다’ 계열 색채어 형용사를 대상으로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방언 색채어에 대한 이해는 제주 지역 사람들의 경험과 관습, 고유한 문화 등을 탐구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색채를 활용한 언어 표현은 글이나 말의 전달력을 높이고, 언중들의 감정을 자극하며 메시지의 강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색채어’의 뜻을 살펴보면, ‘색채어’란 빛깔을 나타내는 말이다. ‘색채’어인데 ‘빛깔’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뜻을 풀이하고 있다. 이는 ‘색채’와 ‘빛깔’이 뜻하는 바가 같음을 유추할 수 있다. 유추한 바와 같이 ‘색채’의 뜻은 빛깔과 같다. ‘색채’는 한자어이고 ‘빛깔’은 순우리말이라는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한자어보다는 순우리말로 뜻을 풀이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빛깔’의 뜻은 ‘물체가 빛을 받을 때 빛의 파장에 따라 그 거죽에 나타나는 특유한 빛’이다. 역시 같은 뜻의 낱말로 ‘색채’가 표시되어 있으며 또 ‘색깔’이라는 낱말도 함께 나타나 있다. ‘색깔’의 뜻은 빛깔과 같으며 한자 ‘色’과 순우리말 ‘-깔’이 만나 이룬 낱말이다.

제주방언 색채어는 형태적으로 조밀한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의미를 구현한다. 표준어의 결합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형태나 의미에서 지역적 특색이 나타난다. 접미사와 어근의 결합에서 접미사가 가진 의미 기능이 크게 작용하여 지역적 특성이 보이는 방언 색채어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연구에 주목하는 ‘검다’ 계열 색채어는 흰색과 더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색채이며 모든 나라 언어에 있다. 빛과 어둠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공통된 경험이며 흰색과 검은색은 빛과 어둠에서 출발한다. 색채어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여 모든 언어는 흰색과 검정색을 포함한다고 하였다(Berlin&Kay 1969:178).

색채어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오색의 특징이나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한 가지 색채에 대한 음운, 형태, 통사적 연구와 의미 확장 연구를 포함한 전면적인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면서도 오색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색채어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분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긴밀하게 사용되는 제주방언 ‘검다’ 계열의 색채어 형용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¹⁾

제주방언 ‘검다’ 계열 색채어 형용사의 의미를 고찰함에 있어서 어휘 자료 수집은 최대한 많은 단어²⁾를 고려하여,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과, 송상조의 『20세기 제주 말 큰사전』에 실린 색채어 형용사를 추출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색깔을 나타내는 어근을 갖고 있지 않은 낱말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색깔을 나타내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낱말들로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방식을 통해 제주방언 ‘검다’ 계열 색채어 형용사는 총53개³⁾로 나타났으며, 이들 색채어가 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 연구에 앞서 색채어 분류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자어 색채어, 고유어 색채어를 우선 분류하였다. 고유어 색채어는 고유어 단일 색채어, 고유어 합성 색채어로 나누었고, 고유어 합성 색채어는 고유어 복합 색채어, 고유어 파생 색채어로 나누었다. 또한 고유어 합성 색채어는 두 단일 색채어의 결합, 색채어와 의태어의 결합, 색채어의 대비 첩용의 세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색채어 동사와 색채어 형용사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제시하였다(김인화 1987:72-73).

또한 ‘푸르다, 파랗다’의 의미·형태 및 조어·용법 및 활용상의 특성을 공시론적인 관점에서 비교·대조하여 밝히고, 그 원인을 통시적인 변화에서 찾았으며(구분관 1998:15-50), 색채어의 어원과 발달, 파생 및 합성 형성, 음운 교체, 차용어, 상징 등과 같은 기존 논의를 인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정리하였다(구분관 2008:261-285).

한편 손세모들(2000:162-165)은 고유어 색채어를 ‘검다, 누르다, 붉다, 푸르다, 희다’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색채어가 가지고 있는 뜻 중 색과 관련된 뜻을 색채 표현 부문에서, 색상 표현, 명도 첨가 표현, 채도 첨가 표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색상 표현에서는 색의 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 중에서 명도나 채도와 관련된 의미가 첨가되지 않은 색상만을 드러내는 색채어 구조를 밝혔다.

그 외에도 박동근(2012), 박찬옥(2015), 장걸(2016), 유인선(2018) 등 색채어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이 연구들의 공통점은 ‘검다’, ‘누르다’, ‘붉다’, ‘푸르다’, ‘희다’ 다섯 색으로 이루어진 오방색으로 색채어를 분류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오방색으로 나타나는 색채어를 다룬 연구는 많으나,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제주방언 색채어를 정리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
- 1) 색채어 형용사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검붉다’ 처럼 두 색채가 섞여서 이루어진 합성 색채어들이 있다. 이런 색채어 형용사는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두 색채 중 어느 쪽에 포함시켜야 할지 문제가 된다. 색채어 형용사의 경우 두 색채가 결합한 경우, 두 색채의 의미 관계는 앞성분이 의미 주변이 되고, 뒷성분이 의미 중심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검붉다’에서 검은 빛을 띠지만 붉은 색깔심이 되는 색이다. 이때 ‘검다’는 원래의 색깔에 명도가 낮아지는 느낌을 주게 되므로 ‘검붉다’의 의미 중심이 ‘붉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류 색채어 형용사는 의미 중심인 뒷성분에 해당하는 계열의 색채어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 ‘단의’란 하나의 어휘 항목이 가지고 있는 개별 의미를 각각 뜻한다. 이는 음운론에서의 ‘단음’에 대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단독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단음’과는 달리 어떤 언어적 형태에 기대서만 실현된다(최호철 1996: 84-85).
 - 3) 가망하다, 까망하다, 가모롱하다, 가모소롱하다, 가모소름하다, 가모속속하다, 가모초초하다, 가뭇가뭇하다, 감시근하다, 감소롱하다, 감실감실하다, 곰실곰실하다, 거멍하다, 꺼멍하다, 거무룩하다, 거무롱하다, 거므스름하다, 거무스름하다, 거무속속하다, 거무초초하다, 거무추추하다, 거무축축하다, 거무칙칙하다, 거무투투하다, 거무툭툭하다, 거무튀튀하다, 가물가물하다, ㄱ물ㄱ물하다, ㄱ망ㄱ망하다, 거물거물하다, 거뭇거뭇하다, 꺼뭇꺼뭇하다, 거뭇거뭇하다, 검다, 검붉다, 검수롱하다, 검스름하다, 검실검실하다, 검슬검슬하다, 검시근하다, 꺼무롱하다, 꺼무스름하다, 새까망하다, 시꺼멍하다, 시꺼멍하다, 시꺼뭇시꺼뭇하다, 시그뭇시그뭇하다, 시꺼멍하다, 짓까망하다, 짓꺼멍하다, 짓꺼멍하다, 짓까망하다, 짓까망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 ‘검다’ 계열 색채어 형용사를 대상으로 분류한 후, 김인화 (1987:72)의 일부 개념을 활용하여 색채어의 언어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2. 제주방언 음운적 특징

2.1.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색채어는 말하는 이의 심리적인 감정이나 상태와 관련이 있다. 말하는 이의 심리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주로 낮은 체도의 색채어가 사용되며, “맑지 못하고 우중충하다”, “산뜻하지 않다”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색채어에서 대체로 양성모음은 “밝고, 좋고, 크고”, 음성모음은 “어둡고, 싫고, 작음” 등 감정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1) 가. 두릴 적이 곳자왈에 강 삼동 탕 먹으면 셋바닥이 가망흐여나선. (어릴 때 곳자왈에 가서 삼동 따서 먹으면 헛바닥이 거뻤었지.)

나. 거멍흐 느 속이 흰히 보엿찌. (거먼 네 속이 흰하게 보인다.)

다. 늦 알풀 尙향흐야 더도니 거머흐야 아디 못홀시 《남명천계송언해 70a》

(1가)의 경우 ‘가망흐다’는 색상이 아주 진하고 양성모음인 ‘ㅏ’형으로 밝음을 나타내고, (1나)의 ‘거멍흐다’는 음성모음인 ‘ㅓ’형으로 어두움을 나타내므로 ‘거멍흐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나타낸다. (1다)의 ‘거머흐다’는 ‘검-+-어흐다’가 결합한 형태로, 15세기 중세국어에서도 나타난다.

다음은 모음 교체에 따라 말하는 이의 태도를 드러내는 예이다. 대체로 ‘ㅏ’형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반면, ‘ㅓ’형은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2) 가. 가이 속이 가망흐게/거멍흐게 타들어가는 생이라라. (그 애 속이 가망게 타들어가는 것 같더라.)

나. 느 무사 양지가 가망흐게/거멍흐게 카시니? (너 왜 얼굴이 거멍게 댔니?)

여기에서 ‘거멍흐다’는 다양한 형태로 초초, 불안, 근심 따위로 속이 몹시 타는 것을 의미한다. (2가)의 경우 ‘가망흐다’보다 ‘거멍흐다’가 자연스럽고 (2나)에서도 ‘가망흐다’보다 ‘거멍흐다’가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 문맥에 따라 공기 관계가 다르다는 것은 ‘가망흐다’와 ‘거멍흐다’의 의미 차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거멍흐다’와 ‘가망흐다’는 명도나 체도에서 차이를 갖는다고보다 말하는 이의 평가나 태도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준어에서는 모음 교체형으로 접미사 ‘-(아/어)앙/엿-’을 통한 파생으로 ‘거멧다, 가망다’를, 또 자음교체형으로 ‘꺼멧다, 까망다’로 나타나지만, 제주방언에서는 ‘-(아/어)망/멍 흐-’로 파생되어 ‘거멍흐다’, ‘가망흐다’, ‘까망흐다’, ‘꺼멍흐다’로 나타난다. 국어사적으로 ‘-앙/엿-’ 색채 파생어는 ‘-어/아 흐-’로부터 변화했다. 표준어의 경우 ‘흐-’의 ‘ㅎ’가 탈락하여 ‘ㅎ’ 발음 어간으로 형성되었으나, 제주방언의 경우 ‘흐-’의 ‘ㅇ’가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그 음을 유지하고 있다.

2.2.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교체

제주방언 ‘검다’ 계열 색채어 형용사 자음교체는 예사소리와 된소리로 나타난다. ‘거멍하다’의 경우, 초성 ‘ㄱ’이 ‘ㄱ’과 평음 대 경음으로 대립구조를 형성한다. 자음교체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3) 가. 개삼동 익으민 가망ㅎ영/까망ㅎ영 잘도 맞춘나. (까마중 익으면 가매서/까매서 아주 맛있어.)
나. 흐루헤원 바당에서만 살아노난 양지가 거멍ㅎ게/꺼멍ㅎ게 카신게. (온종일 바다에서만 살더니 얼굴이 거멍게/꺼멍게 탔네.)
다. 우리 어멍 입은 깍치멘 거무릉ㅎ다/꺼무릉ㅎ다. (우리 어머니 입은 풀치마는 거무릉하다/꺼무릉하다.)

위에서 제시한 ‘예사소리·된소리’의 대립구조에 있어서 색채어 자음교체로 형성된 파생 색채어의 범위는 제한적이며 ‘가망하다’, ‘까망하다’, ‘거무릉하다’의 어휘의 차이는 ‘가망하다’, ‘거무릉하다’는 “얹다”로, ‘까망하다’, ‘꺼무릉하다’는 “질다”로 구별된다. “얹다”는 채도가 낮음을 나타내고 “질다”는 채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자음교체는 실질적인 의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된소리로 표현되는 색채어는 예사소리로 표현되는 색채어보다는 채도가 더욱 높음을 나타낸다.

3. 제주방언 문법적 특징

3.1. 형태적 특징

제주방언 형태적 특징은 조어론적 관점에서 색채어의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3.1.1. 단일어 색채어

단일어 색채어란 하나의 실질형태소로 이루어진 색채 형태소를 말한다. 단일어 색채어는 다른 파생어와 복합어 색채어가 형성된 기준이다. 단일어 색채어에 속하는 형태는 매우 적은 편이다. ‘검다’ 계열 고유어 색채어에는 자음교체와 모음 대립에 의해 ‘검다⁴⁾, 감다⁵⁾, 거멍하다, 꺼멍하다, 가망하다, 까망하다’ 등이 있다. 자음교체와 모음 대립의 변화에 따라 실제적인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명도, 채도에서 각각 밝고 가벼운 느낌과 어두운 느낌을 준다.

4) 目連이 즘든 디위를 위겨 블로디 對答ㅎ리 업거늘 도라와 獄主 드려 무로디 알픽 큰 地獄이 이쇼디 담 노피 一萬丈이오 거문 브르미 一萬불 들어잇고 쇠그므리 셋두퍼잇거늘 一千버늘 블러 도 對答ㅎ리 업더라 《월인석보23: 83a》; 어느제 퍼 깃대를 占得ㅎ야 머리에 겨근 거문 頭巾을 스고 이시 려뇨 《두시연해 15: 6a》

5) 제주방언에서 색채어 ‘감다’는 나타나지 않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모음 교체형인 ‘감다’가 있다. 玄 가물 현 《훈몽자회 14b》

3.1.2. 복합어 색채어

복합어 색채어란 두 개 이상의 실질형태소가 결합되거나 하나의 실질형태소에 접사가 붙어 형성된 색채어를 말하며 합성어 색채어와 파생어 색채어로 나누어진다.

3.1.2.1. 합성어 색채어

합성어 색채어란 두 개의 단일어 색채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색채어의 경우 일종의 혼합 색채를 형성하며 후속하는 어근이 의미의 중심이 된다. 두 색채어가 결합할 때는 ‘무채색 우선 원칙’으로 유채색과 무채색이 결합할 때 무채색의 어근이 앞에 오고 유채색이 뒤에 오며 기본색상은 뒤에 오는 색상을 따른다고 하였다(손용주 1997:61-63).

제주방언의 합성어 색채어를 ‘두 단일 색채어의 결합(색채어X+색채어Y)’, ‘색채어와 의태어의 결합(색채어X+의태어Y)’, ‘색채어의 반복 첩용(색채어와 접미사의 중첩XX)’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⁶⁾ 먼저 “두 단일 색채어의 결합(색채어X+색채어Y)”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가. 그 삼춘 코에서 검붉은 피가 찰찰 흘침서라게.(그 삼춘 코에서 검붉은 피가 철철 흘리고 있더라.)

나. 內府엿 검블근 碼磧盤을 婕好] 詔命을 傳^ㅎ야놀 《두시언해16: 38a》

다. 도든 낮 그티 검붉고 스이 분명티 아니코 선디과 도티 간빰 그트 모로 곁오디주그리라 《언해두창집요 상 47a》

라. 薔豸薇鳴 감בל고물 東동君군드려 무르니 《금강경삼가해1: 23b》

(4)의 ‘검붉다’의 경우 ‘검은 빛을 띠면서 붉다’는 명도가 서로 반대되는 색으로 두 가지 어간의 특성을 모두 살리는 합성어 형태로 제시할 때 대비되는 명암을 함께 나타내므로 서로 공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혼합색채어는 15세기~16세기 중세국어에서도 무채색과 유채색이 결합한 ‘검붉다’, ‘검붉다’, ‘감붉다’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비통사적 합성법으로 단어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색채어와 의태어의 결합(색채어X+의태어Y)”하는 경우이다. 색채어와 의태어가 결합하는 경우, 단순한 색채어의 어근과 광택, 농도, 질감, 상태를 나타내는 의태어 또는 형용사의 결합으로서 대상을 더욱 섬세하게 표현한다.

(5) 가. 가모소름혀다, 가모소롱혀다, 가모속속혀다, 가모초초혀다.

나. 거무수롱혀다, 거무스름혀다, 거무속속혀다, 거무초초혀다, 거무추추혀다, 거무축축혀다, 거무칙칙혀다, 거무투투혀다, 거무툭툭혀다, 거무튀튀혀다, 거무퇴퇴혀다.

6) 이 연구에서는 합성어의 유형은 김인화(1987:72)를 참조하여 ‘두 단일 색채어의 결합, 색채어와 의태어의 결합, 색채어의 반복 첩용’ 등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5)의 색채어와 의태어의 결합은 일반적으로 단일어 색채어의 어근과 광택, 농도, 상태를 나타내는 의태어 혹은 형용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김인화 1987:72). 제주방언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접미사 ‘-속속-’, ‘-초초-’, ‘-축축-’, ‘-칙칙-’ 등은 음성모음 계열과 결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표준어에서 접미사 ‘-스름-’, ‘-속속-’, ‘-칙칙-’, ‘-튀튀-’ 결합은 나타나지만, ‘-소름-’, ‘-소롱-’, ‘-속속-’, ‘-초초-’, ‘-수롱-’, ‘-추추-’, ‘-축축-’, ‘-투투-’, ‘-톡톡-’, ‘-퇴퇴-’의 결합은 “빛깔이 검으면서 산뜻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며, 제주방언에서만 나타나 세밀하게 분화된 색채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면에서 명암이나 농도를 표현할 때 상보적으로 나타난다. “더 진하게 못한 것”을 나타낼 때는 접미사 ‘-칙칙-’을 쓰고, “탁하게 못한 것”을 표현할 때는 접미사 ‘-톡톡-’이나 ‘-튀튀-’, ‘-퇴퇴-’를 쓴다.

다음은 “색채어의 반복 첩용(색채어와 접미사의 중첩XX)”의 경우이다.

(6) 가뭇가뭇하다, 거뭇거뭇하다, 꺼뭇꺼뭇하다, 거뭇거뭇하다.

(6)은 ‘검다’ 계열 기본 색채어 형용사에 접미사 ‘-스-’이 붙은 형태가 결합한 어근이 반복된 구성이다. 이와 같은 색채어의 어근이 두 번 사용되어 원래의 의미에 “군데군데” 또는 “매우”의 의미를 더해준다. 즉 이런 결합방식의 색채어는 색의 본래의 뜻을 “더욱 깊게,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표준어에서 접미사 ‘-까뭇까뭇-’의 중첩은 나타나지만, 제주방언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가뭇가뭇-, -거뭇거뭇-, -꺼뭇꺼뭇-, -거뭇거뭇-’ 등의 중첩이 나타난다.

3.1.2.2. 파생어 색채어

‘파생어’란 어근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결합하는 것을 말하며 접사에 의한 파생과 어음교체에 의한 파생이 있다. 파생 색채어는 많은 형태, 의미 분화를 만들어낸다. 일차적인 색상의 차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고 더욱 세밀하게 분화된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다채롭게 표현한다. 색채어의 접사에 의한 파생에는 접두 파생어와 접미 파생어가 있다. 접두 파생어는 적은 편이나, 접미 파생어는 많은 편이다. 접미 파생어는 색채에 대해 매우 다양한 색채어를 파생시키며 연상 작용을 통한 더욱 분화된 감정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접두 파생어는 접미 파생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는 2차적인 것이다(손용주 1997:61-63).⁷⁾ 접두사에 의한 파생은 ‘검다’ 계열에서 ‘시-’, ‘새-’, ‘짓-’, ‘줏-’으로도 나타난다. ‘새-’가 놓이는 음운 환경은 양성모음 앞에 오며, ‘시-’가 놓이는 음운 환경은 음성모음 앞에 온다. 또한 제주방언에서만 나타나는 접두 파생어 ‘짓-’은 음운 환경이

7) 기본 색채어 ‘검다’에서 1차 파생된 ‘거뭇다’ 등은 가능하지만 기본 색채어 ‘검다’에 2차 파생된 접두사 ‘새-/시-’가 결합된 ‘시검다, 짓검다, 새검다, 썻검다’ 등은 현실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 색채어 ‘검다’에서 ‘거뭇다’로 1차 접미사가 파생된 후 ‘시거뭇다’로 2차 접두사가 파생되기 때문이다.

양성모음 앞에도 오고, 음성모음 앞에도 나타나지만 ‘줏-’은 양성모음 앞에서만 나타난다.

(7) 시거멍하다, 시꺼멍하다, 시커멍하다, 시거못시거못하다, 시그못시그못하다, 새까망하다, 짓까망하다, 짓꺼멍하다, 좃가망하다, 좃까망하다.

가. 느 술이 시거멍헝게/시꺼멍헝게/시커멍헝게 카신게. (네 술이 시꺼멧게 탕네.)

나. 헤양흔 옷에 시거못시거못헝게/시그못시그못헝게 뭐 물어시니? (하얀 옷에 시거못시거못하게 뭐 물었니?)

다. 노린재낭 올매가 짓까망헝게/짓꺼멍헝게 지락지락 올아신게. (노린재나무 열매가 짓까망헝게 주렁주렁 열렸네.)

라. 오갈피낭에 올맨 잘도 좃가망헝여라게 /좃까망헝여라게. (섬오갈피나무에 열매는 아주 좃가망하더라.)

(7)은 접두사 ‘시-’, ‘새-’, ‘짓-’은 경음형 ‘까망하다’, ‘꺼멍하다’에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접두사 ‘시-’, ‘새-’, ‘짓-’은 모음조화 규칙에 의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에 상응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접두사가 파생하는 색채어 첫음절의 초성·중성에 의해 결정된다. 초성의 종류에 따라 파생 가능한 접두사가 정해지고, 중성의 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중성을 가진 접두사가 선택된다. 예를 들어 ‘시꺼멍하다’의 어간 ‘꺼멍하다’는 첫음절이 음성모음 ‘어’이고 이때는 ‘시-’를 쓴다. ‘새까망하다’의 경우 어간 ‘까망하다’의 첫음절이 양성모음 ‘아’일 경우에는 ‘새-’를 사용한다. ‘시-’는 “매우 심하게 질음”을 나타낸다. ‘새-’는 “매우 선명하고 산뜻함”을 나타낸 것으로 이 접사들은 기본 색채어 어간들과 결합하여 매우 짙고 선명한 색을 나타낸다. 표준어의 이런 결합 관계는 제주방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접두사 ‘시-’의 쓰임은 표준어와 달리 다양하게 분화된다. 또한 접두사 ‘짓-/줏-’은 제주방언에서만 나타나고, ‘줏-’은 양성모음 앞에서만 쓰인다. 이처럼 제주방언 색채어의 접두 파생어는 다양하며, 색채의 농도가 짙고 색채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기능을 지닌다.

접미 파생어는 색채 어근에 새로운 어휘적 의미 및 문법적 의미를 추가시키며 수효는 접두사형 색채어에 비해 훨씬 많다. 접미사는 의미적 기능이 있어 결합할 어근의 특성에 맞추어 서로 불규칙하게 결합한다.⁸⁾ 색채어 형용사를 이루는 접미사들은 어근을 형성하고 그 의미를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제주방언의 접미 파생어는 표준어의 접미사 결합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형태나 의미에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접미사와 어근의 결합에 접미사가 가진 의미 기능이 크게 작용한다.

[1] 접미사 ‘-얹/얹-’

기본 색채어 형용사 ‘검다’ 계열에 ‘-얹/얹-’이 결합한 형태이다. 음성모음이면 ‘-얹-’,

8) 표준어에서의 색채 형용사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을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양성모음이면 ‘-얹-’가 결합된다. 접미사 ‘-얹-/-엷-’의 설정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 ‘가닿-다’를 단일어로 보면서 ‘-얹/엷-’의 설정을 거부한다. ‘-얹/엷-’을 ‘-아/어+하-’의 축약형으로 보아 ‘-하-’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다. ‘-얹/엷-’이 어떤 변화 과정을 겪었더라도 공식적으로 명확한 형태와 의미를 갖추므로 이를 접미사로 처리해도 좋다고 본다(심재기 2016).

제주방언에서는 ‘-얹/엷-’이 결합한 형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아흐-/-어흐-’로 대응되어 ‘검다’와 ‘-어흐-’ 파생어인 ‘거멍하다’, ‘꺼멍하다’ 등으로 나타난다.

[2] ‘-웃-/-웃-’

(8) 가뭏가뭏하다, 거뭏거뭏하다/거뭏거뭏하다. 꺼뭏꺼뭏하다,

가. 딸 양지에 지미가 가뭏가뭏하게 나신게. (딸 얼굴에 기미가 가뭏가뭏하게 났네.)

나. 딸 양지에 지미가 거뭏거뭏하게 나신게. (딸 얼굴에 기미가 거뭏거뭏하게 났네.)

다. 딸 양지에 지미가 꺼뭏꺼뭏하게 나신게. (딸 얼굴에 기미가 꺼뭏꺼뭏하게 났네.)

(8)의 ‘-웃-/-웃-’은 낮은 명도에 대해 색의 정도성 차이를 표현하며 ‘가뭏-, 거뭏-, 거뭏-, 꺼뭏-’처럼 단일 색채 어근과 결합한다. 파생 어기를 형성한 뒤, 색채 어근과 결합해 ‘가뭏가뭏, 거뭏거뭏, 거뭏거뭏, 꺼뭏꺼뭏’ 등으로 부사를 파생한다. 반복형인 ‘-웃-웃-’은 “군데군데 거무스름한 빛이 섞여 있는 꼴”로 ‘분포, 복수의 대상, 정도성’에서의 느껴지는 색감을 표현할 때 쓰인다. 표준어에서는 ‘까뭏까뭏’으로 부사를 파생하지만, 제주방언에서는 ‘까뭏까뭏’으로는 파생되지 않는다.

[3] ‘-룽-’, ‘-룩-’, ‘-룽-’

접사	黑	접사	黑
새-/쌔-	○	-(으)죽죽/-죽죽하다	○
시-깃-	○	-(으)잡잡/-잡잡하다	○
-얹/엷-	○	-(으)-숙숙하다	○
-얹/엷-	○	-(으)칙칙하다	○
-(으)스름하다	○	-(으)튀튀	○
-(으)스레하다	○	-(으)충충/-충충하다	○
-(으)레하다	○	-(아)우리하다	○
-룩하다	○	-실-실하다	○
-(으)끄름하다	○	-(으)테테하다	○
		-(으)땡땡하다	○
-(으)께하다	○	-웃(웃)하다	○
-(으)테테하다	○	어근부 중첩	
-웃(웃)하다	○		

(9) 가모롱하다, 거무룩하다, 거무롱하다, 꺼무롱하다

- 가. 우리 아들이 새각시 들안와신디 가모롱헌 아입데다. (우리 아들이 새색시 데려왔는데 가모롱한 아이였어요.)
- 나. 거무룩헌 고냉이가 튀어나오라가난 추물락 햅여세. (거무룩한 고양이가 튀어나오니깐 깜짝 놀랐어.)
- 다. 느 입은 옷이 거무롱헌난 버뭍 안 탄 좋으켜게. (네가 입은 옷이 거무롱하니까 더러움 안 타서 좋겠다.)
- 라. 저 공장에 걸어진 꺼무롱헌 모즌 이레 ㄴ정 오라보저. (저 못에 걸린 꺼무롱한 모자 이리 가져와 봐라.)

(9)는 ‘감/검다’에 접미사 ‘-롱-, -룩-, -롱-’이 결합한 형태의 예시이다. (9가)의 ‘-롱-’은 “약간 검은빛을 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빛깔이 조금 검은빛을 띠는” (9나, 다, 라)의 ‘-룩-’과 ‘-롱-’보다 얇은 의미를 가진다. 접미사 ‘-롱-, -롱-’은 표준어에서는 결합하지 않는다.

[4] ‘-가물-’, ‘-ㄴ물-’, ‘-거물-’

(10) 가물가물하다, ㄴ물ㄴ물하다, 거물거물하다

- 가. 멧 년 전이 광목바지 물들연 실피 입으난산지 가물가물헌게. (멧 년 전에 광목바지 물들여서 실컷 입어서인지 가물가물하다.)
- 나. 멧 년 전이 광목바지 물들연 실피 입으난산지 거물거물헌게. (멧 년 전에 광목바지 물들여서 실컷 입어서인지 거물거물하다.)

(10)은 ‘감/검다’에 ‘-가물-’, ‘-ㄴ물-’, ‘-거물-’이 결합한 형태이며, 제주방언 ‘-가물가물-’은 “검은 빛깔이 군데군데 섞여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쓰인다. 하지만 표준어 ‘-가물가물-’은 “작고 약한 불빛 따위가 사라질 듯 말 듯 자꾸 움직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 또한 제주방언 ‘-가물가물-’은 의미면에서 표준어와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도 색채어에서는 “군데군데 섞여 있는 색감”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한다.

[5] ‘-소름-’, ‘-소롱-’, ‘-수롱-’, ‘-시근-’, ‘-스름-’

(11) 가모소름하다, 가모소롱하다, 거무수롱하다, 검수롱하다, 감소롱하다, 감시근하다, 거무스름하다, 검스름하다, 꺼무스름하다

- 가. 곱닥헌 양지에 거무스름헌 거 뭐 물어시니? (예쁜 얼굴에 거무스름한 게 뭐

묻었니?)

나. 올힌 검수룽흔 옷이 유행이렌 험수다. (올해는 검수룽한 옷이 유행이라고 하네요.)

다. 올힌 감소룽흔 옷이 유행이렌 험수다. (올해는 감소룽한 옷이 유행이라고 하네요.)

라. 거므스러햐야 써디는 듯흐거든 다시 덩향 다솟 님을 더 가입흐라. 《두창경험방 40b》

마. 淡黑 검으스러햐다 《동문유해 26a》

(11)은 ‘감/검다’에 접미사 ‘-수룽-’, ‘-소룽-’, ‘-시근-’, ‘-스름-’이 결합한 형태이며 ‘검다’ 계열에서 파생되고 있다. (11가)의 ‘-스름-’은 “긍정 혹은 중립의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며 빛이 태가 나고 가장 열다”는 뜻을 나타낸다. (11나)의 ‘-수룽-’은 “약간의 검은색과 비슷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11다)의 ‘-소룽-’의 뜻과 같으나 어감의 차이에서 색채어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또한 (11라, 마)의 예시와 같이 17세기에 ‘거므스러햐다’와 18세기에 ‘검으스러햐다’의 표현 형태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 두 표현 형태는 연철과 분철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표현이다.

[6] ‘-속속-’, ‘속속-’, ‘-초초-’, ‘-추추-’, ‘-축축-’, ‘-칙칙-’

(12) 가모속속햐다, 가모초초햐다, 거무속속햐다, 거무초초햐다, 거무추추햐다, 거무축축햐다, 거무칙칙햐다.

가. 새 옷 사니냐? 잘도 가모속속햐게. (새 옷 샀니? 아주 가모속속하네.)

나. 비가 오젠 험신가? 날이 거무속속햐다원. (비가 오려나? 날이 거무속속하네.)

다. 메날 술 먹엄시냐? 거무추추햐게 원 어디 병 난 사름 닳다원. (매일 술 먹고 있니? 거무추추햐게 어디 병 난 사름 닳다.)

라. 게나제나 사름이 너미 거무칙칙햐민 안 돼주게. (그러나저러나 사름이 너무 거무칙칙햐면 안 되지.)

(12)는 ‘감/검다’에 접미사 ‘-가모속속-’, ‘-거무속속-’ 등이 결합한 형태이다. “약간 밝은 검은빛을 띠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긍정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축축-’, ‘-칙칙-’은 “산뜻하지 못하고 칙칙하다, 고르지 못하다”의 의미를 첨가하여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색상이 맑지 못하고 순도가 낮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표준어에서 부정적인 파생어 느낌을 전하는 접미사 ‘-데데-’, ‘-뎡뎡-’, ‘-접접-’, ‘-충충-’의 결합형은 제주방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속속-’, ‘속속-’, ‘-초초-’, ‘-추추-’, ‘-축축-’ 등의 결합형이 나타난다.

[7] ‘-투투-’, ‘-툑툑-’, ‘-튀튀-’

(13) 거무투투하다, 거무톡톡하다, 거무튀튀하다

- 가. 그 집 고냉인 거무투투하여라게. (그 집 고양이는 거무투투하더라.)
- 나. 그 집 고냉인 거무톡톡하여라게. (그 집 고양이는 거무톡톡하더라.)
- 다. 그 집 고냉인 거무튀튀하여라게. (그 집 고양이는 거무튀튀하더라.)

(13)은 ‘검다’에 접미사 ‘-투투-’, ‘-톡톡-’, ‘-튀튀-’가 결합한 형태이다. 음성적 환경에 따라 선행하는 모음이 음성모음에 결합되어 “우중충한 느낌과 색의 짙음”을 강조해 준다. “탁한” 채도를 표현하고 색채에 대한 부정의 감정과 표현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제주방언에서 어근 ‘거무-’는 10개의 접사와 결합이 가능하며, ‘검다’ 계열 색채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접사와 결합한다. ‘거무-’에 대응하는 양성모음형인 ‘가모-’는 4개의 접사와 결합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거무-’의 높은 파생력을 실감할 수 있다. ‘거무-’와 ‘가모-’의 파생 양상 차이는 ‘검다’류 음성모음이 가진 의미 자질적 동질성을 비롯하여 접사의 상당수가 [+부정]의 평가 태도를 가진다는 점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송상조(2023)의 『20세기 제주말 큰사전』에서 보면 ‘-소름-, -소롱-, -속속-, -초초-’와 ‘-수름-, -스름-’과 ‘-숙숙-, -초초-, -추추-, -축축-, -칙칙-, -투투-, -톡톡-, -튀튀-’를 동류 접미사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어감과 의미의 차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미세하게 구별된다. 박효영(2021:98)의 연구에서 보면 ‘검다’계의 어근인 ‘거무-’, ‘꺼무-’, ‘가무-’, ‘까무-’와 결합한 어근 파생 접미사는 그 수가 많다고 논의하면서 “땡땡(고르지 않게), 스름(조금), 족족(칙칙하고 고르지 않게), 속속(수수하고 걸맞게), 튀튀(너저분해 보일 정도로), 퇴퇴(탁하게)” 등으로 색채어의 어감과 의미가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방언에서도 다양하게 분화된 색채어는 결합한 접사나 다른 어근에 따라 그 뜻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으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에서 미세하게 구별되는 색의 명도나 채도의 기준으로 보면 ‘-가모-’와 ‘-거무-’의 파생 접미사에 대해 <표 1>과 같은 순서로 도식화할 수 있다.

<표 1> 파생 접미사 ‘-가모-’, ‘-거무-’의 명도와 채도 순서



또한 어음교체는 접사에 의하지 않는 파생 방법으로 통사 범주를 바꾸는 기능을 전혀 갖지 못하며 의미의 변화만을 일으킨다(김정은 1995:118). 다시 분화하면 어음교체로 형성된 파생 색채어는 모음 교체로 형성된 파생어와 자음교체로 형성된 파생어 두 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제주방언 어휘 구조의 특징으로 자음교체와 모음 대립은 단순히 어감의 차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차이를 동반하여 통사 범주를 바꾸는 기능

을 갖고 있다. 자음교체는 색채어 어근에 자음이 교체되어 파생된 색채어를 말한다. ‘검다’ 계열에서 많이 나타나고 주로 첫째 음절에서 나타나며, 간혹 둘째 음절에서도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 ㄱ-ㄱ

- 가망하다: 까망하다
- 거멍하다: 꺼멍하다
- 시거멍하다: 시꺼멍하다
- 거무롱하다: 꺼무롱하다

(14)에서 알 수 있듯이 ‘평음:경음’의 대립구조를 형성한다. 경음이나 격음으로 표현되는 색채어는 평음으로 표현되는 색채어보다 채도가 더욱 높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까망하다’는 ‘가망하다’보다 “더 강하고 선명한 검은 색”을 나타낸다.

또한 모음교체에 의한 파생어 색채어란, 색채어 어근에 보이는 모음이 교체되어 파생된 색채어를 말한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ㅏ-ㅣ

- 새까망하다: 시꺼멍하다

(16) ㅏ-ㅓ

- 가망하다: 거멍하다
- 까망하다: 꺼멍하다

(15), (16)에서 살펴본 색채어들은 모두 ‘양성모음:음성모음’의 이중 대립구조를 형성한다. 제주방언의 특징으로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은 어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성모음은 “밝음, 맑음, 가벼움, 작음, 적음, 예리함, 빠름, 알잡음” 등의 어감을 나타낸다. 음성모음은 “어두움, 흐림, 무거움, 큼, 많음, 둔한, 느림” 등의 어감을 자아낸다 (신현숙 외 1984:151-175). 따라서 밝고 선명한 색채를 표현할 때는 양성모음 색채어가 사용되고, 어둡고 탁한 색채를 표현할 때는 음성모음 색채어로 나타낸다. 또한 색채어는 대체로 양성모음은 “밝고, 좋고, 크고”, 음성모음은 “어둡고, 싫고, 작음” 등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제주방언 ‘검다’ 계열 파생어들을 어근과 접사에 따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제주방언 ‘검다’ 계열 파생 양상

구분		어근(어근+접사)																									
		감-	굶-	검-	가-	까-	거-	꺼-	커-	가모-	가뭇-	가물-	ㄱ물-	감실-	검실-	검슬-	검슬-	거무-	거뭇-	거뭇-	거브-	거물-	꺼무-	꺼뭇-	꺼물-	그뭇-	
접두	새-				○																						
접두	시-					○	○	○											○								○
접두	죇-				○	○																					
접두	깃-				○	○	○																				
접미	-(아/어) 명/명-				○	○	○	○																			
접미	-룽-				○					○																	
접미	-소룽-	○								○																	
접미	-속속-									○																	
접미	-초초-									○																	
접미	-가뭇-										○																
접미	-시근-	○		○																							
접미	-감실-													○													
접미	-굶실-																										
접미	-무룩-							○																			
접미	-무룽-							○	○																		
접미	-스름-			○															○			○					
접미	-소름-				○																						
접미	-속속-																		○								
접미	-초초-																		○								
접미	-추추-																		○								
접미	-축축-																		○								
접미	-칙칙-																		○								
접미	-투투-																		○								
접미	-툑툑-																		○								
접미	-튀튀-																		○								
접미	-가물-											○															
접미	-ㄱ물-												○														
접미	-거물-																						○				
접미	-꺼뭇-																								○		
접미	-거뭇-																			○							
접미	-거뭇-																										
접미	-수룽-			○																							
접미	-검실-														○												
접미	-검슬-															○											

3.2. 통사적 특징

제주방언 통사적 특징에는 ‘색채어+체언’ 공기 관계가 관용적표현으로 쓰이는 특징이 있다. ‘검다’ 계열 색채어는 ‘검다’의 의미 차질을 갖는 체언과 공기 관계를 갖는다. 그런

데 ‘검다’ 계열 색채어가 꾸며주는 체언에 의미 자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관습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7) 가. 아이고, 저 거머흔 손콥데기광 혀여가는 게 사름 뉘진 글렀저. (아이고, 저 검은 손과 하는 행동이 사람 되기는 틀렸어.)
나. 나가 느 거머흔 속내를 몰르카부텐 혀염시냐? (내가 너의 검은 속내를 모를까봐 그러니?)
다. 저 알넉칩 종필이네 아들이 검은 돈 먹언 징역 살암젠 홉디다.(저 아랫동네 종필이네 아들이 검은 돈 먹어서 징역 살고 있다 하네요.)
라. 말 안 듣는 새끼 때문에 어멍 속은 거머흔게 닻수다.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어머니 속은 검게 닻어요.)

(17가, 나)에서 ‘거머흔 손콥데기’에서 ‘손콥데기(손)’는 ‘검다’의 의미 자질이 없다. “사람을 속여 이용하거나 해치려고 음흉하고 흉악한 속셈으로 접근한다”는 뜻이다. (17다)의 ‘검은 돈을 먹다’는 “뇌물의 성격을 띠거나 그 밖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받는 것”을 뜻한다. (17라)의 ‘검다’는 “다양한 형태로 불안, 초조, 근심 따위로 속이 몹시 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색채어+체언’ 공기 관계는 대체로 구체물보다 추상명사의 경우, 색채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색채어의 꾸밈을 받는 경우에는 관용어가 되기 쉽다.

또한 ‘정도부사+색채어’ 공기 관계는 명도의 차이에 의해 공기하는 정도부사 종류가 달라하기도 한다. ‘아주, 매우, 너무, 몹시, 정말’ 등의 정도부사는 용언의 정도성을 보여주는 어휘이다. 그러므로 정도부사의 꾸밈을 받는 용언은 정도성을 가지게 된다. 색채어 형용사 또한 정도성을 가지고 있기에 정도부사와 공기할 수 있다. 명도가 높은 의미를 가진 색채어 형용사의 경우 ‘아주, 매우, 몹시’ 등의 정도부사와 공기가 가능하다. 또한 명도가 낮은 의미를 가진 색채어 형용사의 경우 ‘조금, 겨우’ 등과 같은 정도부사와 더 잘 공기할 수 있다.

- (18) 가. 개삼동 익으난 잘도 가망허우다게/까망허우다게. (까마중 익으니까 아주 까맣네요.)
나. 개삼동 익으난 춤말 가망허다이/까망허다이. (까마중 익으니까 정말 까맣네요.)
다. 개삼동 익으난 혀쓸 가망허우다예/까망허우다예. (까마중 익으니까 조금 가맣네요.)
라. 개삼동 돌아진 거 보난 제우 가망허게 익엄십데다/까망허게 익엄십데다. (까마중 달린 걸 보니 겨우 가맣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18가, 나)에서 평음형 ‘가망허다’는 ‘매우, 아주, 정말’의 뜻을 지닌 제주방언 ‘잘도9),

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733쪽.

춤말¹⁰⁾의 정도부사와 어울림이 부자연스럽다. 반면에 (18다, 라)에서 ‘조금, 약간, 겨우’의 뜻을 지닌 ‘흐쭉¹¹⁾, 흐뭇, 제우¹²⁾’는 어울림이 자연스럽다. 이것은 색채어에서 ‘아주’나 ‘매우’는 높은 정도를 표시하고, ‘조금’은 낮은 정도를 표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망흐다’가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 ‘아주, 매우’와 쓰임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가망흐다’는 정도가 낮은 색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세 접두사 ‘새-’, ‘시-’는 색채어에 명도가 매우 높음의 의미를 첨가한다. ‘새-’, ‘시-’ 결합형이 명도가 매우 높음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이들 접두사와 결합하는 색채어의 유형에서 알 수 있다.

- (19) 가. 새-: 아주, 매우(잘도) -까망흐다
 나. 시-: 아주, 매우(잘도) -꺼멍흐다
 다. 짓-: 아주, 매우(잘도) -까망흐다, -꺼멍흐다
 라. 좇-: 아주, 매우(잘도) -까망흐다

(19)에서 진한 색상을 표현하는 ‘까망흐다’에 ‘새-’, ‘시-’와 같은 강세를 둔다는 것은 ‘까망흐다’의 색상이 진함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까망흐다’는 명도가 매우 높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까망흐다’가 매우 진한 색상을 표시한다는 것은 정도부사의 공기 관계와 연관이 있다. 높은 명도를 표시하는 정도부사와는 공기가 가능하지만, 낮은 정도를 표시하는 정도부사와는 공기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20) 가. 느 입은 옷이 잘도/흐쭉 새까망흐다이. (네가 입은 옷이 아주 새까망네.)
 나. 뭇사 먹어신지사 우리 딸 셋바닥이 잘도/흐쭉 짓꺼멍흐엿수다게. (뭇을 먹었는지 우리 딸 혀가 아주 짓꺼멍해요.)
 다. 줄갱이 익으면 씨가 잘도/흐쭉 좇까망흐여마씨. (으름 익으면 씨가 아주 좇까망해요.)

(20)에서 색상이 진함을 나타내는 ‘새까망흐다’, ‘짓꺼멍흐다’, ‘좇까망흐다’는 ‘잘도(아주, 매우)’ 등과 자연스럽게 공기한다. 하지만 낮은 정도인 정도부사 ‘흐쭉(조금)’과는 공기가 어색하다. 이는 ‘흐쭉(조금)’과 ‘새까망흐다’와 의미상에서 상충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새까망흐다’, ‘짓꺼멍흐다’, ‘좇까망흐다’는 진한 색상에 ‘잘도(매우, 아주)’라는 뜻을 덧붙이나, 낮은 정도를 표현하는 ‘흐쭉(조금)’은 ‘잘도(매우)’와 의미가 상충되므로 의미 충돌을 일으킨다.

4. 결론

10)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825쪽.
 11)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896쪽.
 12)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754쪽.

이 연구는 제주방언 ‘검다’ 계열 색채어 형용사를 대상으로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방언 색채어 형용사는 색채를 표현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색채를 지시하는 개념적 의미 이외에도 말하는 이의 감정, 태도를 함께 담아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대체로 양성모음은 긍정의 자질을 갖고 있고, 음성모음은 부정의 자질을 갖고 있다. 또한 순한소리는 채도가 낮음을 표시하고 된소리는 채도가 높음을 표시한다.

둘째, 조어 형태에 따라서 단일어 색채어, 합성어 색채어, 파생어 색채어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단일어에는 ‘검다’가 있고, 합성어에는 ‘검붉다’와 같은 단일어 색채 어간의 결합이 있다. ‘가모소름하다, 가모소롱하다, 가모속속하다, 가모초초하다’ 등과 같은 색채어와 의태어의 결합이 있으며, ‘감실감실하다, 가뭇가뭇하다, 검실검실하다’ 등 색채어의 접용 형태로 존재한다.

제주방언에서 어근 ‘거무-’는 9개 접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검다’ 계열 색채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접사와 결합한다. ‘거무-’에 대응하는 양성모음형인 ‘가모-’는 4개의 접사와 결합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거무-’의 높은 파생력을 실감할 수 있다. ‘거무-’와 ‘가모-’의 파생 양상 차이는 ‘검다’류 음성모음이 가진 의미 자질적 동질성을 비롯하여 접사의 상당수가 [+부정]의 평가 태도를 가진다는 점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송상조(2023)의 『20세기 제주말 큰사전』에서 ‘-가모-’와 ‘-거무-’에 나타나는 접사 ‘-소름-, -소롱-, -속속-, -초초-’와 ‘-수롱-, -스름-, -속속-, -초초-, -추추-, -축축-, -칙칙-, -투투-, -툭툭-, -튀튀-’를 모두 동류 접미사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한 어감과 의미의 차이를 비교해서 유의 접미사로 분류한 후, 색의 명도나 채도의 기준으로 도식화하였다. 또한 표준어에서 부정적인 파생어 느낌을 전하는 접미사 ‘-데데-, -땡땡-, -접접-, -충충-’의 결합형은 나타나지 않고 ‘-초초-, -추추-, -축축-, -투투-, -툭툭-’의 결합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주방언 ‘-가물가물-’은 “검은 빛깔이 군데군데 섞여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쓰인다. 하지만 표준어 ‘-가물가물-’은 “작고 약한 불빛 따위가 사라질 듯 말 듯 자꾸 움직인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주방언 ‘-가물가물-’은 의미면에서 표준어와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도 색채어에서는 “군데군데 섞여 있는 색감”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한다. 또한 접사에 의한 파생은 ‘새-, ‘시-’와 ‘깃-, ‘जू-’과 같은 접두사에 의한 파생으로 나타난다. 특히, ‘깃-’과 ‘जू-’은 제주방언에서만 결합하는 접사로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모음교체나 자음교체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색채어가 만들어진다.

셋째, 제주방언 ‘검다’ 계열 색채어 형용사는 ‘검다’의 의미 자질을 갖는 체언과 공기 관계를 가진다. 체언에 의미 자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관용어의 굳은 표현으로 쓰이게 된다. 정도부사의 꾸밈을 받는 용언은 정도성을 가지게 된다. 색채어 형용사 또한 정도성을 가지고 있기에 정도부사와 공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제주방언 ‘검다’ 계열 색채어 형용사를 대상으로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는 색채어에 대한 논의가 지역어 연구에서 표준어와 다른 형태를 논의함으로써 ‘검다’ 계열 색채어의 어휘를 살리고 활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검다' 계열 색채어 형용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검다' 외의 여러 색채어와 활용 범위 등 다른 요건을 고려한 색채어에 관한 연구를 하지 못한 점과, 실제 언어 수행 장면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용례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영근·구분관(2011),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박영수(2003),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 살림출판사.
송상조(2023), 『20세기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심재기(2016), 『국어 어휘론 개설』, 박이정.
안옥규(1994), 『우리말의 뿌리』, 학민사.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제주특별자치도(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일신옵셋인쇄사.
금강경삼가해(1482)
동문유해(1748)
분류두공부시언해(초간본)(1481)
석보상절(1447)
언해두창집요(1608)
월인석보(1459)
훈몽자회(1527)

〈논문〉

- 강재원(1985), 「국어 색채어 어휘 분화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쪽.
구분관(1998 ㄱ), 「'푸르다'와 '파랗다」, 『국어문화』 22,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5-50쪽.
구분관(2008 ㄴ), 『한국어 색채 표현에 대한 인지 언어학적 고찰』, 형태론 10, 박이정, 261-285쪽.
김성대(1979), 「우리말의 색채어 낱말밭 -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글』 164, 한글학회, 655-687쪽.
김인화(1987), 「현대 한국어의 색채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2쪽.
김정은(1995), 「현대 국어의 단어형성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8쪽.
박동근(2012), 「한국어 기본 색깔말의 원형과 뜻풀이」, 『문법 교육』 16, 한국문법교육학회, 111-139쪽.
박찬옥(2016), 「한국어 색채어 연구 - 색채어 범주 체계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효영(2021), 「한국어 색채어 형용사 연구」, 진주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8쪽.
성인출(1997), 「색채어의 어원과 음운론적 고찰」, 『한민족어문학』 31, 한민족어문학회, 35-53쪽.
손세모돌(2000), 「국어 색채어 연구」, 『한말연구』 6, 한말연구학회, 2000, 162-165쪽.
손용주(1997), 「우리말 색상어 접두사<새·셋·시·섯>에 대하여」, 『한국어문연구』 10, 한국어문

연구학회, 61-63쪽.

신현숙·김영란(2004),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색채어 어휘 정보」,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24, 151-175쪽.

유인선(2018), 「우리말 색채어 표현의 의미 확장 양상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선영(2006), 「후기 중세국어 색채어의 어휘적 특징과 의미」, 『국어학』 47, 국어학회, 235-263쪽.

이선영(2008), 「근대국어 색채어의 몇 가지 특징」, 『어문연구』 36-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1-151쪽.

이현희(2005), 「한국어 색채어의 범시적 연구」,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사업 최종보고서, 111쪽.

장 걸(2016), 「한·중 색채어 비교를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와 문화』, 제19집, 한국어문화연구소, 117-155쪽.

최호철(1996), 「어휘 의미론과 서술소의 의미 분석」, 『한국어학』 4, 한국어학회, 84-85쪽.

Brent Berlin&Paul Kay(1969), 『기본 색상 용어 : 보편성과 진화』, 버클리 와 로스 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출판부, 178쪽.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국립국어원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main>)

“제주방언 ‘검다’ 계열 색채어 형용사 연구”에 대한 토론문

현혜림(제주학연구센터)

이 글은 제주방언 ‘검다’ 계열의 색채어를 대상으로 음운과 문법적 특징을 살펴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방언 색채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색채어의 형태와 의미를 이 글에서 꼼꼼하게 다루었다는 점은 앞으로 제주방언 어휘연구론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이 글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을 정리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토론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제주방언 색채어의 음운적 특징을 모음(양성모음과 음성모음)과 자음(예사소리와 된소리) 교체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주방언 양성모음 교체형을 설명하면서 3쪽 하단 제주방언에서는 ‘-(아/어)망/명 흐-’로 파생되었다고 보았으며 이 경우 표준어와 달리 ‘흐-’의 ‘으’가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특징을 기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어)망/명 흐-’가 결합된 어근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이 구성만 본다면 ‘빛깔이 어둡고 질다’의 의미를 지닌 기본형을 ‘가/거다’로 보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이 글의 전개에 따라 ‘-(아/어)망/명 흐-’에서 파생되었다면 형태소 ‘-망/명-’이 색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로 보이며, 제주방언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8쪽 접미사 ‘-양/영-’ 결합형에서는 ‘가명흐다/거명흐다’ 등의 어휘가 접미사 ‘-아흐/어흐-’에 결합한 ‘검다’ 계열의 어휘가 파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접미사 ‘-아흐/어흐-’가 결합한다면 최종 ‘거명흐다/꺼명흐다’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문이 3쪽과 동일한 어휘인 ‘거명흐다/거명흐다’ 등 색채어인데 발표자께서는 어떠한 기준점을 두고 서로 다른 접미사가 결합하였는지, 어떻게 형태소를 분석하셨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명흐다/거명흐다’는 어근 ‘감/검-’에 ‘-양/영-# 흐-’가 결합된 어휘는 아닐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5쪽 합성어 색채어를 설명하였을 때 ‘두 단일 색채어의 결합’ 형에서 ‘검붉다’를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러나 2쪽 각주(1)에서 두 색채의 의미 관계는 앞성분(검다)이 주변 의미이며, 뒷성분(붉다)이 중심 의미임을 설명하며 ‘검붉다’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각주의 설명을 토대로 보았을 때 이 ‘검붉다’는 ‘검다’의 계열 어휘가 아닌 ‘붉다’ 계열의 어휘로 판단되는데요. 발표자께서는 이 글에서 ‘검붉다’를 ‘검다’ 계열로 보신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두 단일 색채어가 결합하는 형태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이 글은 ‘검다’ 계열 색채형용사가 결합하는 형태적 분석으로 논지를 바꿔 떠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 ‘색채어와 의태어의 결합’형을 분석하며 색채어와 ‘의태어 또는 형용사’가 결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색채어에 결합한 ‘의태어/형용사’는 어휘형태소이기 때문에 ‘어근+어근’의 구성이므로 합성어 색채어로 분류되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예문 (5)는 ‘검다’ 계열 어근¹⁾에 ‘-소름/소롱/속속/초초/수룽/스름/속속/추추/축축-’ 등이 결합한 형태를 제시하였고 형태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름/소롱/속속/초초-’ 등 제시한 형태소가 어근(어휘형태소)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주셔야 ‘합성어 색채어’임이 증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문 (5)를 설명할 때와 이 글 8~10쪽에서 동일한 형태를 ‘접미사’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합성어 색채어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이 글은 접사와 어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표준어 어휘 뜻을풀이를 참고하여 의미를 유추하였다는 것에서 그쳤다고 보이는데, 형태와 의미를 다룬다는 점에서 구분 기준점을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쪽 ‘가물가물하다, ㄱ물ㄱ물하다, 거물거물하다’의 어휘가 제주방언의 특징처럼 보이는데, 좀 더 예문을 보강한다면 색채어의 반복 첩용으로 분석되며, ‘검다’의 의미가 강조된 어휘임이 증명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꽤마농 적행 돌화리에 구민 **가물가물** 칸 디도 잇곡’처럼 색이 거무스름한 상태를 이르는 ‘가물가물’(부사)의 예에서 ‘(적) 지름장 불랑 구워 노민 **가물가물**흔 게 코 시룽헤여’의 ‘가물가물하다’(형용사)가 파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발표자께서 정의 내린 ‘검은 빛깔이 군데군데 섞여 있는 색감’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 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는 이 글의 연구 방법론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발표자께서 색채어 분석 방법(연구 방법)을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색채어 분석은 김인화의 일부 개념을 활용하여 색채어의 언어적 특징을 밝히겠다고 하였지만,²⁾ 이 글은 김인화 외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일부 어휘에 대하여 ‘음운, 국어사’ 측면도 다루었습니다. 국어사 측면을 다룬 어휘의 예문 (11라, 마)가 ‘-스름/수룽/소롱-’의 접미사와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밝힌 내용이 없어 논리적 흐름을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어사적 측면을 보강한다면 기존 연구 자료에서 한정하지 않고 형태소를 더 꼼꼼하게 분석하고 모든 어휘에서 조어론적 원인을 국어사 측면에서 밝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구 방법을 제주방언의 고유한 접미사나 파생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면 분석대상인 ‘검다’ 계열의 색채어 형용사의 형태·문법적 특징이 강조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기서 ‘검다’ 계열의 어근이라 밝힌 이유는 ‘검다’계의 어근이 ‘거무-/꺼무-/가무-/까무-’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 그 방법으로 두 단일 색채어의 결합, 색채어와 의태어의 결합, 색채어의 대비 첩용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어의 어중 경음화 현상의 변이 양상

- 메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

한명숙(안양대)

< 차례 >

1. 머리말
2. 분석 보고서 및 분석 어휘
3. 어중 경음화 메타 분석
4. 어중 경음화의 추이 양상
5. 결과 종합 및 마무리

1. 머리말

이 연구는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어 어중 경음화의 변이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어의 경음화 현상은 실현 위치에 따라 어두 경음화와 어중 경음화로 구분할 수 있다. 주로 언어 외적인 요인을 발생 동기로 보는 어두 경음화와 달리¹⁾ 어중 경음화는 음운론적 조건과 형태론적 조건이 관여하는 음운 현상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어중에서 나타나는 경음화 현상은 형태, 음운론적인 환경에 따라 실현 양상이 다양하다.

<표 1> 환경에 따른 경음화 실현 양상(박동근, 2000 참고)

선행 요소 \ 환경	음절 경계	어간-어미	체언-조사
장애음	○	○	○
ㄴ, ㄹ, (ㅇ)	×	○	×
ㄹ	△ (설정음: ㄷ, ㅅ, ㅈ)	×	×
흡소리	×	×	×

<표 1>에 따른 국어의 어중 경음화의 실현은 각각의 조건에서 보편·필연적이어서 개인차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장애음 뒤의 경음화를 제외한 나머지 선행 요소들은 경음화가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어서 그런지 어휘 개별적 경음화 실현에 차이를 보이며 특히 연령에 따른 변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어의 어중 경음화 실현 양상으로 세대별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만약 세대별로 어중 경음화 실현에 차이가 있고 이에 일정한 패턴의 변이 양상이 관찰된다면 어중 경음화의 방향성도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대별 발음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유의미한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적지 않은 인원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 연구의 차원에서 수행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사회적, 심리적인 요인으로 접근한 데 반해 박동근(2000)은 어두 경음화 현상을 처음 언어 내적인 문제로 다룬 바 있다.

‘메타 분석’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메타분석(meta-analysis)이란 특정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된 연구 자료를 수집·선별하여 양적, 질적으로 재분석하는 방법론으로 개별 연구에서 기대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일련의 발음 조사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언중의 언어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오고 있으며 이에 발음 조사 역시 포함되어 있다.

<표 2>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발음 관련 보고서

연도	참여자	서명
2001	국립국어연구원	외래어 발음 실태 조사
2002	최혜원	표준 발음 실태 조사
2003	김선철	표준 발음 실태 조사 II
2004	최혜원	표준 발음 실태 조사 3
2016	김창영 외 4명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2023	김창영 외 9명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
2024	이은빈 외 8명	2023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발음)

<표 2>에서 보듯이 국어원에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발음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후 한동안 발음 실태에 대한 조사가 없다가 2016년부터 다시 발음 현황 조사가 이루어졌고 2023년, 2024년에도 계속해서 발음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2016년, 2023년, 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어중 경음화 변이 양상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2. 분석 보고서 및 분석 어휘

이 연구에서 메타분석 자료로 2016, 2023, 2024년 보고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최근 조사·작성되었으며 발음 실태를 조사한 방법이 같고 결과 제시 방식이 유사하여 자료를 재분석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먼저 각 보고서의 발음 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은 표준 발음 관련 의식 조사와 발음 조사로 나누었다. 표준 발음 관련 의식 조사는 국어 관심도, 발음 관련 경험, 발음 관련 정책으로 나누었다. 발음 부문은 이중모음, ㄴ·ㄹ연쇄, ㄴ첨가, 사잇소리, 경음화, 자음군 단순화, 공명음 뒤 ‘ㅎ’ 탈락, 체언 어간 변화, 용언 어간 변화, 기타 등 10개 음운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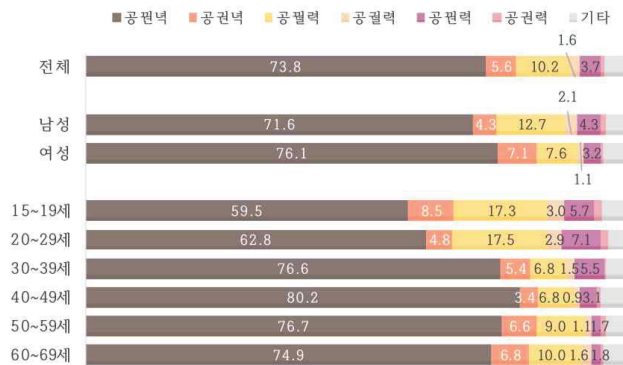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2023)은 세대, 성별, 지역, 계층 등 사회적 변인에 따른 국어 사용 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만 69세 이하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어휘, 문법, 담화, 음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음운에는 자음군 단순화, 사잇소리, 체언 어간 말음의 재구조화, 모음 재구조화, 자음동화를 살펴보았다.

<2023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발음)>(2024)는 전국 만 15세 이상~만 69세 이하 3,000명을 대상으로 발음 양상을 관찰하였다. 사회적 변인으로 세대, 성별, 지역, 계층 등으로 나누었다. 실태 조사 내용은 고모음화, 단모음 ‘외’, 모음조화, 재구조화, 움라우트, 유기음화, 경음화, 자음군단순화, ‘ㄹ’ 말음 용언의 활용, 사잇소리, ‘의’ 변이음, ‘ㄴ’ 첨가, 유음화/비음화, 공명음 뒤 ‘ㅎ’ 탈락, 억양을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활용 자료 보고서

연도	서명	대상	내용	
2016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전국 15세-69세 이하 남녀 총 2,000명	의식 조사	국어 관심도, 발음 관련 경험, 발음 관련 정책
			발음 조사	이중모음, ㄴ-ㄹ연쇄, ㄴ첨가, 사잇소리, 경음화 , 자음군 단순화, 공명음 뒤 ‘ㅎ’ 탈락, 체언 어간 변화, 용언 어간 변화, 기타(고랭지)
2023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만 20세 이상-만 69세 이하 성인 남녀 2,000명	어휘	부모에 대한 호칭,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 자 직원을 부르는 말, 배우자에 대한 칭칭, 선택 표현, 셈 표현, 외래어, 줄임말
			문법	경어법, 부정문
			담화	인사 표현,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과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 칭찬/감사/ 사과에 대한 응답 표현, 가정에서의 압존법, 비확정적 표현
음운	자음군 단순화, ㄴ첨가, 사잇소리, 유 기음화/ 경음화 , 체언 어간 말음의 재구조화, 모음 재구조화, 자음동화			
2024	2023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발음)	만 15세 이상-만69세 이하 남녀 3,000명	고모음화, 단모음 ‘외’, 모음조화, 재구조화, 움 라우트, 유기음화, 경음화 , 자음군단순화, ‘ㄹ’ 말음 용언의 활용, 사잇소리, ‘의’ 변이음, ‘ㄴ’ 첨가, 유음화/비음화, 공명음 뒤 ‘ㅎ’ 탈락, 억 양	

2016, 2023, 2024년 보고서 발음 조사에서는 모두 경음화를 조사 항목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2016, 2023, 2024년의 발음 조사에서 조사 항목상으로는 경음화 실태 조사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경음화 변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보고서에서 ‘ㄴ-ㄹ’ 연쇄 시 발음 실태를 위해 조사한 ‘공권력’은 ‘ㄴ-ㄹ’ 연쇄에 따른 발음 실현뿐만 아니라 다음 그림과 같이 평음으로 발음하는 [공권녀/공궤력/공권력]과 경음으로 발음하는 [공궤녀/공궤력/공궤력]의 수치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어원의 조사 목적과 별개로 본 연구를 위한 메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 공궤력 발음 실태(국립국어원, 2024:38)

국어원의 발음 실태 조사에서는 경음화와 구별하여 사잇소리를 조사 항목으로 두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보고서에서 사잇소리 실태 조사를 위해 ‘수눔, 안간힘, 존댓말, 인사말, 반대말, 편지글, 머리글, 인기척, 뱃멀미, 해님, 장맛비, 밤새, 김밥, 찜닭, 가로수 길, 둘레 길, 장사 일, 빨래 바구니, 새우 살’의 발음 조사를 하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안간힘, 편지글, 인기척, 장맛비, ...’ 등은 결과적으로 경음을 실현하므로 경음화 변이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입장에서 메타분석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2016, 2023, 2024년 보고서에서 경음화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메타분석 자료를 모두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본고에서 관심을 두는 경음화 관련 내용

연도	구분(항목 유형)	조사 자료(단어)
2016	사잇소리	안간힘, 밤새, 인기척, 김밥, 머리글, 편지글, 장맛비, 찜닭, 가로수 길, 둘레 길, 빨래 바구니, 새우 살
	ㄴ, ㄹ 연쇄	공권력,
	경음화	물질적, 창고, 교과서, 효과, 체증, 날짐승, 길짐승, 고가, 불법 체류
2023	사잇소리	장맛비
	유기음화/경음화	신기다
2024	사잇소리	장맛비
	유음화/비음화	공권력
	경음화	간단하다

<표 4>에서 보듯이 국립국어원의 발음 조사 항목 가운데 ‘사잇소리, ㄴ·ㄹ 연쇄, 경음화, 유기음화/경음화, 유기음화/비음화’ 유형의 자료 가운데 경음이 실현 여부가 제시된 어휘들은 본 연구의 메타분석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국어원의 구분(조사 항목)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사잇소리’의 조사 자료(단어)와 경음화 조사 자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통상 사잇소리는 두 개의 형태소나 단어가 어울려 합성어를 이룰 때 그 사이에 덧나는 소리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밤새’, ‘김밥’, ‘머릿글’ 등의 합성어는 사잇소리 항목으로 다루는 데 문제가 없으나 ‘안간힘’, ‘인기척’ 등은 사잇소리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물론 음운론적으로 볼 때 ‘ㄴ’이 음절 경계에서 뒤에 오는 소리를 경음화하는 필연적인 조건이 아니므로 사잇소리가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같은 연도의 보고서에서 ‘창고, 교과서, 효과, 체증’ 등은 경음화 조사 항목으로 구분한 것과 맞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어원의 조사 자료를 재분류하여 사잇소리 조건은 형태소나 단어 경계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음절 경계로 구분하도록 한다. 다만 ‘신기다’의 경우 조사 자료 중 유일하게 어간 활용형에서 나타나므로 ‘굴곡’으로 구분하였고 ‘길짐승’과 ‘날짐승’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긴 하나 ‘물질적’, ‘불법’ 등과 마찬가지로 음절 경계 조건의 변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음절 경계(자음 ‘ㄹ’ 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2016, 2023, 2024년 국어원 보고서 자료 가운데 본 연구에서 선정하고 재분류한 경음화 양상 조사 항목은 모두 다음과 같다.

<표 5> 재분류 내용

사잇소리(형태 경계)		밤새, 김밥, 머리글, 편지글, 장맛비, 찜닭, 가로수길, 둘레길, 새우살, 빨래 바구니	
음절 경계	자음 뒤	받침 ‘ㄹ’ 뒤	길짐승, 날짐승, 물질적, 불법
		받침 ‘ㅇ’ 뒤	창고, 공권력
	받침 ‘ㄴ’ 뒤	간단하다, 안간힘, 인기척	
	모음 뒤	고가, 교과서, 체증, 효과	
굴곡		신기다	

국어원의 조사에서는 발음의 변인으로 지역, 성별, 연령 등의 변인을 두고 있는데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음화의 양상을 살피는 것이므로 이 가운데 연령 변인만 분석 대상으로 한다. 국어원에서는 연령대를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의 6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예를 들어 젊은 연령대의 경음화 비율이 고연령대보다 높을 경우 해당 어휘는 경음화가 강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반대라면 오히려 경음화가 약화되는 양상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주목하는 것은 어중 경음화 또는 평음화의 추이를 살피는 것이므로 경음화 약화 또는 강화를 좀더 명시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국어원에서 6단계로 구분한 것을 다시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그 상대적 비율을 기준으로 각 어휘의 경음화 또는 평음화 경향을 판정하기로 한다.

3. 어중 경음화 메타 분석

3.1. 사잇소리(형태소 경계)에 따른 경음화

3.1.1. 밤새

‘밤새’는 ‘밤사이’의 준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밤새’의 표준 발음은 [밤새]와 [밤쌌]로 평음과 경음을 모두 복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였다. 이 두 발음 중 언중들은 어떤 발음을 선호하는지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의 결과를 보면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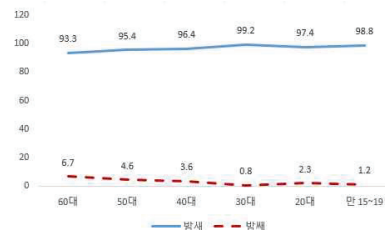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밤새’로 발음하는 비율이 98.8%, 20대는 97.4%, 30대는 99.2%, 40대는 96.4%, 50대는 95.4%, 60대는 93.3%이다. 반면에 경음인 ‘밤쌌’로 발음하는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1.2%, 20대는 2.3%, 30대는 0.8%, 40대는 3.6%, 50대는 4.6%, 60대는 6.7%이다. ‘밤새’의 발음은 [밤쌌]로 발음하는 경음보다 평음인 [밤새]로 발음하는 비율이 모든 연령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연령별 경음화 추세를 판정하기 위해서 만 15세부터 30대까지 평균값과 40대부터 60대까지의 평균값을 각각 구하고자 한다. [밤쌌]로 발음하는 평균 비율을 보면, 40대부터 60대까지의 평균값 14.9%이고 만 15세부터 30대까지의 평균값은 4.3%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음 비율이 낮아진다 (14.9% → 4.3%). <그림 2>에서 보듯이 어중 평음이 우세하고 어중 경음이 약화되고 있다. ‘밤새’는 평음화 추이 판정 어휘이다.

<표 6> 밤새(김창영 외, 2016:222)

연령별	밤새	밤쌌	경음화 판정
만 15~19	98.8	1.2	4.3
20대	97.4	2.3	
30대	99.2	0.8	
40대	96.4	3.6	14.9
50대	95.4	4.6	
60대	93.3	6.7	

<그림 2> ‘밤새’와 ‘밤쌌’의 발음 추이



3.1.2. 김밥

‘김밥’의 표준 발음은 [김:밥]과 [김:뺨]이다. 그런데 2016년 이전에는 ‘김밥’의 표준 발음은 [김:뺨]이었다. 그러나 언중들이 ‘김밥’을 [김:뺨]으로 발음하는 실태를 반영하여 2016년에 국립국어원에서 규범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복수 표준 발음을 허용하였다.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에서 ‘김밥’의 발음 실태를 보면 〈표 7〉과 같다. ‘김밥’의 발음의 비율을 보면,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1.9%, 20대는 2.9%, 30대는 3.1%, 40대는 2.7%, 50대는 4.3%, 60대는 7.5%로 나타났다. 반면에 ‘김빡’의 발음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98.1%, 20대는 96.8%, 30대는 96.9%, 40대는 96.6%, 50대는 95.7%, 60대는 92.5%이다. [김빡]의 최고 비율은 만 15세-19세로 98.1%이고 최저 비율은 60대에서 92.5%이다. ‘김밥’의 경우는 모든 연령대에서 경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이 90%가 넘는다.

연령별 경음화 평균값을 구하면, 만 15세부터 30대는 97.27%이고 40대부터 60대는 94.93%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화가 증가하고 있다(94.93% → 97.27%). 〈그림 3〉을 보면 [김밥]의 평음 발음보다는 [김빡]의 경음 발음이 우세하다. ‘김밥’은 경음화 추세 어휘이다.

<표 7> 김밥(김창영 외, 2016:225)

연령별	김밥	김빡	경음화 판정
만 15~19	1.9	98.1	97.27
20대	2.9	96.8	
30대	3.1	96.9	
40대	2.7	96.6	94.93
50대	4.3	95.7	
60대	7.5	92.5	

<그림 3> ‘김밥’과 ‘김빡’의 발음 추이



3.1.3. 머리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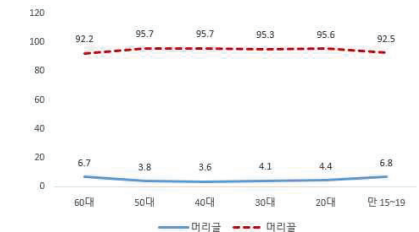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머리글’의 표준 발음은 [머리글]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을 보면 [머리꼴]이 압도적으로 많다. ‘머리글’의 발음 실태를 보면 〈표 8〉과 같다. ‘머리글’로 발음한 경우는 만 15세부터 19세는 6.8%, 20대는 4.4%, 30대는 4.1%, 40대는 3.6%, 50대는 3.8%, 60대는 6.7%이다. ‘머리꼴’의 발음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92.5%, 20대는 95.6%, 30대는 95.3%, 40대는 95.7%, 50대는 95.7%, 60대는 92.2%이다.

연령별 경음화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94.47%이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94.53%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94.53% → 94.47%). ‘머리글’의 경우는 평음화가 진행되고 있다.

<표 8> 김창영 외(2016:207)

연령별	머리글	머리꼴	경음화 판정
만 15~19	6.8	92.5	94.47
20대	4.4	95.6	
30대	4.1	95.3	
40대	3.6	95.7	94.53
50대	3.8	95.7	
60대	6.7	92.2	

<그림 4> ‘머리글’과 ‘머리꼴’의 발음 추이



3.1.4. 편지글²⁾

2) 김창영(2016:53)에서는 ‘편지글, 머리글’은 ‘존댓말’과 동일하게 ‘편짓글, 머릿글’과 같이 인식되는 경향이 우세하므로 이를 향후 표준발음법 개정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편지글’의 표준 발음은 [편:지글]로 어중 평음이 표준 발음이다. 그런데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에서는 표준 발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편지글’의 발음을 살펴보면 만 15세부터 19세까지 어중 평음 발음 비율은 14.3%, 20대는 15.8%, 30대는 18.1%, 40대는 26.9%, 50대는 31.4%, 60대는 33.7%이다. 반면에 어중 경음으로 발음한 ‘편지글’의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85.7%, 20대는 83.6%, 30대는 81.1%, 40대는 71.8%, 50대는 67.9%, 60대는 63.5%이다.

만 15세부터 30대의 ‘편지글’의 경음 평균 발음 비율은 83.47%이고 40대부터 60대까지의 경음 평균 발음 비율은 67.73%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화가 증가하고 있다(67.73% → 83.47%). <그림 5>를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음으로 더 많이 발음한다. ‘편지글’은 경음화가 진행되고 있는 어휘이다.

<표 9> 김창영 외(2016:204)

연령별	편지글	편지꼴	경음화 판정
만 15~19	14.3	85.7	83.47
20대	15.8	83.6	
30대	18.1	81.1	
40대	26.9	71.8	67.73
50대	31.4	67.9	
60대	33.7	63.5	

<그림 5> ‘편지글’과 ‘편지꼴’의 발음 추이



3.1.5. 장맛비

언중들의 ‘장맛비’에 대한 발음 실태는 <표 10>과 같다. ‘장마비’로 발음하는 경우를 보면, 만 15세부터 19세까지 비율은 61.6%, 20대는 50.3%, 30대는 52.7%, 40대는 49.5%, 50대는 49.9%, 60대는 43.7%이다. 반면에 ‘장만빠’로 발음하는 경우는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38.4%, 20대는 49.1%, 30대는 46.2%, 40대는 50.5%, 50대는 49.2%, 60대는 55.2%이다.

연령별 경음화 평균값을 보면,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44.57%이고 40대부터 60대까지의 경음 평균값은 51.63%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이 약화하고 있다(51.63% → 44.57%). <그림 6>에서 보듯이 어중 평음 발음이 점점 증가하고 반면에 어중 경음 발음은 약화하고 있다.³⁾ ‘장맛비’는 점점 평음화가 진행되는 어휘이다.

3) 김창영 외(2016:219)에서도 ‘장맛비’ 발음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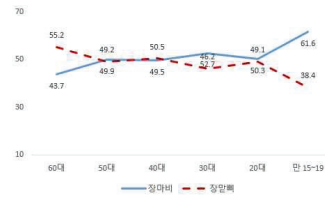
연령별	장마비	장만빠	경음화 판정
만 15~19	12.4	87.6	87.20
20대	9.1	90.6	
30대	16.6	83.4	
40대	23.5	76.3	71.17
50대	23.5	75.8	
60대	28.2	61.4	

2016년에 조사한 ‘장맛비’의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화가 높아졌다(87.20% → 71.17%). 이는 2024년도에 조사한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시간이 흐를수록 발음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휘이다. 이은빈 외(2024:111)에서도 ‘장맛비’에서는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표준 발음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표 10> 이른빈 외(2024:79)

연령별	장마비	장말뻐	경음화 관정
만 15~19	61.6	38.4	44.57
20대	50.3	49.1	
30대	52.7	46.2	
40대	49.5	50.5	51.63
50대	49.9	49.2	
60대	43.7	55.2	

<그림 6> '장마비'와 '장말뻐'의 발음 추이



3.1.6. 찹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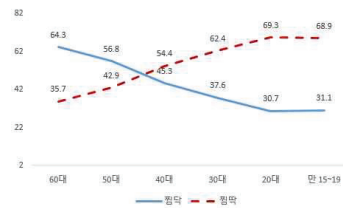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찹닭’의 표준 발음은 [찹닥]이다. ‘찹닭’의 발음 양상을 보면 <표 11>과 같다. ‘찹닥’으로 발음하는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31.1%, 20대는 30.7%, 30대는 37.6%, 40대는 45.3%, 50대는 56.8%, 60대는 64.3%이다. 반면에 ‘찹딱’의 발음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 68.9%, 20대는 69.3%, 30대는 62.4%, 40대는 54.4%, 50대는 42.9%, 60대는 35.7%이다.

연령별 경음화 평균 비율을 보면,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66.87%이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44.33%이다. ‘찹닭’은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44.33% → 66.87%). <그림 7>에서 보듯이 ‘찹닭’의 경우는 표준 발음과 달리 어중 경음인 [찹딱]으로 발음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11> 김창영 외(2016:228)

연령별	찹닥	찹딱	경음화 관정
만 15~19	31.1	68.9	66.87
20대	30.7	69.3	
30대	37.6	62.4	
40대	45.3	54.4	44.33
50대	56.8	42.9	
60대	64.3	35.7	

<그림 7> ‘찹닥’과 ‘찹딱’의 발음 추이



3.1.7. 가로수 길

‘가로수 길’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어휘이다. 언중들은 ‘가로수 길’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을 보면 <표 12>와 같다. ‘가로수길’로 발음하는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11.2%, 20대는 9.9%, 30대는 11.9%, 40대는 18.0%, 50대는 18.0%, 60대는 22.0%이다. 반면에 ‘가로수길’로 발음하는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87.6%, 20대는 88.3%, 30대는 84.7%, 40대는 79.5%, 50대는 75.8%, 60대는 71.4%이다. 어중 경음인 ‘가로수길’로 발음하는 최고 비율은 88.3%이고 최저 비율은 71.4%이다.

만 15세부터 30대까지 경음 평균 비율은 86.87%이고 40대부터 60대까지 경음 평균 비율은 75.57%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75.57% → 86.87%). <그림 8>에서도 보듯이 어중 경음 발음인 [가로수길]이 모든 연령대에서 일정하게 높게 나타난다. ‘가로수 길’은 경음화가 우세한 어휘이다.

<표 12> 김창영 외(2016:228)

연령별	가로수길	가로수길	경음화 판정
만 15~19	11.2	87.6	86.87
20대	9.9	88.3	
30대	11.9	84.7	
40대	18.0	79.5	75.57
50대	18.0	75.8	
60대	22.0	71.4	

<그림 8> '가로수길'과 '가로수길'의 발음 추이



김창영 외(2016:42)에서는 '가로수길'로 쓴다면 수도권 거주자의 80% 이상이 [가로수길]로 발음하고 있으므로 [가로수길]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붙여 쓴다면 표기도 '가로수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1.8. 들레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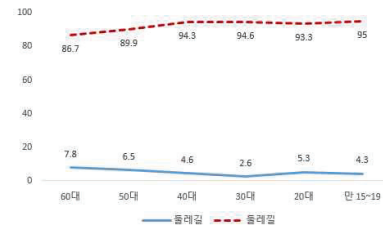
'들레 길'도 사전에 없는 어휘이다. 다만 <우리말샘>을 검색해 보면 '들레길'의 발음을 [들레길]로 표기하였다.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에서 '들레 길'의 발음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어중 평음으로 발음한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4.3%, 20대는 5.3%, 30대는 2.6%, 40대는 4.6%, 50대는 6.5%, 60대는 7.8%이다. 반면에 어중 경음인 '들레길'의 발음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95.0%, 20대는 93.3%, 30대는 94.6%, 40대는 94.3%, 50대는 89.9%, 60대는 86.7%이다. [들레길]로 발음하는 최고 비율은 95.0%이고 최저 비율은 86.7%이다.

어중 경음 발음인 '들레길'의 평균값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평균 비율이 94.30%이고 40대부터 60대까지 평균 비율은 90.30%이다. 들레 길'은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화가 진행된다(90.30% → 94.30%). <그림 9>에서 보듯이 평음 발음 비율보다는 어중 경음 발음 비율인 [들레길]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들레 길'은 경음화가 우세하다.⁴⁾

<표 13> 김창영 외(2016:234)

연령별	들레길	들레길	경음화 판정
만 15~19	4.3	95.0	94.30
20대	5.3	93.3	
30대	2.6	94.6	
40대	4.6	94.3	90.30
50대	6.5	89.9	
60대	7.8	86.7	

<그림 9> '들레길'과 '들레길'의 발음 추이



3.1.9. 새우 살

'새우 살'은 단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없는 어휘이다.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에서 '새우 살'의 발음 현황을 보면 <표 14>와 같다. '새우살'로 발음하는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47.8%, 20대는 47.7%, 30대는 45.3%, 40대는 58.5%, 50대는 63.5%, 60대는 60.8%이다. 반면에 어중 경음인 '새우살'의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50.9%, 20대는 50.6%, 30대는 52.1%, 40대는 40.5%, 50대는 33.3%, 60대는 35.3%이다.

4) 김창영 외(2016:42)에 따르면 [들레길]로 발음하는 비율이 전국 단위든 수도권이든 90%가 넘는다는 점에서 [들레길]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표기도 '들레길'이 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연령별 경음 평균 비율은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51.20%이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36.37%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화가 증가한다(36.37% → 51.29%). <그림 10>을 보면 어중 경음인 [새우살]의 발음이 점차 늘어나고 어중 평음인 [새우살]은 점차 감소한다. '새우 살'은 경음화 추이 어휘이다.

<표 14> 김창영 외(2016:243)

연령별	새우살	새우살	경음화 판정
만 15~19	47.8	50.9	51.20
20대	47.7	50.6	
30대	45.3	52.1	
40대	58.5	40.5	36.37
50대	63.5	33.3	
60대	60.8	35.3	

<그림 10> '새우살'과 '새우살'의 발음 추이



김창영 외(2016:43)에서는 고기의 특수 부위로 '새우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보이는 '새우 살'이 단어로 등재된다면 '갈빗살, 안창살, 뱃살, 항정살'의 발음 예와 표기를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갈매기살[갈매기살], 불살[불살]'의 표준 발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3.1.10. 빨래 바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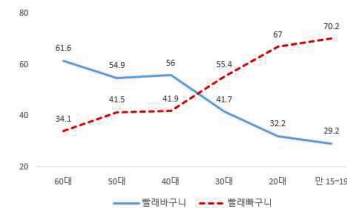
'빨래 바구니'는 단어가 아니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우리말샘>에서는 구 처리가 된 '빨래 바구니'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발음은 표시하지 않았다. '빨래 바구니'에 대한 언중들의 발음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를 통해 확인해 보면 <표 15>와 같다. 어중 평음인 '빨래바구니'로 발음한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29.2%, 20대는 32.2%, 30대는 41.7%, 40대는 56.0%, 50대는 54.9%, 60대는 61.6%이다. 반면에 어중 경음 발음인 '빨래빠구니'는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70.2%, 20대는 67.0%, 30대는 55.4%, 40대는 41.9%, 50대는 41.5%, 60대는 34.1%이다.

연령별 경음 평균 비율을 비교해 보면,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64.20%이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39.17%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 비율이 증가한다(39.17% → 64.20%).⁵⁾ <그림 11>을 보면 어중 경음인 [빨래빠구니]로 발음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표 15> 김창영 외(2016:240)

연령별	빨래바구니	빨래빠구니	경음화 판정
만 15~19	29.2	70.2	64.20
20대	32.2	67.0	
30대	41.7	55.4	
40대	56.0	41.9	39.17
50대	54.9	41.5	
60대	61.6	34.1	

<그림 11> '빨래바구니'와 '빨래빠구니'의 발음 추이



5) 김창영 외(2016:42)에서는 [빨래빠구니]로 발음하는 경우가 높은 것에 대해 낮은 연령대에서 합성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3.2. 음절 경계에서의 경음화

3.2.1. 자음 뒤

3.2.1.1. 받침 ‘ㄹ’ 뒤

(1) 길짐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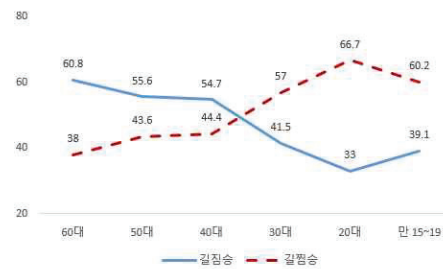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길짐승’의 표준 발음은 [길짐승]이다. ‘길짐승’에 대한 언중들의 현실 발음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어중 평음인 ‘길짐승’의 발음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39.1%, 20대는 33.0%, 30대는 41.5%, 40대는 54.7%, 50대는 55.6%, 60대는 60.8%이다. 어중 경음 발음인 ‘길짐승’의 발음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60.2%, 20대는 66.7%, 30대는 57.0%, 40대는 44.4%, 50대는 43.6%, 60대는 38.0%이다. 어중 경음으로 발음한 최고 비율은 20대에서 66.7%이고 최저 비율은 60대에서 38.0%이다.

어중 경음 비율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61.30%이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42.0%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음화가 증가한다(42.00% → 61.30%). <그림 12>에서 보듯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길짐승]의 경음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길짐승’은 경음화가 진행되는 어휘이다.

<표 16> 김창영 외(2016:270)

연령별	길짐승	길짐승	경음화 판정
만 15~19	39.1	60.2	61.30
20대	33.0	66.7	
30대	41.5	57.0	
40대	54.7	44.4	42.00
50대	55.6	43.6	
60대	60.8	38.0	

<그림 12> ‘길짐승’과 ‘길짐승’의 발음 추이



(2) 날짐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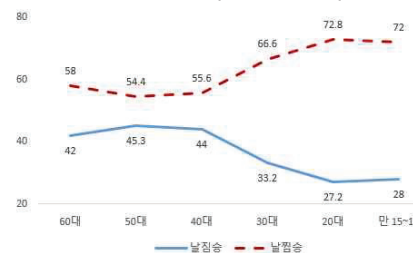
‘날짐승’의 현실 발음 실태를 보면 <표 17>과 같다. 어중 평음인 ‘날짐승’의 발음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28.0%, 20대는 27.2%, 30대는 33.2%, 40대는 44.0%, 50대는 45.3%, 60대는 42.0%이다. 반면에 어중 경음인 ‘날짐승’의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72.0%, 20대는 72.8%, 30대는 66.6%, 40대는 55.6%, 50대는 54.4%, 60대는 58.8%이다.

‘날짐승’의 경음 비율 평균값은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70.47%, 40대부터 60대는 56.00%이다. 젊은 연령일수록 경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56.00% → 70.47%). <그림 13>에서 보듯이 [날짐승]으로 발음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한다. ‘날짐승’은 경음화가 계속 진행되는 어휘이다.

<표 17> 김창영 외(2016:273)

연령별	날짐승	날짐승	경음화 판정
만 15~19	28.0	72.0	70.47
20대	27.2	72.8	
30대	33.2	66.6	
40대	44.0	55.6	56.00
50대	45.3	54.4	
60대	42.0	58.0	

<그림 13> ‘날짐승’과 ‘날짐승’의 발음 추이



(3) 물질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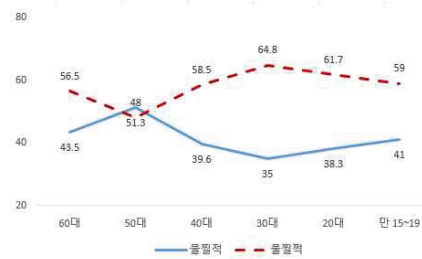
‘물질적’의 표준 발음은 [물질적]이다.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에서 ‘물질적’의 발음 실태를 보면 <표 18>과 같다. 어중 평음 발음인 ‘물질적’으로 발음한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41.0%, 20대는 38.3%, 30대는 35.0%, 40대가 39.6%, 50대는 51.3%, 60대는 43.5%이다. 반면에 어중 경음 발음인 ‘물질적’의 발음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59.0%, 20대는 61.7%, 30대는 64.8%, 40대는 58.5%, 50대는 48.0%, 60대는 56.5%이다. ‘물질적’으로 발음하는 최고 비율은 64.83%이고, 최저 비율은 48.0%이다.

연령별로 어중 경음 평균 비율을 보면,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61.83%이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54.33%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음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54.33% → 61.83%). <그림 14>에서 보듯이 나이가 어릴수록 [물질적]의 발음이 증가한다. ‘물질적’은 경음화가 진행되는 어휘이다.

<표 18> 김창영 외(2016:264)

연령별	물질적	물질적	경음화 판정
만 15~19	41.0	59.0	61.83
20대	38.3	61.7	
30대	35.0	64.8	
40대	39.6	58.5	54.33
50대	51.3	48.0	
60대	43.5	56.5	

<그림 14> ‘물질적’과 ‘물질적’의 발음 추이



(4) 불법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불법’의 표준 발음은 [불법]과 [불뻬]으로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한다.⁶⁾ ‘불법’의 발음 현실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를 통해 확인해 보면 <표 19>와 같다. 어중 평음인 ‘불법’의 발음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5.0%, 20대는 2.6%, 30대는 2.1%, 40대는 5.9%, 50대는 5.3%, 60대는 14.1%이다. 어중 경음 발음인 ‘불뻬’의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95.0%, 20대는 97.4%, 30대는 97.7%, 40대는 93.8%, 50대는 94.5%, 60대는 85.9%이다. ‘불뻬’의 최고 비율은 97.7%이고 최저 비율은 85.9%이다.

어중 경음 발음인 ‘불뻬’의 평균값을 보면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96.70%, 40대부터 60대는 91.40%이다. 평균값을 보더라도 ‘불법’의 경우는 어중 경음인 [불뻬]이 더 자주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 비율이 높다(91.40% → 96.70%). <그림 15>를 보면 [불뻬]의 발음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은 경음화가 우세하다.

6) ‘불법’의 경우, 2017년 이전에는 어중 평음인 [불법]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였다. 2017년에 어중 경음인 [불뻬]도 인정하였다. <표 19>에서 보듯이 어중 경음 발음인 [불뻬]이 압도적으로 높다.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어중 평음인 [불법]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문이다. 복수 표준 발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면 한다.

<표 19> 김창영 외(2016:267)

연령별	불법	불뺨	경음화 판정
만 15~19	5.0	95.0	96.70
20대	2.6	97.4	
30대	2.1	97.7	
40대	5.9	93.8	91.40
50대	5.3	94.5	
60대	14.1	85.9	

<그림 15> '불법'과 '불뺨'의 발음 추이



3.2.1.2. 받침 ‘ㅇ’ 뒤 : 창고

(1)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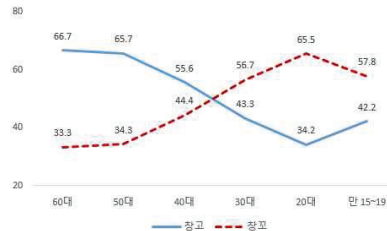
‘창고’의 표준 발음은 [창고]이다. ‘창고’에 대한 언중들의 발음 실태를 보면 <표 20>과 같다. ‘창고’의 발음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42.2%, 20대는 34.2%, 30대는 43.3%, 40대는 55.6%, 50대는 65.7%, 60대는 66.7%이다. 어중 경음인 ‘창꼬’의 발음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는 57.8%, 20대는 65.5%, 30대는 56.7%, 40대는 44.4%, 50대는 34.3%, 60대는 33.3%이다.

경음 발음 비율의 평균값을 보면, 만 15세부터 30대는 60.00%이고, 40대부터 60대는 37.33%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37.33% → 60.00%). <그림 16>에서 보듯이 연령이 낮을수록 어중 경음 발음인 [창꼬] 비율이 점점 우세하게 나타난다. ‘창고’는 경음화 우세 어휘이다.

<표 20> 김창영 외(2016:255)

연령별	창고	창꼬	경음화 판정
만 15~19	42.2	57.8	60.00
20대	34.2	65.5	
30대	43.3	56.7	
40대	55.6	44.4	37.33
50대	65.7	34.3	
60대	66.7	33.3	

<그림 16> ‘창고’와 ‘창꼬’의 발음 추이



(2) 공권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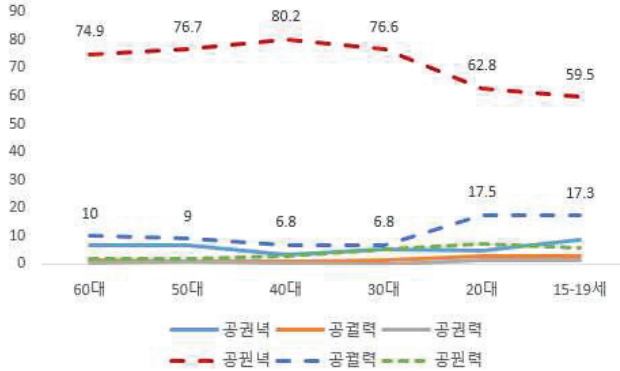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공권력’은 주로 ‘ㄴ·ㄹ’ 연쇄의 발음을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경음화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기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공권력’의 표준 발음은 [공권력]이다. ‘공권력’의 발음을 언중들은 <표 21>에서 보듯이 [공권녁], [공궐력], [공권력], [공권녁], [공궐력], [공궐력]으로 다양하게 발음하였다. 어중 평음 발음 중 최고 비율은 8.5%(공권녁, 만 15-19세)이고 최저 발음 비율은 0.2%(공권력, 30대)이다. 어중 경음 발음 비율을 보면 최고 비율은 80.2%(공궐력, 40대)이고 최저 비율은 1.7%(공궐력, 50대)이다. <표 20>에서 보듯이 평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은 10% 이하이다.

어중 경음 평균값을 구해 보면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86.27%이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88.07%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 비율이 낮아진다(88.07% → 86.27%). ‘공권력’은 점점 평음화가 진행되고 있는 어휘이다.

<표 21> 이은빈 외(2024:91)

연령별	평음			경음			경음화 판정
	공권녀	공궐력	공권력	공권녀	공궐력	공권력	
15~19세	8.5	3.0	1.2	59.5	17.3	5.7	86.27
20대	4.8	2.9	1.6	62.8	17.5	7.1	
30대	5.4	1.5	0.2	76.6	6.8	5.5	
40대	3.4	0.9	0.6	80.2	6.8	3.1	88.07
50대	6.6	1.1	1.0	76.7	9.0	1.7	
60대	6.8	1.6	0.5	74.9	10.0	1.8	

<그림 17> '공권력'의 다양한 발음 추이



3.2.1.3. 받침 ‘ㄴ’ 뒤

(1) 간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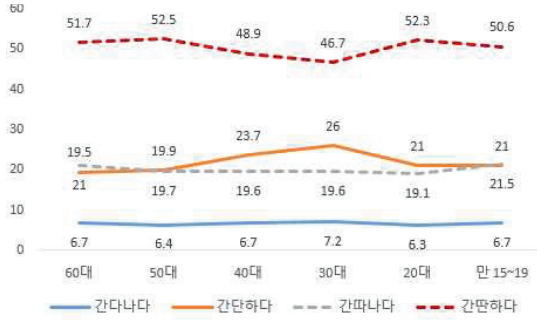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간단하다’의 표준 발음은 [간단하다]이다. 그러나 연중들은 [간단나다], [간단하다], [간따나다], [간판하다]로 다양하게 발음을 한다. 그 실태를 보면 <표 22>와 같다. ‘간단나다’라고 발음하는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는 6.7%, 20대는 6.3%, 30대는 7.2%, 40대는 6.7%, 50대는 6.4%, 60대는 6.7%이다. 어중 평음 발음인 ‘간단하다’의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21.0%, 20대는 21.0%, 30대는 26.0%, 40대는 23.7%, 50대는 19.9%, 60대는 19.5%이다. 어중 평음으로 발음한 최고 비율은 26.0%이고 최저 비율은 6.3%이다. 어중 경음 발음인 ‘간따나다’는 15세부터 19세까지는 21.5%, 20대는 19.1%, 30대는 19.6%, 40대는 19.6%, 50대는 19.7%, 60대는 21.0%이다. 또한 경음 발음인 ‘간판하다’의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50.6%, 20대는 52.3%, 30대는 46.7%, 40대는 48.9%, 50대는 52.5%, 60대는 51.7%이다.

경음으로 발음하는 ‘간따나다’와 ‘간판하다’의 경음 평균값을 구해보면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69.94%이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71.13%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화가 줄어들었다(71.13% → 69.94%). ‘간단하다’는 평음화가 진행된다.

<표 22> 이은빈 외(2024:67)

연령별	평음		경음		경음화 판정
	간단나다	간단하다	간따나다	간판하다	
만 15~19	6.7	21.0	21.5	50.6	69.94
20대	6.3	21.0	19.1	52.3	
30대	7.2	26.0	19.6	46.7	
40대	6.7	23.7	19.6	48.9	71.13
50대	6.4	19.9	19.7	52.5	
60대	6.7	19.5	21.0	51.7	

<그림 18> '간다나다'와 '간단하다', '간따나다'와 '간뎨하다'의 발음 추이



(2) 안간힘

'안간힘'의 표준 발음은 [안간힘]과 [안간힘]으로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한다.⁷⁾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의 결과를 보면 '안간힘'의 발음 실태는 <표 23>과 같다. 어중 평음 발음인 '안간힘'의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는 100%, 20대는 98.5%, 30대는 96.9%, 40대는 90.0%, 50대는 88.7%, 60대는 90.6%이다. 반면에 어중 경음 발음인 '안간힘'은 15세부터 19세는 0%, 20대는 1.2%, 30대는 2.3%, 40대는 10.0%, 50대는 11.3%, 60대는 8.6%이다. '안간힘'의 경우 어중 경음 발음보다는 어중 평음 발음이 더 많이 나타났다.

어중 경음 평균값을 보면 만 15세부터 30대는 1.17%이고 40대부터 60대는 9.97%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어중 경음이 줄어든다(9.97% → 1.17%). <그림 19>에서 보듯이 어중 평음 발음인 [안간힘]이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안간힘'은 평음화가 진행되는 어휘이다.

<표 23> 김창영 외(2016:192)

연령별	안간힘	안간힘	경음화 판정
만 15~19	100	0.0	1.17
20대	98.5	1.2	
30대	96.9	2.3	
40대	90.0	10.0	9.97
50대	88.7	11.3	
60대	90.6	8.6	

<그림 19> '안간힘'과 '안간힘'의 발음 추이



(4) 인기척

'인기척'도 '안간힘'과 마찬가지로 복수 표준 발음 어휘이다. 언중들의 발음 현실을 보면 <표 24>와 같다. 어중 평음 발음인 '인기척'의 경우, 만 15세부터 19세는 70.8%, 20대는 68.4%, 30대는 72.0%, 40대는 67.0%, 50대는 59.0%, 60대는 60.8%이다. 어중 평음 최고 비율은 30대가 72.0%로 가장 높았고, 최저 비율은 50대가 59.0%이다. 어중 경음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는 29.2%, 20대는 31.6%, 30대는 28.0%, 40대는 33.0%, 50대는 40.8%, 60대는 39.2%이다. 어중 경음 최고 비율은 40.8%(50대), 최저 비율은 28.0%(30대)이다.

7) '안간힘'의 표준 발음은 2017년 이전에는 어중 경음인 [안간힘]이었다. 그런데 2017년에 어중 평음과 어중 경음 모두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하여 수정하였다. 이는 어중 경음 약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기척, 효과'도 2017년에 표준 발음을 수정하여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하였다.

연령별 경음 발음 평균값을 보면,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29.60%이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37.67%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 비율이 감소했다(37.67% → 29.60%). '인기척'의 경우는 어중 경음보다는 어중 평음 발음을 언중들이 더 선호한다.⁸⁾ <그림 20>을 보면 어중 평음 발음인 [인기척]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인기척'은 평음화가 진행된다.

<표 24> 김창영 외(2016:210)

연령별	인기척	인끼척	경음화 판정
만 15~19	70.8	29.2	29.60
20대	68.4	31.6	
30대	72.0	28.0	
40대	67.0	33.0	37.67
50대	59.0	40.8	
60대	60.8	39.2	

<그림 20> '인기척'과 '인끼척'의 발음 추이



3.2.2. 모음 뒤

(1) 고가(고가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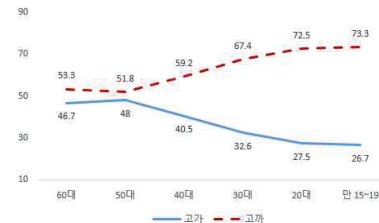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에서 '고가'는 '고가 도로'를 의미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함성어로 현재는 등재되어 있고 표준 발음은 [고가도로]이다. '고가'의 발음을 언중들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어중 평음 발음인 '고가'의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는 26.7%, 20대는 27.5%, 30대는 32.6%, 40대는 40.5%, 50대는 48.0%, 60대는 46.7%이다. 어중 경음 발음인 '고까'의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73.3%, 20대는 72.5%, 30대는 67.4%, 40대는 59.2%, 50대는 51.8%, 60대는 53.3%이다. 어중 경음 최고 비율은 73.3%이고 최저 비율은 51.8%이다. 언중들은 어중 평음 발음보다는 어중 경음 발음을 더 많이 실현하고 있다.

경음 발음의 평균값을 구하면,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평균값이 71.07%이고, 40대부터 60대는 54.77%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어중 경음 발음을 선호한다(54.77% → 71.07%). <그림 21>을 보면, 어중 경음 발음인 [고까]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인다.⁹⁾

<표 25> 김창영 외(2016:249)

연령별	고가	고까	경음화 판정
만 15~19	26.7	73.3	71.07
20대	27.5	72.5	
30대	32.6	67.4	
40대	40.5	59.2	54.77
50대	48.0	51.8	
60대	46.7	53.3	

<그림 21> '고가'와 '고까'의 발음 추이



8) 김선철(2003), 오새내(2006), 한명숙·박동근(2012)에서도 '인기척'은 경음에 비해 평음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항목	발음 유형	김선철(2003), <표준 발음 실태 조사(II)>	오새내(2006)	한명숙·박동근(2012)
인기척	평음	60.86	64.2	61.22
	경음	37.14	35.8	38.78

9) 김창영 외(2016:41)에서도 세대적 특성으로 볼 때 '고가'의 현실 발음은 [고가]에서 [고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언급하였다.

(2)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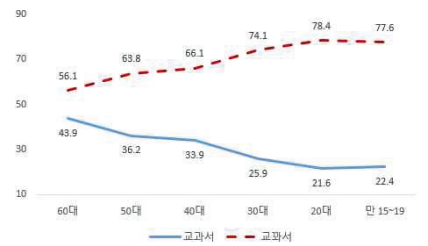
‘교과서’는 복수 표준 발음 어휘로 [교:과서]와 [교:파서]를 둘 다 인정한다.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을 통해 ‘교과서’의 발음을 보면 <표 26>과 같다. 어중 평음 발음인 ‘교과서’의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는 22.4%, 20대는 21.6%, 30대는 25.9%, 40대는 33.9%, 50대는 36.2%, 60대는 43.9%이다. 반면에 어중 경음 발음인 ‘교파서’의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는 77.6%, 20대는 78.4%, 30대는 74.1%, 40대는 66.1%, 50대는 63.8%, 60대는 56.1%이다.

‘교과서’의 어중 경음 평균값은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76.70%이고 40대부터 60대는 62.00%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62.00% → 76.70%). 이는 <그림 2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를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 ‘교과서’는 경음화 추이 어휘이다.

<표 26> 김창영 외(2016:259)

연령별	교과서	교파서	경음
만 15-19	22.4	77.6	76.70
20대	21.6	78.4	
30대	25.9	74.1	
40대	33.9	66.1	62.00
50대	36.2	63.8	
60대	43.9	56.1	

<그림 22> ‘교과서’와 ‘교파서’의 발음 추이



(3) (교통) 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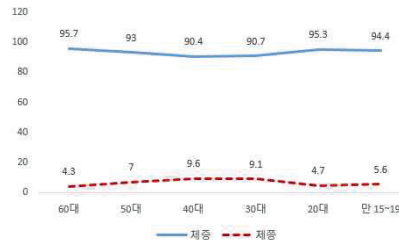
어중 평음인 ‘체증’의 발음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94.4%, 20대는 95.3%, 30대는 90.7%, 40대는 90.4%, 50대는 93.0%, 60대는 95.7%이다. 반면에 어중 경음 발음인 ‘체쯔’는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5.6%, 20대는 4.7%, 30대는 9.1%, 40대는 9.6%, 50대는 7.0%, 60대는 4.3%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어중 평음 발음 비율이 9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경음 평균값을 구하면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6.47%이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6.97%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6.97% → 6.47%). <그림 23>에서 보듯이 어중 평음 발음인 [체증]이 압도적으로 실현되었다. ‘체증’은 평음화가 진행된다.

<표 27> 김창영 외(2016:252)

연령별	체증	체쯔	경음화 판정
만 15-19	94.4	5.6	6.47
20대	95.3	4.7	
30대	90.7	9.1	
40대	90.4	9.6	6.97
50대	93.0	7.0	
60대	95.7	4.3	

<그림 23> ‘체증’과 ‘체쯔’의 발음 추이



(4) 효과

2017년 이전에 ‘효과’의 표준 발음은 [효:과]였다. 그러나 언중들은 대체로 ‘효과’를 [효: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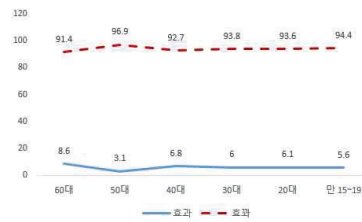
발음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하였다. 복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기 전의 자료인 ‘효과’의 발음 실태를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어중 평음 발음인 ‘효과’의 발음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 5.6%, 20대는 6.1%, 30대는 6.0%, 40대는 6.8%, 50대는 3.1%, 60대는 8.6%이다. 어중 평음의 발음 비율은 10% 이하로 실현하였다. 반면에 어중 경음 발음인 ‘효과’의 비율은 만 15세부터 19세까지는 94.4%, 20대는 93.6%, 30대는 93.8%, 40대는 92.7%, 50대는 96.9%, 60대는 91.4%이다. 어중 경음 최고 비율은 96.9%(50대)이고 최저 비율은 91.4%(60대)이다. 어중 경음 발음인 ‘효과’는 모든 연령대에서 90%가 넘는 비율을 보였다.

‘효과’의 경음 평균값을 확인해 보면,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93.93%이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93.67%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 비율이 증가한다(93.67% → 93.93%). <그림 24>에서 보듯이 어중 경음 발음인 [효과]가 압도적이다. ‘효과’는 경음화가 진행된 어휘이다.

<표 28> 김창영 외(2016:261)

연령별	효과	효과	경음화 판정
만 15~19	5.6	94.4	93.93
20대	6.1	93.6	
30대	6.0	93.8	
40대	6.8	92.7	93.67
50대	3.1	96.9	
60대	8.6	91.4	

<그림 24> ‘효과’와 ‘효과’의 발음 추이



3.3. 굴곡에서의 경음화

3.3.1. 신기다

‘신다’의 사동형인 ‘신기다’는 경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환경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들은 유기음화를 하거나 경음화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발음 실태를 살펴보면 <표 29>와 같이 ‘신기다’의 발음 유형은 [신기다], [신키다], [신끼다]로 나타났다.¹⁰⁾

먼저 [신기다]의 발음 비율을 보면 20대는 32.9%, 30대는 38.0%, 40대는 33.6%, 50대는 31.4%, 60대는 29.0%이다. 유기음화 발음인 [신키다]는 20대가 17.4%, 30대는 19.1%, 40대는 19.4%, 50대는 17.8%, 60대는 18.6%로 실현되었다. 어중 경음 발음인 [신끼다]는 20대가 49.7%, 30대는 41.9%, 40대는 47.1%, 50대는 50.6%, 60대는 52.0%이다. ‘신기다’의 표준 발음은 [신기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중들은 다양하게 발음한다.

‘신끼다’의 경음 발음 평균값을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는 46.23%이고 50대부터 60대까지는 51.30%이다.¹¹⁾ 연령이 낮을수록 경음 비율이 줄어든다(51.30% → 46.23%). ‘신기다’는 평음화가 진행되는 어휘이다. <그림 25>를 보면 어중 경음이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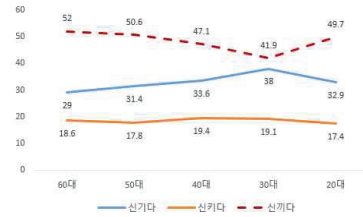
10) 신지영(2011:329)에서는 화자들이 [신끼다]로 발음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한국어 화자들이 ‘신기다’를 오분석하여 ‘신기+다’로 보지 못하고 비음 종결 어간 뒤 경음화 규칙을 이 단어에 잘못 적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해석은 유독 왜 ‘신기다’에서만 이러한 오분석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음은 ‘벗기다’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신기다’의 반대말인 ‘벗기다’에 끌려서 파생접사의 발음형을 ‘끼’로 유추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1)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 <2023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발음)>(2024)는 만 15세 이상부터 조사하였다. 따라서 2016년과 2024년의 자료에서 경음 평균값을 구할 때는 15세부터 30대까지, 40대부터 60대로 나누었다. 반면에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2023)은 20대부터 조사를 하였다. ‘신기다’의 경음 평균값을 구할 때는 20대부터 40대까지와 50대부터 60대까지로 나누어 구하였다.

<표 29> 김창영 외(2023:206)

연령별	신기다	신키다	신끼다	경음화 판정
20대	32.9	17.4	49.7	46.23
30대	38.0	19.1	41.9	
40대	33.6	19.4	47.1	
50대	31.4	17.8	50.6	51.30
60대	29.0	18.6	52.0	

<그림 25> '신기다, 신키다, 신끼다'의 발음 추이



4. 어중 경음화의 추이 양상

4.1. 평음화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경음화 현상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3장에서 각 연령별 경음화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경음이 약화하고 있는 어휘도 적지 않다.¹²⁾ 연령대별 경음화/평음화 실태를 살펴보면 실제로 평음화가 진행되고 있는 어휘에 '밤새, 머리글, 장맛비, 공권력, 간단하다, 안간힘, 인기척, 체증, 신기다' 등이 있다. 각 어휘들의 경음화 평균값을 살펴보면 <표 30>과 같다. 이를 편차가 큰 순서대로 다시 배열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0> 평음화 경향을 보이는 어휘

	연령별	경음화 판정	편차
밤새	만 15~30대	4.3	10.6
	40대~60대	14.9	
안간힘	만 15~30대	1.17	8.80
	40대~60대	9.97	
인기척	만 15~30대	29.60	8.07
	40대~60대	37.67	
장맛비	만 15~30대	44.57	7.06
	40대~60대	51.63	
신기다	20~40대	46.23	5.07
	50대~60대	51.30	
공권력	만 15~30대	86.27	1.80
	40대~60대	88.07	
간단하다	만 15~30대	69.94	1.19
	40대~60대	71.13	
체증	만 15~30대	6.47	0.50
	40대~60대	6.97	
머리글	만 15~30대	94.47	0.06
	40대~60대	94.53	

메타분석 결과 조사 대상 연령에 따라 평음화 경향을 가장 뚜렷이 보이는 어휘는 '밤새'이다.

12) 한명숙·박동근(2012)에서는 어중 경음 약화 현상에 주목하였다. 규범 사전에서 경음으로 발음이 표시되어 있는 어휘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중 평음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기 사건의 발음은 당시 앞 사건의 것을 답습한 것이었고, 사건의 보수적인 특성으로 현실 발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명숙(2024)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수정한 어휘 가운데 발음 수정 정보에 주목하였다. 특히 경음화와 관련된 어휘를 27개를 선정하여 대학생 558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발음 실태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경음이 약화하고 평음이 우세한 어휘를 확인하였다.

40~60대의 고령층에서는 ‘밤새’를 [밤쌌]로 발음하는 평균 비율이 14.9%였는데, 15~30대에서는 평균 4.3%만이 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연령에 따라 높은 변이율을 보인 것은 ‘인기척’으로 [인끼척]으로 발음하는 비율이 40대~60대 37.67%에서 15~30대는 29.60%으로 낮아졌다. 반면에 머리글은 [머리끌]로 발음하는 경우가 세대에 따른 큰 차이 없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4.2. 경음화

경음화가 우세한 어휘는 ‘김밥, 편지글, 찜닭, 가로수 길, 둘레 길, 새우 살, 빨래 바구니, 길짐승, 날짐승, 물질적, 불법, 창고, 고가, 교과서, 효과’이다. 각 어휘들의 경음 평균값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경음화 경향을 보이는 어휘

	연령별	경음화 판정	편차
빨래 바구니	만 15~30대	64.20	25.03
	40대~60대	39.17	
창고	만 15~30대	60.00	22.67
	40대~60대	37.33	
찜닭	만 15~30대	66.87	22.54
	40대~60대	44.33	
길짐승	만 15~30대	61.30	19.30
	40대~60대	42.00	
고가	만 15~30대	71.07	16.30
	40대~60대	54.77	
편지글	만 15~30대	83.47	15.74
	40대~60대	67.73	
새우 살	만 15~30대	51.20	14.83
	40대~60대	36.37	
교과서	만 15~30대	76.70	14.70
	40대~60대	62.00	
날짐승	만 15~30대	70.47	14.47
	40대~60대	56.00	
가로수 길	만 15~30대	86.87	11.30
	40대~60대	75.57	
물질적	만 15~30대	61.83	7.50
	40대~60대	54.33	
불법	만 15~30대	96.70	5.30
	40대~60대	91.40	
둘레 길	만 15~30대	94.30	4.00
	40대~60대	90.30	
김밥	만 15~30대	97.27	2.34
	40대~60대	94.93	
효과	만 15~30대	93.93	0.26
	40대~60대	93.67	

<표 31>에서 ‘빨래 바구니’의 경우, 어중 경음 평균값은 만 15세부터 30대까지는 64.20%이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39.17%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경음 비율이 증가한다(39.17% → 64.20%). 연령별 편차는 25.03%로 경음화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고, 찜닭, 길짐승’의 경우에도 고연령층의 경음화 비율이 50%이고 젊은 층은 50%를 넘어 뚜렷하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어중 경음화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김밥’과 ‘효과’는 전 세대에 걸쳐 어중 경음화가 높게 나타나는데 미세하긴 하지만 젊은 층의 경음화가 더 심화된 모습을 보인다.

5. 결과 종합 및 마무리

이 연구는 메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어의 어중 경음화 변이 양상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2023), <2023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발음)>(2024) 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대상 보고서에서 경음화/평음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휘를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경음화’ 외에 ‘사잇소리’, ‘ㄴ-ㄹ 연쇄’ 현황을 살피기 위해 조사된 어휘 가운데에도 경음화 추이를 살피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어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고서에서 ‘사잇소리’와 ‘경음화’의 구분이 모호한 점을 지적하고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어휘는 ‘밤새, 김밥, 머리글, 편지글, 장맛비, 찜닭, 가로수 길, 둘레 길, 새우 살, 빨래 바구니, 길짐승, 날짐승, 물질적, 불법, 창고, 공권력, 간단하다, 안간힘, 인기척, 고가, 교과서, 체증, 효과, 신기다’의 총 24개이다. 각 어휘에 대해 보고서의 연령별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연령에 따른 경음화 강화 또는 평음화 강화 추이를 판정하기 위해 연령대를 다시 크게 만 15세~30대, 40대~60대로 양분하여 편차에 따라 젊은 연령층에서 경음화 강화 또는 평음화가 강화되는 추이를 판정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2> 한국어의 어중 경음화 추이 판정

구분			어휘	추이 판정	
				평음화	경음화
사잇소리(형태 경계)			밤새	○	
			김밥		○
			머리글	○	
			편지글		○
			장맛비	○	
			찜닭		○
			가로수 길		○
			둘레 길		○
			새우 살		○
			빨래 바구니		○
음절 경계	자음 뒤	받침 ‘ㄹ’ 뒤	길짐승		○
			날짐승		○
			물질적		○
			불법		○
		받침 ‘ㅇ’ 뒤	창고		○
			공권력	○	
	받침 ‘ㄴ’ 뒤	간단하다	○		
		안간힘	○		
		인기척	○		
	모음 뒤	고가		○	
		교과서		○	
		체증	○		
		효과		○	
굴곡			신기다	○	

24개의 조사 어휘 가운데 젊은 층에서 평음화가 강화되는 추이를 보이는 어휘는 ‘안간힘’을 포함

해 모두 9개이며, 경음화가 강화되는 추이를 보이는 어휘는 ‘빨래 바구니’를 포함해 모두 15개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볼 때는 ㄹ 받침 뒤와 모음 뒤에서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경음화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잇소리도 젊은 층에서 경음화가 강화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ㄴ 받침 뒤에서는 오히려 어중 평음화가 강화되는 것을 나타났다.

한국어에서 경음화 현상은 항상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경음화 또는 평음화 추이는 경음화가 강화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젊은 층에서 평음화가 강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일반적으로 경음화가 강화되는 것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사잇소리’, ‘ㄴ-ㄹ’ 연쇄 등 다른 발음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된 자료를 경음화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재활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방법론적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김선철(2003), 표준발음 실태 조사 II, 국립국어원.
김창영 외(2016),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국립국어원.
김창영 외(2023),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박동근(2000), 말머리에 나타나는 이유 없는 된소리 현상 연구, 언어학 27, 한국언어학회, 179-200쪽.
신지영(2011), 한국어의 말소리, 지식과 교양.
오새내(2006), 현대 국어의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은빈 외(2024), 2023년 국어사용 실태 조사(발음), 국립국어원.
이진호(2013),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한명숙(2002), 형태적 조건에 따른 경음화 현상 연구, 겨레어문학 29, 겨레어문학회, 175-200쪽.
한명숙(2024), 발음 현실과 규범으로써 복수 표준 발음의 문제, 한말연구 65권 38호, 한말연구학회, 1-28쪽.
한명숙·박동근(2012), 현대국어의 어중 경음화 약화 현상, 한말연구 30, 한말연구학회, 351-386쪽.

“한국어의 어중 경음화 현상의 변이 양상 - 메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에 대한 토론문

김연희(대진대학교)

한국어의 경음화 현상은 필연적, 보편적 경음화 현상인 ‘장애음 뒤의 경음화’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복잡한 음운 현상입니다. 게다가 조건 혹은 형태소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경음화 현상의 일반화와 규칙성 도출을 위한 의미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번 발표를 해 주신 연구자께서는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경음화 현상을 연구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제가 존경하는 전문가이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음화 현상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자께서는 ‘메타 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이번 연구를 실행하셨습니다. 발표문에 방법에 대한 소개와 이 연구 방법의 장점을 간단하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 음운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에 ‘메타 분석’ 방법을 적용하시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어중 경음화가 나타나는 어휘를 세대별로 비교 연구하셨습니다. 경음화 현상에 있어서 젊은 세대는 경음화의 비율이 높고 중년 이후의 세대는 경음화의 비율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고 또 결과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안간힘’, ‘인기척’, ‘체증’, ‘신기다’의 경우에는 40대~60대의 경음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의 예외들에서는 경음화의 변이 양상을 세대에 따라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설명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고가’와 ‘체증’의 경우 ‘고가(도로)’, ‘(교통)체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의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언중들의 발음이 경음과 평음으로 달리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께서 참고하신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에서 조사 방법을 확인하셨다면 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연구자의 논문에서 나온 ‘고가’와 ‘체증’의 경음화에 대한 상반된 결과값(‘고가’는 젊은층의 경음화가, ‘체증’은 중년 이후의 경음화가 높게 나타남)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한국어의 경음화 현상을 유형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타 분석 방법으로 얻은 결과 중 한국어 교육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연구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터 발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 읽기 전략 연구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김나라 (이화여대, 2월 박사 졸업 예정)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온라인 한국어 읽기 전략 측정 도구(Korean Online Reading Strategies Inventory, 이하 KORSI)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여 온라인 한국어 읽기 교수와 온라인 한국어 읽기 전략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학습에 대한 정보나 한국 생활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서 접하고 있다. 또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영상, 블로그, 인터넷 뉴스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읽기를 경험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에 대해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으로 댓글이나 챗봇 등을 사용하여 소통하기도 하며 자신들이 읽고 경험한 내용들을 새롭게 재생산하여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숙달도가 고려되지 않은 온라인 한국어 텍스트를 제2언어인 한국어로 읽어야 하는 언어적 부담과 함께 온라인 한국어 텍스트 요인, 한국어 기반 온라인 환경 등의 요인들로 인해 인지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학습자의 온라인 한국어 읽기 전략을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온라인 한국어 읽기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한국어 읽기 전략 측정 도구(KORSI) 개발하여 온라인 읽기 전략을 목록화하고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도구는 온라인 한국어 읽기 전략 교수와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어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재정의

한국어 기반의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안정성과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한국어로 된 정보의 검색과 탐색, 분석과 비판적 평가, 통합과 점검을 하며 소통과 재생산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2.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 요인 이론 정리 (Hobbs, 2010; Hague, C., & Payton, S, 2010; DigComp2.0, 2016; British Columbia, 2017; CFRIDiL, 2019; 교육부, 2022)

- ICT 활용기술: 디지털 기기 등 디지털 도구 사용 능력.
- 디지털 정보의 이해와 활용: 정보의 위치 탐색, 분석과 비판적 평가, 통합 및 점검, 재생산 및 공유.
-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업: 디지털 환경에서 의사소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능력.
- 디지털 안정성과 윤리: 정보의 관리, 디지털 준법 의식, 개인 정보 보호, 디지털 시민 의식.

2.3. 제2언어 학습자의 읽기 이론

- 제2언어 읽기의 보완 모형: 읽기는 상호 작용하는 과정으로 독자와 텍스트, 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읽기 기술과의 상호 작용 혹은 저자와 독자의 상호 작용으로 봄(Silberstein, 1994; Grabe, 1991; cohen, 1990).
- 온라인 텍스트의 특성: 복합 양식성, 상호작용성, 하이퍼텍스트성

2.4.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읽기 전략 이론

- 구성적 반응적 읽기 모델(조병명, 2011).
- 온라인 읽기 전략 측정 도구: SORS(Mokhtari- Sheorey,2002b), OSORS(Anderson, 2003), SLORSI(Li, 2020).

3. 연구 방법 및 대상

3.1. 실험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는 숙달도 검정을 거쳐 중급 60명, 고급 110명, 20~40대로 총 170명이 참여하였다.

3.2. 연구 방법

(1) 1차 온라인 한국어 읽기 전략 측정 도구 항목 개발

- 총 4개의 읽기 전략 측정 도구(SORS, OSORS, MARS, SLORSI)와 온라인 읽기 전략 연구(Coiro & Dobler, 2007; Leu et al,2007; 조병명, 2012),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도구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전략 유형과 세부 항목을 목록화함.
- 1차와 2차 전문가 검토, 예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도구로 사용될 9개의 전략 유형과 59개의 세부 항목이 도출됨.

(2) 온라인 한국어 읽기 전략 측정 도구(KORSI)의 타당성 검증 단계

- 측정 도구: Jamovi 2.3.28, Amos

연구 절차	타당성 기준	비고
기술 통계	정규성 검토, 신뢰도, 상관 분석	왜도와 첨도, 신뢰도, 다중공선성 조건 충족 여부
탐색적 요인분석 (EFA)	적합도(KMO, Bartlett 구형성 검정, RMSEA) 요인 부하량 확인	측정 도구(KORSI)의 영역별 분석 결과 11개의 전략 유형, 54개의 세부 전략 귀납적 도출
확인적 요인 분석 (CFA)	적합도(TLI, CFI, 카이제곱, RMSEA), 집중 타당도(요인 부하량, 유의성, AVE, C.R) 판별 타당도(AVE > ϕ2) 법칙 타당도(측정변수 간 관계의 방향성)	기술 지원 영역에서 읽기 기술 지원 전략 타당성 조건에 부적합, 소통과 공유 지원 전략은 2개의 요인만 남아 3개 이상의 측정변수여야 하는 조건에 부적합하여 2차 CFA에서 조정
측정 동일성 검증	5단계 제약 모형에서 적합도(TLI, CFI, 카이제곱, RMSEA) 지수 확인	숙달도별 집단의 응답 결과에 대한 측정 동일성 검증 조건 여부 충족

4. 연구 결과 및 함의

4.1. 분석 결과

-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리된 1차 온라인 한국어 읽기 전략 측정 도구(9개의 전략 유형, 59개의 세부 항목)를 완성하여 170명의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함.
-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11개의 전략 유형, 54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됨.
- 탐색적 요인 분석의 분류 결과를 근거로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 분석과 측정 동일성 검증을 한 결과, 타당성 조건을 충족하는 9개의 전략 유형과 34개의 세부 항목으로 최종 도출됨.

4.2. 온라인 한국어 읽기 전략 측정 도구의 최종 구성

- 읽기 지원 영역: 읽기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자원을 의미하며 기억과 저장 전략 유형에 4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 온라인 한국어 읽기 이해 영역: 읽기 이해의 과정에서 필요한 4개의 전략 유형으로 구성됨. 검색과 탐색 전략, 통합 전략, 분석과 비판적 평가 전략, 점검 전략이며 총 16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
- 온라인 한국어 읽기 매개 활용: 온라인 한국어 텍스트를 매개로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소통과 협업 전략, 공유와 재생산 전략 유형에서 8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 디지털 안정성과 윤리적 사용: 온라인 읽기 과정 운영 전반에 필요한 영역으로 디지털 안정성 전략, 디지털 윤리와 태도 전략에서 6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4.3. 의의: 본고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육에서 온라인 한국어 읽기 전략 측정 도구는 타당성을 갖춘 초기 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온라인 한국어 읽기 전략 교수와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한중 언어 교류의 한 고찰

-역병(疫病)류 어휘를 중심으로-

ZHANG MI (경희대, 박사수료)

1. 연구 목적 및 배경

전염병은 고대 뿐만 아니라 의료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질병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중세 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역사를 가장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이며 그에 실린 일반적인 전염병 명칭만 하더라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疫'자가 포함되어 있다. 전염병 관련 어휘를 한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돌림병' 등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자어임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오랜 문화적 교류 과정을 고려할 때 이는 중국어가 한자어를 통해 한국어에 영향을 미친 까닭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 전통 어휘가 담긴 『조선왕조실록』을 기초 자료로 하여 거기에 나타난 '전염병'류 어휘군의 명칭들이 중국어에서의 '전염병'류 어휘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언어 교류의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일반적인 '전염병'류 어휘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다양한 별칭이 고대 중국어의 '전염병'류 어휘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일반 전염병과 관련된 어휘를 수집하여 그들의 사용빈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전염병'류 어휘 정리:
 怪疾(24), 邁癘(36건), 疫(1639건), 大疫(51건), 癘疫(968건), 疫癘(39건), 癘瘧(30건), 染(23건), 染病(179건) 및 癘氣(105건), 疫疾(32건), 疫患(4건), 染疫(2건), 染疾(23건), 染癘(26건), 染患(11건), 傳染(96건), 傳染病(7건), 疾癘(9건), 疾疫(128), 癘瘧(1건), 患染(5건), 薰染(66건), 時氣(99건), 時令(153건), 時病(201건), 時患(6건), 惡病(39), 惡疾(92)...

(1)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 시기 '전염병'과 관련된 어휘 4,094항목 가운데 '疫(역)'이 1,639건(40%)이고 '癘疫(여역)'이 968건(23.6%)으로 이 두 단어가 전체의 63.6%를 차지함(전체의 약 2/3)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핵심은 이 두 한자어 '疫(역)'과 '癘疫(여역)'이 한국의 역사 문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 단어가 중국 고전 문헌 자료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통해 그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 핵심

한국에서 '역(疫)'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백제 온조왕 4년(기원전 14년)〉조 기록에서 확인된다.

(2) 『溫祚』四年 春夏 旱 餓疫(온조왕) 4년 봄여름 동안 가뭄이 들어 기아가 심해졌다.) 신동원(2013:195)에 따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疫'은 전염병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이(災異)의 하나로 파악된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에서 '疫'에 대한 기록은 선진(先秦)시기의 문헌에서부터 언급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후한(後漢) 허신(許慎)의 『說文解字(설문해자)』(100~121년)에서 '疫(역)'은 '民皆疾也(은 백성이 다 병에 걸리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보면 '뿔(개, 다)'라는 의미에 따라 '疫(역)'은 어느 정도 '집단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疫)'의 특징인 '전염성'이 본격적으로 기록된 시기는 적어도 수(隋)나라(581-618년) 이후의 일이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서 '역(疫)'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여역(癘疫)'인데 이와 유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 '역려(疫癘)'와의 용법이 주목된다. 총 사용빈도가 39건에 그친 '역려(疫癘)'는 '여역(癘疫)'에 비하면 그다지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어 역사 문헌 속 기록에 따르면 '역려(疫癘)'는 주로 15~18세기의 문헌에 사용되었고 18세기 이후에는 '여역(癘疫)'이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초기 중국어에서 '癘'는 '疫'의 개념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어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한(漢)나라 후기부터 '癘(려)'와 '疫(역)'의 의미가 점차 일치되고 대부분의 문헌에서 '疫癘(역려)'가 한 단어로 사용되기에 이른다. 이후의 중국어 고전 의학서를 찾아보면 18세기 이전에는 주로 '疫癘(역려)'로 사용되다가 명청(明清) 시기 이후에, 특히 청나라의 『의종금감(醫宗金鑑)』과 같은 문헌에서부터 어순을 바꿔 '癘疫(여역)'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4. 연구 결과 및 함의

정리하자면 고대에 활발하게 사용되던 '전염병'류 단어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역(疫)'이라는 개념어는 한국에서든 중국에서든 일찍부터 기록되어 왔지만 한국어의 초기부터 '疫'이 '전염병'으로 인식되어 유입된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수(隋)나라(581-618년) 이후부터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적어도 고려 시대에 와서야 이 용법이 확인된다. 그리고 중국 명청(明清) 시기의 문헌에서 '疫'에 대한 설명에 '傳染'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 한국어에서도 '던심(傳染)'은 16세기 『번역소학』같은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한편 어휘적으로 보면, 유의어인 '여역(癘疫)'과 '역려(疫癘)'라는 단어의 출현과 사용도 한국이나 중국이 비슷한 상황을 보인다. 즉, 두 나라 모두 18세기 이전에는 '역려(疫癘)'를 사용하다가 이후에는 '여역(癘疫)'을 많이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염병 개념에 대한 인지와 전염병 관련 어휘의 사용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간에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언어가 오랫동안의 교류(문화 교류, 교역 심지어 고대로부터의 전쟁 등)로 인해 전염병 관련 언어가 전파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를 두 언어간 접촉 현상의 하나로 보고, 한국어의 전염병 어휘 뿐만 아니라 질병 어휘 한자어 전반으로 확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약을 기반으로 한 문법형태소

-선어말어미를 중심으로-

이몽여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2학기)

1. 연구 목적 및 배경

본고는 한국어 문법 형태소가 가진 제약을 중심으로 삼아 선어말어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이런 언어의 보편적 현상을 재분석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에 새로운 기여를 풀어놓는 데에 있다.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어근(語根, root word)에 접사(接辭, affix)가 결합하여 단어의 기능이나 의미가 변화하는 형태의 언어이다. 즉 하나의 낱말(엄밀히는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어근(root, 혹은 어간(stem))과 각각 단일한 기능을 가지는 하나 이상의 접사(affix)로 이루어져 있는 언어를 말한다. 또한 어간과 접사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할 수 있고, 하나의 접사가 대체로 하나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체언에 조사를 붙이거나, 용언 어간에 어미를 여러 개 붙여서 문법을 표시하는 현상은 매우 규칙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런 조사나 어미를 붙이는 경우 모든 조사, 모든 어미와 결합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고 특정한 하나 혹은 소수의 조사나 어미와만 결합하는 제약을 보이는 것이 있다. 한편, 그동안 연구들은 대부분 문법 형태소의 의미와 특징을 중심으로 삼아 해당 형태소의 부수적인 제약을 살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의미와 기능도 중요하지만 활용적인 측면에서 '제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제약을 중심으로 삼아 한국어 선어말어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 문법 형태소가 가진 제약을 전연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각 제약에 있어 어떤 선어 어미가 있는지를, 그의 형태와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언어의 보편적 현상을 정리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해 어떤 시사점을 가져 올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다.



2. 이론적 배경

한국어의 '어미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고립어인 중국어는 한국어처럼 어미 체계가 발달하지 않으므로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어의 어미는 위치에 따라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뉜다. 그 중에 선어말 어미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고, 시제·상·서법 범주에서 가장 복잡한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물론 각각의 의미기능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약을 숙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서는 먼저 선어말 어미의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에 한국어 동사적 제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어말어미는 종래 보조어간(補助語幹)이라고 불려 왔던 형태소다. 현재 보조어간이라는 용어 대신 선어말어미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본고에서는 '선어말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선어말어미는 보조어간이라 했던 건해는 최현배(1959), 김형규(1977) 등이 있다. 최현배(1959)는 『우리말본』 개정판에서 보조어간(補助語幹)을 음직씨(動詞)의 도움중기로 설명하여 10개의 보조어간(補助語幹) 유형(서동, 피동, 겸비, 능임, 시간, 가능, 추량, 확인, 습근, 강제)을 제시하였다. 김형규(1977)는 『國語學概論』(중보판)에서 최현배의 보조어간 유형 중, 사동과 피동은 접사(接辭)로 규정하여 보조어간에서 분리하고, 나머지 유형은 시제(時制)와 상(相), 존대(尊待)의 보조어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선어말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어말어미(語末語尾) 사이에 나타난다. 용언이 활용될 때 용언의 어간에서 가장 먼 거리에 나타나는 문법형태소를 어말 어미(final ending)라고 하는 데 대하여 선어말어미(prefinal ending)는 그 출현 위치로 보아 어말어미보다는 선행하는 위치에 나타나는 문법형태소를 말한다. 선어말어미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는 '앞으시었겠사옵나이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주제준대법이나 존경법 형태라고 하는 '으시'가 가장 앞선 위치에 나타나며, 과거시제 또는 원형상을 나타낸다고 하는 '았'이나 과거원료나 대과거를 나타낸다고 하는 '았' '았'이 그 다음 위치에 나타날 수 있고, 그 뒤에 미래시제나 추측 상을 나타낸다고 하는 '겠' '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다시 그 뒤에 경량형태 '삼'이 나타날 수 있고, 다시 그 뒤에 진행상이나 현재시제를 나타낸다고 하는 '느'가 올 수 있고, 그 뒤에 철저대우 또는 공손의 형태라고 하는 '으시'가 나타날 수 있다. '느'의 자리에는 '다'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선어말어미 형태의 종류는 더 많아진다. 본고에서는 '-았', '-겠', '-느', '-는', '-다', '-으시', '-았', '-았'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언어학적으로 제약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선택된 언어요소 가 가능한 언어모임에서 그 뒤의 실현될 언어모임에 대한 필연적인 요구나 금지관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다시 말해 어떤 요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서 뒤에 따른 요소가 그 점에서 배제되거나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한 단어의 존재는 다음에 올 단어의 출현가능성을 좌우하는 조건으로도 된다. 한국어 통사론(syntax)은 단어(word)와 단어가 모여서 구(phrase)를 형성하고, 다시 구와 구가 모여서 올바른 문장을 구성(formulation of sentences)하는 것을 연구하는, 즉 문장의 구조(structure of sentence)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문장이 구성요소의 연속체(syntagm)라면 필연적으로 순서와 요구되는 성분은 존재한다. 이는 언어가 갖는 특징에 차이가 있었지만 어느 형태로든 제약(制約)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한 언어에서 제약이 특정 형식으로 실현되었을 때 이것을 동사적 제약(統制的 制約)이라 한다. 바꿔 말하면 동사적 제약은 문법적인 문장을 생성하고, 비문법적인 문장의 생성을 막아주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남기삼·고영근(1993)은 동사적 제약 문법형태소를 핵심적 요소와 요소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핵심적 요소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시제, 문장 유형' 등이 있고 비핵심적 요소는 '서법부사어, 정도부사어, 시간부사어, 처소부사어' 등이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동사적 제약의 유형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인칭 제약, 2)인칭 제약, 3)인칭 제약, 4)문장유형 제약: 평서문 제약, 의문문 제약, 원문문 제약, 명령문 제약, 감탄문 제약, 5)선행 동사 제약, 6)어미 제약.

3. 연구 방법 및 대상

본고에서는 선어말어미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여 체계화 작업을 진행했고 선어말어미의 동사적 제약에 대한 배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약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어말어미가 가진 문법 범주를 논의하면서 각 제약이 어떤 선어말어미에 작용하는지에 대해 배운을 제시해서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인칭 제약
 - 가. 끝소는 이 말을 할 것이다. (의지 서) - (추측 ○)
 - 나. 끝소는 이 말을 할 것이다. (의지 ○)
 - 다. 나는 안물을 많이 만드신다. (배가 아파요. ○)
 - 라. 나는 안물을 많이 만드신다. (배가 아파요. ○)
 - 마. 나는 놀이공원에 갔었다. (○)
 - 바. 나는 어제 밤에 꿈에서 놀이공원에 갔었다. (○)
 - 사. 끝소는 이렇게 예쁜 여자가 출된다. (○)
 - 아. 나는 이렇게 예쁜 여자가 출된다. (○)
 - (2) 서술어 제약
 - 가. 내가 날리면 연쁘겠다. (행용사) (의지 서) - (추측 ○)
 - 나. 나는 내 생황이 출실하겠다. (행용사) (의지 ○)
 - (3) 시제 제약
 - 가. 나는 어제 식당에 갔었다. (의지 서) - (추측 ○) (과거시제 제약)
 - 나. 나는 어제 식당에 갔었다. (의지 ○)
 - 다. 가께요. 코르노 아무도 없을 것이다. (행용 사) (후행할 미래시제 제약)
 - (4) 문장유형 제약
 - 가. 내일 회사에 갔었다. (행용문) (○)
 - 나. 어제 반바지에 나갔었다. (행용문) (○)
 - 다. 우리는 미술관에 갔었다. (행용문) (○)
 - 라. 미술관에 갔었다. (행용문) (○)
 - (5) 선행 동사 제약
 - 가. 이것이 내가 초등학생 때 쓰던 의자이다. (○) (리소동사)
 - 나. 강가에 걸리던 사안이 지어요. (○) (소근동사)
 - (6) 어미 제약
 - 가. 아까 멋진 수백은 어디 갔어요? (○) (명령문)
 - 나. 아까 멋진 수백은 어디 갔어요? (○) (명령문)
- 예시를 들면서 해당 선어말어미가 어떤 제약을 받는지, 왜 이런 제약을 받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제약을 통해 선어말어미를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주요 연구방법이다.

4. 연구 결과 및 함의

본고는 한국어 문법 형태소가 가진 제약을 중심으로 삼아 선어말어미를 분석했다.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는 선어말어미의 의미와 통사적 제약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선어말어미의 의미 범주를 논의하면서 각 제약이 어떤 선어말어미에 작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해당 선어말어미가 어떤 제약을 받는지, 왜 이런 제약을 받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언어의 보편적 현상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을 위해 어떤 시사점을 가져 올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절 표시 오류 분석



이은정 (제주대, 석사과정 3학기)

1. 연구 목적 및 배경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명사절 표지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를 바탕으로 명사절 표지를 학습할 때의 난점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연구 배경

명사절 표지와 관련하여 최근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으)ㄴ’과 ‘-기’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명사절 표지에 대한 오류를 일으키도록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를 바탕으로 어떠한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적인 표지로는 ‘-(으)ㄴ’과 ‘-기’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으)ㄴ’이나 ‘-기’에 의한 명사절보다는 ‘-ㄴ 것’에 의한 명사절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절 표시 오류 분석 대상으로 ‘-(으)ㄴ’, ‘-기’ 뿐만 아니라 ‘-ㄴ 것’을 포함시켜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대상

■ 연구 대상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가 범한 명사절 표시 오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국립국어원은 ‘-(으)ㄴ’, ‘-기’와 관련된 한국어 학습자들의 오류로 1,173개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1,173개 중 ‘-(으)ㄴ’, ‘-기’와 관련되지 않은 오류의 경우, 중간 발음으로 인해 오류문만으로 어떠한 오류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같은 오류문이 중복 사용된 경우와 구어 자료 중 학습자가 말을 더듬어 2개 이상의 오류로 판단한 경우는 하나의 오류로 보았다. 그리하여 ‘-(으)ㄴ’과 관련된 오류문 107개, ‘-기’와 관련된 오류문 990개, 총 1,097개의 오류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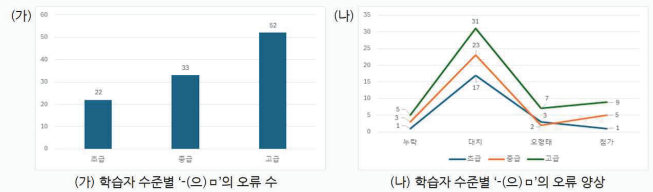
■ 연구 방법

1,097개의 오류문을 ‘누락’, ‘대치’, ‘오형태’, ‘첨가’로 분류하여 그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누락’은 명사절 표지가 들어가야 하지만 생략된 경우, ‘대치’는 명사절 표지가 아닌 다른 문법 항목이 들어가는 경우, ‘첨가’는 명사절 표지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아니지만 들어간 경우, ‘오형태’는 그 외의 경우를 의미한다.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명사절 표지와 관련된 오류문은 ‘-(으)ㄴ’과 ‘-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ㄴ 것’의 오류는 ‘-(으)ㄴ’과 ‘-기’의 오류문을 바탕으로 ‘-(으)ㄴ’, ‘-기’와 ‘-ㄴ 것’을 혼용한 경우를 살핀다.

3. 연구 결과 및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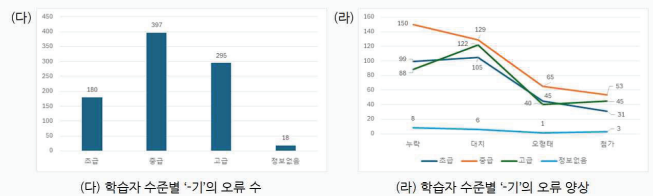
■ ‘-(으)ㄴ’의 오류 분석



학습자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으)ㄴ’에 대한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학습자들이 범한 ‘-(으)ㄴ’의 오류 양상은 ‘대치>첨가>오형태>누락’ 순으로 나타나며, 모든 급수의 학습자들이 자주 일으키는 오류 양상은 ‘대치’이다.

‘대치’ 오류와 관련하여 모든 급수의 학습자들은 ‘-(으)ㄴ’을 관형사형 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로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어미를 접하지만 각각의 어미들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으)ㄴ’에 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전에 학습한 어미와 새로 학습할 어미를 비교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 ‘-기’의 오류 분석



‘-기’의 오류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오류율이 초급, 고급 학습자보다 중급 학습자가 더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초급, 고급 단계에서는 ‘대치’ 오류가 자주 발생하지만, 중급 단계에서는 ‘누락’ 오류가 많이 일어난다.

‘-기’의 오류문을 살펴본 결과 주로 중급 단계에서 학습하는 ‘-기 때문이다’, ‘-기 위해서’, ‘-기보다’, ‘-기 전에’ 등에 대한 오류가 많았다. 그러므로 학습자 수준에 따라 중급 단계에서 한꺼번에 배우는 ‘-기’가 포함된 여러 문법 항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ㄴ 것’의 오류 분석

‘-(으)ㄴ’과 ‘-기’의 대치 오류 433개 중 ‘-(으)ㄴ’을 ‘-ㄴ 것’으로 바꾸어 표현해야 하는 오류는 8개, ‘-기’를 ‘-ㄴ 것’으로 바꾸어 표현해야 하는 오류는 145개다. 특히 ‘-기’를 ‘-ㄴ 것’으로 바꾸어야 하는 오류는 ‘-기’ 대치 오류의 40.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오류는 교육 현장에서 ‘-(으)ㄴ’과 ‘-기’만을 명사절 표지로 가르치기 때문에 발생한다. ‘-ㄴ 것’을 명사절 표지로 가르칠 경우 학습자들은 ‘-(으)ㄴ’과 ‘-기’만이 아닌 ‘-ㄴ 것’을 통해 명사절을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 나타난 어휘 연구

-특이성을 보이는 용언을 중심으로-

강선지 (제주대, 박사과정 2학기)

1. 연구 목적 및 배경

이 연구는 16세기 언간인,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 나타난 어휘들 중 용언을 중심으로 살펴봄에 타 문헌자료나 언간과는 다른 『순천김씨묘출토언간』만의 어휘적 특이성을 확인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언간은 다른 문헌자료와는 달리 생활, 문화, 복식, 개인의 정서 등 미시적인 모습들을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어휘 연구는 언간에 나타난 이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용언은 문장의 서술어와 수식어로 쓰이며, 문장을 서술해 주거나 특정 성분이나 문장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문장의 이해와 표현을 정밀하게 할 수 있는 품사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어휘적 특이성을 고찰한 연구들은 많지만, 본 언간만을 한정하여 어휘를 고찰한 연구는 미미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 나타난 어휘들을 용언을 중심으로 살펴봄에 『순천김씨묘출토언간』만의 어휘적 특이성을 확인해 보겠다.

2. 연구 방법 및 대상

『순천김씨묘출토언간』은 1977년 청주 공항 건설로 인해 당시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외남리 금천 석병산에 있는 묘를 이장하면서 발견되었다. 관 안에는 의복 10점, 만장(輓章) 3점 외에 돗자리, 표주박, 목관, 은장도가 각 1점씩 있었고, 192점의 편지가 출토되었다. 체백(體魄)과 관곽(棺槨) 사이의 공간에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는데, 이것들이 출토된 192점의 편지였고, 이 중 3장은 한문 편지, 189장은 한글편지이다. 본 언간의 발수신자는 모두 가족 간으로 가족 간에 사용하는 어휘의 모습이나, 지역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어휘, 개인적 특징이 드러나는 어휘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본 언간 189장에 나타난 용언을 모두 검토하여 그 중 특이성이 있는 어휘를 추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함의

① 격하다: 무관심하다

ㄱ. 나도 어제 막그미드려 ㄱ장 교슈^ㅎ연누니 내 말웃 격^ㅎ여드르면 내 우여니 설온가 <순언-140>

앞뒤 문맥상, 화자는 '막금이'에게 어떤 훈계를 하였고, 격하여 듣는다면 내가 매우 서러울 것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무관심하게' 혹은 '냉담하게'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나도 어제 막금에게 충분히 가르쳤으니, 내 말을 무관심하게 들으면 내가 얼마나 서럽겠는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의미는 감정적,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사이를 두다.'의 의미인 '격(隔)하다'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격(隔)하다'는 통사적으로 부사격 조사 '-와(과)'가 나타나거나, 혹은 주어와 복수여야 한다. 하지만 위의 예에서는 '-와(과)'나 '복수 주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예문의 '격하다'는 '떨어지다'의 의미보다는 '무관심하다', '신경을 덜 쓰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판단된다.

② 차망되다: 부족하다

ㄱ. 강서방순디 가는 존 디히를 엷디 그리 차망되게^ㅎ여 보내시고<순언-002>
'차망되다'는 사용양상이 본 한글편지 외에는 관찰되지 않는 어휘여서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맥적 의미로 보았을 때, '탐탁지 않다', '미흡하다', '부족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로 추정한다. 즉, ㄱ은 '강서방에게 가는 잔 김치를 어찌 그리 부족하게하여 보내시는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차망되다'는 '차망+-되다'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되다'는 피동을 만드는 접미사로서의 역할과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의 역할을 한다. 문맥상 '차망되다'는 동사보다 형용사일 가능성이 있어, 이때 '-되다'는 형용사 파생접미사라 여겨진다.

③ 좃다: 겸하다

ㄱ. 무명 두 필 조차다가주고 브티라 ^ㅎ신다<순언-068>
위 예문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쓴 편지이다. 예문의 앞 내용을 보면 '이개가 만장(挽章)을 아주버님께 의논하여서 하도록 맡기도록 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할 때, ㄱ은 '무명 두 필 겸하여주고 붙이라고 신다.'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제주 방언에 '좃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겸하다', '결들이다'의 의미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④ 영영하다: 편안하다

ㄱ. 몸 브리니는 괴오니 영영^ㅎ가 <순언-053>
위 예문에서 발신자는 어머니이고 수신자는 딸인데, 딸이 해산을 하였고, 딸의 안부를 걱정하면서 쓴 편지이다. 현대국어의 '영영하다'의 의미와는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해산을 한 딸의 안부를 묻고 있으므로, 이때 '영영^ㅎ다'가 '寗寗^ㅎ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추정해 본다. 이에 따라 '해산한 이는 기운이 편안한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어멀다: 부족하다

ㄱ. 이리 오니 주거도 니를 거시 하 어멀고 <순언-149>
15세기에 '어머리'는 '아주 크게', '아주 멀리'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17세기까지 '멀리'를 '머리'로 표기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때 '어-'를 접두사로 볼 가능성이 있다. 즉, '심히게'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인 것이다. 그러하다면 '어멀다'는 '아주 멀다/아주 크다'의 의미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 한글편지에서 관찰된 '어멀다'는 주변 의미로 사용되어 '(나와는) 아주 관련성이 없다'의 의미이지 않을까 한다.
이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언간에 사용된 어휘는 간본자료보다 이른 시기 사용양상을 보인대거나 특이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